

I . 보건 · 여가

1.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건강관련 행태의 차이
2. 청소년의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수준 및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

강영호 (울산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I. 서 론

1. 청소년기에도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낮은 사회계층의 건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 수준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최근 영국 보건부가 설정한 주요 건강목표는 “(1) 최빈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2) 건강 불평등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고(U.K. Department of Health, 1999), 미국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2010년까지 달성해야 할 핵심적 건강목표로 “성, 인종, 교육 수준, 소득수준, 지역 등에 따른 건강 불평등의 제거를 설정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

건강 불평등을 다룬 많은 연구 결과들은 공중보건 영역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특히 영유아기와 장년기의 경우, 건강 수준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모든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영유아기와 장년기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다(박형

중, 1962; 박재영, 1980; Kim, 1990; 조홍준, 1997; Song & Byeon, 2000; Son, 2001; Khang et al, 2004; 강영호, 2004; 손미아, 2004; 김일호 등, 2004).

하지만 영유아기와 장년기의 중간 이행기인 청소년기의 경우,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쟁은 청소년기에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에 의하여 촉발되었다(West, 1988; West et al, 1990; Macintyre & West, 1991; Power, 1991; Ostberg & Vagero, 1991; Glendinning et al, 1992; Anderson et al, 1994; Williams et al, 1996). 이들은 대체로 영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다. 이들 연구 결과들은 왜 청소년기에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이 감소 또는 사라지는가에 대한 논리를 요구하였다. 청소년기 건강상의 균등화(equalization)를 확인한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자립성향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감소, 증가하는 동료 집단의 역할을 이유로 들었다. West(1997)는 영유아기부터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만성 질환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발견되지만,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건강 문제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논리의 토대를 두고, 청소년기의 학교, 동료집단, 청소년 문화의 영향력으로 인한 동질화(homogenising effect) 현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Williams 등(1996)은 청소년기 총 손상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없는 한편, 손상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현상(낮은 사회계층에서는 보행중이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싸움으로 인한 손상이 높은 반면, 높은 사회계층에서는 스포츠 손상이나 학교에서의 손상, 자동차 운행중의 손상이 많은 현상)을 발견하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가족 밖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의 한 연구에서도 킥보드/인라인 스케이트 사고 발생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빈번한 양상이었다(김주형 등, 2002). 청소년기 건강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Starfield

등(2002)은 다른 입장을 취하였는데, 청소년기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발생 빈도에서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건강 문제의 심각성에서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크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릴 적부터 의학적 개입을 통하여 질병의 진전을 막는다면 청소년기 또는 그 이후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청소년기에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이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반하는 연구들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Lipman et al, 1994; Goodman, 1999; Halldorsson et al, 2000; Goodman & Huang, 2002; Starfield et al, 2002; Goodman et al, 2003; Newacheck et al, 2003; Torsheim et al, 2004). 하지만, 이들 연구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성별, 인종별, 결과변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Goodman et al, 1997; Goodman, 1999; Goodman & Huang, 2002). 직업계층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수준 인지 척도는 남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고(Goodman et al, 1997), 흡연의 경우 교육수준과 청소년 흡연의 관련성은 백인과 다른 인종에서 반대의 양상이었다(Goodman & Huang, 2002). 자가 평가 건강수준, 우울 정도, 비만은 일관되게 낮은 사회계층에 불리한 불평등 양상을 보였지만, 자살 기도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Goodman, 1999). 스웨덴의 1~19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망률에서의 직업계층별 사망률을 비교한 Vagero와 Ostberg의 연구(1989)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도 직업계층별 사망률 차이가 존재하지만, 영유아기에 비하여 청소년기의 사망률 차이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몇 가지 연구 방법론적 문제가 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건강 수준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시기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상의 차이를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사망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망률에서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건강 수준이 좋다는 일종의 선입관이 이들 연령대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게 한 요인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청소년이 보고한 부모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은 부정확할 가능성이 많거나(Currie et al, 1997; Goodman et al, 2000), 정보가 제대로 수집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Williams et al, 1996; Currie et al, 1997; Tuinstra et al, 1998; Goodman, 1999; Ensminger et al, 2000; Lien et al, 2001; Wardle et al, 2002). 대체로 청소년 자신이 보고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이 뚜렷하지 않은데 반해, 부모로부터 사회경제적 위치 정보를 얻은 연구들(Goodman, 1999; Halldorsson et al, 2000)에서는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이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후기에서 청년기 초기(10대 후반~20대 초반)에 본인이 획득한 사회경제적 위치가 부모의 그것보다 건강 수준과의 관련성이 더욱 뚜렷하다는 연구들도 있다(Glending et al, 1992; Glending et al, 1994; Karvonen et al, 1999). 청소년기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이외의 다른 지표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Family Affluence Scale(예 : 자기 침대방 유무, 자동차수, 컴퓨터수, 가족 휴가 횟수)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Williams et al, 1996; Wardle et al, 2002; Holstein et al, 2004).

2.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청소년기 건강과 건강행태 문제의 중요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청소년기의 건강과 건강 행태의 문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하

였듯이, 그간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건강한 시기로 생각되면서 청소년기에 대한 의학 및 공중보건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Starfield 등(2002)은 청소년에서의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 수준의 불평등 연구가 양적으로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분야 연구를 위한 개념적 모형의 개발과 청소년기 사회계층의 측정 활동, 구조적(contextual) 변수와 종단면적 연구 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청소년기는 대부분의 건강 관련 행태가 결정되는 시기이며, 주요한 사회경제적 위치도 이 시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도 커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위치와 청소년의 건강 관련 행태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은 수가 아니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Nutbeam et al, 1989; Lowry et al, 1996; Petridou et al, 1997). 물론 최근 들어 세계 36개 국가가 참여(2001/2002년 조사의 경우)하는 WHO의 국제협동연구인 HBSC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다양한 측면의 청소년의 건강 관련 행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Currie et al, 2000; <http://www.hbsc.org/>). 건강 수준 지표에 비하여 건강 행태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비교적 뚜렷한 양상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어떠한 행태를 결과 변수로 하느냐,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에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요인별 청소년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 연구

영유아와 성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별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의 불평등 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건강 관련 행태보다는 건강 수준에서의 불평등 양상을 기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적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에서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수준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는 서울시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학생 3060명을 대상으로 한 장영미(2000)의 연구가 주목할만 하다. 연구 결과, 학생이 보고한 가계의 경제상황과 학생의 성적이 좋지 않을수록 스스로 인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나빴으며, 스스로 인지한 정신적 건강 수준은 부모의 학력과도 관련성을 보였다. 하지만, 가계의 경제상황,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학교 성적 모두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건강에 대한 걱정 수준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신체 증상과 정신건강 지표(편집증, 정신증, 적대감), 삶의 질 지표에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차이도 보았는데, 신체 증상의 경우, 가계의 경제상황과 학교 성적과는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아버지의 학력 및 어머니의 학력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신건강 지표는 아버지의 학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관련성을 보였고, 삶의 질 항목의 경우, 네 가지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 결과와 달리 송미령 등(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및 삶의 질 척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장은진 등(2001)은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에서의 우울 정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가 심하다고 보고하였다. 김현숙(1998)은 890명의 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계의 경제상태나 부모의 학력, 직업에 따라 심리상태,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를 보고한 바 있다.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관련 행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5937명의 중고등학교생(12~19세)을 대상으로 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가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이종원 등, 2001). 이 연구에서는 부친의 학력과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정의 생활수준 점수를 이용하여 사회계층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음주, 흡연, 이성친구와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 폭행, 자살시도와 같은 행태들은 하위 사회계층에서 많은 반면, 친구따돌리기(왕따)는 상위 사회계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층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경우, 1756명의 우리 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04)의 연구 결과도 흥미로운데, 높은 사회계층일수록 집단따돌림을 하는 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는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한 이선영과 이시백(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과 학력, 가정의 경제상황과 흡연과는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용돈이 많을수록, 학업성적이 나쁠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옥(2003)의 연구에서도 중학생 및 고등학생 모두 학교 성적이 나쁠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760명의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수진(1996)의 연구에서도 강제상태와 부모의 학력, 학업성적에 따른 건강 관련 행태의 관련성을 다룬 바 있다.

기존 연구들이 우리 나라의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건강(및 건강 관련 행태) 불평등에 대한 매우 유용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 또는 제한점도 갖고 있다. 첫째, 다양한 측면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 양상이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들은 청소년 자신의 보고에 의한 것으로 부모로부터 직접 얻은 경우는 드물다. 이는 청소년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대한 논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일부 연구 표본의 경우 전국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의 경우, 남자 또는 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거나 남녀를 별도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성별을 통제변수로 사용함으로써 남녀에서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의 관련성이 남녀별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셋째,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를 주된 연구 관심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특정한 심리사회적 요소(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등)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통제변수로서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 또는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 자체가 주된 관심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

II.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남녀 청소년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수집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부모의 학력, 직업계층, 평균 수입, 평균 사교육비, 주택 소유형태)와 청소년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사회경제적 위치(희망 교육수준, 학업 성적, 집안 경제사정) 지표에 따라 건강(자기평가 건강 상태, 심리적/정신적 문제, 소외감, 삶에 대한 만족도, 스트레스) 및 건강 관련 행태(흡연, 음주, 성관계, 폭행, 집단따돌림 등)의 차이를 남녀별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이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3년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의 104개 중학교 2학년 학생 3,4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1차년도 자료이다(이경상 등, 2003). 이 자료는 2003년도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뽑힌 3,697명의 청소년들과 그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당초 추출된 학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대체 학교를 결정하여 대체하는 조사 방식을 취하였는데, 33.7%의 학교(35개 학교)가 1차 조사에서 거부를 하여 사전에 설정된 대체 2, 3순위 학교로 대체되었다. 학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6.7%를 제외하여 조사 성공률(한 학생에 대한 학생 조사와 학부모 조사가 set로 모두 이루어진 경우)은 93.3%이었다.

2.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청소년에서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는 (1) 부모의 학력, (2) 아버지의 직업계층, (3) 가족의 월 평균 수입, (4) 학생에 대한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5) 거주주택 소유형태, (6) 본인의 진학 희망 교육수준, (7) 본인의 학업 성취도(성적), (8)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이었다. (1)~(5)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

여 얻었고, (6)~(8)은 학생 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이분형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서 얻은 결과보다는 계단형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서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더 크므로(Starfield et al, 2002), 서열화가 가능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들은 가능한 계단형이 되도록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를 구성하였다. 한 집단의 표본수를 고려하여 (1) 부모의 학력, (3) 가족의 월 평균 수입, (4) 학생에 대한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6) 본인의 진학 희망 교육수준, (7) 본인의 학업 성취도, (8)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3단계로 나누었다.

(1)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중에서 높은 학력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다른 연구에서도 사용한 바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 분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의 (2)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의사, 변호사, 교사, 교수 등의 전문직, 경영주 및 회사 간부급 이상, 고급 공무원 등을 상위 직업계층, 일반 공무원, 회사원, 판매 및 서비스직 종사자, 하위 관리직 종사자와 육체노동자를 하위 직업계층으로 분류하였고, 주부, 무직, 학생, 퇴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기타 군으로 분류하였다. (3)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학부모가 보고한 월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상하위 25%(200만원 미만과 351만원 이상)와 중위 50%(200만원 이상~350만원)의 3개 군으로 나누었다. (4) 학생에 대한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학부모가 보고한 지난 1년 기준 한달 평균 사교육비를 바탕으로 소득과 유사하게 상하위 25%(10만원 미만과 31만원 이상)와 중위 50%(10만원 이상~30만원)의 3개 군으로 나누었다. (5) 거주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기 집과 전세/월세/무상/기타로 이분하였다. (6) 본인의 진학 희망 교육수준은 “학생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 졸, 대졸, 초대졸 이하의 3개 군으로 나누었다. (7) 본

인의 학업 성취도(성적)는 학생이 보고한 지난 학기(2003년도 1학기) 반 성적의 백분율(전체 인원 중 본인 등수에 대한 백분율)이었다. 조사에서는 전교 성적과 전국규모 모의고사 성적도 조사되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자료 누락이 많아(전교 성적은 13.3%,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94.2%) 사용하지 않았다. (8)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은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 곤란을 겪는 중이다”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이루어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각각 하나의 군으로 하고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묶어 하나의 군으로 하였다.

3. 결과 변수: 건강 수준 및 건강 관련 행태 지표

결과 변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1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청소년의 건강 수준 및 건강 관련 행태 항목들이었다. 결과 변수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와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건강 수준 결과 변수는 (1) 자기 평가 건강 상태, (2) 심리적, 정신적 문제, (3) 학교에서의 소외감, (4)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 스트레스 수준이었다. (1) 자기 평가 건강 상태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질문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를 1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 심리적, 정신적 문제의 경우,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질문 항목에 대하여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를 하나의 군으로 하였고, 다른 응답을 하나의 군으로 삼았다. 동일한 방식으로 (3) 학교에서의 소외감 역시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의 질문에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를 하나의 군으로 하였다. (5)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학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만족하지 못한다”, 또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하나의 군으로,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다른 군으로 삼았다. (5) 스트레스 수준은 17가지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점수(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일부 학생들(12명)이 1~2개 설문항목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17가지 스트레스 점수의 합이 아닌 스트레스 항목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17가지 상황에는 학교 성적, 시험, 공부, 대학입시 및 취업, 부모님과 의견 충돌, 부모님의 간섭, 친구들과로부터의 인정, 몸무게, 키, 얼굴 생김새, 멋있는 옷, 용돈 등이 포함되었다. 높은 점수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의미하였다. 17가지 스트레스 항목에 대한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지표인 Cronbach's 알파값을 산출한 결과, 0.88로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이 연구의 건강 관련 행태 변수는 (1) 담배 피우기(흡연), (2) 술 마시기(음주), (3) 성관계 경험,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타인에 대한 폭행 경험), (5) 심하게 맞기(타인에 의한 폭행 경험), (6)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친구에 대한 집단따돌림 경험), (7)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친구에 의한 집단따돌림 경험), (8) 부모로부터의 언어 폭력 경험, (9)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경험의 9가지이었다. (1)~(7)의 행태 변수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8) 부모로부터의 언어 폭력 경험 항목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의 질문에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9)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경험의 경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질문에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설문 문항에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너무 적어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과 변수들 중,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건강 수준의 (1)~(4)와 건강 관련 행태의 (8), (9)의 경우, “보통이다”를 포함한 형태로 결과 변수를 구성하였는데, “보통이다”를 제외하여 결과 변수(예 :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만을 1로 코딩하고 나머지는 0으로 코딩)를 구성한 경우, 일부 연구 결과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여학생에서 학교에서의 소외감 항목의 경우, 당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아버지의 직업 계층, 가구 월평균 소득,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항목의 유의성이 없어졌다. 또한 다수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서 유의성이 확인된 부모로부터의 언어 폭력 항목의 경우(여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학업 성취도와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항목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결과 변수를 구성한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양상으로, 가능한 한 결과 변수에서의 불평등을 밝히기 위한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본문에서는 “보통이다”를 포함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변수들 중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폭행 및 집단따돌림과 같은 변수들이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Starfield 등(2002)은 청소년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가정/친구/학교/사회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은 결과적으로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예를 들어 집단따돌림의 경우 결과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Olweus, 1994; Salmon et al, 1998).

4.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은 8가지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에 대한 14가지 결과 변수의 분포를 기술하고,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에 따른 결과 변수의 분포 차이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별로 결과 변수의 분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분율의 우측 상단에 가장 높은 사회계층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의 하위 사회계층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제시 방식이 다수의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와 다수의 결과 변수간의 관련성을 요약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문 결과 표에서는 학생의 연령이나 가족 구조, 도시화 정도와 같은 교란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학생의 연령, 가족 구조, 시군구 지역 구분을 감안한 로짓회귀분석 결과를 부록 표로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 등(2001)의 연구 결과, 남학생의 경우, 서울 지역의 거주 여부와 가족 구조가 흡연, 음주 행태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명순(2003)의 연구에서도 양부모 생존 여부는 여러 가지 건강 관련 행태와 관련성을 가졌다.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본문의 결과 표와 다른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연구 결론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1989년도 2월 이전에 태어나 2003년도 당시 일반적인 중학교 2학년보다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은 69명(2.0%)이었고, 1990년 3월 이후에 태어나 나이가 적은 학생들은 70명(2.0%)이었다.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없거나 부모가 모두 양부, 양모인 경우는 201명으로 전체의 5.8%이었다.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은 각각 1,605명(46.5%), 1,607명(46.6%), 237명(6.9%)이었다.

분석은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5%이었다.

IV. 연구 결과

1. 성별 건강 수준 및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

우선 성별로 건강 수준 및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를 보았다. 다섯 가지 건강 수준 지표 중에서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여자 청소년에서의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양상이었다.

한편 건강 관련 행태는 지표에 따라 남녀별 경험률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녀별 흡연 경험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2.9%, 여자 청소년은 13.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한편, 음주 경험의 경우 오히려 여자 청소년에서 39.2%로 남자 청소년의 22.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지난 1년 동안의 성관계 경험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1.3%, 여자 청소년은 0.9%이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에 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경우, 남녀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타인을 심하게 때리거나 본인이 심하게 맞은 경험은 남자 청소년에서 2배 이상 높았고(둘다 $P<0.001$), 집단따돌림 시키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오히려 여자 청소년에서 많은 양상이었다(둘다 $P<0.001$).

Table 1. Health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by gender among South Korean 8th grade adolescents (N=3449)

	Boys (N=1725)	Girls (N=1724)	P value
Self-rated health condition	27.5	34.7	<0.001
Psychological or mental problems	16.3	14.9	0.28
Feeling of loneliness in school	32.9	40.1	<0.001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37.2	52.6	<0.001
Perceived level of stress	2.60	2.78	<0.001
Smoking	12.9	13.7	0.48
Alcohol drinking	22.1	39.2	<0.001
Sexual relationship	1.3	0.9	0.33
Verbal abuse by parents	18.3	17.3	0.48
Physical abuse by parents	20.8	19.1	0.22
Violence to others	12.4	5.6	<0.001
Violence by others	5.9	2.6	<0.001
Bullying others	10.4	17.9	<0.001
Bullied by others	2.8	6.6	<0.001

Note: For perceived level of stress, a t-test was used to compare the stress scores.

2.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수준의 관련성

여덟 가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 수준 지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2와 3),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계층, 가족의 월 평균 수입, 거주주택 소유형태 등과 같은 통상적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에 대한 지표가 남녀 모두 모든 건강 수준 관련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건강 수준 지표 중에서는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지표에서 남녀 모두 8가지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자기 평가 건강 상태와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서는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지표 이외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차

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본인의 진학 희망 교육수준이 대졸인 청소년의 경우 대학원졸보다 자기 평가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였다.

학교에서의 소외감 지표의 경우, 사회경제적 위치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남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지표 이외의 나머지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계층, 가족의 월 평균 수입, 학생에 대한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주관적 스트레스 지표의 경우도,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월 평균 수입과 거주주택 소유형태 지표 이외의 모든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2.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by various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among Korean 8th grade boys (N=1725)

	Number of subjects	Self-rated health conditions	Psychologic al or mental problems	Feeling of loneliness in school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Perceived level of stress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786	26.9	16.9	33.4	31.3	2.58
High school	769	27.6	15.2	31.2	40.3***	2.62
Middle or less	158	30.3	17.9	39.2	48.7***	2.59
Father's occupation						
High	289	30.2	19.7	35.3	31.1	2.64
Low	1299	26.9	15.9	32.5	37.7*	2.59
Others	137	27.8	12.0	32.1	44.5**	2.61
Family income level						
High 1/4	408	27.9	17.9	34.7	31.9	2.60
Middle 1/2	865	27.6	16.5	30.9	36.1	2.60
Low 1/4	350	26.2	15.2	35.7	47.4***	2.62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432	27.4	17.6	31.7	32.2	2.60
Middle 1/2	849	28.4	14.0	32.0	36.9	2.63
Low 1/4	411	26.2	19.9	36.1	42.3**	2.55
Housing						
Owner occupier	1197	28.6	16.7	32.6	35.7	2.60
Renter or others	502	24.7	15.9	34.1	40.8*	2.61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319	27.2	15.7	34.2	26.6	2.54
University	1123	26.8	15.8	31.0	36.4	2.61*
College or less	235	30.3	17.5	39.1	49.4***	2.64*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385	29.8	16.1	31.2	21.8	2.52
Middle 1/2	854	26.0	14.9	32.4	37.5***	2.64**
Low 1/4	426	28.0	19.2	34.8	48.8***	2.58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744	17.0	8.3	25.3	30.9	2.46
Rarely	521	30.3***	19.8***	35.5***	35.9	2.64***
As usual or yes	431	41.2***	25.5***	42.6***	47.8***	2.78***

* P<0.05, ** P<0.01, *** P<0.001

Table 3.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by various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among Korean 8th grade girls (N=1724)

	Number of subjects	Self-rated health conditions	Psychologic al or mental problems	Feeling of loneliness in school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Perceived level of stress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763	33.6	14.1	35.6	45.0	2.71
High school	776	35.8	15.5	42.5**	56.7***	2.84***
Middle or less	167	34.2	16.4	49.7***	66.5***	2.78
Father's occupation						
High	286	31.6	12.5	39.5	43.0	2.71
Low	132	35.2	15.2	39.1	53.6**	2.78
Others	4	36.7	17.3	53.5*	64.0***	2.87*
Family income level						
High 1/4	385	35.1	13.9	32.7	42.1	2.71
Middle 1/2	869	33.6	14.9	40.1	52.7*	2.79
Low 1/4	364	36.5	15.7	45.3*	61.3***	2.81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404	35.5	13.5	33.9	41.3	2.71
Middle 1/2	790	34.2	16.0	41.2*	53.0**	2.82*
Low 1/4	492	35.0	14.4	43.2**	59.8***	2.76
Housing						
Owner occupier	115	33.9	14.6	39.6	49.6	2.76
Renter or others	9	35.9	15.6	40.5	58.3***	2.80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255	41.2	16.8	42.7	35.3	2.65
University	119	32.3*	15.3	38.5	52.1***	2.77**
College or less	4	38.3	11.6	46.6	69.0***	2.94***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434	37.3	14.8	39.9	35.9	2.63
Middle 1/2	757	34.8	17.2	40.2	53.5***	2.79***
Low 1/4	370	31.9	12.2	37.8	68.1***	2.93***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758	24.3	7.1	32.2	40.9	2.62
Rarely	481	34.2***	17.5***	41.2**	54.1***	2.83***
As usual or yes	460	51.8***	25.0***	51.0***	69.3***	2.97***

* P<0.05, ** P<0.01, *** P<0.001

3. 사회경제적 위치와 건강 관련 행태의 관련성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4~7과 같다. 자기 평가 건강 상태나 심리적, 정신적 문제와 같은 건강 수준 지표에서와 달리, 여자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을 제외한 다수의 건강 관련 행태가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불평등 양상을 보였다.

지난 1년간의 흡연과 음주 경험의 경우, 다수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월 평균 수입과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제외한 다른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라 흡연 및 음주 경험의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흡연 경험은 부모의 학력,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본인의 진학 희망 교육수준과 본인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성을 가졌다. 한편 상위 25%의 월 평균 수입을 가진 남자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에 비하여, 중위 50%의 월 평균 수입을 가진 남자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이 유의하게 낮은 양상을 보였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성관계 경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력,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거주주택 소유형태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다.

부모로부터의 언어 또는 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의한 언어 폭력은 모든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청소년 폭력의 경우, 타인을 심하게 때리거나 맞는 경험 모두, 본인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군에서 많았다. 이 양상은 남녀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학 희망 교육수준과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지표에서 두 가지 청소년 폭력

지표(타인을 심하게 때리기, 타인에게서 심하게 맞기)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남자 청소년의 경우,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상위 25%인 군에 비하여, 오히려 중위 50% 군에서 지난 1년간 타인을 심하게 때린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가족의 월 평균 수입과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지표에서도 나타났는데, 가족의 수입 수준이 낮은 군에서,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이 전혀 어렵지 않은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어렵지 않은 편으로 응답한 청소년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 경험이 낮은 양상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학생 연령, 가족 구조, 시군구 지역구분 지표를 통제한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Appendix Table 1참조). 하지만, 남자 청소년에서 발견되었던 이러한 양상은 여자 청소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에서는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상위 25%인 군에 비하여, 오히려 하위 25% 군에서 지난 1년간 타인을 심하게 때린 경험이 많았고,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거주하는 집이 자기집이 아닌 경우, 타인에 대한 폭행 경험과 타인으로부터의 폭행 경험이 많은 양상이었다.

건강 수준 및 여타 건강 관련 행태 지표와 달리, 집단따돌림 행위 경험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이 낮고,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낮은 군에서 집단따돌림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도 부모의 학력과 한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의 집단따돌림 경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은 사회경제적 위치별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운 집단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대졸인 경우에 비하여 고졸인 경

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Table 4. Smoking, alcohol drinking, sexual relationship, and abuse (verbal and physical) by parents according to various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among Korean 8th grade boys (N=1725)

	Smoking	Alcohol drinking	Sexual relationship	Verbal abuse by parents	Physical abuse by parents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10.3	21.5	1.0	17.3	20.0
High school	15.1**	21.6	1.0	18.6	21.1
Middle or less	15.8*	29.1*	3.8*	22.2	25.3
Father's occupation					
High	10.7	22.5	0.7	18.1	20.1
Low	12.9	21.6	1.4	17.3	20.1
Others	17.5	27.0	1.5	27.7*	29.2*
Family income level					
High 1/4	13.7	26.5	1.2	18.4	24.0
Middle 1/2	12.1	20.6*	1.3	16.6	18.3*
Low 1/4	12.3	20.3	1.4	20.9	23.1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10.6	24.5	0.2	18.3	21.3
Middle 1/2	12.2	21.3	1.1	17.7	19.8
Low 1/4	16.3*	20.7	2.9*	19.0	22.4
Housing					
Owner occupier	12.2	22.5	0.9	16.9	19.8
Renter or others	14.5	20.9	2.2*	21.4*	23.1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11.0	21.0	0.9	16.3	25.4
University	11.8	21.9	1.2	17.1	19.1**
College or less	20.0**	26.4	2.1	26.5**	21.3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6.8	16.9	1.3	16.9	17.1
Middle 1/2	12.5**	23.9*	0.9	15.6	19.3
Low 1/4	19.2***	22.8	2.1	24.0*	26.8**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12.6	20.8	1.3	13.7	15.3
Rarely	11.7	21.1	0.6	17.5	20.5*
As usual or yes	14.6	25.8	2.1	27.1***	30.6***

* $P<0.05$, ** $P<0.01$, *** $P<0.001$

Table 5. Smoking, alcohol drinking, sexual relationship, and abuse (verbal and physical) by parents according to various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among Korean 8th grade girls (N=1724)

	Smoking	Alcohol drinking	Sexual relationship	Verbal abuse by parents	Physical abuse by parents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9.8	36.0	1.2	13.8	18.7
High school	17.4***	41.6*	0.5	18.9**	18.7
Middle or less	12.0	39.5	1.8	25.7***	23.4
Father's occupation					
High	9.4	34.6	0.3	14.3	19.2
Low	13.9*	39.5	0.9	17.3	18.7
Others	21.9**	46.5*	2.6	25.4**	24.6
Family income level					
High 1/4	11.2	38.7	1.0	14.0	19.2
Middle 1/2	13.3	38.6	0.6	15.5	17.7
Low 1/4	15.4	40.4	1.6	23.4**	21.4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11.6	37.1	1.0	12.1	15.3
Middle 1/2	13.4	39.5	0.5	17.5	20.1
Low 1/4	14.8	39.4	1.2	19.9*	19.3
Housing					
Owner occupier	11.9	37.0	0.8	14.9	16.8
Renter or others	17.3**	43.2*	1.1	21.8***	23.3**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5.5	29.0	0.0	16.9	22.7
University	12.3*	38.0*	0.8	14.2	15.2
College or less	27.4***	53.6***	2.0	31.3***	31.7***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4.6	27.9	0.2	10.8	14.5
Middle 1/2	12.2**	39.0**	1.2	15.5	16.9
Low 1/4	27.3***	53.5***	1.4	29.2***	29.7**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10.9	35.4	0.4	13.1	14.9
Rarely	12.1	41.0	1.5	15.4	18.5
As usual or yes	19.6***	43.3**	1.3	25.4***	25.9***

* P<0.05, ** P<0.01, *** P<0.001

Table 6. Violence and bullying by various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among Korean 8th grade boys (N=1725)

	Violence to others	Violence by others	Bullying others	Bullied by others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13.0	4.5	12.0	2.9
High school	11.6	7.3*	9.0*	2.7
Middle or less	13.3	5.7	8.9	2.5
Father's occupation				
High	11.1	5.2	13.5	4.2
Low	12.8	5.7	9.9	2.7
Others	11.7	8.8	8.8	1.5
Family income level				
High 1/4	15.7	5.4	12.7	2.9
Middle 1/2	11.4	5.4	10.5	2.7
Low 1/4	11.1	7.7	7.7*	3.4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14.6	4.4	13.7	3.7
Middle 1/2	10.7*	5.9	9.9	2.5
Low 1/4	13.1	7.1	8.5*	2.4
Housing				
Owner occupier	11.9	5.5	9.9	2.8
Renter or others	13.3	6.4	11.8	3.0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10.7	5.6	11.6	2.2
University	12.4	5.6	10.4	2.9
College or less	12.3	7.2	9.4	3.4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9.1	3.6	10.4	2.9
Middle 1/2	12.5*	5.4	11.7	2.5
Low 1/4	16.0**	8.7**	8.7	3.5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12.1	4.8	10.1	2.0
Rarely	9.2	6.1	10.9	2.7
As usual or yes	16.2	7.7*	10.7	4.4*

* P<0.05, ** P<0.01, *** P<0.001

Table 7. Violence and bullying by various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among Korean 8th grade girls (N=1724)

	Violence to others	Violence by others	Bullying others	Bullied by others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3.8	2.1	19.8	4.7
High school	7.0**	2.7	17.0	8.4**
Middle or less	7.2	3.6	12.6*	6.6
Father's occupation				
High	4.5	1.7	17.5	4.9
Low	5.6	2.6	18.1	6.7
Others	7.9	4.4	16.7	9.6
Family income level				
High 1/4	4.7	1.6	21.3	4.7
Middle 1/2	5.8	2.0	16.8	7.1
Low 1/4	4.9	4.7*	15.7	8.0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3.0	1.0	20.5	7.2
Middle 1/2	6.1	2.3	17.2	6.3
Low 1/4	6.5*	4.1*	15.9*	6.1
Housing				
Owner occupier	4.3	2.2	16.7	6.2
Renter or others	8.0**	3.0	19.9	7.3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4.3	0.4	19.2	5.1
University	4.4	2.3	17.3	6.8
College or less	11.9**	5.6**	19.8	7.5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2.3	1.4	19.1	5.8
Middle 1/2	4.6	1.6	17.7	6.7
Low 1/4	11.1***	6.5***	18.9	8.1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4.0	1.3	17.2	5.1
Rarely	6.4*	2.7	17.5	5.8
As usual or yes	7.6**	4.6***	20.4	9.3*

* P<0.05, ** P<0.01, *** P<0.001

V. 고찰

1. 건강 수준에서의 성별, 사회경제적 불평등

연구 결과,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여자 청소년에서의 건강 수준 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West et al, 1990; Goodman et al, 1997)와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결과(장영미, 2000)와 유사한 결과이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로 자주 활용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들(학력, 직업계층, 소득수준, 주택)에 따른 건강 수준 지표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양상이었다. 본 연구의 부모 직업과 학력은 부모 본인이 보고한 것으로, 부모로부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얻은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을 보고한 연구 결과(Goodman, 1999; Halldorsson et al, 2000)와는 다른 것이다. 한편,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지표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양상으로, 향후 연구에서 이 지표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 대상 연령이 다르긴 하지만, 장영미(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본인이 보고한 가계의 경제상황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과 관련성을 보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그리고 건강 지표에 따라서 연구 결과는 달리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소외감의 경우, 여자 청소년에서는 다수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관련성을 보였지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다른 건강 지표와 달리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남녀 모두 8가지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하게도 여자 청소년에서, 본인의 진학 희망 교육수준이 대졸인 청소년이 대학원졸인 청소년보다 자기 평가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였다.

Goodman 등(1997)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과 달리 여자 대학생의 경우, 높은 직업계층에서 오히려 나쁜 건강 상태(general health perceptions)를 보고한 바 있다. 스트레스 지표의 경우, 다수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 건강 관련 행태에서의 성별, 사회경제적 불평등

남녀별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특이하게도 남녀 청소년의 흡연 경험은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음주 경험의 경우 오히려 여자 청소년에서 많은 양상이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상반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3~15세 남자 청소년 중에서 “현재까지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6%로 여자 청소년의 4.1%보다 높았으며, “술을 한잔 마셔본 경험”도 남자 청소년은 21.1%인데 반해 여자 청소년은 15.5%에 지나지 않았다(김혜련 등, 1999). 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는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이 연구에서의 흡연, 음주 경험률이 높게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의 설문 방식(설문에 앞서 개인 비밀 보장에 대하여 주지시키면서 흡연/음주 경험 여부를 묻고 경험 횟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흡연/음주 경험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흡연, 음주 횟수를 기초로 중등도의 유경험자 비율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달리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하루에 담배를 4회 이상 피우는 청소년 비율은 남자 2.0%, 여자 0.9%로 남자에서 높았다($P=0.007$). 하지만 이보다 기준을 낮춘 경우에도 남자 청소년에서의 흡연 경험률이 여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 매일 흡연자에 해당하는 1일에 1회 이상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남녀 모두 4.5%

로 비슷하였다($P=0.93$). 음주의 경우, 연간 음주 경험 횟수를 높이면서 중등도 이상의 음주 경험을 정의하더라도 여자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은 남자 청소년의 그것보다 여전히 높은 양상이었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서 여자 청소년의 음주 경험률이 높은 이유는 여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과제이다.

건강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라, 건강 관련 행태 지표에 따라 결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건강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본인이 인지한 가정 경제상황에 따라 다수의 건강 관련 행태가 차이를 보이는 점도 주지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다수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서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흡연 및 음주 경험이 많은 양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가구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불평등 양상은 반대이었다. 성인의 경우에도 흡연, 운동과 같은 건강 행태와 달리 음주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상이 불분명하거나 낮은 사회계층에 오히려 유리한 불평등이 관찰되고 있다. 가구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불평등 양상이 상이한 점은 음주 행태에 대한 경제력의 영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경 등(2004)의 연구 결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음주 행위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지만, 이 연구의 연구 대상과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연구 결과, 성관계 경험의 경험률은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차이도 남자 청소년에서의 월 평균 사교육비와 거주주택 소유 여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여성의 경우 가구의 월 평균 소득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위치와 성관계 경험의 경우, U형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한편, 성행동 경험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한인영 등, 2001)에서도 경제수준이 높거나 낮은 계층에서의 성경험률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부모에 의한 언어, 신체적 폭력의 경험도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관련성이 높았는데, 특히 여성에서의 언어 폭력의 경우, 8가지 모든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관련성을 보였다.

타인에 대한 폭력 경험의 경우,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라, 성별에 따라 불평등 양상이 달리 나타났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위치 지표인 월 평균 사교육비와 가구의 월 평균 수입(비록 통계적 유의성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과 학생의 성적 지표는 상반되는 관련성을 보였다. 즉,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계층에서 폭력 행사 경험이 더 많은 양상이었지만, 성적이 높을수록 폭력 행사 경험은 적었다. 하지만, 여성에서는 일관되게 낮은 사회계층에서의 폭력 행사 경험이 많은 양상이었다.

연구 결과, 높은 사회계층의 청소년들은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역할을 많이 하는 반면, 낮은 사회계층의 청소년들은 집단따돌림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 결과(이종원 등, 2001)와 Kim 등(2004)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것이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중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의 경우에도 건강 수준 및 건강 관련 행태에 있어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양상은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성별, 결과 변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생애적 관점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연구(lifecourse approach to socioeconomic health inequality)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하나의 이유는 성인기의 건강 불평등 문제가 성인기 당시의 위험요인 폭로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의 위험요인의 폭로와도 관

련을 갖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영유아기와 달리 청소년기에 대한 건강 불평등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의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기전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VI. 연구의 한계와 의의

1.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로 몇 가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에 해당한다. 즉, 인과성 도출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나쁜 건강 수준은 가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와 결과 지표간의 인과성이 어떻게 논란이 될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단면 연구가 제공하는 근거의 수준보다 종단적 연구 방법이 제공하는 근거의 수준이 높다는 점은 주지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 향후에 진행될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청소년의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조사가 지속될 경우, 청소년기 연령이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의 크기가 작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측면의 건강 수준 지표가 사용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Starfield 등(2002)는 영유아/아동기부터 지속되는 만성질환이나 질병의 심각성 지표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뚜렷한 반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건강 문제의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 질환에 대한 유무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결과 지표는 청소년 본인의 주관적 판단 또는 보고에 의한 것이었는데, 보다 객관적인 건강 수준 지표(예 : 신장, 몸무게, 혈압 등) 또는 생체 지표(예 : 혈액 검사 결과 등)를 결과 지표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 연구와 함께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적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가 사용되었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 이외의 다른 지표(예 : 지역 지표, Family Affluence Scale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생의 건강 및 건강 관련 행태에 대한 학교 또는 지역사회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비추었을 때, 이들에 대한 자료 조사도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 지역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지역 단위의 박탈 지표 등을 이용한 다수준 분석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본인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보고한다면, 두 가지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부모와 청소년이 보고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이 연구는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의 건강 수준 및 건강 관련 행태의 불평등을 살펴 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에는 청소년 본인이 보고한 것도 있었지만, 부모가 직접 보고한 사회경제적 위

치 지표도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를 보고함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에 비하여 교육수준은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비추었을 때(Looker, 1989; Lien et al, 2001), 부모의 학력을 사용한 연구의 경우 가능한 부모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을 필요성이 커진다. 실제로 Lien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보고한 직업계층과 청소년이 보고한 직업계층간의 일치도 카파값은 0.65~0.86으로 좋은(good) 수준이었지만, 교육수준의 경우 0.30~0.38로 중간(fair) 수준이었다.

참고문헌

- 강영호(2004). 사망률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한국노동패널 조사의 사망추적 결과(1998-2002). 제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pp.45-71.
- 권수진(1996).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사회적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일호·백도명·조성일(2004). 비정규 근로가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건강형평성학회, pp.39-53.
- 김주형 고은희·권신혜 등(200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킥보드/인라인 스케이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8권 pp.381-390.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옥(2003). 청소년의 흡연관련 사회적 환경, 흡연거절기술 및 금연 관련 자기효능감. 아동간호학회지, 제9권, pp.237-49.
- 김혜련·남정자·윤강재·이상호·최은영·최은진(1999). 98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건강실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경·최은숙·안정선(2004). 여대생의 음주행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0권, pp.205-16.
- 박재영(1980). 출생, 사망수준의 추정과 경제, 사회적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가족계획연구원.
- 박형중(1962). 우리 나라 농촌지역의 영아사망에 관한 연구. 서울의대 잡지, 제3권4호, pp.337-47.
- 손미아(2004). 부모의 사회계층이 1995-2001년도 출생아의 저체중에

-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14권1호, pp.148-68.
- 송미령 · 안혜영 · 김은경(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삶의 질간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제8권2호, pp.141-51.
- 이명순(2003). 긍정적 또래 영향 등 사회영향 대처 관련 요인이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14권, pp.317-43.
- 이선영 · 이시백(2000).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건강위험행위 연구-서울시 일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pp.17-33.
- 이경상 · 김진호 · 오해섭 · 김희진 · 김재민(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 -조사개요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 임성택 · 최원기 · 최종현 · 심진예(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기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 장영미(2000).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학생 인간관계와 건강과의 관련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진 · 서민정 · 정철호(2001). 아동 우울에 관련된 요인 및 부모 우울과의 관계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2권2호, pp.245-55.
- 조홍준(1997). 공교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사회계층별 사망률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인영 · 박인선 · 백연옥(2001).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2권, pp.138-48.
- Anderson R, Dearwater SR, et al(1994). The role of socioeconomic status and injury morbidity risk in adolescents. Arch Pediatr Adolesc Med, 148(3):245-259.
- Currie C, Elton RA, et al(1997).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for adolescents: The WHO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 children survey. *Health Edu Res*, 12(3):385-397.
- Currie C, Hurrelmann K, Settertobulte W, Smith R, Todd J(2000). Health and Health Behaviour among Young People. A WHO Cross-national Study (HBSC) International Report. Copenhagen, Denmark; Health Promotion and Investment for Health,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 Ensminger ME, Forrest CB, et al(2000). The validity of measures of socioeconomic status of adolescents. *J Adolesc Research*, 15(3):392-419.
- Glendinning A, Love J, et al(1992). Adolescence and health inequalities: extensions to Macintyre and West. *Soc Sci Med*, 35:679-687.
- Glendinning A, Shucksmith J, et al(1994). Social class and adolescent smoking behaviour. *Soc Sci Med*, 38:1449-60.
- Goodman E, Amick BC, et al(2000). Adolescents' understanding of social class: a comparison of white upper middle class and working class youth. *J Adolesc Health*, 27(2):80-83.
- Goodman E, Amick BC, et al(1997). Influences of gender and social class on adolescents' perceptions of health. *Arch Pediatr Adolesc Health*, 159(9):899-904.
- Goodman E, Huang B(2002). Socioeconomic status, depressive symptom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rch Pediatr Adolesc Med*, 156:448-453.
- Goodman E, Slap GB, et al(2003). The public health impa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adolescent depression and obesity. *Am J Public Health*, 93(11):1844-50.
- Goodman E(1999). The role of socioeconomic status gradients in

- explaining differences in US adolescents' health. *Am J Public Health*, 89(10):1522-28.
- Halldorsson M, Kunst AE, et al(2001).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the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a comparative study of the five Nordic countries. *Eur J Public Health* 2000;10(4):281-88.
- Han S, Choe MK, et al. Risk-tak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J Adolesc*, 24:571-574.
- Holstein BE, Due P, Currie C(2004). Measurement of socioeconomic position in studies of adolescents. *Int J Behav Med*, 11(suppl.):320.
- Karvonen S, Rimpela A, et al(1999). Social mobility and health related behaviours in young peopl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3(4):211-217.
- Khang YH, Lynch JW, Yoon SC, Lee SI(2004). Trends in socioeconomic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Use of mortality and morbidity measure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8:308-314.
- Kim TH(1990). *Mortality Transition in Korea: 1960-1980*.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 Kim YS · Koh YJ, et al(2004). Prevalence of school bullying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rch Pediatr Adolesc Med*, 158:737-41.
- Lien N, Friestad C, et al(2001). Adolescents' proxy reports of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How valid are the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5(10):731-737.

- Lipman EL, Offord DR, et al(1994). Relation between economic disadvantage and psychosocial morbidity in children. *Can Med Assoc J*, 151:431-7.
- Looker, E. D(1989). Accuracy of proxy report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Sociol Edu*, 62:257-76.
- Lowry R, Kann L, et al(1996).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chronic disease risk behaviors among US adolescents. *JAMA*, 276(10):792-7.
- Macintyre S, West P(1991). Lack of class variation in health in adolescence: an artefact of an occupational measure of social class? *Soc Sci Med*, 32:395-402.
- Newacheck PW, Hung YY, et al(2003). Disparities in Adolescent Health and Health Care: Does Socioeconomic Status Matter? *Health Serv Res*, 38(5):1235-52.
- Nutbeam D, Aar L, et al(1989). Understanding children's health behavior: the implications for health promotion for young people. *Soc Sci Med*, 29:317-25.
- Olweus D(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 Child Psychol Psychiatry*, 35:1171-90.
- Ostberg V, Vagero D(1991).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mortality among children. Do they persist into adulthood? *Soc Sci Med*, 32(4):403-410.
- Petridou E, Zavitsanos X, et al(1997). Adolescents in high-risk trajectory: clustering of risky behavior and the origins of socioeconomic health differentials. *Prev Med*, 26:215-19.
- Power C(1991).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and class

- inequalities in health among young adults. *Soc Sci Med*, 32(4):411-417.
- Salmon G(1998), James A, et al. Bullying in schools: self reported anxiety, depression, and self esteem in secondary school children. *BMJ*, 317:924-5.
- Son M(2001). Occupational Class and Health: The Differentials in Mortality, Morbidity, and Workplace Injury Rates by Occupation, Education, Income and Working Conditions in Korea(PhD Thesis).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 Song YM, Byeon JJ(2000). Excess mortality from avoidable and non-avoidable causes in men of low socioeconomic status: a prospective study in Korea.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4:166-172.
- Starfield B, Riley AW, et al(2002). Social class gradients in health during adolescenc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6(5):354-61.
- Torsheim T, Currie C, et al(2004). Material deprivation and self-rated health: a multilevel study of adolescents from 22 European and North American countries. *Soc Sci Med*, 59:1-12.
- Tuinstra J, Groothoff JW, et al(1998).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health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do they exist? *Soc Sci Med*, 47(1):67-74.
- U. K(1998). Department of Health. Inequalities in Health: Report of an Independent Inquiry Chaired by Sir Donald Acheson. London: Stationary Office.

- U. S(2000).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y People 2010.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Vagero D, Ostberg V(1989). Mortality among children and young persons in Sweden in relation to childhood socioeconomic group.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43:280-4.
- Wardle J, Robb K, et al(2002). Assessing socioeconomic status in adolescents: the validity of a home affluence scal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6:595-99.
- West P, Macintyre S, et al(1990). Social class and health in youth: findings from the West of Scotland Twenty-07 study. *Soc Sci Med*, 30:665-73.
- West P(1997). Health inequalities in the early years: is there equalisation in youth? *Soc Sci Med*, 44(6):833-858.
- West P(1988). Inequalities? social class differentials in health in British youth. *Soc Sci Med*, 27:291-96.
- Williams JM, Currie CE, et al(1996). Socioeconomic status and adolescent injuries. *Soc Sci Med*, 44(12):1881-1891.

<http://www.hbsc.org/>

Appendix Table 1. Adolescents' age, family structure, and urbanization level adjusted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of health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among South Korean 8th grade boys (N=1725)

	Self-rated health conditions	Psychological or mental problems	Feeling of loneliness in school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Perceived level of stress	Smoking	Alcohol drinking	Sexual intercourse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High school	1.05 (0.84-1.31)	0.88 (0.67-1.16)	0.90 (0.72-1.11)	1.43 (1.16-1.76)	0.03 (0.31)	1.54 (1.13-2.10)	1.01 (0.79-1.29)	0.97 (0.36-2.62)
Middle or less	1.23 (0.83-1.83)	1.00 (0.62-1.61)	1.21 (0.84-1.74)	1.94 (1.35-2.78)	0.01 (0.89)	1.48 (0.89-2.48)	1.47 (0.98-2.20)	2.86 (0.88-9.26)
Father's occupation								
High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Low	0.85 (0.64-1.13)	0.76 (0.55-1.06)	0.86 (0.66-1.13)	1.34 (1.01-1.76)	-0.05 (0.27)	1.20 (0.80-1.81)	0.93 (0.69-1.27)	1.90 (0.43-8.30)
Others	0.98 (0.60-1.60)	0.44 (0.23-0.85)	0.82 (0.52-1.31)	1.49 (0.95-2.34)	-0.04 (0.60)	1.65 (0.89-3.09)	1.33 (0.80-2.19)	0.88 (0.10-7.61)
Family income level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0.96 (0.75-1.23)	1.02 (0.75-1.37)	0.84 (0.67-1.07)	1.22 (0.96-1.54)	0.02 (0.62)	0.81 (0.59-1.12)	0.73 (0.56-0.95)	1.20 (0.43-3.33)
Low 1/4	0.92 (0.67-1.26)	0.85 (0.58-1.26)	1.03 (0.77-1.39)	1.84 (1.38-2.45)	0.04 (0.39)	0.75 (0.50-1.15)	0.71 (0.50-0.99)	0.90 (0.26-3.16)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1.07 (0.83-1.38)	0.79 (0.58-1.08)	0.99 (0.78-1.27)	1.16 (0.91-1.48)	0.04 (0.32)	1.09 (0.76-1.56)	0.79 (0.61-1.04)	4.84 (0.61-38.54)
Low 1/4	0.98 (0.71-1.34)	1.17 (0.81-1.67)	1.16 (0.87-1.56)	1.34 (1.01-1.79)	-0.05 (0.32)	1.40 (0.93-2.11)	0.72 (0.51-1.00)	11.24 (1.41-89.64)
Housing								
Owner occupi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nter or others	0.82 (0.65-1.05)	0.90 (0.68-1.21)	1.08 (0.86-1.35)	1.23 (0.99-1.52)	0.02 (0.58)	1.25 (0.92-1.71)	0.93 (0.71-1.20)	2.11 (0.88-5.03)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University	0.93 (0.72-1.22)	0.93 (0.68-1.29)	0.86 (0.67-1.10)	1.26 (0.98-1.63)	0.08 (0.04)	1.08 (0.74-1.57)	1.15 (0.86-1.54)	1.16 (0.37-3.63)
College or less	1.14 (0.79-1.64)	1.04 (0.67-1.63)	1.21 (0.86-1.70)	2.01 (1.43-2.83)	0.10 (0.06)	1.84 (1.16-2.91)	1.40 (0.95-2.07)	1.72 (0.45-6.66)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0.83 (0.64-1.07)	0.92 (0.67-1.27)	1.02 (0.80-1.30)	1.77 (1.37-2.29)	0.11 (0.01)	1.84 (1.22-2.77)	1.45 (1.08-1.94)	0.86 (0.28-2.66)
Low 1/4	0.93 (0.69-1.26)	1.22 (0.85-1.75)	1.13 (0.85-1.50)	2.71 (2.03-3.63)	0.05 (0.29)	2.98 (1.93-4.61)	1.34 (0.96-1.88)	1.62 (0.52-5.06)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arely	2.01 (1.55-2.62)	2.62 (1.87-3.66)	1.60 (1.25-2.04)	1.19 (0.94-1.50)	0.17 (<0.001)	0.92 (0.66-1.30)	1.03 (0.78-1.35)	0.44 (0.12-1.60)
As usual or yes	3.43 (2.61-4.50)	3.61 (2.57-5.07)	2.19 (1.70-2.83)	1.89 (1.47-2.41)	0.31 (<0.001)	1.17 (0.82-1.66)	1.35 (1.02-1.79)	1.34 (0.52-3.50)

Note: For perceived level of str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take into account adolescents' age, family structure, and urbanization level. Parameter estimates (Beta) and their significance levels were presented in this table.

Appendix Table 1. continued.

	Violence to others	Violence by others	Bullied by others	Verbal abuse by parents	Physical abuse by parents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High school	0.84 (0.62-1.14)	1.57 (1.02-2.43)	0.70 (0.51-0.98)	1.07 (0.82-1.39)	1.06 (0.83-1.36)
Middle or less	0.90 (0.53-1.53)	1.04 (0.47-2.29)	0.64 (0.35-1.18)	1.20 (0.77-1.86)	1.23 (0.81-1.88)
Father's occupation					
High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Low	1.14 (0.76-1.71)	1.07 (0.60-1.91)	0.69 (0.47-1.01)	0.93 (0.67-1.30)	0.98 (0.71-1.36)
Others	0.94 (0.47-1.86)	1.30 (0.55-3.16)	0.66 (0.32-1.37)	1.48 (0.88-2.49)	1.45 (0.88-2.41)
Family income level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0.73 (0.53-1.01)	1.04 (0.64-1.70)	0.84 (0.59-1.19)	0.86 (0.64-1.14)	0.73 (0.56-0.95)
Low 1/4	0.67 (0.44-1.02)	1.32 (0.75-2.34)	0.60 (0.37-0.97)	1.13 (0.50-2.55)	0.91 (0.65-1.26)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0.66 (0.47-0.93)	1.20 (0.71-2.02)	0.71 (0.50-1.01)	0.91 (0.68-1.22)	0.89 (0.67-1.18)
Low 1/4	0.80 (0.53-1.20)	1.25 (0.69-2.29)	0.59 (0.37-0.94)	0.88 (0.62-1.27)	0.94 (0.67-1.32)
Housing					
Owner occupi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nter or others	1.13 (0.82-1.55)	1.12 (0.72-1.75)	1.24 (0.89-1.74)	1.29 (0.99-1.68)	1.20 (0.93-1.56)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University	0.99 (0.69-1.42)	1.00 (0.60-1.67)	0.94 (0.64-1.37)	1.05 (0.77-1.45)	0.68 (0.52-0.90)
College or less	0.95 (0.57-1.56)	1.15 (0.59-2.24)	0.85 (0.49-1.47)	1.75 (1.17-2.63)	0.73 (0.49-1.08)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1.51 (1.02-2.22)	1.35 (0.77-2.36)	1.27 (0.87-1.86)	0.84 (0.62-1.15)	1.09 (0.81-1.47)
Low 1/4	1.99 (1.30-3.04)	2.09 (1.16-3.78)	0.93 (0.58-1.48)	1.38 (0.99-1.93)	1.60 (1.15-2.23)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arely	0.71 (0.49-1.03)	1.33 (0.82-2.18)	1.12 (0.78-1.60)	1.31 (0.97-1.78)	1.41 (1.06-1.88)
As usual or yes	1.36 (0.97-1.91)	1.57 (0.95-2.60)	1.13 (0.76-1.67)	2.23 (1.65-3.02)	2.37 (1.78-3.16)

Appendix Table 2. Adolescents' age, family structure, and urbanization level adjusted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of health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among South Korean 8th grade boys (N=1724)

	Self-rated health conditions	Psychological or mental problems	Feeling of loneliness in school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Perceived level of stress	Smoking	Alcohol drinking	Sexual intercourse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High school	1.07 (0.87-1.32)	1.18 (0.89-1.57)	1.31 (1.07-1.61)	1.55 (1.27-1.90)	0.11 (0.00)	1.82 (1.35-2.45)	1.24 (1.01-1.53)	0.39 (0.12-1.31)
Middle or less	0.95 (0.65-1.37)	1.36 (0.84-2.19)	1.68 (1.19-2.37)	2.25 (1.57-3.23)	0.05 (0.31)	1.15 (0.67-1.97)	1.17 (0.82-1.67)	1.07 (0.26-4.44)
Father's occupation								
High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Low	1.15 (0.87-1.52)	1.33 (0.90-1.96)	0.95 (0.73-1.24)	1.49 (1.15-1.93)	0.07 (0.10)	1.58 (1.03-2.42)	1.27 (0.97-1.66)	2.36 (0.30-18.41)
Others	1.13 (0.68-1.89)	1.59 (0.81-3.11)	1.82 (1.12-2.94)	2.18 (1.33-3.55)	0.18 (0.02)	1.96 (1.01-3.82)	1.44 (0.89-2.34)	3.47 (0.29-41.50)
Family income level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0.93 (0.73-1.17)	1.06 (0.77-1.45)	1.17 (0.93-1.48)	1.32 (1.06-1.65)	0.06 (0.07)	1.05 (0.75-1.45)	0.98 (0.78-1.23)	0.58 (0.17-2.01)
Low 1/4	0.98 (0.72-1.32)	1.21 (0.81-1.81)	1.38 (1.03-1.85)	1.77 (1.33-2.37)	0.07 (0.11)	1.09 (0.72-1.65)	1.02 (0.76-1.37)	1.07 (0.28-4.10)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0.94 (0.74-1.21)	1.27 (0.91-1.79)	1.29 (1.01-1.64)	1.44 (1.14-1.82)	0.07 (0.05)	1.06 (0.75-1.50)	1.07 (0.84-1.36)	0.35 (0.10-1.26)
Low 1/4	0.93 (0.70-1.23)	1.17 (0.80-1.72)	1.35 (1.02-1.77)	1.82 (1.39-2.38)	0.01 (0.82)	1.12 (0.76-1.65)	1.05 (0.80-1.38)	0.62 (0.18-2.14)
Housing								
Owner occupi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nter or others	1.09 (0.87-1.36)	1.06 (0.79-1.43)	1.05 (0.85-1.29)	1.42 (1.15-1.75)	0.04 (0.18)	1.40 (1.05-1.88)	1.23 (1.00-1.53)	1.15 (0.38-3.45)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University	0.66 (0.50-0.86)	0.92 (0.64-1.32)	0.88 (0.68-1.15)	1.66 (1.27-2.16)	0.12 (0.00)	1.77 (1.09-2.89)	1.36 (1.03-1.80)	2.14 (0.27-16.85)
College or less	0.84 (0.59-1.20)	0.68 (0.41-1.14)	1.21 (0.86-1.72)	3.32 (2.31-4.76)	0.28 (<0.001)	4.61 (2.70-7.89)	2.53 (1.77-3.62)	4.43 (0.50-39.01)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0.92 (0.74-1.16)	1.35 (0.99-1.83)	0.93 (0.75-1.16)	1.58 (1.27-1.96)	0.13 (0.003)	1.77 (1.21-2.60)	1.47 (1.17-1.85)	3.13 (0.67-14.69)
Low 1/4	0.80 (0.60-1.06)	0.92 (0.61-1.37)	0.83 (0.63-1.09)	2.90 (2.20-3.82)	0.26 (<0.001)	4.71 (3.19-6.97)	2.63 (2.00-3.45)	3.13 (0.58-16.78)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arely	1.57 (1.22-2.02)	2.72 (1.89-3.91)	1.41 (1.12-1.79)	1.64 (1.30-2.06)	0.20 (<0.001)	1.07 (0.75-1.52)	1.25 (0.99-1.58)	3.52 (0.90-13.74)
As usual or yes	3.29 (2.55-4.24)	4.53 (3.19-6.45)	2.10 (1.65-2.67)	3.15 (2.45-4.04)	0.36 (<0.001)	1.80 (1.29-2.50)	1.34 (1.05-1.71)	2.55 (0.60-10.81)

Note: For perceived level of stres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take into account adolescents' age, family structure, and urbanization level. Parameter estimates (Beta) and their significance levels were presented in this table.

Appendix Table 2. continued.

	Violence to others	Violence by others	Bullying others	Bullied by others	Verbal abuse by parents	Physical abuse by parents
Parental education						
College or high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High school	1.86 (1.17-2.96)	1.14 (0.59-2.20)	0.82 (0.64-1.07)	1.77 (1.16-2.68)	1.36 (1.03-1.78)	0.96 (0.74-1.24)
Middle or less	1.91 (0.94-3.91)	1.36 (0.50-3.65)	0.58 (0.35-0.95)	1.32 (0.65-2.69)	1.78 (1.17-2.71)	1.18 (0.78-1.79)
Father's occupation						
High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Low	1.21 (0.66-2.22)	1.38 (0.53-3.60)	1.06 (0.75-1.48)	1.40 (0.78-2.52)	1.16 (0.81-1.67)	0.92 (0.66-1.28)
Others	1.47 (0.55-3.93)	1.75 (0.43-7.08)	1.04 (0.55-1.95)	1.88 (0.76-4.66)	1.56 (0.86-2.82)	1.14 (0.64-2.03)
Family income level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1.04 (0.65-1.69)	0.95 (0.43-2.10)	0.73 (0.55-0.97)	1.56 (0.95-2.55)	0.95 (0.70-1.29)	0.86 (0.65-1.14)
Low 1/4	0.75 (0.39-1.45)	2.07 (0.89-4.81)	0.69 (0.47-1.00)	1.62 (0.90-2.95)	1.34 (0.93-1.93)	0.96 (0.67-1.38)
Educational expenditure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1.71 (0.96-3.07)	1.64 (0.64-4.18)	0.76 (0.57-1.02)	0.81 (0.51-1.27)	1.21 (0.88-1.68)	1.18 (0.87-1.60)
Low 1/4	1.79 (0.95-3.38)	2.68 (1.04-6.91)	0.70 (0.49-0.98)	0.71 (0.42-1.21)	1.26 (0.88-1.81)	1.03 (0.73-1.46)
Housing						
Owner occupi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enter or others	1.92 (1.24-2.96)	1.21 (0.63-2.33)	1.28 (0.98-1.67)	1.14 (0.75-1.72)	1.57 (1.20-2.06)	1.49 (1.15-1.93)
Educational expectations						
Graduate school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University	0.94 (0.50-1.75)	2.10 (0.63-7.00)	0.89 (0.64-1.24)	1.36 (0.76-2.44)	0.72 (0.51-1.02)	0.54 (0.39-0.74)
College or less	2.63 (1.33-5.20)	4.88 (1.37-17.34)	1.08 (0.70-1.66)	1.48 (0.72-3.03)	1.92 (1.27-2.89)	1.34 (0.91-1.97)
Educational performance						
High 1/4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Middle 1/2	1.34 (0.76-2.35)	1.14 (0.46-2.82)	1.02 (0.77-1.35)	1.23 (0.78-1.93)	1.24 (0.91-1.70)	1.09 (0.81-1.46)
Low 1/4	3.32 (1.89-5.81)	4.68 (2.05-10.65)	1.13 (0.80-1.58)	1.48 (0.88-2.49)	2.76 (1.97-3.86)	2.20 (1.60-3.03)
Perceived economic hardships						
Never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1.00 (ref.)
Rarely	1.70 (1.01-2.85)	2.13 (0.93-4.90)	1.06 (0.79-1.44)	1.06 (0.65-1.74)	1.12 (0.90-1.55)	1.22 (0.90-1.65)
As usual or yes	2.00 (1.19-3.35)	3.39 (1.55-7.41)	1.33 (0.99-1.80)	1.72 (1.09-2.70)	1.99 (1.48-2.69)	1.82 (1.36-2.43)

청소년의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여가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전에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가정, 학교, 사회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여가의 맥락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Silbereinsen & Todt, 1994).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여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여가시간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도 적건 많건 간에 여가시간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중학생의 경우 평일에는 381.9분, 주말에는 656.4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평일에는 381.9분, 주말에는 514.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동규, 2001). 물론 여가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에 주로 학교공부나 학원에 다닌다는 것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여가시간은 외국 청소년의 여가시간보다 양적인 면에서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조아미, 2004). 앞으

로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청소년들은 지금보다 양적으로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가가 별로 없어서 여가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고등학교 미진학자가 9만 2천여명, 인문계 고등학생 중 대학 미진학자가 7만 3천여명, 실업계 고등학생 중 대학 미진학자가 26만 5천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청소년이 아닌 이들 청소년에게는 여가가 중요한 생활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여가와 관련시켜 보면,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지루해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그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이 대체로 문제행동이고 그 중에서도 약물사용이나 폭력행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 여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가권태와 문제행동의 관계(Iso-Ahola & Crowley, 1991; 조아미, 출판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된 편은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청소년패널 연구의 대상자이다. 이들은 3,449명의 전국의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이 중에서 여학생은 1,724명(50%), 남학생은 1,725(50%)였고, 연령별로는 13세 이하 9명(0.3%), 14세 2,691명(78%), 15세 749명(21.7%)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했다. 설문지 문항 중에서 이 연구에 사용된 것은 여가만족도 1문항, 생활만족도 1문항, 스트레스 17문항, 문제행동 6문항(원래는 14문항인데 반응수가 적거나 여가와 관련성이 적은 8문항은 제외)이었다.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항을 가지고 분석하거나 6개 문항을 합한 것을 문제행동으로 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경우 각각의 문항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두 문항을 합한 것을 여가/생활만족도로 하여 분석하기도 했다.

스트레스 17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은 주성분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varimax회전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요인은 외모/물질 스트레스로 6개 문항, 2요인은 부모 스트레스로 4개 문항, 3요인은 공부 스트레스로 4개 문항, 4요인은 친구 스트레스로 3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검증 결과, 크론바하의 알파계수가 전체 .8804, 외모/물질 스트레스 .8196, 부모 스트레스

.8712, 공부 스트레스 .7769, 친구 스트레스 .8321로 나타나 하위영역 간 신뢰도 계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스트레스 척도에 대한 주성분 요인분석

문 항	요 인			
	1	2	3	4
a01		.644		
a02		.825		
a03		.845		
a04		.795		
a05			.685	
a06			.776	
a07			.698	
a08			.687	
a09				.848
a10				.880
a11				.759
a12	.624			
a13	.594			
a14	.692			
a15	.788			
a16	.726			
a17	.691			
1요인 = 외모/물질스트레스				2요인 = 부모스트레스
3요인 = 공부스트레스				4요인 = 친구스트레스

3.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중학교 2학년 패널(2003-2008)연구의 1차 조사 자료로서, 자료수집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카이자승 검증, t검증, 최적화척도(optimal scaling)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

1) 여가만족도

청소년들이 본인의 현재 여가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1,363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만족하는 편이다 1,208명(35%),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521명(15.1%), 매우 만족한다 241명(7%),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16명(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여가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성별과 여가만족도(만족과 불만족)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청소년 여가만족도의 빈도 및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116	3.4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521	15.1
보통이다	1,363	39.5
만족하는 편이다	1,208	35.0
매우 만족 한다	241	7.0
합계	3,449	100.0

<표 3> 성별 여가만족도의 차이

구 분		여가만족도		합계
		불만족	만족	
성 별	남자	255(23.7%)	819(76.3%)	1,074(100.0%)
	여자	382(37.7%)	630(62.3%)	1,012(100.0%)
$\chi^2 = 48.172 \quad p = .000$				

2) 생활만족도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는 편이다가 1,626명(4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통이다 1,072명(31.1%),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421명(12.2%), 매우 만족한다 276명(8%),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54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기 보다는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성별과 생활만족도(만족과 불만족)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으로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빈도 및 퍼센트

구 분	빈도	퍼센트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54	1.6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421	12.2
보통이다	1,072	31.1
만족하는 편이다	1,626	47.1
매우 만족 한다	276	8.0
합계	3,449	100.0

<표 5> 성별 생활만족도의 차이

구 분		생활만족도		합계
		불만족	만족	
성별	남자	173(13.8%)	1,084(86.2%)	1,257(100.0%)
	여자	302(27.0%)	818(73.0%)	1,120(100.0%)
$\chi^2 = 64.553 \quad p = .000$				

3)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¹⁾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청소년들은 생활과 여가에 만족하는 경우가 83.3%이고 생활은 만족하지만 여가는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16.7%였다. 생활은 불만족하지만 여가는 만족한다는 30.3%이고 생활과 여가 모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9.7%였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구 분		여가만족도		합계
		불만족	만족	
생활만족도	불만족	216(69.7%)	94(30.3%)	310(100.0%)
	만족	211(16.7%)	1,054(83.3%)	1,265(100.0%)
$\chi^2 = 353.896 \quad p = .000$				

- 1)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서 불만족과 만족은 불만족의 경우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와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를 합한 것이고, 만족의 경우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합한 것이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여기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문제행동²⁾의 관계

1)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와 문제행동의 관계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담배피우기 등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담배피우기의 경우, 여가가 불만족스러운 청소년의 경우 16.3% 여가가 만족스러운 청소년의 경우 12%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가가 불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생활만족도와 담배피우기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표 7> 여가만족도와 담배피우기

구 분		담배피우기		합계
		없다	있다	
여가 만족도	불만족	533(83.7%)	104(16.3%)	637(100.0%)
	만족	1,275(88.0%)	174(12.0%)	1,449(100.0%)
$\chi^2 = 7.143 \quad p = .010$				

- 2) 문제행동은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뺑뜨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에서 빈도가 적은 성관계 경험, 패싸움, 원조교제, 남을 협박하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8> 생활만족도와 담배피우기

구 분		담배피우기		합계
		없다	있다	
생활 만족도	불만족	361(76.0%)	114(24.0%)	475(100.0%)
	만족	1,702(89.5%)	200(10.5%)	1,902(100.0%)
$\chi^2 = 60.282 \quad p = .000$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술마시기의 관계를 보면, 여가가 불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의 37.5%, 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의 26.5%가 술마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가가 만족스러울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활만족도와 술마시기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청소년의 46.5%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반면 생활이 만족스러운 청소년은 25.6%만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표 9> 여가만족도와 술 마시기

구 분		술 마시기		합계
		없다	있다	
여가 만족도	불만족	398(62.5%)	239(37.5%)	637(100.0%)
	만족	1,065(73.5%)	384(26.5%)	1,449(100.0%)
$\chi^2 = 25.647 \quad p = .000$				

<표 10> 생활만족도와 술 마시기

구 분		술 마시기		합계
		없다	있다	
생활 만족도	불만족	254(53.5%)	221(46.5%)	475(100.0%)
	만족	1,416(74.4%)	486(25.6%)	1,902(100.0%)
$\chi^2 = 80.015$ $p = .000$				

다른 사람 때리기는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가가 불만족스러운 청소년의 11.9% 만족스러운 청소년의 7.7%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청소년의 12.8% 만족스러운 청소년의 8%가 다른 사람을 때린 경험이 있었다.

<표 11> 여가만족도와 다른 사람 때리기

구 분		다른 사람 때리기		합계
		없다	있다	
여가 만족도	불만족	561(88.1%)	76(11.9%)	637(100.0%)
	만족	1,338(92.3%)	111(7.7%)	1,449(100.0%)
$\chi^2 = 9.888$ $p = .002$				

<표 12> 생활만족도와 다른 사람 때리기

구 분		다른 사람 때리기		합계
		없다	있다	
생활 만족도	불만족	414(87.2%)	61(12.8%)	475(100.0%)
	만족	1,749(92.0%)	153(8.0%)	1,902(100.0%)
$\chi^2 = 10.680$ $p = .002$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와 청소년의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따라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경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가가 불만족스러운 청소년의 7.8% 만족스러운 청소년의 4.3%, 그리고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청소년의 9.9% 만족스러운 청소년의 4.3%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여가만족도와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구 분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합계
		없다	있다	
여가 만족 도	불만족	587(92.2%)	50(7.8%)	637(100.0%)
	만족	1,386(95.7%)	63(4.3%)	1,449(100.0%)
$\chi^2 = 10.588 \quad p = .002$				

<표 14> 생활만족도와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구 분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합계
		없다	있다	
생활 만족도	불만족	428(90.1%)	47(9.9%)	475(100.0%)
	만족	1,821(95.7%)	81(4.3%)	1,902(100.0%)
$\chi^2 = 23.697 \quad p = .000$				

여가와 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이었다. 여가가 불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의 9.1% 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의 6.3%, 그리고 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의 10.5% 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의 5.9%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었다.

<표 15> 여가만족도와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구 분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합계
		없다	있다	
여가 만족도	불만족	579(90.9%)	58(9.1%)	637(100.0%)
	만족	1,358(93.7%)	91(6.3%)	1,449(100.0%)
$\chi^2 = 5.324 \quad p = .026$				

<표 16> 생활만족도와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구 분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합계
		없다	있다	
생활 만족도	불만족	425(89.5%)	50(10.5%)	475(100.0%)
	만족	1,790(94.1%)	112(5.9%)	1,902(100.0%)
$\chi^2 = 12.873 \quad p = .001$				

청소년들이 친구를 집단따돌림한 경험과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따라 친구를 집단따돌림한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가 불만족스러운 청소년의 18.8% 만족스러운 청소년의 11.5%, 그리고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청소년의 19.8% 만족스러운 청소년의 13.1%가 친구를 집단따돌림한 경험이 있었다.

<표 17> 여가만족도와 집단따돌림 시키기

구 분		집단따돌림 시키기		합계
		없다	있다	
여가 만족도	불만족	517(81.2%)	120(18.8%)	637(100.0%)
	만족	1,282(88.5%)	167(11.5%)	1,449(100.0%)
$\chi^2 = 19.944 \quad p = .000$				

<표 18> 생활만족도와 집단따돌림 시키기

구 분		집단따돌림 시키기		합계
		없다	있다	
생활 만족도	불만족	381(80.2%)	94(19.8%)	475(100.0%)
	만족	1,652(86.9%)	250(13.1%)	1,902(100.0%)
$\chi^2 = 13.561 \quad p = .000$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각각의 문제행동 6문항을 합하여 문제행동으로 하여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카이자승 검증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가와 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집단이 만족하는 집단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차이

변인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여가만족도	불만족	7.02	1.33	5.56	.000
	만족	6.68	1.07		
생활만족도	불만족	7.24	1.42	8.09	.000
	만족	6.67	1.06		

2)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담배피우기의 경우, 청소년의 담배 피운 경험에 따라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담배를 피운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보다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외모/물

질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0> 담배피우기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구분	담배피우기	평균	표준편차	t	p
부모스트레스	없다	8.0803	2.82835	-8.517	.000
	있다	9.4026	3.12949		
공부스트레스	없다	15.5209	4.01569	-4.280	.000
	있다	16.4847	4.55513		
친구스트레스	없다	6.3051	2.47460	-.253	.800
	있다	6.3406	2.84496		
외모/물질 스트레스	없다	15.2256	5.02628	-8.041	.000
	있다	17.2729	5.37334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험에 따라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술마신 경험에 따라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었다. 즉 술마신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다.

<표 21> 술 마시기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구분	술 마시기	평균	표준편차	t	p
부모스트레스	없다	7.8695	2.79279	-11.712	.000
	있다	9.1297	2.96348		
공부스트레스	없다	15.2686	4.01377	-8.143	.000
	있다	16.5109	4.17656		
친구스트레스	없다	6.2794	2.46642	-1.031	.303
	있다	6.3784	2.65729		
외모/물질 스트레스	없다	14.7594	4.93239	-13.042	.000
	있다	17.1686	5.14712		

다른 사람을 때린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때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2> 다른 사람 때리기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구분	다른 사람 때리기	평균	표준편차	t	p
부모스트레스	없다	8.1291	2.85037	-7.599	.000
	있다	9.5355	3.13303		
공부스트레스	없다	15.5046	4.03256	-6.020	.000
	있다	17.1097	4.51974		
친구스트레스	없다	6.2808	2.47702	-1.849	.065
	있다	6.6032	2.97029		
외모/물질 스트레스	없다	15.3976	5.02984	-3.219	.001
	있다	16.5097	5.87339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본 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부모 스트레스, 공부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이다.

<표 23>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구분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평균	표준편차	t	p
부모스트레스	없다	8.1670	2.85453	-6.565	.000
	있다	9.7831	3.31350		
공부스트레스	없다	15.5795	4.04921	-3.550	.000
	있다	16.8466	4.80832		
친구스트레스	없다	6.3131	2.50678	.279	.781
	있다	6.2540	2.85259		
외모/물질 스트레스	없다	15.3878	5.06387	-5.250	.000
	있다	17.3915	5.63189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스트레스의 하위 유형 모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4>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구분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평균	표준편차	t	p
부모스트레스	없다	8.1802	2.88442	-5.609	.000
	있다	9.2678	2.98797		
공부스트레스	없다	15.5717	4.06503	-4.059	.000
	있다	16.6862	4.47470		
친구스트레스	없다	6.2823	2.49102	-2.034	.043
	있다	6.6807	2.94516		
외모/물질 스트레스	없다	15.3701	5.06279	-5.378	.000
	있다	17.2092	5.57362		

친구를 집단따돌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에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부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물질/외모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친구를 집단따돌림시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부모, 공부, 친구, 물질/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5> 집단 따돌림 시키기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

구분	집단 따돌림 시키기	평균	표준편차	t	p
부모스트레스	없다	8.1437	2.88583	-5.588	.000
	있다	8.9325	2.92767		
공부스트레스	없다	15.4807	4.06678	-5.949	.000
	있다	16.6667	4.18346		
친구스트레스	없다	6.2687	2.49635	-2.226	.026
	있다	6.5583	2.69128		
외모/물질 스트레스	없다	15.2656	5.03541	-6.598	.000
	있다	16.9076	5.40402		

3.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여가/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문제행동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부모, 공부, 친구, 외모/물질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 그리고 여가/생활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 수록 부모, 공부, 친구, 외모/물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여가/생활만족도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6> 여가/생활만족도, 스트레스, 문제행동의 관계

변인	상관계수	유의도
부모 스트레스	.235	.000
공부 스트레스	.167	.000
친구 스트레스	.038	.027
외모/물질 스트레스	.214	.000
여가/생활만족도	-.157	.000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적화척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담배피우기의 경우 부모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 생활만족도가 청소년의 담배피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담배피우기 전체 변량의 4.5%를 설명하고 있었다. 술마시기의 경우 부모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외모/물질 스트레스, 생활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변량의 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 때리기의 경우 부모 스트레스만이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었고 부모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 때리기 전체 변량의 2.3%를 설명했다.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의 경우 부모와 친구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들 변인은 전체 변량의 2.8%를 설명하는 반면,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의 경우 외모/물질 스트레스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것은 전체 변량의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시키기의 경우 여가만족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변량의 2.5%를 설명했다.

<표 27>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제행동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Beta)	F	유의도 (Sig)	R ²
담배피우기	부모스트레스	.111	12.013	.001	.045
	외모/물질 스트레스	.092	8.982	.003	
	생활만족도	-.112	13.965	.000	
술 마시기	부모스트레스	.134	18.167	.000	.081
	친구스트레스	-.061	5.044	.025	
	외모/물질 스트레스	.152	25.634	.000	
	생활만족도	-.087	8.696	.003	
다른 사람 때리기	부모스트레스	.079	6.012	.014	.023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부모스트레스	.101	9.782	.002	.028
	친구스트레스	-.067	5.718	.017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외모/물질 스트레스	.084	7.282	.007	.015
집단 따돌림 시키기	여가만족도	-.093	10.326	.001	.025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여가만족도와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들의 여가와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가보다는 생활에 만족한다는 청소년이 좀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즐길 여가시간, 시설 등의 제약이 많고 대학입시 위주의 분위기로 인하여 여가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들이 여가와 삶을 즐기는데 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여가와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들이 여가나 생활에 대해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여가에 대한 제약이 더 많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아미, 2004).

셋째, 여가나 생활이 만족스러운 집단과 불만족스러운 집단 사이에는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훔치기, 남의 돈이나 물건훔치기, 집단따돌림 시키기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여가나 생활이 불만족스럽다는 청소년이 만족스럽다는 청소년보다 담배 피운 경험도 많고 술마신 경험도 많고, 다른 사람을 때린 경험도 많고,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거나 훔친 경험도 더 많고 집단따돌림을 시킨 경험도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가가 만족스럽지 못

할 때 약물을 사용하거나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넷째, 문제행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면,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의 경우 친구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담배 피우기, 술마시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뺏기의 경험이 있는 집단의 청소년이 없는 집단의 청소년보다 부모, 공부, 외모나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것이다. 한편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와 집단따돌림 시키기의 경우 부모, 공부, 친구, 외모나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스트레스보다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여가만족도, 생활만족도,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비율은 높지는 않지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여가만족도의 설명력이 낮았다. 이것은 여가만족도의 척도때문일 수도 있고 여가만족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여가만족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역할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성동규(2001).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실태와 독서습관 개선방안 연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조아미(2004). 청소년기의 여가. 청소년심리학(pp. 405-432), 교육과학사.
- 조아미(출판중). 청소년의 여가동기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여가권태의 역할: 폭력행동과 약물사용을 중심으로.
- Iso-Ahola, S.E. & Crowley, E.D.(1991). Adolescent substance abuse and leisure boredo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3) 260-271.
- Silbereisen, R.K. & Todt, E.(1994).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 New York: Springer-Verlag.

II. 교육 · 사회관계

1. 중학생의 왕따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
2. 친구관계와 유의미 타자
3. 청소년비행과 친구 스트레스

중학생의 왕따 발생 요인에 대한 연구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I. 서론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의 왕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학생들이 실제로 재학 중 왕따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교내 왕따로 인해서 40여 년 동안 교직에 종사한 교장을 자살로까지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중앙일보, 2004.2.25).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교의 학생들의 7.0%가 왕따를 경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상에 왕따관련 동영상이나 사례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왕따로 인해 전학을 간 경우에도 인터넷에 왕따에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한 신상정보를 올려 놓아서 학생이 전학한 학교에서도 적응을 어렵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학생들의 왕따에 대해 한쪽에서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다양한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을 통해 왕따에 대처해야 한다는 시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 재학 중 왕따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왕따 경험과 다른 여러 학생 관련 결과물들과의 관련성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춘재·곽금

주, 2000; Espelage and Swearer, 2004).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학생들의 재학 중 왕따에 대해서 단순 조사 분석을 통한 실태나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의 자료수집에 대한 어려움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문제제기를 넘어서 중학생들의 재학 중 왕따 경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대처방안을 정부, 교육기관, 교육연구자들은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조사는 1998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2001년도부터 수행된 중앙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가 있다. 특히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단순히 학교생활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재학 중 왕따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 학교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수집된 종단 자료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왕따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재학 중 왕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학 중 왕따 실태

우리나라의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의 왕따 실태를 기존에 나와 있

는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왕따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수행된 왕따실태에 대한 보고서들에 바탕을 두고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의 왕따 경험 정도는 1990년도 후반기에 주요 교육현안으로 등장한 이후 점차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왕따 경험 비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의 왕따와 관련해서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1998년도의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박경숙·손희권, 1998)와 청소년보호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2003)가 대표적이다. 이 두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중학생대상 왕따관련 조사에서 추가로 나타난 왕따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주요 설문조사별 중학교 재학 중 왕따 경험비율(%)

	청소년 대화의광장 (1997)		한국교육 개발원 (1998)	가우디 (1999)	이춘재·곽금주 (2000)		청소년보 호위원회 (2003)
총 사례수(n)	546		2138	437	690		4,454
대 상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중학생
지 역	전국		전국	용인시	전국		전국
왕따형태	왕따피해	왕따가해	왕따피해	왕따피해	왕따피해	왕따가해	왕따피해
	28.4	41.8	26.9	33.2	11.4	19.7	5.6
남 자				30.8	13.3		5.6
여 자				34.2	9.1		5.4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전국 중학생들의 26.9%라는 높은 비율로 왕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2003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서는 단지 5.6%만이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간동안의 왕따 비율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왕따 실태가 1990년 후반 보다 2000년대의 조사에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른 중학생 대상 왕따 실태와 비교해 볼 때 왕따

피해 비율은 10-20%로 추정할 수 있다.

왕따 경험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남학생의 왕따 당한 경험 정도가 여학생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2003)에 따르면 남학생들의 5.6%와 여학생들의 5.4%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친구를 왕따시킨 경험이 있는 것은 오히려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왕따 경험 정도를 비교해 보면 대도시 지역이나 시지역 보다는 읍·면지역처럼 인구규모가 점차 작은 지역일수록 학생들이 왕따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초등·중등학교 재학생의 왕따 피해 경험의 지역별 비교에서 도시지역에서는 23% 내외로 나타났지만 읍면지역에서는 29.6%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도시일수록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서 학생들 간의 이질성이 많아서 왕따가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동일한 학생들이 거주하는 경향이 강한 시골지역 일수록 집단간의 동류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학생들의 왕따 유형을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신체 특징이나 외모로 욕하거나 놀리며 고의로 집단활동에 끼워주지 않거나 무시를 하고 헛소문을 퍼트려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기 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왕따 현상은 한 학기에 평균 3-5번 정도로 발생하고 있었다(가우디, 1999; 박경숙·손희권, 1998; 이춘재·곽금주, 2000).

중학생들의 왕따 경험여부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미국 및 유럽의 국가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4년도 WHO 자료에 따르면 만15세 학생들의 왕따 비율을 살펴보면 리투아니아, 독일, 스위스, 라트비아 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랑스와 미국이 중간이었으며 스웨덴, 영국,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왕따 현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연합뉴스, 2001.5.27; Craig and Harel, 2004). 아시아권 나라들을 제외한 조사대상 국가들간의 왕따 발생비율은 19-73%로 상당한 편차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중학생들의 왕따 경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앞에서 나타난 1998년도 한국교육개발원조사보다는 좀 낮게 청소년보호위원회조사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왕따 유형은 남을 놀리거나 조롱을 통한 왕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에서 분석된 일반적인 형태의 왕따 유형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표 2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생 3,449명의 왕따 경험비율(%)

	왕따 형태			
	왕따 시키기		왕따 당하기	
	학생수(n)	비율(%)	학생수(n)	비율(%)
왕따 경험	868	25.2	498	14.4
성별				
남학생	474	27.5	287	16.6
여학생	394	22.9	211	12.2
왕따 유형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	512	14.8	340	9.9
남을 협박	148	4.3	161	4.7
다른 친구 집단따돌림	489	14.2	163	4.7

2. 왕따 발생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재학 중 왕따 경험여부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왕따 실태 파악 및 단순 기술에 초점을 맞춘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학생 관련 결과변수(학교폭력, 심리적 불안, 학업성적 등)들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려는 연구이다(이상균, 1999; 이춘재·곽금주, 2000; Ma, 2001). 국내에서는 대체로 전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국외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자료를 이용해 후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왕따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은 왜 학생들이 왕따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주로 수행되었지 학생들의 왕따 경험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왕따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야 몇 편 수행된 정도이다(이상균, 1999).

국내에서 왕따와 관련되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이후 최근까지의 왕따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변수, 가족 구성원의 특성, 학교관련 변수들이 학생들의 왕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우디, 1999; 박경숙·손희권, 1998; 이춘재·곽금주, 2000). 왕따에 대한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면 각 조사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왕따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족구성의 특징이 학생들의 왕따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현대사회의 가정은 대체로 핵가족화 되어서 각 학생들이 집단별 생활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편부모와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관심과 대화할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왕따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대부

분이 같이 보내게 되는 친구가 누구이며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왕따 경험 비율이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부모와 관련된 변수들도 학생들이 왕따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경숙·손희권, 1998).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낮은 경우에 동시에 왕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학력이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임금과도 관련이 있고 학생들의 왕따는 아주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는 경우, 아주 모범생이나 암전한 학생 또는 약간 특이하게 눈에 띄는 학생인 경우에 왕따의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양육방식에 따라서 학생들이 왕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허용 또는 자녀에 대한 잦은 체벌과 같은 경우를 경험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왕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학생들 자신이 자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시키거나 하게 되는데 특히 자아개념이 높거나 낮은 학생에게서 왕따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이춘재·곽금주, 2000). 특히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반면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학생의 경우는 왕따의 대상이 되곤 한다. 하지만 학교성적과 왕따를 비교해 볼 때 학교성적이 왕따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학교성적과 왕따 경험여부에 대해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박경숙·손희권, 1998; 이상균, 1999). 이렇게 최근 나타나고 있는 중학생들의 왕따에 대한 다음의 기술은 왕따 대상이 얼마나 다양한 가를 잘 보여준다.

따돌림 받는 애들을 보면, 잘못하는 행동은 없는데 이상해 보이는 것은 많아요. / 말 잘 안하고 그러는 아이들이에요. 원래 성격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말 잘 못하는 아이들이요. / 원래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한테 붙어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요. / 학교생활 하면서 잘난 척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하나를 가지고도 뽐튀기 하는 아이들, 나서기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조은경·박한샘, 1997, pp. 98-99).

그리고 앞의 왕따 실태부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학생 각각의 개인적인 배경요인에 더불어서 다양한 학교관련 특성들이 학생의 왕따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경우에 중소도시나 군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왕따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우디, 1999; 박경숙·손희권, 1998). 대체로 도시지역의 학생들이 부모를 따라서 자주 거주지역을 옮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인구이동이 적은 군지역보다는 왕따에 적게 노출되기 때문에 왕따 경험여부에 대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화 정도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간의 학교내 관계에 따라서도 왕따 발생한다.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늘 사소한 문제라도 파악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왕따를 적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왕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자연히 학생들도 왕따관련 행동들을 덜 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학생들의 왕따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교육학 연구자들이 수행한 왕따에 대한 실증적 연구물들은 많지 않았을 뿐더러 설사 있다고 해도 제한된 자료만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해서 전국규모로 표집된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현재까지 교육관련 논의에서 재학 중 왕따 경험은 실제 교육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육학자 및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교육관련 담당자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생 및 학교별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이다. 다행히도 최근 공개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가 왕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왕따 경험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몇몇 분석보고서(한국청소년개발원, 2002, 2003)에서는 왕따에 대해 간략히 실태를 분석한 부분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중학교 재학 중 왕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국규모의 자료를 이용해서 왕따 경험에 대한 학생 및 학교변수들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국내에서 시행된 1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학생수준의 변수와 학교수준의 변수들이 중학교 학생들의 왕따 경험여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왕따 시키기 및 왕따 당하기 정도가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가? 각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 변수들을 투입한 후에도 왕따 정도의 학교별 차이가 존재하는가?
- 각 학생수준 변수 중에서 학생들의 왕따 시킬 및 왕따 당할 가능성과 관련 있는 변수는 무엇인가? 학생수준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어떤 학교수준 변수가 학생들의 왕따에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집

본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왕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2003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3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한국청년패널조사는 약 3,700명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종단조사로 설계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후 1년차)까지 6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4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08년(중학교 2학년)까지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에 발표된 1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 참여 등의 학교내외의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중학생 대상 1차년도에는 총 3,449명의 학생패널이 참가하였고 이들의 직업, 여가, 그리고 학교생활 관련 분석에 매우 유용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관련 연구의 필수요건인 자기 보고식 학업성취척차관련 자료와 사교육관련 자료가 있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가구용 설문과 학생용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104개 학교에 재학 중인 3,449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변수

먼저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왕따 시키기 및 당하기와 학생 및 학교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왕따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독립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 중에서 기존의 학교별 차이와 관련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표 3>과 같다.

< 표 3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의 학생 및 학교수준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 수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변수 설명
1수준 자료(학생수준)				
종속변수				
왕따 시키기	3449	0.25	0.43	재학중 왕따 시키기 경험
왕따 당하기	3449	0.14	0.35	재학중 왕따 당하기 경험
학생변수				
성별	3449	0.50	0.50	여학생=1, 남학생=0
사회경제적 지위	3241	0.00	1.00	연간 총 소득의 자연로그(표준화)
부모 교육수준	3393	12.72	2.67	부모의 총 교육연수
편부모와 거주	3248	0.04	0.19	편부모와 거주=1, 기타=0
일하는 어머니	3392	0.47	0.50	어머니 근로=1, 기타=0
형제 자매수	3140	1.28	0.55	총 형제 자매수
친한 친구수	3438	8.94	10.73	총 친한 친구수
동호회 활동여부	3449	0.47	0.50	공식·비공식 동호회 참여=1, 기타=0
학급내 등수(비율)	3226	44.99	27.72	학급내 등수비율(상위 0%-하위 100%)
긍정적인 부모상	3445	0.00	1.00	긍정적인 부모상(표준화)
부정적인 부모상	3443	0.00	1.00	부정적인 부모상(표준화)
긍정적인 자아개념	3448	0.00	1.00	긍정적인 자아개념(표준화)
부정적인 자아개념	3444	0.00	1.00	부정적인 자아개념(표준화)
2수준 자료(학교수준)				
학교 변수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104	299.01	79.05	학교 평균 연간 총 소득(만원)
학교평균 부모교육수준	104	12.70	1.26	학교 평균 부모 교육수준
학교규모	104	346.27	138.33	전체 중 2 학생 수
서울시지역 여부	104	0.19	0.40	서울시 지역=1, 기타=0
광역시지역 여부	104	0.29	0.46	광역시 지역=1, 기타=0
도지역 여부(준거집단)	104	0.52	0.50	도 지역=1, 기타=0
긍정적인 학교풍토	104	0.00	1.00	긍정적인 교사와 학생관계(표준화)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2003년에 실시된 1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왕따 시키는데 참여 여부와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각각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 중에서 지난 1년간 재학 중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남을 협박하고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 시킨 경우가 있을 때 왕따 시킨 것으로 간주하였고, 이와 반대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나 협박당하고 집단따돌림 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왕따 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학생 중에서 다른 친구를 집단으로 따돌린 경험이 있는 경우는 14%로 나타났고 거꾸로 따돌림을 당한 경우는 5%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생배경변수

학생수준 변수들은 개인배경변수, 친구관계와 학교석차,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견과 자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배경 또는 인구학적 변수들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의 성과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 중 한 명과만 거주여부,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 형제 자매의 총 수 등이다. 사회경제적 지위(SES)는 가계의 월평균 총 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에 자연로그로 변환 후에 표준화한 변수이다. 친한 친구 수는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매우 친한 친구의 총 수이며 동호회 활동여부는 교내외 공식 동아리, 비공식 소규모 동아리, 사이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여부를 나타낸다. 학교석차는 현재 학생이 속한 학급내 등수의 비율이며 총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상위 석차인 경우일수록 비율이 낮게 된다. 부모에 대한 의견과 자아개념은 각각 부모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정도와 부

정적인 인식을 하는 정도를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최종 부모상과 자아 개념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생성된 후에 표준화 되었다.

다. 학교관련 변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따로 학교와 관련된 설문지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변수 이용에 제약이 있지만 학생 설문지와 가구 설문지에서 학교관련 변수의 구성이 불가능하지 않은 않다. 우선 학교배경변수로는 각 학교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균한 학교별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평균 부모교육수준, 학교규모, 학교소재지(서울지역, 광역시지역, 그리고 도지역) 등이다. 학교특성 변수는 긍정적인 학교풍토로서 학생이 느끼는 긍정적인 교사와의 관계를 요인분석을 통해 생성한 후 학교별로 평균한 이후에 표준화한 변수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왕따에 대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는 자료수집을 위한 표집방법, 표집가중치(sampling weighting) 적용, 자료분석 및 결과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층화 다단계 군집추출(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집된 학생들이 학교내에 속해 있는 위계적 형태의 자료구조를 띄고 있다. 즉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위계적 자료구조를 지닌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분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 HGLM)이다. 특히 종속변수가 본 연구에서처럼 왕따 시키거나 당한

경험 여부(예=1, 아니오=0)같이 이분변수인 경우에는 독립변수들과의 관계가 비선형이고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이 더욱 유용한 분석방법이다(강상진, 이명애, 2002; 이명애, 강상진, 2003; Hox, 2002; Raudenbush and Bryk, 2002). 특히 위계적 일반화선형 분석방법은 최근에 학교효과연구, 문항반응이론연구, 의학연구 등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강상진, 2003; 양정호, 2002, 2003; 양정호 · 김경근, 2003; Leyland and Goldstein, 2001; Raudenbush and Sampson, 1999).

본 연구에서 왕따 경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HLM 6.0 프로그램(Raudenbush, et al., 2004)이 사용되었다. 기존의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s, HLM)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2수준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1수준 모형: 학교내 모형(within-school model)

1수준에서는 왕따에 대한 로짓 연결함수를 사용하면 일반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처럼 n_{ij} 는 j 번째 학교에 있는 i 번째 학생이 왕따를 시키거나 당할 승산로그(log of the odds of success) 또는 로그 오즈(log-odds)는 로짓(logit)값이 된다. 1수준 모형은 다음과 같다.

$$n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_{ij} + \beta_2j(\text{사회경제적 지위})_{ij} + \dots + \beta_{13}j(\text{부정적 자아개념})_{ij} \quad (1)$$

위의 식에서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부정적 자아개념은 독립변수이고 β_0j 는 절편 값이고 $\beta_1j \dots \beta_{13}j$ 는 각 학생수준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나타낸다. 각 학생수준 독립변수들은 전체평균으로 중심점(grand-mean centering)을 교정하였다.

나. 2수준 모형: 학교간 모형(between-school model)

2수준 모형은 각 학교간의 왕따 경험에 대한 차이를 학교의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설명하게 된다.

$$\beta_{0j} = \gamma_{00} + \gamma_{01}(\text{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지위})_j + \dots + \gamma_{06}(\text{긍정적 학교풍토})_j + u_{0j}$$

$$\beta_{1j} = \gamma_{10}$$

$$\vdots \quad \vdots$$

$$\beta_{Qj} = \gamma_{Q0}, \quad Q > 0.$$

(2)

식 (2)에서 β_{0j} 만 각 학교마다 변하는 임의효과로 설정되었고 다른 학생변수들의 효과는 고정효과로 지정하였다. γ_{00} 은 왕따 경험할 총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gamma_{01} \dots \gamma_{06}$ 은 각 학교변수들의 효과를 나타낸다. u_{0j} 는 평균 0과 분산 τ_{00} 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루게 된다. 각 학교수준 독립변수들은 전체평균으로 중심점(grand-mean centering)을 교정하였다.

IV. 연구결과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HGLM) 분석에서는 우선 1수준을 제외한 각 수준별로 존재하는 분산을 파악하게 된다. 즉 각 수준별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교수준별 왕따 경험에 대한 분산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부모형 또는 기초모형(unconditional model)이라고 한다(강상진, 1995, 1998; Raudenbush and Bryk, 2002).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한 가설에 따라 선택된 학생수준 변수를 먼저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학교수준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을 각각 학교내 모형(within-school model)과 학교간 모형(between-school model)이라고 한다. 위의 세모형별 결과를 차례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조건부모형(unconditional model)

최초의 무조건부모형에서는 아무런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왕따 경험여부에 대한 학교별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모형에서의 다른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살펴보게 된다. 특히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인 경우에는 1수준 분산이 이(異)분산적(heteroscedastic)이기 때문에 각 1수준 단위(학생)마다 다르므로, 총 분산에 대한 각 수준의 분산비율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하지만 만약 관측오차가 이론적인 이항 오차분포를 정확히 이룰 때 1수준 분산의 척도인수(scale factor)가 1이 되게 된다(Hox, 2002).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1수준 분산을 1이라고 가정하였고 결과해석에서는 2수준 분산만을 설명하였다.

<표 4>와 같이 왕따 시키거나 당한 경우의 로짓에 대한 학교수준 분산은 각각 0.14와 0.11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추정된 왕따 참여여부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다양한 학생변수와 학교관련 변수들을 이용한 분석이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추정된 각 학교의 평균 왕따 시키기 로그 오즈 또는 로짓은 -1.10이고 학교 평균 왕따 당하기 로그 오즈는 -1.78이며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승산(odds 또는 odds of success)은 $e^{-1.10} = 0.33$ 과 $e^{-1.78} = 0.17$ 이고 확률은 각각 $1/(1+\exp(1.10)) = 0.25$ 와 $1/(1+\exp(1.78)) = 0.14$ 이다. 즉 실제로 일반적인 학교에서 왕따 시킬 경험을 할 가능성이 하지 않을 가능성 보다 0.33배 낮으며 반대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 보다 0.17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4 >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왕따에 대한 각 수준별 HGLM 분산 분석
(n = 104개 학교에 있는 3,449명의 학생)

	왕따 시키기		왕따 당하기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정효과				
절편	-1.10***	0.05	-1.78***	0.06
임의효과				
1수준 분산(최도인수)	1.00		1.00	
학교수준 분산	0.14***		0.1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학교내 모형(within-school model)

앞의 무조건부모형에서 나타난 왕따 경험여부에 대한 다양한 학생 관련 변수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수준 변수만을 투입한 학교내 모형의 분석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학교내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크게 학생관련 배경변수, 친구관계 및 동아리 활동과 학교 석차,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의견과 자아개념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 표 5 >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왕따에 대한 학교내 HGLM 모형 분석결과
(n = 104개 학교에 있는 3,449명의 학생)

	왕따 시키기		왕따 당하기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정효과				
절편	-1.17***	0.06	-1.88***	0.06
학생변수				
성별	-0.20*	0.10	-0.46***	0.11
사회경제적 지위	0.08~	0.05	-0.12*	0.06
부모 교육수준	0.03~	0.02	0.01	0.02
편부모와 거주	-0.09	0.23	0.21	0.24
일하는 어머니	-0.05	0.08	0.03	0.10
형제 자매수	0.00	0.08	0.06	0.10
친한 친구수	0.00	0.00	-0.02**	0.01
동호회 활동여부	0.29***	0.08	0.51***	0.10
학급내 등수(비율)	0.00	0.00	-0.00	0.00
긍정적인 부모상	0.07~	0.05	0.04	0.06
부정적인 부모상	0.28***	0.04	0.21***	0.05
긍정적인 자아개념	0.08~	0.05	-0.05	0.05
부정적인 자아개념	0.43***	0.05	0.29***	0.05
임의효과				
1수준 분산(척도인수)	1.00		1.00	
학교수준 분산	0.13***		0.06*	

~ $p \leq .10$,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위의 학교내 모형 결과에 따르면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동호회 활동여부, 부정적인 부모상,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에서 공통적으로 왕따 시키거나 당한 경우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을 왕따시키거나 반대로 학생 자신이 왕따를 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 교육수준에 대한 추정효과가 남을 왕따 시키기에서는 각각 0.08과 0.13이었고 왕따 당하기에서는 각각 -0.12와 0.01로 나타났다. 즉 왕따 시키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마다 $e^{0.08} = 1.08$ 배 증가하고 왕따 당하는 경우

에는 반대로 $e^{-0.12} = 0.88$ 배 감소하게 된다. 또한 친한 친구 수가 많은 경우에 왕따 당할 가능성에 대한 추정효과가 -0.02 로 낮게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왕따 시키거나 당하기에서 각각 0.29와 0.51로짓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왕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상과 자아개념에 따라서 왕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각각 0.28로짓과 0.21로짓 만큼 다른 학생들을 왕따 시키거나 자신이 왕따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중학생들도 왕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정적인 부모상과 자아개념을 지닌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왕따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학교간 모형(between-school model)

최종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은 학교간 모형으로 각 학교내 모형의 변수들인 학생변수들을 투입한 후에 동시에 학교평균의 왕따 경험 가능성에 대한 학교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게 된다. <표 6>에서 학교수준의 변수들을 투입한 최종 학교간 모형의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최종모형과 동시에 추정된 학교내 모형의 결과는 <표 5>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제시 및 논의를 생략하였다.

< 표 6 >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왕따에 대한 학교간 HGLM 모형 분석결과
(n = 104개 학교에 있는 3,449명의 학생)

	왕따 시키기		왕따 당하기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교정효과				
절편	-1.14***	0.08	-1.89***	0.08
학교변수				
학교평균 사회경제적 지위	0.00	0.00	0.00	0.00
학교평균 부모교육수준	0.02	0.08	0.08	0.08
학교규모	0.00	0.00	0.00	0.00
서울시지역 여부	-0.04	0.17	0.20	0.17
광역시지역 여부	-0.09	0.14	-0.11	0.14
도지역 여부(준거집단)				
긍정적인 학교풍토	-0.06	0.06	0.03	0.06
임의효과				
1수준 분산(최도인수)	1.00		1.00	
학교수준 분산	0.15***		0.07*	

~ $p \leq .10$,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학교간 모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학교변수들이 왕따 시키기나 왕따 당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학교규모가 크고 읍·면지역에서 더 왕따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왕따 경험과 관련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이유가 무엇인지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한국청소년패널조사만이 지닌 특징인지 아니면 지역간 구분을 좀더 구·군·중소도시로 세분화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학교풍토 변수도 왕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이전의 학교내 모형에 학교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한 최종모형에서의 학교수준 분산은 왕따 시키기와 왕따 당하기의 최초의 무조건

부모형 결과인 0.14와 0.11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0.15와 0.07로 나타났다. 즉 왕따 시키기 모형에서는 각 모형간의 설명력에 별 변화가 없는 반면에, 왕따 당하기 모형은 약 36%의 왕따 당할 가능성이 학생변수 및 학교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직도 왕따 경험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 학교의 다양한 특성변수들에 따라서 학생들의 왕따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나는가를 좀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재학 중 왕따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수준 및 학교수준 변수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수집한 2003년도 1차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에 아무런 독립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왕따 경험에 대한 학교수준의 분산은 왕따 시키기가 0.14이고 왕따 당하기가 0.11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에서는 1수준 분산이 각 1수준 단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2수준 분산만 설명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학교수준 분산은 학생들이 왕따를 경험할 가능성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별 특성에 따른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왕따를 경험하는 것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왕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왕따 경험여부와 학생수준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동호회 활동여부, 부정적인 부모상과 자아개념 변수가 학생들이 왕따를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족 구조

를 포함한 다른 배경변수들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왕따시키거나 자신이 당하는 것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변수 모두 왕따 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왕따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좀더 세분화된 지역구분(구·군·중소도시)을 이용한 분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는 지역내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광역시·도 단위가 아닌 세분화된 지역구분을 이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 왕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대부분 각 학생변수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왕따 시키거나 자신이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부모와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중학생들의 재학 중 왕따를 억제하기 위한 일회성의 프로그램 보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안과 밖의 기관에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왕따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공모(가우디, 1999), 수호천사 같은 왕따 예방 프로그램(박경현·백경임, 2000)의 개발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왕따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학교 및 사회차원의 문제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강진령·유형근, 2000; 이준재·곽금주, 2000). 따라서 왕따를 경험한 학생에 대한 대한

개별 상담과 병행해서 학교에서 왕따에 대한 명확히 지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교사들도 왕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서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왕따를 용인하지 않은 분위기로 몰고 가야하며 왕따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의 각 구성원들이 하나의 학교공동체 일원으로서 각자 책임을 지고 왕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내자료와 국제자료의 연계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왕따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국제비교를 통해서 외국에서는 왕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 왕따에 대한 정책 수립에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내 교육연구자와 정부기관간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진(1995). 다층통계모형의 방법론적 특성과 활용방법. 교육평가연구, 제 8권 제 2권, pp. 63-94.
- 강상진(1998). 교육 및 사회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다층모형과 전통적 선형모형과의 비교분석. 교육평가연구, 제 11권 제 1호, pp. 207-258.
- 강상진(2003). “교육학의 미래와 다층모형.” 한국교육, 제 30권 제 3호, pp. 437-456.
- 강상진·이명애(2002). 비선형 다층모형에 의한 검사 문항반응 분석방법. 교육평가연구, 제 15권 제 1호, pp. 273-294.
- 강신령·유형근(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가우디 엮음(1999). 왕따 리포트. 서울: 우리교육.
- 곽금주(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프로그램(Ⅰ) :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연구, 제 5권 제 2호, pp.105-122.
- 구본용(199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보고서.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경섭·유광태 역(2002).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김영사.
- 김순옥·송현애(1998).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모형 개발 및 효율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3권 제 1호, pp. 93-119.
- 김용태·박한샘·조은경(1997).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종기(2003). 학교폭력 전문기관의 활동사례 보고 및 학교폭력 처리절차(상황별 대처방법등/청예단). 학교폭력대책국민운동추진을 위한 단체 전문가 Workshop 자료집.
- 박경숙·손희권(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

- 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현 · 백경임(2000).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왕따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 12권 제 2호, pp. 81-93.
- 박진규(1999). 청소년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울시교육청(1999). 따돌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교육청(2002). 사랑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갑시다.
- 양정호(2002). School effects: New trends in the sociology of education. 교육사회학연구, 제 12권 제 1호, pp. 115-134.
-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제 30권 제 2호, pp. 261-283.
- 양정호 · 김경근(2003).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조직의 효과: TIMSS-R의 위계적 선형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 13권 제 2호, pp. 165-184.
- 연성진(2000). 폭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상 외(2002). 청소년 패널조사 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명애 · 강상진(2003). “다층문화반응모형에 의한 검사 문화반응 분석: 3수준 비선형
- 이민희 · 이춘화(1999). 집단따돌림 예방 및 지도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 이춘화(1999). 학교내 비폭력문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상균(1999). 중학생 또래따돌림(‘왕따’)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 37권 제 4호, 357-379.
- 이시형(1998).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춘재 · 광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

문당.

이훈구(1999). 학교폭력 : 그 현황과 대책. 왕따·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일 학술대회.

조은경·박한샘(1997). 친구 따돌림에 대한 면접조사. 김용태, 박한샘, 조은경.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pp. 85-121).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재활프로그램 프로그램매뉴얼(MANUAL) : 고등학생 - 기관용.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프로그램 학생활동집(Workbook) : 고등학생 - 학교용.

청소년보호위원회(2003.8). 2003년도 상반기 인터넷을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한울림.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1993).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연구소개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청소년 패널조사 안내.

연합뉴스(2001.5.27). 학교 '왕따' 유럽과 북미 전역서 기승.

중앙일보(2004.2.24). 교장 죽음 부른 '왕따 교실'.

Craig, W.M., & Harel, Y.(2004). Bullying, physical fighting and victimization. In Currie, C. et al(Eds.), Young people's health in context Copenhagen, Demark: World Health Organization.

Espelage, D.L., & Swearer, S.M.(2004). Bullying in American schools. Mahwah, NJ: Lawrence Erlbaum.

Hox, J. (2002).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yland, A.H., & Goldstein, H. (Eds.). (2001). Multilevel modelling of health statistics. New York: Wiley.
- Ma, X.(2001). Bullying and being bullied: To what extent are bullies also victim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2), 351-370.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Newbury Park, CA: Sage.
- Raudenbush, S. W., Bryk, A. S., Cheong, Y.F., & Congdon, R. T. (2004). HLM 6: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Raudenbush, S. W. & Sampson, R. (1999). Econometrics: Toward a science of assessing ecological settings, with application to the systemic social observation of neighborhoods. Sociological Methodology, 29, 1-41.

친우 관계와 유의미 타자

김선업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II. 머리말

친우 혹은 또래집단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줄곧 지적되어 왔다. 청소년기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비추어 정서적 의존에서 독립 사이에서 경험하는 과도기적 상태에 주목하는 심리학적 접근들은 부모중심 관계에서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친구관계의 정서적 효과를 강조해 왔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인접 관계의 심대한 변화를 중시하는 보다 거시적 관점들은 사회적변으로 인한 전통적 연대의 약화가 새로운 또래관계의 형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기도 한다. 사실 청소년 친구관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자녀에 있어서 친구가 지니는 현실적 의의를 보다 절감하고 있는 부모와 어른세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친우 관계에 대한 분석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친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친우관계의 특성이나 분화양상 등을 심리적, 사회적 제반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친구관계가 행동이나 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물론 양자가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의 설명에는 이미 효과와 결과에 관한 설명 요인을 함축하는 인과적 순환성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적어도 분석적으로 양자 관점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고는 연령적으로 동질적인 청소년 집단의 친구관계의 특성과 분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자의 입장에서 시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의 네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는 친구 관계의 형식과 내용적 특성에 대한 기술과 설명이다. 친구관계의 형식과 속성을 규정한 다음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고 하위 집단별 차이점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두 번째는 친구관계와 인접 관계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이다. 청소년의 핵심적 사회환경인 가족의 구조와 관계들이 친구관계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를 분석한다. 세 번째는 보다 광범위한 친밀망(networks of intimacy) 분석이다. 친밀관계망 분석은 단순한 이차적 친구관계를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인접 관계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는 집단적 맥락에서의 친구관계의 분석이다. 학교내외의 공식적 비공식적 또래 활동이 친구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지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유의미한 타자에 대한 분석이다. 진로결정시 영향을 미친 계기와 사람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의미한 타자의 성격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상의 분석 목적은 엄밀한 이론과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요인을 탐구하고 색출하기 위한 탐색적이고 귀납적인 것이다. 또한 연구의 궁극적 목적 가운데 하나는 친구관계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탐구이다. 본 연구를 이를 위한 예비적 분석 과정이다.

II. 예비적 고찰

분석에 앞서 기본적인 전제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분석 주제를 설정하기로 한다. 본 자료는 의심할 여지없이 표본의 대표성과 측정의 엄밀성을 유지하고 있는 흔치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규정되고 조작화된 방식으로 측정된 개념과 자료는 분석자에게 순수 자료로부터 출발하는 개념화와 일반화의 귀납적 과정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여기서 선정된 분석 주제의 일부는 자료의 특성에 비추어 선택된 제한적인 것이다.

1. 관계의 총체성: 친구관계와 인접관계

청소년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접관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 불가결하다. 친구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특정 관계들의 특성과 효과를 구분해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관계의 의의를 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관계, 선생님과과의 관계 등 청소년을 둘러싼 핵심적 인접 관계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했던 초기 연구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 관계인가를 판별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양자를 ‘길항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Briitain, 1963, Floyd & South, 1998).

그런가하면 흔히 ‘애착이론’으로 일컬어지는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입장은 관계들의 연속성을 전제한다. 초기의 부모와의 애착과 같은 가족관계가 이후 시기의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생애 초기에 가족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의 애착에 도달한 청소년은 나중에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역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 애착이론은 일반화된 신념과 태도와 같은 인지적 요소의 발달이나 원만한 인간관계의 수립에 요구되는 기술의 습득과 내면화를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Collins & Sroufe, 1999) 설명의 설득력은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애착이론은 이미 분석에 앞서 애착을 긍정적으로 간주함으로써 친구관계의 다양한 속성을 단순화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청소년을 둘러싼 관계들의 전제

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이를 단순화함으로써 친구 관계의 독특한 요소들을 무시할 위험성이 있다(Furman, et al, 2002) .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와 가족을 핵심으로 하는 인접관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친구관계와 관련 요인의 다차원적 속성을 전제한다. 먼저 친구관계의 형식과 속성을 중심으로 친구관계의 다양한 요소를 규정하고 이들 간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을 둘러싼 구조와 관계가 친구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차원별로 분석한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성, 학업성적 및 거주지역과 같은 일반 요인과 가족 관련요인을 포함된다. 가족관련 요인은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 형태적 요인 및 가족 기능적 요인으로 다시 구분된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란 가족의 계층적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 형태는 가족의 형식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의 생존 여부, 부부가족/확대가족, 형제의 수에 따른 가족 유형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자녀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의 기능적 측면은 가족 기능의 결손에 대한 인지와 가족관계의 질(도현심,최미경, 1998, 최정은,신용주, 2003)로서 규정한다. 전자에는 인지된 가족 갈등의 정도와 인지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후자에는 부모의 감독과 부모와의 친밀감이 포함되었다

2. 친구관계의 규정

관계의 특성은 흔히 형식과 내용의 두 차원에서 이해된다. 형식이 관계의 수, 빈도, 방향성등 관계의 물리적 속성을 뜻한다면 내용은 관계를 통해 주고받거나 지지되는 자원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어느 측면이 분석 대상인가에 따라서 관계의 성격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사된 친우 관계의 속성 가운데 형식적 특성으로 친우의 수를 선정하였으며 관계의 내용으로는 친우와 어떠한 감정과 행동을 교류하는지, 즉 친우관계에 대한 ‘의미부여’를 기준으로 친밀성, 준거성, 사교성을 각각 선정하였다.

1) 친우의 수

친우의 수, 혹은 규모는 친우 관계의 가장 기본적 속성의 하나로 평가하면서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타자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친우로부터 격려나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절친한 친구가 한 사람만 있는 경우에 만일 그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친우 관계로부터의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종종 친우의 수는 동료들로 부터의 인기를 의미하며 집단내의 위세나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하나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친구가 항상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니다. 친구가 과도하면 오히려 친밀한 내적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친구의 여러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친구는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한다. 친우의 수와 비행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친구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비행성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 반면 적은 수의 친구 간에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쉽고 따라서 관계의 친밀도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친우의 규모에 대해서 일치되는 의견은 없다. 절친한 친우의 수는 아동초기 단계에 정점에 이르고 그 후 성인에 이르면서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친우의 수보다는 친우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정도이다. 즉 누구와 어떠한 내용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의거하여 친구의 수가 의미하는 바가 해명될 수 있다.

2) 친구관계의 내용

친구관계의 속성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넓게는 사회마다의 문화적 맥락이나(대다수 부족사회에서 친구는 동지와 같은 의미이며 친구가 아닌 사람은 곧 적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속성이 문제시 된다. 성인의 친구관계가 도구성과 정의성으로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속성은 훨씬 복잡적이다. 청소년의 생활세계에서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의미가 그만큼 다양할 수 있다(이은혜,고운주,오원정, 2000).

본 연구에서는 생각과 느낌을 공유로서의 친밀성은 특히 청소년 친구관계에 있어 가장 전형적인 속성의 하나이다. 친밀성으로서의 친구는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하는 대상이다(Collins & Laursen, 1999). 여기서는 “친구들과 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의 질문에 대한 동의정도로 측정하였다.

준거성은 친구가 자신의 행위의 평가가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준거성은 친구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나에 대한 친구의 평을 중요시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한편 사교성은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속성으로 여기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친밀성, 준거성, 사교성은 결국 친구관계의 영향력의 요인임과 동시에 친구를 사귀는 의미와 이유를 뜻하며 기능적 측면에서는 친구관계의 기능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김은혜,고운주, 1999)

3) 친밀망 분석

친밀망 분석은 친우관계라는 이자 관계를 넘어서서 보다 넓은 친한 관계를 일련의 관계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뜻한다. 친밀망 접근은 보다 다양한 친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친밀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의 구성과 결합양상을 밝힐 수 있다. 또한 친밀망내에서 보다 핵심적 관계와 주변적 관계를 구분하여 관계의 위계성과 층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Bo, 1996). 친밀망의 구조적 분석은 관계의 독특한 결합과 구성이 행동이나 태도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보다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의 분석은 일단 친밀망의 구성과 결합양상을 분석하는데 한정하기로 한다. 5개의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친밀망을 구성하는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친우, 가족 등의 관계유형으로 구분하고 하위집단별로 이를 비교할 것이다.

3. 분석과 발견

1. 친우관계

1) 친우관계의 일반적 성격

친우관계를 비롯하여 가족, 선생님 등 청소년을 둘러싼 대표적인 인접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표1>. 대다수는 친우, 가족 및 선생님과 관계가 부정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아 주요 인접 관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다. 자신과

부모사이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청소년은 20%에 못 미치지만 그보다 많은 1/3정도(32.7%)는 부모와 허물없는 이야기가 어렵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다수인 70%는 선생님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반면 거의 모두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학교에서의 친구와 잘 어울리고 있으며 특히 2/3는 친한 친구와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6할 정도는 친구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친구의 평이 자신에게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응답은 13%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부모님과 선생님에 만족하고 있지만 친밀한 타자로 인식하지 측면이 있는데 비해서 친구는 사회적 인정, 동류의식, 정서적 안정감 등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부여해주는 관계임을 실증해 주는 결과이다.

<표 1> 친구관계와 인접 관계에 대한 문항과 응답

항 목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 지 않은 편이다	3)보통 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1. 가정에 대한 불만이 높다	69.0	17.1	7.7	4.4	1.8	1.53	0.94
2.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한 편이다	57.1	29.6	10.9	2.0	0.5	1.59	0.80
3.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편이다	49.7	31.3	15.0	2.9	1.1	1.74	0.89
4.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3.5	15.3	34.5	35.9	10.7	3.35	0.98
5.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건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6.9	25.8	32.2	25.2	10.1	3.06	1.08
6.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26.3	42.0	21.0	8.2	2.5	1.53.	0.94
7.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2.6	8.8	25.1	35.5	27.9	3.77	1.03
8. 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0.6	1.0	9.0	39.3	50.1	4.37	0.74
9. 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0.4	0.6	8.8	43.8	46.5	4.35	0.70
10.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8	7.3	29.5	40.5	20.9	3.71	0.94
11.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2	3.6	22.9	46.5	25.8	3.92	0.86
12. 나는 나에 대한 친구들의 평을 중요시한다	3.3	10.0	42.2	33.7	10.8	3.39	0.92

친우관계가 비교적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반응도 예상보다 높지 않다<표2>. 부모와의 관계가 대화 부족이나 간섭으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20.9%와 25.5%인데 비해서 친구로부터의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청소년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열등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 10.8%,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6.6%, 친구로부터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8.3%).

<표2>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과 응답

항 목	1)그런 적 없다	2)거의 그렇지 않는다	3)보통 이다	4)자주 그렇다	5)항상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1.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11.9	31.0	31.2	18.9	6.9	2.78	1.07
2.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5.6	35.0	28.5	15.5	5.4	2.60	1.09
3.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2.7	37.9	21.1	6.4	1.9	2.07	0.98
4.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31.4	40.5	21.6	5.0	1.6	2.05	0.93
5. 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28.2	37.0	24.0	8.9	1.9	2.19	1.01

2. 친우관계의 분석

1) 관계의 수와 내용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를 포함하여 매우 친한 사람이 몇 명있는지”의 질문으로

친우의 수를 알아보았는데, 평균 친우의 수는 8.14명, 중앙값은 6명이 었다(자료에서 최대값은 100명, 31명 이상이 2.8%였다. 분석에서 31명 이상의 극단치는 모두 30명으로 간주하였음).

친한 친우가 한사람도 없는 경우는 0.1%, 한사람인 경우가 2.6%였다. 5명이하는 46.2%, 6명 이상은 53.8%이며 10명이 넘는 경우가 30.5%, 20명 이상 친한 친구가 있는 9.3%이다.

<표3> 친우 수의 분포

친우수	없음	1~ 2명	3~ 5명	6~ 9명	10 ~ 19명	20명 이상	합계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
%	0.1	8.5	37.6	23.3	21.2	9.3	100.0	8.14	6.60	6
누적%	0.1	8.6	46.2	69.5	90.7	100.0				

이상의 분포는 ‘소수의 친우’ 비율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친우를 자기중심적인(ego centered) 단방향 관계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양자가 동시에 지직한 실제 친구보다는 ‘인지된(perceived)’ 친우를 지칭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중학 2학년이 생애 주기적 단계에서 친우관계가 가장 활발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도 이유의 하나로 사료된다.

친우의 수에 따라서 친우에 대한 의미부여에 차이가 있는지 친우관계의 내용적 특성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것이 <표4>이다. 여기에서 친우의 수가 많음은 친우들과 잘 어울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친우의 증가에 따라서 친구를 준거로 삼는 경향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친우와의 친밀도와의 관련성은(단순상관계수=0.02) 미미하다. 즉 친우의 수가 증가하면서 같이 어울리거나 노는 친구도 많고 친구의 평가와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경향도 증가하지만 상호이해나 느낌의 공유와 같은 친밀성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4> 친구관계 특성별 상관성 수치는 단순상관계수임

	친우의 수	친밀성	사교성	준거성
친우의 수	-	0.02*	0.21**	0.04*
친밀성			0.20**	0.20*
사교성				0.24*

* : $p < .05$, ** : $p < .01$

2) 집단별 친구관계 비교

먼저 청소년의 대표적인 지위 변수인 성과 학업성적별 친구관계의 차이를 설명해보자. 성과 학업성적에 따라 친우의 수에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표5>. 남자가 여자보다 친우의 수가 평균 2.5명 정도 많았으며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성적이 학급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청소년은 친구가 특히 많다.

거주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도시지역 청소년이 농촌지역에 비해서 친우 수가 다소 많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지역공동체 등에서 또래와 접촉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친구가 더 많다는 일부 조사결과와는 상치되는 것인데 농촌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적고 지역사회에 역시 젊은 층이 격감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5> 성, 거주지역 및 학업성적별 친우의 수

	성 별		거주지역별			학 업 성 적 별				
	남자	여자	대도 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하	중하	중	중상	상
평균	9.39	6.88	8.37	7.99	7.55	9.46	8.52	8.15	7.03	7.30
F값	129.0		2.35			12.20				
유의수준	.000		.095			.000				

친밀성, 사교성, 준거성의 친우관계의 질적 속성에 있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표6>. 특히 친밀성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큰데 여자가 친구관계에서 친밀성을 보다 중시한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친우의 생각과 행동을 준거로 하는 준거성 역시 남자보다 여자가 높다. 반면 여러 친우와 쉽게 어울리는 사교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다.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친우관계의 모든 속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친우의 평가를 의식하는 준거성이 크게 증가하며 사교성도 다소 증가한다. 반면 학업성적별 친밀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거주 지역별 친구관계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거주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준거성을 유지하는데 비해서 도시청소년들이 농촌청소년에 비해서 친밀성을 보다 강조한다.

<표 6> 성, 거주 지역, 학업성적별 친우관계의 질적 특성

	성 별				거주지역별				
	범 주		F값	유의 수준	범 주			F값	유의 수준
	남자	여자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친밀성	3.62	3.87	82.57	.000	3.77	3.74	3.55	7.82	.001
사교성	3.95	3.48	4.97	.026	3.93	3.93	3.82	1.86	.156
준거성	3.30	3.48	34.15	.000	3.40	3.38	3.35	.349	.705

	학 업 성 적 별						
	범 주					F값	유의 수준
	하	중하	중	중상	상		
친밀성	3.69	3.73	3.76	3.77	3.82	1.98	.096
사교성	3.81	3.91	3.95	3.99	4.03	5.38	.000
준거성	3.22	3.29	3.43	3.51	3.66	15.48	.000

3. 친밀관계망의 분석

1) 친밀관계망의 일반적 특성

친우관계망은 가족을 포함하여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친한 순서대로 5명까지 적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이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인지 35개 범주로 분류된 관계에서 고르도록 하였다.

관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넓은 의미의 친구의 범주로는 초등학교 후배,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선배, 중학교 후배, 중학교 동창, 중학교 선배, 학교동아리 후배, 학교동아리 친구, 학교동아리 선배, 학원후배, 학원 친구, 학원 선배, 교회(성당/절) 후배, 교회(성당/절) 친구, 교회(성당/절) 선배, 고향/동네후배, 고향/동네 친구, 고향/동네 선

배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네/고향, 종교단체의 영역별로 후배, 동료, 선배를 구분하였으며 2) 선생님은 학교 담임선생님, 학교 기타 선생님, 동아리 지도 선생님, 학원선생님이 포함되었다. 3) 친족 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형/오빠, 누나/언니, 남동생, 여동생, 친척의 7가지 관계로 구분하였으며 5) 지역사회 어른은 전도사님, 목사님, 신부님, 스님의 종교지도자와 이웃어른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외에 6)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동호회 후배, 인터넷 동호회 동료, 인터넷 동호회 선배와 7) 기타 아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5개 관계이다.

조사 결과 제일 친한 사람으로 3441명(전체의 99.8%), 두 번째 3387명(전체의 98.2% 응답), 세 번째 3266명(전체의 94.7% 응답), 네 번째 3046명(전체의 88.3% 응답), 다섯째 2849명(전체의 82.3% 응답)으로 총 15,949개의 관계가 조사되었다(부록의 <표1>참조).

먼저 가장 친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장 핵심적 친밀망을 살펴보자. 2/3의(67.7%) 가장 친한 관계는 학교친구이다. 이중 중학교 동료가 42.2%로 비중이 가장 높고 초등학교 동창은 23.2%이다. 학교바깥 친구는 6.6%인데 동네친구(2.9%), 학원친구(2.2%), 교회친구(1.5%)의 순으로 학교친구와 학교바깥을 합하여 친구로 볼 수 있는 관계가 74.3%이다.

가장 친한 관계의 1/4정도(23.4%)는 친족이다. 친족관계에서 어머니가 13.5%로 가장 높고 형제/자매 4.6%, 아버지 3.9%의 순이다. 반면 친척관계는 1.0%에 그쳐 친족은 대다수 가족관계이다. 학교친구와 친족을 제외한 친한 관계는 극소수인데 지역사회 어른이 1.6%, 그냥 아는 사람이 1.6%, 인터넷을 계기로 알게 된 사람이 0.5%, 선생님 0.2%이다.

친한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가장 친한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친족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대신 친구 비율이 약간 증가한다. 또한 친구 중 중학 동료와 학교바깥 친구 비중이 다소 증가하며 초등

학교 동창의 비율은 감소한다. 선생님, 인터넷, 지역사회 어른의 경우도 비율이 증가하는데 그 정도는 미미하다.

다섯 명의 친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전체 친밀망에서 학교친구는 71.6%, 친족 16.8%, 학교바깥의 친구 7.9%로 세가지 관계가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 학교친구는 중학동료가 51.7%, 초등학교 동료가 17.3%이며 동료관계가 아닌 선후배 관계는 4.3%로 소수이다. 가족관계에서는 어머니 5.5%, 형제/자매 4.9%, 아버지 3.8%의 순이다.

2) 친밀망 구성의 집단비교

친밀한 사람을 다섯 명까지 지정한 2,839명을 대상으로 전체 친밀관계망의 구성을 집단별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들의 구성도 전체 응답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학교친구 66.4%, 가족/친족 15.58%, 인터넷 1.0%, 사회 친구 7.28%, 아는 사람 1.66%, 선생님 .51%, 사회 어른 0.17%의 순이다. 학교별로는 중학친구 49.86%, 초등학교 친구 16.58%이며 동료 71.32%, 선후배 3.40%이다<표7>.

먼저 성별 구성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로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친족 비율이 높고 특히 어머니와 형제자매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남자는 중학친구보다는 초등학교 친구, 학교바깥의 사회친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시간적 측면에서 남자의 친구관계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여자는 공간적으로 보다 근접한 영역에서 친밀한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활동 영역이 다르고 심리적 정향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규모별 차이로는 대도시일수록 초등학교 친구의 비율이 높고 같은 또래인 동료의 비율이 높는데 비해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는 선후배와 형제자매의 구성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의 친

우의 규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은 학생 수와 학급규모로 타 학년과의 교류가 촉진되는 특수한 환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부모를 비롯한 가족간 친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친밀망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아버지와 형제 자매의 구성도 역시 일관성있게 증가한다. 따라서 성적이 우수할수록 친구의 비중은 감소하는데 이는 친구와의 친밀성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친밀성의 관계망이 친구와 가족관계에 의해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있음을 뜻한다.

<표 7> 성, 거주지역, 학업성적별 친밀망 구성

		초등친구		중학친구		학교친구 전체		학교바깥 친구		동료친구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성	남자	18.4	18.0	47.6	13.7	66.0	.5	8.2	9.1	71.4	0.0
	여자	14.8	**	52.1	**	66.8		6.4	**	71.3	
지역 규모	대 도시	18.0	5.3 **	49.6	.3	67.6	1.8	7.4	1.7	73.1	5.9 **
	중소 도시	15.6		49.8		65.5		7.5		70.3	
	읍면 지역	13.6		51.5		65.1		5.2		67.0	
학업 성적	하	16.5	1.4	51.8	4.7 **	68.4	2.8 *	6.9	.5	71.8	2.7 *
	중하	16.0		50.3		66.3		7.8		72.1	
	중	15.2		52.0		67.2		7.6		72.9	
	중상	17.7		48.6		66.3		6.7		70.5	
	상	18.0		43.3		61.4		7.5		67.1	

		선후배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가족/친족전체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성	남자	3.7	2.5	3.6	.6	4.2	36.4 **	4.5	24.2	14.2	11.9 **
	여자	3.1		3.1		6.0		6.3	**	17.0	
지역 규모	대 도시	2.9	2.8 *	3.5	.1	5.1	.1	4.8	4.7 **	15.2	.5
	중소 도시	3.8		3.5		5.1		5.7		15.9	
	읍면 지역	3.7		3.3		4.8		6.7		13.6	
학업 성적	하	4.0	1.7	1.9	15.0 **	2.9	30.4 **	3.9	9.2 **	10.2	20.8 **
	중하	3.8		3.3		4.2		5.2		14.3	
	중	3.1		3.5		5.2		5.2		15.6	
	중상	2.9		4.4		6.4		6.0		18.7	
	상	2.5		5.5		8.5		8.0		23.2	

* : p<.05, ** : p<.01

4. 가족과 친구관계

1)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녀의 친구관계

먼저 부와 모의 교육수준, 가구 수입을 중심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친구관계의 양상을 비교해 보자.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자녀의 성이나 연령에 비해서 가정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드문 편이고 결과들이 일치되지 않는 면이 많다 (Giordano, 2003).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친구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한 일부 연구들에서 부모의 결혼이나 소수인종의 자녀들이 친구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지적된 바 있다 (Silvestein & Krate, 1975)

분석결과 친구의 규모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표8>.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적 조건과 자녀의 친구수 사이에는 상관성도 발견할 수 없다. 대신 친밀성, 사회성, 준거성의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단순 상관성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된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친구관계에서 사회성과 준거성을 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 조건이 부모의 훈육방식이나 부모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부터 자녀의 타자관계에 대한 지향성이나 태도가 특정하게 형성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표8>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별 친구관계 특성

		친우의 수		친밀성		사교성		준거성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부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8.50	1.14	3.67	4.74 **	3.80	9.24 **	3.22	11.87 **
	고졸	8.21		3.72		3.89		3.36	
	대학이상	7.97		3.79		3.98		3.46	
모의 교육 수준	중졸이하	7.97	.65	3.79	6.92 **	3.78	13.0 8 **	3.23	14.08 **
	고졸	8.25		3.92		3.92		3.26	
	대학이상	8.00		4.02		4.02		3.49	
가구 소득	하	7.85	1.01	3.61	7.37	3.78	10.4 9 **	3.25	8.24 **
	중하	8.29		3.76		3.88		3.38	
	중상	7.85		3.76		3.99		3.41	
	상	8.15		3.80		3.99		3.49	

* : p<.05, ** : p<.01

먼저 친구 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구 규모의 두드러진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표 9>. 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조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자녀가 부부가족 자녀에 비해 약간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적어도 한부모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친우의 수가 다소 많은 점이 눈이 띈다.

양 부모님의 생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 친구관계의 친밀성과 사교성이 높고 양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에(양 부모님이 모두 생존한 경우만 해당함) 자녀 친구관계의 사회성이 강조된다. 예상과는 다르게 조부모와 함께 사는 확대 가족에 비해서 부부 가족의 자녀들이 친우와의 친밀성과 준거성을 보다 중시한다. 한편 형제자매의 수에 따른 친구관계의 형식과 내용의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표 9> 가족형태별 친우관계 특성

		친우의 수		친밀성		사교성		준거성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구성비	F값
부모 생존	부모생존	8.16	1.56	3.75	8.34	3.93	11.25	3.39	3.42
	부모부재	7.84		3.59	**	3.74	**	3.28	
부모 동거	부모동거	8.09	.50	3.75	3.38	3.93	4.30	3.39	.04
	부모비동거	8.60		3.66		3.83	*	3.39	
부부/ 확대	부부가족	8.08	1.56	3.76	6.90	3.93	.82	3.40	5.09
	확대가족	8.47		3.65	*	3.89		3.30	
형제/ 자매 수	외동	8.32	.84	3.81	1.18	3.89	1.97	3.43	.40
	형제1명	8.14		3.74		3.93		3.38	
	형제2명 이상	7.35		3.76		3.77		3.39	

* : $p < .05$, ** : $p < .01$

2) 가족 기능과 친구관계 특성

가족의 기능적 측면은 가족의 기능적 결손에 대한 인지와 가족관계의 질로서 측정하였다. 전자에는 인지된 가족 갈등의 정도와 인지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후자에는 부모의 감독 과 부모와의 친밀감이 포함되었다.

부모관계와 친구관계의 속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표10>. 부모와의 친밀감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증가할수록 자녀 친구관계의 친밀성, 사교성, 준거성이 모두 증가한다. 반면에 친구규모는 이들 요인과 관련성이 없다.

인지된 가족갈등의 수준은 특히 친구와의 사교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지된 가족갈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여러 친구와 쉽게 어울리기 힘들다. 인지

된 가족기능의 결손은 친우의 수와도 반비례적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사교성의 약화가 많은 친구와 사귀기 어려운 결과를 낳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과 친우관계 특성간 상관성 수치는 단순상관계수임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친밀감	인지된 가족갈등의 정도	인지된 가족의 경제적 곤란
친우의 수	-.04*	-.00	-.04*	-.03
친밀성	.12**	.14**	.01	-.02
사교성	.13**	.16**	-.10**	-.13**
준거성	.12**	.10**	.01	.01

* : $p < .05$, ** : $p < .01$

아래의 <표 11>은 위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 구조, 가족기능의 가족관련 특성 및 성, 학업성적, 거주지역 요인이 친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친우의 수는 성과 학업성적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단순 분석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단순상관성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양 부모생존과 부모 동거 가족 형태의 영향력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 양 부모가 생존한 경우에 친우수가 다소 많지만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친우의 수가 증가한다. 이는 부모와의 친밀감 효과에 따른 독립 효과의 변화로 판단되는데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심층적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친밀성, 사교성, 준거성 모두 성의 효과가 두드러진 것도 단순 상관성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학업성적의 효과는 준거성의 경우에만 가장 높은 독립적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 감독의 가족관계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상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앞서의 단순상관성 분석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사회계층적 요인은 회귀분석에서는 독립적 효과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같은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관계적 요인이 일정한 관련성을 지님으로써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친밀감과 감독 수준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친우관계와 관련요인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친우의 수	친우 친밀성	친우 사교성	친우 준거성
성 (1=남자)	.18**	-.15**	.05**	-.08**
학업성적 (높을수록 우수)	-.12**	-.01	.03	.12**
부모친밀감	.05*	.10**	.11**	.05*
부모 감독	-.02	.05*	.06**	.06**
인지된 가족 갈등 정도	-.03	.05*	-.04	.03
인지된 가족의 경제적 곤란	-.04	.00	-.09**	.05*
부모생존/결혼 (1=부모생존)	.05*	.04	.03	.05*
부모동거여부 (1=동거)	-.05*	.00	-.03	-.06*
부부가족 (1=확대)	-.01	.02	.00	.02
형제/자매수	.01	.02	-.01	-.01
지역규모 (1=도시)	.02	.05*	.01	-.02
부의 교육수준	-.03	.00	-.03	-.01
모의 교육수준	.04	.00	.05*	.03
가구수입	.02	.01	.03	.05*
R제곱 값	.06**	.05**	.05**	.05**

** p<.01 * p<.05, 수치는 표준화된 베타값,

5. 집단성과 친우관계

1) 동아리 참여

본 자료에서 하나 이상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47.2%, 동아리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 52.8%이다. 하나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은 34.4%, 두 개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10.4%이며, 3개 이상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은 2.5%이다. 사이버 동아리를 제외한 경우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35.1%로 3명중 1명 정도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표12>.

교내공식동아리, 교외 공식 동아리, 비공식 동아리, 사이버 동아리의 네 가지 동아리 중 참여율이 가장 높은 동아리는 교내 공식 동아리이며 교외공식 동아리 참여율이 가장 낮다. 참여횟수는 사이버 동아리, 비공식 동아리가 상대적으로 많고 교내외 공식 동아리 활동의 참여횟수가 낮다. 사이버 동아리를 제외하면 비공식 또래 동아리에서 교류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공식 동아리의 참여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아서 동아리의 안정성은 다른 동아리에 못 미친다. 즉 비공식 동아리인 만큼 자의적으로 쉽게 모이지만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동아리로 평가할 수 있다.

<표12> 동아리별 참여율, 참여기간, 참여횟수

	참여율	참 여 기 간					1개월 참여횟수
		6개월 이하	6개월~ 1년 미만	1년~ 1년6개월	1년6개월 ~2년 미만	2년 이상	
교내공식 동아리	24.3	19.5	42.0	11.6	13.0	14.0	6.0
교외공식 동아리	3.7	26.4	22.4	15.2	12.0	24.0	5.0
비공식 동아리	12.1	35.8	22.1	13.9	9.6	18.5	9.0
사이버 동아리	22.8	33.5	20.6	14.4	9.7	21.9	10.0

성, 지역규모, 학업성적별로 동아리 활동의 참여율을 비교한 것이 <표13>이다. 이를 설명하면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특히 교내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며 전체 동아리 참여율도 높다. 특히 학업성적이 좋지 못한 청소년은 모든 동아리 활동에서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

<표13> 성, 거주지역 규모 및 학업성적별 동아리 참여율

		교내 공식 동아리		교외 공식 동아리		비공식 동아리		사이버 동아리		동아리 ¹⁾ 참여율	
		참여율	F값	참 여 율	F값	참 여 율	F값	참 여 율	F값	참 여 율	F값
성	남자	21.8	1.5	2.8	6.5	11.4	1.5	20.9	7.2	32.8	8.0
	여자	26.7	**	4.5	*	12.7		24.8	**	37.4	**
지역 규모	대도시	23.7	5.1 **	2.8	6.7 **	12.0	1.6	21.9	0.9	34.0	3.2 *
	중소도시	23.5		3.9		12.7		23.5		35.0	
	읍면지역	32.8		7.5		8.7		24.9		42.3	
학업 성적	하	13.8	15.9 **	8.5	0.6	8.5	2.5 *	16.0	5.3 **	22.0	17.8 **
	중하	22.8		3.4		12.9		23.2		35.0	
	중	27.2		4.2		12.9		24.7		37.7	
	중상	29.6		4.0		13.3		25.7		40.9	
	상	32.1		3.4		13.3		23.6		43.8	

1) 동아리 참여율은 사이버 동아리 참여는 제외한 것임

* : p<.05, ** : p<.01

2) 동아리 활동과 친구관계

동아리 활동이 친구관계의 속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양자간의 단순 상관성을 분석한 것이 <표14>이다. 전반적으로 동아리 참여자는 친구의 수보다는 친밀감, 사교성, 준거성의 속성이 비참여자보다 높다. 특히 동아리 참여가 친구관계의 차이를 가져오는 동아리는 비공식 또래모임이다.

비공식 또래모임 활동여부는 준거성을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참여자와 비참여자간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비공식 동아리 활동 청소년은 동아리 활동 중 유일하게 친구의 수와 상관성을 유지한다. 이같은 결과는 친밀감, 사교성,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가 또래 동아리의 활동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으면 또래모임이 이같은 속성을 강화했다고도 해석된다(Brown, 1990).

교내 공식동아리 활동은 친구의 준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친구 준거성의 강화가 동아리 활동의 효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양자간 관련성은 높은 수준이다. 교내 동아리 참여 청소년의 친구 친밀감도 다소 높은 편이다. 반면 교외 공식동아리 활동은 어떠한 속성과도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교외동식 동아리 활동이 친구 사귀거나 친밀성 증대와 같은 측면보다는 특정의 도구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표14> 동아리 참여와 친구관계 특성

		친우의 수		친우 친밀감		친우 사교성		친우 준거성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평균	F값
교내 공식동아리	비참여	8.17	.28	3.72	5.61 *	3.91	1.04	3.35	17.48 **
	참여	8.03		3.80		3.95		3.80	
교외 공식동아리	비참여	8.14	.02	3.74	1.44	3.92	.41	3.38	2.08
	참여	8.05		3.83		3.97		3.50	
비공식 동아리	비참여	7.97	16.27 **	3.71	41.55 **	3.89	24.73 **	3.38	4.16 *
	참여	9.35		3.99		4.12		3.47	
사이버 동아리	비참여	8.15	.08	3.71	15.01 **	3.91	2.02	3.35	21.60 **
	참여	8.08		3.84		3.96		3.52	
동아리 참여전체	비참여	8.00	2.79	3.69	22.92 **	3.89	9.43 **	3.34	16.16 **
	참여	8.39		3.83		3.98		3.47	

* : p<.05, ** : p<.01

6. 영향력의 유의미 타자 -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

1) 영향력 있는 타자의 일반적 특성

향후 진로설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타자로는 가족이 가장 높다<표15>. 친척을 포함하여 응답자의 44.3%가 가족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거나 특별한 준거없는 경우를 (25.7%) 제외할 때 이는 영향력있는 전체의 타자의 59.6%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족 중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19.3%) 아버지(17.9%) 보다 다소 높다.

가족 다음으로는 매스 미디어(인터넷 포함 12.3%), 친구(8.5%), 선생님(6.7%)의 순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매스 미디어

어 중에서는 방송의 영향력이 가장 높으며 (9.4%) 인터넷이 계기된 경우가 신문 잡지의 경우보다 약간 많다.

선생님의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경우에는 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원선생님보다 높지만 전체 영향력에서는 오히려 학원선생님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학생이 더 많다. 한편 1/4은(25.7%) 본인 스스로, 적성 등 특별한 계기나 타자의 영향력 없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15>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과 계기

분류	항 목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가족/ 친족	아버지	546	17.9	209	11.0	755	15.2
	어머니	590	19.3	542	28.5	1132	22.9
	부모모두	2	0.1	2	0.1	4	0.1
	형제	124	4.1	101	5.3	225	4.5
	친척	62	2.0	77	4.0	139	2.8
	계	1324	44.3	931	48.9	2255	45.5
친구	친구	221	7.2	174	9.1	395	8.0
	선후배	38	1.2	53	2.8	91	1.8
	계	259	8.5	227	11.9	486	9.8
선생님	학교 담임 선생님	107	3.5	68	3.6	175	3.5
	학교상담선생님	12	0.4	9	0.5	21	0.4
	학원선생님	87	2.8	114	6.0	201	4.1
	계	206	6.7	191	10.0	397	8.0
지역 사회/ 민간 단체	민간전문가	9	0.3	5	2.6	14	0.3
	사회단체	13	0.4	7	0.4	20	0.4
	이웃어른/종교지도자	19	0.6	15	0.8	34	0.7
	계	41	1.3	22	1.2	68	1.4
책자/ 경험	책이나 소설	10	0.3	6	0.3	16	0.3
	훌륭한 인물을 따라	54	1.8	46	2.4	100	2.0
	계	64	2.1	52	2.7	116	2.3
매스 미디어	방송	286	9.4	142	7.5	428	8.6
	신문/잡지	35	1.1	76	4.0	111	2.2
	인터넷	56	1.8	73	3.8	129	2.6
	계	377	12.3	291	15.3	668	13.5
기타	적성	77	2.5	12	0.6	89	1.8
	본인스스로	134	4.4	29	1.5	163	3.3
	특별한 계기없음	575	18.8	131	6.9	706	14.3
	미분류	-	-	9	0.5	9	0.2
전체		3057	100.0	1902	100.0	4,959	100.0

2) 영향력있는 타자의 하위집단별 비교

성, 지역규모, 학업성적 및 부모의 교육수준별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 타자를 비교해 보자. 먼저 성별로 볼 때 부모의 성에 따라서 자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데 일종의 동성일체성을 보여준다. 즉 남자는 아버지로부터의 영향력이 여자는 어머니로부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각각 강하다. 가족전체의 영향은 남자가 다소 높은 편이며 다른 관계에서 성별 차이점은 거의 없다.

거주지역별 차이로는 도시지역에서 가족의 영향력이 상대적 큰 데 비해서 읍면지역은 선생님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스스로 결정하거나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상대적으로 읍면지역 거주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진로결정에 준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어머니로부터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며 선생님으로부터의 영향력도 다소 커지고 있다. 반면 친구의 영향력은 감소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에는 큰 차이는 없다. 매스미디어나 기타의 경우에 성적에 따른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와 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진로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표16> 하위집단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과 계기

수치 %

		아버지	어머니	가족 전체	친구	선생님	지역사 회/단체	미디어	기 타
성	남자	24.5	14.3	44.9	8.3	6.2	.9	14.2	25.5
	여자	11.3	24.3	41.6	8.6	7.2	1.1	14.2	27.2
지역 규모	대도시	17.5	19.9	42.7	7.8	6.9	.8	14.7	27.1
	중소도시	19.0	19.3	44.9	9.0	6.4	1.2	14.0	24.5
	읍면	12.7	15.1	35.8	9.4	8.0	.9	12.3	33.5
학업 성적	하	19.3	15.6	39.4	15.0	3.7	1.0	16.5	24.4
	중하	19.0	17.8	43.3	9.8	5.5	1.2	13.7	26.5
	중	17.0	19.8	43.4	7.5	6.3	.9	14.1	27.7
	중상	19.0	21.8	47.0	5.0	9.1	.9	11.2	26.7
	상	13.4	22.3	41.6	3.1	12.6	.8	17.6	24.3
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4.4	16.4	35.2	13.8	7.0	.3	13.5	30.2
	고졸	16.3	18.3	41.2	9.4	6.3	1.4	15.0	26.7
	대학이상	20.8	20.9	47.6	5.9	7.2	.7	13.7	24.9
모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4.6	17.3	37.6	12.2	8.1	.8	11.6	29.7
	고졸	18.7	18.3	43.8	8.7	6.2	1.2	15.0	25.2
	대학이상	18.5	23.8	47.4	4.6	7.4	.6	14.3	25.7

III. 정리와 결론

엄밀한 이론구성과 그것에 대한 실증적 검증 대신에 귀납적 일반화와 탐색을 목적으로 한 분석은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보완점을 포함하여 잠정적 결론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성과 학업성적은 친구관계의 여러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분화의 요인이다. 특히 관계의 내용과 내용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특히 성적 차이가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음에 비해서 학업적 성취요인은 가족관계를 매개로 친구관계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한국 중학생의 지위요인 가운데 학업성취가 핵심적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본 분석에서 관계의 실제적 측면보다 관계의 내용적 요인이 강조된 것은 실제적 관계가 충분히 측정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가족관련 요인과 친구관계의 특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친구 규모와 같은 형식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친구 관계 형성에 미치는 구체적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가족형태의 효과는 일부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검증 모델에서 자녀의 친구관계에 보다 강한 독립적 효과를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은 부모 친밀도나 부모감독과 같은 가족관계의 기능과 관련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보다 후속 분석에 의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가족요인들간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설정한 분석 모델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관련 요인의 결합효과나 상호작용 효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친밀망 분석은 예비적 단계에서 머물렀지만 몇 가지 시사점을 지

적할 수 있다. 친밀망이 수평적 친우관계와 부모 관계를 핵으로 한다는 일반적 예상을 확인한 것이었으나 보다 다양한 가족과 친구관계의 적정한 구성과 혹은 불균형의 독특한 효과는 차후 규명되어야 할 분석 과제로 남는다.

동아리 활동 분석결과는 결국 친우관계가 강화되는 또 다른 경로를 확인할 수 해준다. 하나는 이미 지적한 바대로 부모의 친밀감과 감독을 매개로 하는 친우관계의 강화는 주로 친밀성과 준거성과 같은 보다 개인적이고 신중한 관계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또래모임을 통한 친우강화는 자신들 스스로의 집단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자와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에는 흔히 지적하듯이 친우관계가 비적응과 일탈성의 반응이거나 혹은 원인이라는 가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들만의 또래 형성이 학업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반대의 경향을 뒷받침 하는 결과로 평가될 수 수 있다.

영향력 있는 타자에 관한 분석 결과는 청소년의 도구적 관계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의 영향력이 학교나 교육 현장과 같은 공식화된 수단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계층적이고 문화적 요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또한 앞서의 친밀망 특성에서도 나타났지만 학교와 가족영역 바깥에서 유의미한 타자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은 청소년의 경험이 그만큼 제한적이고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타자에 대한 불신을 수반할 수도 있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은혜 · 고윤주(1999).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제 37권 제3호, pp. 210-219
- 도현심 ·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 19권 제 2호, pp. 19-33
- 이은혜 · 고윤주 · 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제 13권 제 3호, pp. 105-121
- 최정은 ·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제 2호, pp. 199-210
- Bo, I.(1996). The Significant People in the Social Networks of Adolescent. Hurrelmann K et al eds. *Social Problem and Social Context in Adolescent*, Aladin De Gruyter, New York, pp. 107-130
- Brittain C.(1963). Adolescent Choices and Parent -Peer Cross Press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8, pp. 385-91
- Brown, B Peer(1990). Group and Peer Culture, Freedman et, al eds. *At the Threshold*,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171-196
- Collins WA & Laursen B(1999). *Relationships as Developmental Context :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30
- Furman W(2002). Adolescent 's Working Model and Styles for Relationship with Paren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 *Child Development* 73 pp. 241-55
- Giordano, P(2003). Relationship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pp.157-81

부록

<표1> 친밀망의 구성

			가장 친한 사람		두번째 친한 사람	세번째 친한 사람	4번째 친한 사람	5번째 친한 사람	친한사람 전체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학교친구	초등학교	후배	(11)	0.3	(9) 0.3	(12) 0.4	(10) 0.3	(16) 0.6	(58)	0.4
		동료	(800)	23.2	(606) 17.9	(505) 15.5	(438) 14.4	(409) 14.4	(2758)	17.3
		선배	(8)	0.2	(8) 0.2	(9) 0.3	(6) 0.2	(12) 0.4	(43)	0.3
		계	(819)	23.8	(623) 18.4	(526) 16.1	(454) 14.9	(437) 15.4	(2859)	17.9
	중학교	후배	(11)	0.3	(19) 0.6	(24) 0.7	(11) 0.4	(22) 0.8	(87)	0.5
		동료	(1464)	42.5	(1726) 51.0	(1773) 54.3	(1723) 56.6	(1558) 54.9	(8244)	51.7
		선배	(15)	0.4	(24) 0.7	(17) 0.5	(29) 1.0	(38) 1.3	(123)	0.8
		계	(1490)	43.3	(1769) 52.2	(1814) 55.5	(1763) 57.9	(1618) 57.0	(8454)	53.0
	학교동아리	후배	-	-	-	-	(2) 0.1	(3) 0.1	(5)	0.0
		동료	(19)	0.4	(23) 0.7	(32) 1.0	(36) 1.2	(22) 0.8	(132)	0.8
		선배	(1)	0.0	-	-	(3) 0.1	(3) 0.1	(7)	0.0
		계	(20)	0.4	(23) 0.7	(32) 1.0	(41) 1.4	(28) 1.0	(144)	0.9
	합 계		(2329)	67.7	(2415) 71.3	(2372) 72.6	(2258) 74.1	(2083) 73.4	(11457)	71.6
학교바깥친구	학원	후배	-	-	(1) 0.0	(5) 0.2	(4) 0.1	(3) 0.1	(13)	0.1
		동료	(75)	2.2	(94) 2.8	(104) 3.2	(118) 3.9	(130) 4.6	(521)	3.3
		선배	-	-	(2) 0.1	(3) 0.1	(7) 0.2	(6) 0.2	(18)	0.1
		계	(75)	2.2	(97) 2.9	(112) 3.4	(129) 4.2	(139) 4.9	(552)	3.5
	동네	후배	(4)	0.1	(2) 0.1	(6) 0.2	-	(4) 0.1	(16)	0.1
		동료	(90)	2.7	(73) 2.2	(78) 2.4	(82) 2.7	(74) 2.6	(397)	2.5
		선배	(6)	0.2	(7) 0.2	(3) 0.1	(6) 0.2	(6) 0.2	(28)	0.2
		계	(100)	2.9	(82) 2.4	(87) 2.7	(88) 2.9	(84) 3.0	(441)	2.8

<표1> 친밀망의 구성(계속)

			가장 친한 사람		두번째 친한 사람 (수), %	세번째 친한 사람 (수), %	4번째 친한 사람 (수), %	5번째 친한 사람 (수), %	친한사람 전체	
			(수)	%					(수)	%
학교 바깥 친구	교 회	후배	(4)	0.1	(3) 0.1	(4) 0.1	(5) 0.2	(11) 0.4	(27)	0.2
		동료	(33)	1.0	(34) 1.0	(29) 0.9	(20) 0.7	(19) 0.7	(135)	0.8
		선배	(14)	0.4	(18) 0.5	(16) 0.5	(27) 0.9	(26) 0.9	(101)	0.6
		계	(51)	1.5	(55) 1.6	(49) 1.5	(52) 1.7	(56) 2.0	(263)	1.6
	합 계		(226)	6.6	(234) 6.9	(248) 7.6	(269) 8.8	(279) 9.8	(1256)	7.9
선 생 님	학 교	담임	(1)	0.0	(2) 0.1	(4) 0.1	(6) 0.2	(8) 0.3	(21)	0.1
		기타 선생님	(1)	0.0	(2) 0.1	(8) 0.3	(6) 0.2	(9) 0.3	(26)	0.2
	학원 선생님		(4)	0.1	(5) 0.2	(6) 0.2	(8) 0.3	(18) 0.6	(41)	0.3
	합 계		(6)	0.2	(9) 0.3	(18) 0.6	(20) 0.7	(35) 1.2	(88)	0.6
친 족	가 족	아버지	(134)	3.9	(227) 6.7	(125) 3.8	(67) 2.2	(47) 1.7	(600)	3.8
		어머니	(464)	13.5	(201) 5.9	(86) 2.6	(80) 2.6	(47) 1.7	(878)	5.5
		형/오빠	(43)	1.0	(50) 1.5	(76) 2.3	(31) 1.0	(34) 1.2	(234)	1.5
		누나/언니	(66)	1.9	(49) 1.4	(65) 2.0	(54) 1.8	(46) 1.6	(280)	1.8
		남동생	(29)	0.8	(42) 1.2	(63) 1.9	(47) 1.5	(37) 1.3	(218)	1.4
		여동생	(32)	0.9	(44) 1.3	(60) 1.8	(31) 1.0	(28) 1.0	(195)	1.2
		계	(768)	22.3	(613) 18.1	(475) 14.4	(310) 10.2	(239) 8.4	(2405)	15.1
	친척		(36)	1.0	(34) 1.0	(58) 1.8	(82) 2.7	(73) 2.6	(283)	1.8
	합 계		(804)	23.4	(647) 19.1	(533) 16.3	(392) 12.9	(312) 11.0	(2688)	16.8

<표1> 친밀망의 구성(계속)

		가장 친한 사람		두 번째 친한 사람 (수), %	세 번째 친한 사람 (수), %	4 번째 친한 사람 (수), %	5 번째 친한 사람 (수), %	친한 사람 전체	
		(수)	%					(수)	%
인 터 넷	후배	(1)	0.0	(2) 0.1	(5) 0.2	(5) 0.2	(6) 0.2	(19)	0.1
	동료	(13)	0.4	(17) 0.5	(21) 0.7	(26) 0.90	(35) 1.2	(112)	0.7
	선배	(4)	0.1	(3) 0.1	(8) 0.2	(10) 0.3	(17) 0.6	(42)	0.3
	합 계	(18)	0.5	(22) 0.6	(34) 1.0	(41) 1.3	(58) 2.0	(173)	1.1
어 른	종교지도자	(2)	0.1	(5) 0.2	(8) 0.2	(3) 0.1	(3) 0.1	(21)	0.1
	이웃 어른	-	-	-	(2) 0.1	(4) 0.1	(3) 0.1	(9)	0.0
	합 계	(2)	0.1	(5) 0.1	(10) 0.3	(7) 0.2	(6) 0.2	(30)	0.2
아는 사람		(56)	1.6	(55) 1.6	(51) 1.6	(59) 1.9	(66) 2.3	(287)	1.8
전 체		(3441)	100.0	(3387) 100.0	(3266) 100.0	(3046) 100.0	(2839) 100.0	(15949)	100.0

청소년 비행과 친구 스트레스

이경상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박현수 (한국청소년개발원 위촉연구원)

I. 문제제기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원인에 의해, 혹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통제의 부재, 일상생활에서의 긴장 등 다양한 관점으로 그 원인들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논의들은 청소년이 이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 비행행위를 저지르는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되어 왔고 비행의 원인으로 설명된 요인을 통해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특성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비행의 원인이 비행청소년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 있다고 보는 코헨(Cohen, 1955)과 밀러(Miller, 1958)의 하위문화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위문화이론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은 정상인과 다른 비행하위문화에서 비행적인 가치나 태도를 습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비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비행에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지위비행과 같이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금지된 행위의 경우에는 폭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와 달리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에게 어떠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위비행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학교나

가정에서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지위 비행은 세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 연구는 비행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 기존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범죄를 설명할 때 정상인과 구분되는 범죄자의 특성을 발견하기보다는 사람들간의 상호행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지에 관심을 둔다. 고프만(Goffman, 1959)은 인간이 누구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신경을 쓰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모욕으로 인해 그 인상이 위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상을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범죄는 자아를 보존하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self-esteem)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려고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최대화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은 범죄를 통해 손상된 자긍심을 증진시키려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Kaplan, 1976).

카츠(Katz, 1988)는 범죄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범죄자가 하나의 '과업(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범죄행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과업은 자신의 권위와 자아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2. 합리적 선택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행위가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과 범죄행위로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행위자의 합리적 계산과정의 결과로 보고 있다(Cornish and Clarke, 1987). 이러한 계산과정에서 손실보다 이득이 더욱 많을 때, 그 행위는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득보다 손실이 더욱 많을 때에는 그 행위를 포기하고, 대안적으로 더욱 이득이 되는 행위를 고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특정한 상황에서 일탈행위로부터의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범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황적 주변 요인을 중시한다. 즉 상황적 유인요인이 범죄행위를 유발시키며, 상황적 억제요인이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합리적 선택이론은 그 상황에 대하여 행위자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고 물질적 이들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가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는 합리적 과정으로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많은 범죄행위가 충동적이고, 불충분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이지 않은 계산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Tittle and Paternoster, 2000). 또한 범죄행위로 인한 공식적인 처벌이라는 손실보다도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로 예측되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같은 주관적 판단이 범죄결정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Grasmick and Bursik, 1990).

3. 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에서는 비행, 일탈의 원인으로 사회적 유대의 끈이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쉬(Hirschi, T, 1969)는 네 가지 개념을 통해 이러한 원인을 설명하였다. 우선 ‘애착(attachment)’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 ‘학교에의 애착’, ‘동년배(peer)와의 애착’을 통해 애착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와의 애착이 클수록, 학교에의 애착이 클수록 비행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동년배와의 애착에 대해서는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비행행위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학교의 통제가 약화된 경우에만 그렇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은 친구들과 친밀한 연대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의 연대는 일반청소년들의 연대보다 매우 약하다는 입장으로 사회적 무능력모델을 제시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두 번째 원인인 ‘참여(commitment)’는 업적성취(achieve)나 전통적 목적에 일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성인 지위로의 이행(passage to adult status), 교육에 참여(commitment to education), 높은 지위로의 참여(commitment to a high-status occupation)가 높을수록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성취정도보다는 열망에 따라 비행행위와 연관되어 진다.

세 번째 원인으로 ‘관여(involvement)’는 일상적 활동에 관여가 비행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동, 레크리에이션, 취미, 학교관련 활동과 같은 일상적 활동에 관여가 높을수록 비행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원인으로 ‘신념(belief)’는 법, 규범에 대해 준수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비행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또한 허쉬는 멧짜

가 주장한 중화기술의 믿음이 비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허쉬와 갓프레드슨(Hirschi and Gottfredson, 1990)은 자아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을 제기하면서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사회통제이론에서의 네 가지 요소(애착, 참여, 관여, 신념)에서 자아통제로 초점을 맞추었다.

자아통제이론에서의 인간에 대한 가정은 사회통제이론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와 비행행위를 저지르도록 동기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범죄를 억제하는 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아통제력이다. 즉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낮은 자아통제력은 사회화의 잘못으로 특히 조기 사회화, 즉 어린 시절의 잘못된 양육이 원인이 된다.

4. 이 연구에서의 관점

1) 청소년 비행과 친구 스트레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이 또래집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범죄, 일탈행위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상된 자아의 보존을 위해서, 혹은 낮은 자긍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범죄, 일탈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자아의 보존이나 자긍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소년 비행행위가 저질러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친구들로부터 놀림이나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친구들에게서 받는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비행행위

가 저질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친구들로부터의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단지 개인적으로 이루어 지지도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집단 내에서의 평판(reputation)과 비행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행 집단 안정적이지 않고, 그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항상 위협받기 때문에 더욱 가시적인 비행행위를 통하여 비행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한다(Emler, 1984; Carrol et al., 2003). 이러한 이유로 비행행위를 통한 자긍심의 증진은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보다는 또래 집단 내에서 알려져야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고, 비행행위가 자아의 보존이나 자긍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질러졌다면 자신의 비행행위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비행의 억제 요인

청소년에게 지위비행 행위의 의미는 자긍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래 집단에서 지위비행이 자긍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모든 청소년이 지위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위비행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판단하여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다른 행위를 통해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통제로 인해 비행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 멧짜(Matza and Sykes, 1957)는 인습적 가치와 일탈적 가치 사이에 불투명한 유사성이 보이는 약화된 통제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비행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게 하는 '중화의 기술(technique of neutralization)'이 비행의 원인이라 하였다. 특히 중화의 기술 중에서 '충성심의 요구(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친구와의 의리, 신념 때문에 그럴 수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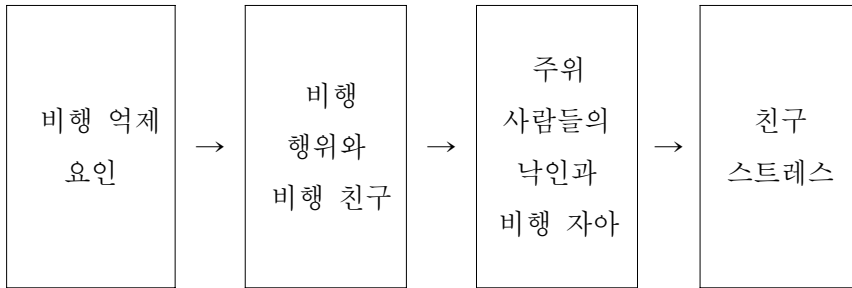
에 없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행자 자신과 친구와의 사이에서 오는 문제에 대한 중화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통제가 약화된다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비행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III. 연구모형의 구성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논의들에 근거하여 청소년 비행과 친구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 비행이 친구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리고 비행행위 이후에 주위 사람들의 낙인과 비행행위에 대한 자신의 정당화 과정이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고, 이 또한 친구 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것이라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행친구의 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주위 사람들의 낙인 효과가 친구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행 억제 요인이 비행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들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청소년 비행과 친구 스트레스의 연구모형

2. 연구방법

1) 외생변인의 구성

외생변인으로는 청소년 비행행위를 억제하는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 비행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우선 사회통제이론에서 사용되는 요인 중에서 ‘애착’과 관련된 ‘부모와의 애착’ 변인¹⁾과 ‘친구와의 애착’ 변인²⁾, 그리고 ‘참여’와 관련된 ‘주관적 학업성적’ 변인³⁾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아통제이론에서 사용되는 ‘자아통제력’ 변인⁴⁾

- 1) ‘부모와의 애착’ 변인에 사용된 항목으로는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그리고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로 구성하였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816).
- 2) ‘친구와의 애착’ 변인은 ‘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와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로 구성하였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826).
- 3) ‘주관적 학업성적’ 변인은 ‘국어’, ‘영어’, ‘수학’으로 구성하였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683).
- 4) ‘자아통제력’ 변인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그리고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로 구성하였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502).

과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비행행위로 발생하는 손실인 ‘비행행위에 대한 부담’ 변인⁵⁾으로 구성하였다.

2) 매개변인 및 내생변인의 구성

매개변인으로는 ‘자신의 비행행위’ 변인⁶⁾과 ‘비행친구의 비율’ 변인⁷⁾, ‘주위사람들의 낙인’ 변인⁸⁾, 그리고 ‘비행자아’ 변인⁹⁾으로 구성하였다. 내생변인으로는 ‘친구 스트레스’ 변인¹⁰⁾으로 구성하였다.

- 5) ‘비행행위에 대한 부담’ 변인은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와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로 구성하였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838).
- 6) ‘자신의 비행행위’ 변인은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회수’와 ‘술마시기’로 구성하였고, 모두 비율척도이다. 두 항목 모두 무응답 표본을 줄이기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적이 없다고 응답한 표본에 대해서는 0으로 처리하였다.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회수’ 항목에서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회수를 기입하지 않고 하루에 담배를 피운 회수에만 기입한 표본을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회수의 최대값인 100으로 변환하였고, outlier를 줄이기 위해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운 회수’와 ‘술마시기’에 모두 자연로그를 적용하였다(Cronbach alpha = .625).
- 7) ‘비행친구의 수’ 변인은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친구의 수’와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친구의 수’로 구성하였고, 모두 ‘매우 친한 친구들의 수’에 대한 비율로 변환하여 구성하였다(Cronbach alpha = .827).
- 8) ‘주위사람들의 낙인’ 변인은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와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로 구성하였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779).
- 9) ‘비행자아’ 변인은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로 구성하였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885).
- 10) ‘친구 스트레스’ 변인은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로 구성하였고,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Cronbach alpha = .832).

IV.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모형상의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공변량구조분석을 위해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아래 < 표 1 >은 제안된 모형이 실제 자료와 얼마나 적합한지에 관한 적합지수들과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제안된 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df=230)$ 값이 1766.53($P = .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χ^2 값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유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함이 있다. GFI와 AGFI는 각각 0.96과 0.9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RMR은 0.033으로 제안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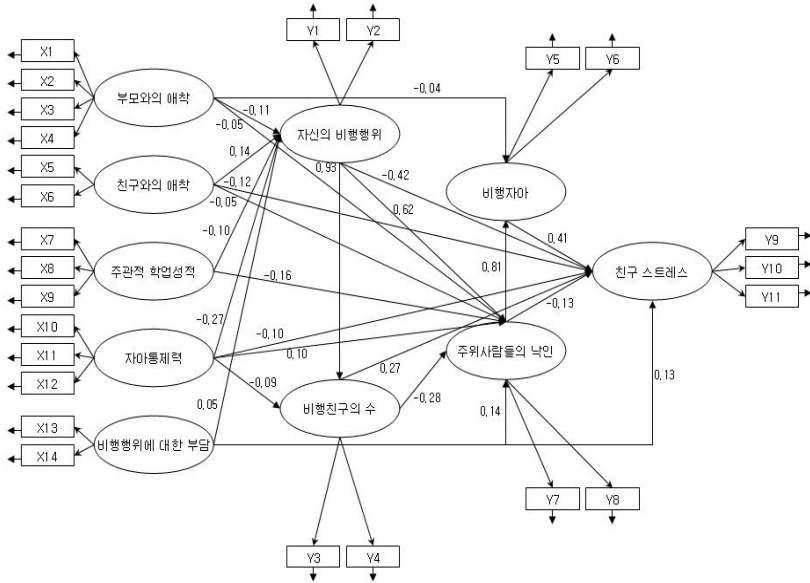
<표 1> 연구모형의 모수에 대한 LISREL 추정치 및 적합지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모수	LISREL 추정치	표준오차	T 값	모수	LISREL 추정치	표준오차	T 값
λ_{y11}	1.00	-	-	λ_{x11}	1.00	-	-
λ_{y21}	1.02	0.04	29.00	λ_{x21}	1.00	0.03	33.31
λ_{y32}	1.00	-	-	λ_{x31}	1.00	0.03	33.30
λ_{y42}	0.94	0.03	33.45	λ_{x41}	1.11	0.03	35.65
λ_{y53}	1.00	-	-	λ_{x52}	1.00	-	-
λ_{y63}	1.28	0.03	41.55	λ_{x62}	1.17	0.08	14.62
λ_{y74}	1.00	-	-	λ_{x73}	1.00	-	-
λ_{y84}	1.06	0.02	61.20	λ_{x83}	1.46	0.07	21.77
λ_{y95}	1.00	-	-	λ_{x93}	1.25	0.06	21.92
λ_{y105}	1.18	0.03	42.83	λ_{x104}	1.00	-	-
λ_{y115}	0.88	0.02	37.94	λ_{x114}	0.73	0.05	15.30
				λ_{x124}	0.51	0.04	12.86
				λ_{x135}	1.00	-	-
				λ_{x145}	0.77	0.05	14.79
Degrees of Freedom = 230							
Chi-Square = 1766.53 (P = 0.0)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 0.033							
Goodness of Fit Index (GFI) = 0.96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 0.94							
Parsimony Goodness of Fit Index (PGFI) = 0.68							

제안된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우선 자신의 비행행위가 친구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친구 스트레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42$). 따라서 이 연구에서 긍정적 가정인 자신의 비행행위가 친구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이라는 가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비행행위에 대한 비행 억제 요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 주관적 학업성적,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행 억제 요인으로



[그림 2] 청소년 비행과 친구 스트레스¹¹⁾

가정하였던 친구와의 애착과 비행행위에 대한 부담은 비행 억제 요인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행위가 담배피우거나 술마시기와 같은 사소한 비행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행친구의 비율에 대해 비행 억제 요인 중에서 자아통제력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비행친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비행행위가 다른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신의 비행행위가 많을수록 비행친구의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위사람들의 낙인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 연구모형은 탐색적 의미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잠재적 변인들(latent variables) 간의 관계는 제외하였다.

비행친구의 비율이 주위사람들의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비행친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주위사람들의 낙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비행친구집단에서는 범규범위반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서덜랜드의 주장(Sutherland and Cressey, 1970)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비행 억제 요인이 주위사람들의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 친구와의 애착, 그리고 주관적 학업성적은 주위사람들의 낙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아통제력과 비행행위에 대한 부담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한 요인들이 사회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신의 비행행위 가능성을 낮게 하여 주위사람들의 낙인이 낮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아통제력이나 비행행위에 대한 부담은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요인이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의 낙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비행자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부모와의 애착과 주위사람들의 낙인이다.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자신이 비행자라는 생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위사람들의 낙인이 높을수록 자신이 비행자라는 생각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개변인이 친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비행친구의 비율은 친구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행친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비행집단에 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행 집단의 안정적이지 않은 특성 때문에 오히려 친구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위사람들의 낙인은 친구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친구 집

단에서 자신이 비행자로 낙인이 부여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친구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비행자아가 친구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의 비행행위, 특히 지위비행행위가 자긍심을 증진시켜 친구집단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친구로부터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비행행위가 친구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의 지위비행행위가 친구 스트레스를 줄이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비행행위가 친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비행행위에 대한 억제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애착, 주관적 학업성적, 자아통제력이 비행행위에 대한 억제 요인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사람들의 낙인은 친구 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친구 집단에서 자신이 비행자로 낙인이 부여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친구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이 비행자라고 생각할수록 친구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청소년 비행이 청소년 자신의 자긍심의 증진에 의해 저질러 질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은 공부이외에는 청소년의 자긍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자신의 자긍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친구 스

트레스로 발생될 수 있는 청소년비행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Carroll, Annemaree. et al.(2003). "Reputation Enhancement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vol. 50: 3.
- Cohen, Albert K.(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The Free Press, New York.
- Cornish, Derek B. & Ronald V. Clarke.(1987). "Understanding Crime Displacement: An Application of Rational Choice Theory." *Criminology*, vol.25: 4.
- Emler, N.(1984). "Differential Involvement in Delinquency: Toward an Interpretation in terms of Reputation Management."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13.
- Goffman, E.(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Doubleday and Co.
- Grasmick, H. G. and R. J. Bursik(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vol. 24.
- Hirschi, Travis(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and Los Angeles.
- Kaplan, Howard B.(1976). "Self-Attitudes and Deviant Response." *Social Forces*, vol. 43:4.
- Katz, Jack(1988). *Seductions of Crime: Moral and Sensual Attractions in Doing Evil*. Basic, New York.
- Michael Gottfredson & Travis Hirschi(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Miller, Walter B.(1958). "Lower Class Culture as a Generating Milieu of Gang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14.

Sutherland, Edwin M. and Donarld R. Cressey(1970). *Criminology*, 8th ed. Lippincott, Philadelphia.

Sykes G. M. and D. Matza(1957). "Technique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2.

Tittle, Charles R. & Raymond Paternoster(2000). *Social Deviance and Crime: An Organizational and Theoretical Approach*. Roxbury Publishing Company.

III. 진로 · 직업

1.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선택 결정용인에
관한 연구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 연구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강영배 (한국청소년개발원 초빙연구원)

I.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어떠한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직업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인간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사람들 또는 여러 집단들에 의해서 분담적·전문적으로 행해지고, 그들이 각각의 일의 성과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생활하며 전체사회의 영위에 한몫을 할 때 현대적 의미의 직업이 성립된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직업은 사회가 자급자족의 단계를 거쳐 상업·공업 등 여러 가지의 산업으로 분화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 선진사회에서는 일의 기술적 세분화, 기계화, 자유업의 증대 등에 따라서 직업은 점점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직업사전(2003)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는 현재 4,632개의 직업이 존재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직업들이 통합과 재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柳井(2001:161)는 직업을 개인의 생명 유지를 위한 계속적 활동이며, 동시에 사회 존속을 위한 역할분담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이 단순히 취미로써 즐기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의 작업이나 노동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伊藤(1998:1-2)는 직업이란 개성의

발휘, 연대의 실현 및 생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계속적 행위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직업에 대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직업선택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청소년들은 청소년 전기에 해당하며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정신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되며,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기는 하나 자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게 된다. 아울러 자립에 대한 갈등이 강해지며, 그와 동시에 진로에 대한 관심이 강해지게 된다. 직업선택과의 관련해서 중학교 시기는 기초학습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수험경쟁과 학업성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장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 고민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가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한편, 村上(2003)는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직업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설정하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한다. 그 중 한 종류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학교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에 기초하여 위에서 분류하고 있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좋아하는 것이 아무 것도 좋아하는 것이 없는 이들, 게임만 하는 청소년들, 만화만 보는 청소년들, 성적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그러한 호기심을 직업선택과 결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14세가 되는 시기부터 직업적 탐색을 위한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1994년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of 1994」의 제정을 통하여 조기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직업탐색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향후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 그리고 능력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서 기대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직업의식 및 직업결정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적 차원 및 정책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들의 직업결정 및 미결정 성향에 관한 분석

둘째, 중학교 청소년들의 직업적 기대에 관한 분석

셋째, 중학교 청소년들의 직업적 가치지향성에 관한 분석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관한 이론 가운데 개인의 직업선택을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인-환경적합이론(person-environment fit theory)은 개인의 흥미와 적성과 직무환경과의 일치 정도를 직업생활에 있어 성공과 만족을 결정한다고 하는 가설의 기반위에 정립된 이론으로, Holland(1973)와 같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의 특징으로는 첫째, 각 개인에게는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개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한 가지의 직업이 존재한다. 둘째, 각 직업은 그 작업을 합리적, 능률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그 요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셋째, 직업에 대한 적응의 정도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요건의 일치 정도에 따른다. 그러한 특성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직업만족도가 상승하게 되며, 직업적 성공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른 직업적 흥미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중학교시기의 청소년이 가지는 직업적 흥미의 특성에 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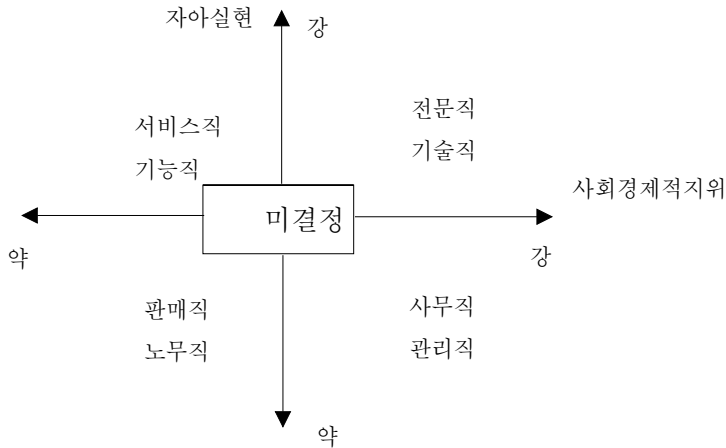
한편, 발달론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직업의식발달을 설명하고 있는 Ginzberg(1951)와 Super(1957)의 이론적 특징, 특히 중학교 시기의 직업의식발달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Ginzberg는 중학교시기는 직업의식의 발달단계에 있어 「잠정기(tentative period)」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직업으로부터의 요구조건을 인식하는 단계로 자신의 진로계획의 수립에 있어 충분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능력적 요인과 가치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업선택의 과정은 불가역적(不可逆的)이며 한번 선택하면 도중에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직업선택은 개인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의 요소와 현실적, 환경적 요인과의 타협의 과정이라고 한다. 한편, Super는 직업적 성숙(vocational maturity)과 직업적 자아개념(vocational self-concept)을 이론의 중심개념으로 설정하여, 직업의식의 발달단계를 자아개념의 성숙과 발달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직업의식의 발달단계를 크게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하강기」의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중학교시기는 직업의식 발달단계에 있어 「성장기」와 「탐색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중시하며,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취업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또한 토론과 경험을 통하여 잠정적인 진로선택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직업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직업선택을 직업적 사회화(vocational socialization)의 과정으로 보며, 직업선택에 있어 개인은 일정부분 자기통제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는 직업의식 발달론적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사회관습 및 비인간적 특성을 가진 시장의 힘(impersonal market forces)으로부터 강한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강영배 2004: 73).

荒牧(2001)의 청소년의 희망직업분류에 의하면 청소년의 직업희망을 「사회적 지위의 강약」과 「전문성 발휘에 의한 자기실현 가능성의 강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축을 조합한 4가지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위의 분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와 「서비스·기능직」 「판매·노무직」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통상 화이트칼라(white collar) 계열의 직업군으로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한다. 한편, 직업을 통한 자기실현의 관점에서 직업에 대한 희망을 살펴보면 자기실현에 대한 지향성이 강한 이들은 종축(縱軸)의 윗부분에 위치하는 「전문·기술직」과 「서비스·기능직」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어

떠한 직업적 희망도 가지지 않고 있는 집단을 희망직업 미결정자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청소년들 중 일부는 장래 자신들이 어떠한 직업을 희망하는 지를 결정하고 있는 못하다는 것이다.



[그림 1] 청소년의 직업희망 분류

청소년의 희망직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김진석(1992)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교육자, 기술자, 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는 기술직 또는 자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교육자, 의사, 예능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기대에는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오치선 외(2000)의 연구결과, 청소년의 경우는 교사,

1)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 약사, 한의사와 같은 의료분야의 직업을 기대하며,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회사원, 기술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도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반대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기술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컴퓨터프로그래머, 방송관련분야(연예인 포함)에 대한 직업적 선호 경향이 강한 반면, 부모들은 자녀의 장래 직업으로 교사(22.1%), 공무원(9.0%), 의사(8.7%)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영배(2004a, 2004b)에서도 조사대상자가 고등학교 청소년들이기는 하나, 청소년들은 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荒牧의 희망직업분류와 청소년의 직업기대와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은 자아실현적 욕구도 충족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경제적지위도 높은 전문직, 기술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김병숙 외(1998: 37-40)는 가정적 배경, 학교와 친구집단, 성역할 사회화 그리고 일에 대한 경험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재호 1974, 백영균 1980, 정영균 1981, 안성기 1987, 공보처 1996)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청소년들은 직업세계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직업의 내재적인 또는 이상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²⁾

또한, 이무근(2003: 163-174)은 지능,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신체적 특성 등과 같은 심리적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청소년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Crites(1969, 1981)는 직업선택을 위한 구성요소로 선호(preference), 열망(aspiration), 의지(intention)를 들면서,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 있어 현실적 요소와 실현 가능성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宗方他(2003: 15-16)는 직업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능력, 직업적 흥미 그리고 인격적 특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2) 김병숙 외(1998)의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의 내용 중 pp. 76-80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있다.

柳井(2001: 39-50)는 청소년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중학교 청소년의 대다수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진학을 위한 기초학력을 배양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며, 그들은 고등학교에의 진학을 당면시키는 가운데 자신들의 희망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2003년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모두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다. 조사대상인원은 총 3449명으로, 지역적으로는 서울(603명, 17.5%), 경기(777명, 22.5%), 경남(370명, 10.7%), 부산(291명, 8.4%), 인천(226명, 6.6%), 경북(189명, 5.5%), 대구(129명, 3.7%), 광주(136명, 3.9%), 강원(123명, 3.6%) 등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크게 3개의 요인을 설정하고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요인을, 학교요인으로 학교성적을, 부모 및 가정요인으로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직업, 월평균수입 등의 요인을 설정하였다. 변수들 가운데 학교성적은 학급내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30%내 집단을 ‘상’, 31-70%를 ‘중’, 71% 이하 집단을 ‘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2개의 집단(고졸 및 고

줄이하,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등)과 비전문직(서비스, 판매, 기능, 제조, 자영업, 농수산업 등)으로 분류하였다. 소득변수로는 가구 내 월평균수입을 200만원 미만을 ‘수입 하’, 201-400만원을 ‘수입 중’, 400만원 이상을 ‘수입 상’ 집단으로 분류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725	50
	여	1724	50
	합	3449	100.0
학교 성적	상(상위 30%이내)	1177	36.5
	중(31-70%)	1331	41.3
	하(71-100%)	718	22.3
	합	3226	100.0
부학력	고졸(고졸, 중졸, 국졸, 무학)	1898	56.0
	대졸(전문대, 4년제대학, 대학원)	1493	44.0
	합	3391	100.0
모학력	고졸(고졸, 중졸, 국졸, 무학)	2540	75.2
	대졸(전문대, 4년제대학, 대학원)	837	24.8
	합	3377	100.0
부직업	전문직(전문기술, 관리, 사무직 등)	575	18.0
	비전문직(서비스, 판매, 기능, 제조, 자영업 등)	2622	82.0
	합	3197	100.0
모직업	직업 유	1251	42.4
	직업 무	1697	49.2
	합	2948	100.0
월평균 수입	수입 상(400만원 이상)	502	15.5
	수입 중(200-400만원)	1389	42.9
	수입 하(200만원 이하)	1350	41.7
	합	3241	100.0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직업결정성향(결정, 잠정결정, 미결정)변수, 직업기대 관련 변수, 그리고 직업적 가치 지향성 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직업적 가치지향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질문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수익 및 존경성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769	-	-	-	-
	권력이 많음	.862	-	-	-	-
	사회적 명예(위신)가 높음	.815	-	-	-	-
환경성 및 안정성	시간적 여유가 많음	-	.793	-	-	-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	-	.747	-	-	-
	안정적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음	-	.700	-	-	-
봉사 및 학습지 향성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음	-	-	.563	-	-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	-	-	.761	-	-
자율 및 창조성	업무의 자유재량권이 많음	-	-	-	.677	-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	-	-	.776	-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	-	-	.739	-
리더십 및 협동성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있음	-	-	-	-	.745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음	-	-	-	-	.825
요인별 고유치(Eigenvalues)		2.216	1.978	1.808	1.484	1.371
요인별 설명 변량(Percentages of Variance)		15.830	14.127	12.915	10.603	9.792

그 중 중학생의 직업적 가치지향성에 대한 측정은 설문지 5번의 15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형식으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등 다섯 개의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분석에 포함된 13개의 문항들의 요인별 부하계수(factor loading)는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KMO(Kaiser-Meyer-Olkin) 검정결과 .723(>.50)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는 검정치가 6086.940($p < .000$)으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의 총계는 63.3%로 나타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직업가치 지향성은 5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문항들의 중요정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3개의 요인 점수(factor score)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표-2를 참조).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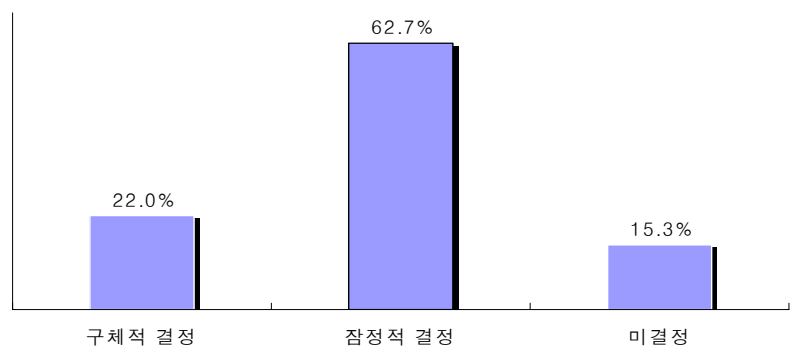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직업기대에 관한 일반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학교성적별,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직업, 가정수입 등에 따른 직업성숙도와 직업결정 여부의 차이, 그리고 직업적 특성에 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 ANOVA와 같은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직업적 특성에 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15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에는 SPSS 10.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연구 결과의 분석은 직업의식 결정 성향 분석, 직업기대 영향 요인에 관한 분석, 직업적 가치지향성에 관한 분석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다.

1. 직업미결정 성향에 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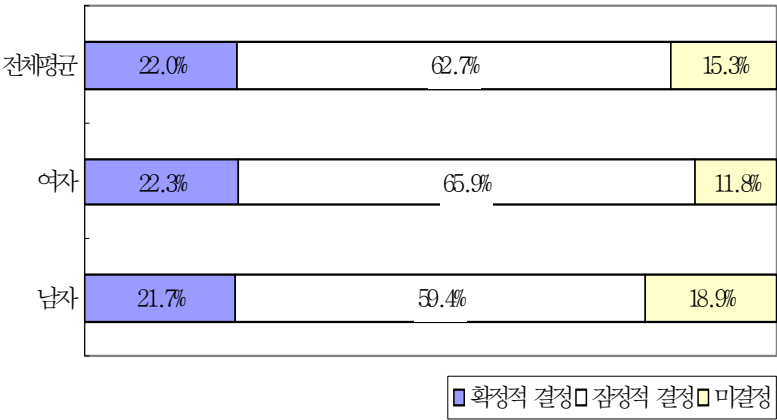
조사대상자 중 63%의 청소년들은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장래 직업에 대해 잠정적인 상태로 결정하고 있으며, 15%의 청소년들은 장래 자신의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 미결정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장래 자신이 어떠한 종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지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로발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의 특징으로 그들은 장래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잠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과, 아울러 중학교 시기가 되면 자신의 직업결정에 있어 능력적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업성적과 같은 능력적 요인에 따라 직업결정적 성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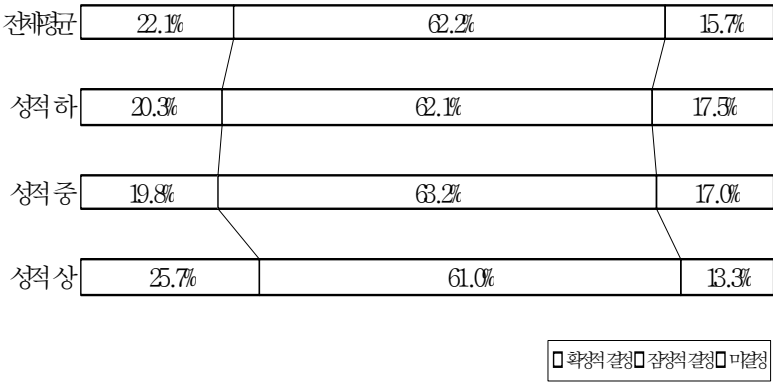
[그림 2]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결정 성향

<표 3> 직업결정성향에 관한 성별, 학업성적, 부모학력, 직업, 수입별 차이

구분		결정	잠정 결정	미결정	통계량
성별	남	374(49.3)	1025(47.4)	326(61.6)	$\chi^2 = 34.460^{***}$ df = 2
	여	385(50.7)	1136(52.6)	203(38.4)	
	합	759(100.0)	2161(100.0)	529(15.3)	
학교 성적	상	303(42.5)	718(35.8)	156(30.7)	$\chi^2 = 19.061^{***}$ df = 4
	중	264(37.0)	841(41.9)	226(17.0)	
	하	146(20.5)	446(22.2)	126(24.8)	
	전체	713(100.0)	2005(100.0)	508(100.0)	
부학력	고졸	402(53.9)	1199(56.3)	297(57.6)	$\chi^2 = 1.945$ df = 2
	대졸(2년제 포함)	344(46.1)	930(43.7)	219(42.4)	
	전체	746(100.0)	2129(100.0)	516(100.0)	
모학력	고졸	545(72.9)	1590(75.3)	405(78.3)	$\chi^2 = 4.931$ df = 2
	대졸(2년제 포함)	203(27.1)	522(24.7)	112(21.7)	
	전체	748(100.0)	2112(100.0)	517(100.0)	
부직업	전문직	139(19.7)	348(17.3)	88(18.1)	$\chi^2 = 2.008$ df = 2
	비전문직	566(80.3)	1659(82.7)	397(81.9)	
	합	705(100.0)	2007(100.0)	485(100.0)	
모직업	직업 유	258(39.2)	785(42.8)	208(45.9)	$\chi^2 = 5.235$ df = 2
	직업 무	401(60.8)	1051(57.2)	245(54.1)	
	합	659(100.0)	1836(100.0)	453(100.0)	
수입	400만원 이상	294(41.0)	859(42.5)	197(39.1)	$\chi^2 = 4.280$ df = 4
	200-400만원	304(42.4)	850(42.1)	235(46.6)	
	200만원 미만	119(16.6)	311(15.4)	72(14.3)	
	합	717(100.0)	2020(100.0)	504(100.0)	



[그림 3] 직업결정에 대한 성별 차이



[그림 4] 직업결정에 대한 학교성적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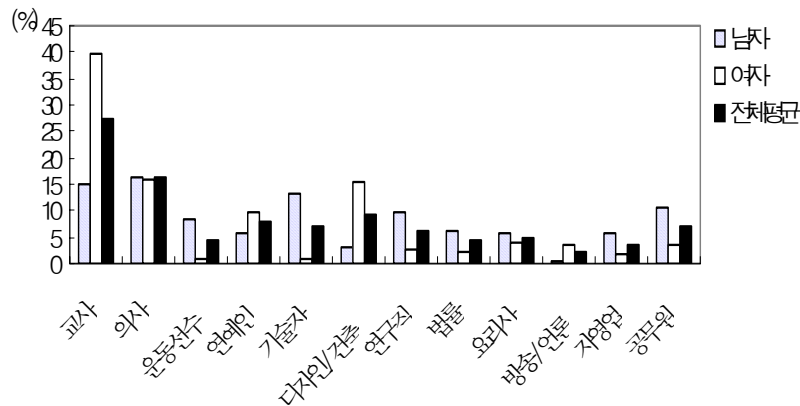
또한, [그림 3]과 [그림 4]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는 먼저, 직업결정에 있어 성별 요인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미결정적 성향에 있어서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장래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지에 대해 미결정 또

는 유예적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성적에 따른 직업 미결정성향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이 장래 자신의 희망직업에 대한 결정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성별이나 학교성적 이외의 요인 즉,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그리고 경제적 수입과 같은 요인이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 직업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중학교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조사대상자 2403명 중 655명(27.3%)이 장래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의사 392명(16.3%), 디자인 및 건축분야 226명(9.4%)의 순이었다. 공무원, 경찰, 군인, 소방관 과 같은 공적인 업무수행을 장래 희망 직업으로 생각중인 청소년들은 167명(6.9%)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관광부(2000), 삼성경제연구소(2002)³⁾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성별간 차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장래희망직업으로 교사(27.3%)와 의사(16.1%) 그리고 디자인관련분야(15.6%)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자(컴퓨터관련분야 13.4%, 운동선수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컴퓨터관련분야(0.8%)와 운동선수(0.7%)를 희망직업으로 고려중인 이들이 극히 소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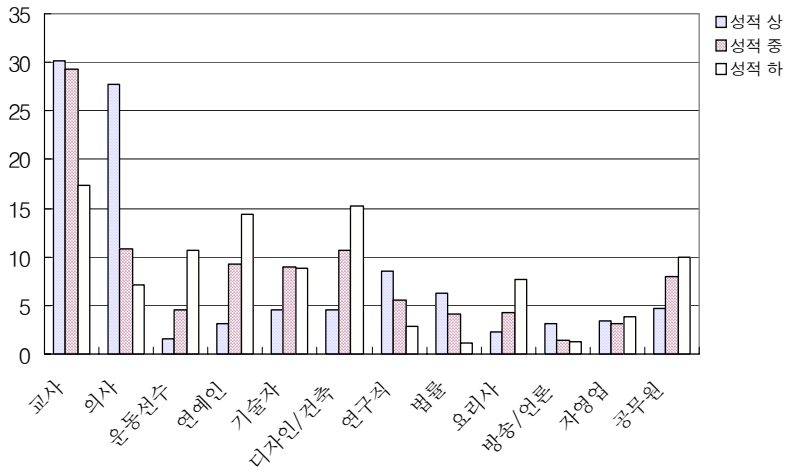
3)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교사가 16.5%로 1위, 의사가 10.4%로 2위, 컴퓨터 분야의 직업이 10.4%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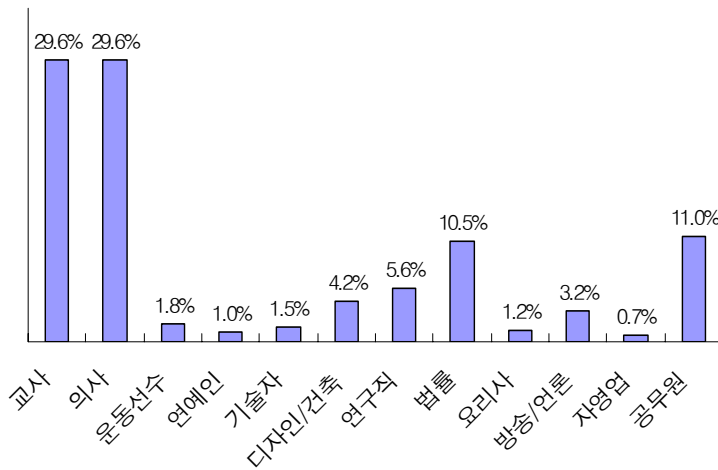
[그림 5] 성별 희망직업의 차이

<표 4> 성별, 학교성적별 희망직업 분포

구 분		교사	의사	운동 선수	연예 인	컴퓨터	디자인· 건축	연구 직	법률 분야	요리 사	자영 업	방송 언론	공무
성 별	남	177 (14.8)	197 (16.5)	101 (8.5)	70 (5.9)	160 (13.4)	38 (3.2)	114 (9.5)	73 (6.1)	67 (5.6)	4 (.3)	67 (5.6)	126 (10.6)
	여	478 (27.3)	195 (16.1)	8 (.7)	120 (9.9)	10 (.8)	188 (15.6)	31 (2.6)	28 (2.3)	47 (3.9)	44 (3.6)	19 (1.6)	41 (3.4)
통계량		$\chi^2= 637.137$ $df= 11$ $p= .000$											
학 교 성 적	상	260 (30.1)	239 (27.7)	27 (3.1)	27 (3.1)	39 (4.5)	40 (4.6)	74 (8.6)	54 (6.3)	20 (2.3)	27 (3.1)	29 (3.4)	41 (4.7)
	중	265 (29.3)	98 (10.8)	41 (4.5)	84 (9.0)	81 (9.0)	96 (10.6)	50 (5.5)	37 (4.1)	39 (4.3)	13 (1.4)	29 (3.2)	72 (8.0)
	하	81 (17.3)	33 (7.1)	50 (10.7)	67 (14.3)	41 (8.8)	71 (15.2)	13 (2.8)	5 (1.1)	36 (7.7)	6 (1.3)	18 (3.8)	47 (10.0)
통계량		$\chi^2= 365.694$ $df= 22$ $p=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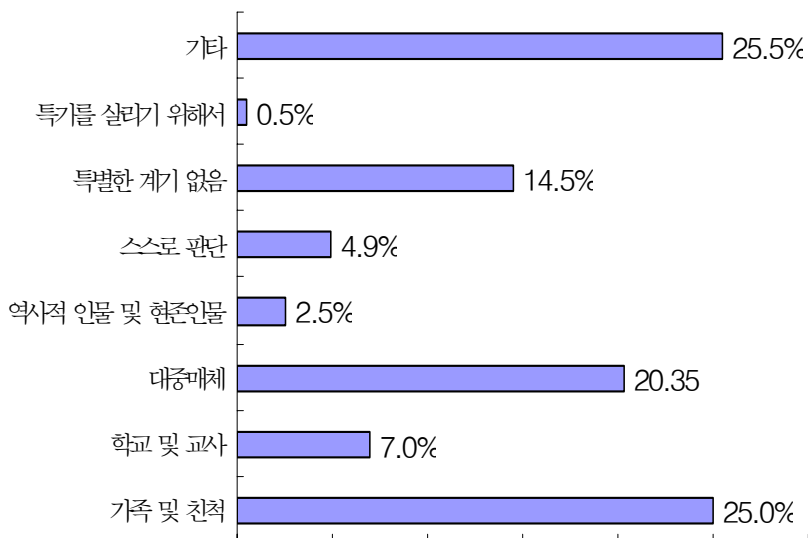
[그림 6] 학교성적별 희망직업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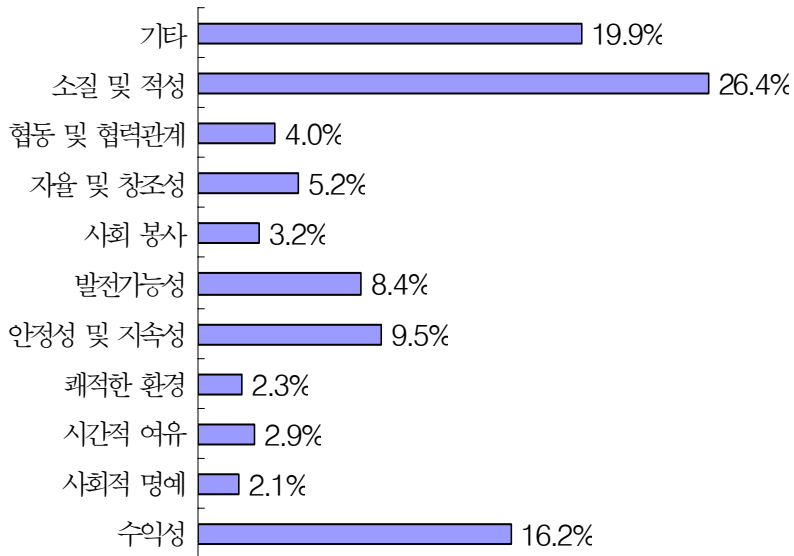
[그림 7] 부모님의 자신에 대한 희망직업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직업적 기대도 교사(30%) 및 의사(30%), 법률 분야(10%)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는 청소년들 본인의 직업

적 기대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연예인, 기술자, 운동선수와 같은 분야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에 있어 사회경제적지위와 직업적 안정성 및 계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그림 8] 희망직업 선택계기



[그림 9] 직업선택시 중요 고려요인

중학교 청소년들은 희망직업의 선택에 있어 부모 및 친척(25%)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매체(20%)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병숙 외(1998)의 연구결과⁴⁾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중학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선택 및 결정에 있어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업적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또한, 중학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직업선택에 있어 소질과 적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26%), 수익성(16%)과 같은 경제적 요인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9를 참조). 여기에서 한 가지 생

4) 중학생 청소년(53.8%)은 자신의 직업선택에 있어 고등학교 청소년(33.8%)과 대학교 청소년(27.9%)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업과 관련된 정보는 대중매체(55.9%)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부모로부터 직업적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이들은 소수(6.5%)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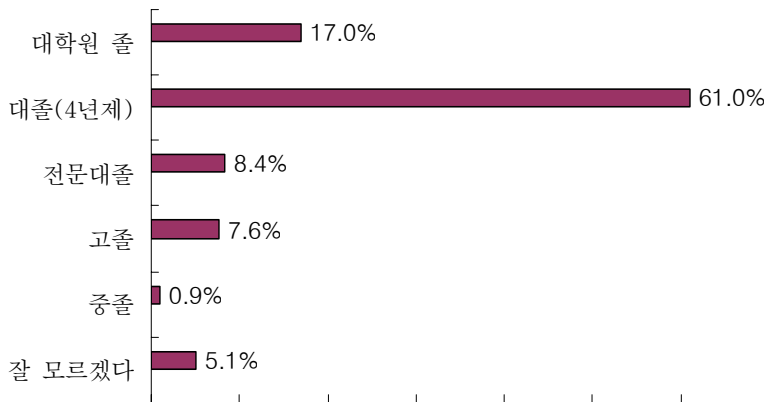
각해 볼 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에 있어 적성, 흥미 등의 요인을 중요시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에 대해 어느 정도 자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하는 점이다. 아울러, 그들은 자신들의 희망직업에 있어 방송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불확실한 정보와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작된 직업적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림 10] 직업을 얻는데 중요 작용 요인

중학교 청소년들 중 장래 자신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학력(學歷)(30%)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력과 성실성(25%), 부모의 경제적 지원(22%)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학벌(學閥)을 중요요인으로 여기는 이들은 10%에 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노동력의 공급자적인 인식이 강한 반면,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측 입장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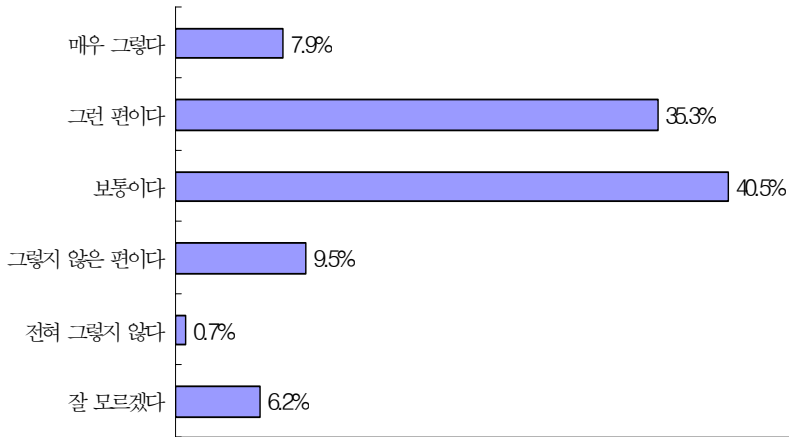
[그림 11]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학력수준

[그림 11]의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2003)의 연구결과⁵⁾와도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직업의 선호 경향에 대해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중학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교사, 의사, 법률분야(검사, 변호사, 판사 등)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이들이 진로의 제1차 분화 시점이 고등학교 진학이후 변화할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장래 자

5) 중학교 청소년들 중 85%는 장래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81.3%)보다 높은 수치이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들(55.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대졸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55.0%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88.4%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장래 희망 직업의 실현성 여부에 대한 그다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한 긍정의 태도가 35%, 미온적 태도가 41%, 약한 부정의 태도가 9%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래 희망 직업은 잠재적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위의 결과에 대해 학교성적변수가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학교성적이 ‘상’ (55.8%)인 집단이 ‘하’(34.4%)인 집단에 비해 장래 자신들의 희망직업에 대한 실현성 인식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 적용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학교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아효능감이 높고 높은 자아효능감은 높은 자신감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자신감이 장래 자신의 희망직업의 실현성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실현성 여부

3.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적 가치지향성에 관한 인식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지의 질문 5번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5개의 요인에 대하여 성별, 학교성적, 부모학력, 부모직업과 같은 요인들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결과를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의 가치지향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김병숙 외(1998)와 권일남(2000)의 조사결과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아래의 표에서는 통계분석결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변수의 결과치만 제시하였다.

<표 5> 요인 I (수익성 및 존경성)에 대한 분석 결과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LSD 검증
						1) 2) 3)
성별	남	1254	2.98	.83	-3.29***	-
	여	1356	3.08	.78		
학교성적	상	967	3.23	.79	49.93***	* * *
	중	999	2.94	.78		
	하	473	2.84	.82		
부학력	고졸	1382	2.93	.77	-6.85***	-
	대졸	1191	3.15	.83		
모학력	고졸	1881	2.99	.79	-4.82***	-
	대졸	677	3.16	.85		
부직업	전문직	457	3.17	.83	3.92***	-
	비전문직	1976	3.01	.80		

***p<.001

먼저, 요인 I 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별요인, 학교성적,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아버지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M=3.08)이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M=2.98)에 비해 직업의 수익성 및 존경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은 집단이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의 수익성 및 존경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요인 II(환경성 및 안정성)에 대한 인식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LSD검증
						1) 2) 3)
성별	남	1264	3.20	.81	-2.97**	-
	여	1383	3.29	.76		
학교성 적	상	966	3.43	.77	49.10***	* * *
	중	1002	3.18	.77		
	하	501	3.04	.79		
부학력	고졸	1415	3.18	.77	-4.57***	-
	대졸	1194	3.32	.80		
모학력	고졸	1916	3.21	.79	-3.97***	-
	대졸	679	3.35	.77		
부직업	전문직	450	3.34	.80	2.37*	-
	비전문직	2010	3.24	.77		

***p<.001 **p<.01 *p<.05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근무환경이나 시간적 여유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과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업무환경과 시간적 여유, 직업의 안정감에 대한 중시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직업과 학력수준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전문직일수록 근무환경 및 업무의 자율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력수준이 높은 부모가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의 직업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가정교육 등과 같은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을 추측해본다.

<표 7> 요인 III(봉사 및 학습지향성)에 대한 인식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LSD검증		
						1)	2)	3)
학교성적	상	974	3.92	.70	40.88***	*	*	*
	중	1016	3.69	.73				
	하	517	3.59	.83				
부학력	고졸	1441	3.71	.75	-3.83***		-	
	대졸	1212	3.82	.73				
모학력	고졸	1945	3.73	.74	-3.05**		-	
	대졸	691	3.83	.76				
부직업	전문직	456	3.82	.89	2.03*		-	
	비전문직	2054	3.07	.85				

***p<.001 **p<.01 *p<.05

요인 I 과 요인 II 의 결과와는 반대로, 남자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에 비해 직업을 통한 사회봉사,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직업을 통한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이 높으며, 아울러 직업을 통한 자기계발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8> 요인 IV(자율 및 창조성)에 대한 인식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	1170	3.15	.90	3.28***
	여	1284	3.04	.83	
모학력	고졸	1764	3.06	.87	-2.95**
	대졸	642	3.18	.85	
부직업	전문직	427	3.20	.89	2.85**
	비전문직	1859	3.07	.85	

***p<.001 **p<.01

요인 IV에 있어서는 성별, 어머니학력과 아버지의 직업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재량권이 많음”, “반복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 과 같은 직업적 특성은 직무의 특성상 비전문직보다는 전문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아버지가 전문직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의 높을수록 업무의 재량권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9> 요인 V(리더십 및 협동성)에 대한 인식

독립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LSD검증		
						1	2	3
성별	남	1273	3.58	.92	1.98*			
	여	1382	3.51	.85				
학교 성적	상	959	3.47	.94	7.96***			
	중	1016	3.57	.87		*		
	하	495	3.66	.80		*	*	

***p<.001 *p<.05

마지막으로, 리더십 및 협동성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학교성적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그리고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에 비해 직업의 특성 중 리더십 발휘와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 시사점 및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들의 희망직업에 대한 양상으로는 자아실현과 사회경제적지위획득이 가능한 전문적 영역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교사와 의사와 같은 직업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2003)와 문화관광부(2001)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청소년들이 교사에 대한 선호경향이 상당히 강한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직업적 이미지가 남성적이라기보다는 여성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울러 남자청소년은 운동선수, 컴퓨터관련분야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한 반면, 여자청소년은 디자인과 같은 분야의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은 위에서 언급한 직업이 주는 성적 이미지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직업은 청소년들에게 잠정적 형태로 존재하는 경향이 강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숙자(1993)는 청소년들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장래희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적성과 능력, 성적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희망직업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직업선택에 있어 부모와 형제, 친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사로부터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맹영임(1999)의 조사에서 조사대상 청소년들 중 96.7%가 진로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위의 조사결과의 현실적 양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15%는 자신의 장래희망직업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계기가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에 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김병숙 외(1998)의 조사에서는 직업에 관한 지식 및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으며,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볼 때, 중학교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를 비롯한 가족은 직업결정 및 선택을 위한 상담자 또는 정보제공자라기 보다는 기대적 수준에서 직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업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정도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를 제기해 본다.

셋째, 중학교 청소년들 중 자신들의 직업선택시 소질과 적성 등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는 이들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과 같은 외부적, 현실적 요인을 고려하는 이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업을 얻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학력수준과 노력과 성실성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요인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주목해 볼 점으로는 첫째, 학력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다수의 청소년들은 전문직을 희망하고, 전문직에 요구되는 교육수준이 대학졸업이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청소년들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과 기업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특징들이 보인다. 중학교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기업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을 원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반해, 기업은 학벌, 학력, 어학능력, 자격증 등과 같은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넷째, 직업의 가치지향성에 대한 분석 결과, 5개의 요인 전부에 대하여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들은 수익성 및 존경성, 환경성,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남자청소년

년은 사회봉사 및 학습지향성, 업무의 자율성 및 창조성 그리고 리더십과 협동성의 요인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한 성적 차이에 의해 설명하기보다는 조아미(2000)의 지적처럼 자기효능감과 성역할정체감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유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울러, 직업선택 및 직업의식의 성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문화와 교육과정을 통한 성역할 사회화와 직업적 사회화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중학교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요인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한국사회의 특징과 진로발달론적 관점의 직업의식 발달단계를 감안했을 때, 중학교 시기는 직업세계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거리는 물리적 측면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거리감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직업선택을 당면한 현실적 선택과제로 바라보기 보다는 장래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시점에 선택해도 되는 먼 훗날의 과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의 직업은 그들에게 있어 긴박성, 구체성 및 현실성이 결여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 청소년들은 막연한 수준에서 직업선택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이 일부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중학교 청소년들은 자신의 장래 희망직업에 있어 학교성적과 같은 능력적 요인과 희망직업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강영배(2002). 일본 청소년의 직업의식 변화에 관한 실증적 고찰. 청소년지도학연구, 제 2권 제 2호: 181-206.
- 강영배(2002). 청소년의 사회참가경험이 직업의식 미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지도학연구, 제 4권 제1호, pp. 119-146.
- 강영배(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직업의식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인쇄중).
- 권일남(2001).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 33권 제 2호, pp.117-130.
- 김병숙 외(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영기(1996). 중·고등학생의 일의 가치에 따른 진로의식성숙. 한국진로상담학회지 제 1권 pp. 63-94.
- 김진석(1992).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기대와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맹영임(1999). 청소년의 진로의식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삼성경제연구소(2003).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
- 양한주(1998). 중·고등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및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치선(2000).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활성화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 유홍준(2002). 직업사회학. 경문사.
- 윤숙자(1994). 학생들의 직업인식에 관한 조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난향(1997). 중학교 학생과 교사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상담학회지 제 2권 제 1호 pp. 161-197.
- 장원섭·김형만·옥준필(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1):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의
진로 의사결정효능감. 교육학연구 제 38권 제 4호 pp. 43-62.
- 황정규 외(1989). 한국인의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연구. 서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 Ginzberg, E. et al.(1969). Occupational Choic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ckett, G. & Betz, N.(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
326-339.
- Holland, J. L.(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 E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and Row.
- 尾嶋史章編著(2001). 現代高校生の計量社会学:進路・生活・世代, 京都:
ミエルヴァ書房.
- 尾高邦雄(1995). 職業社会学, 東京: 夢窓庵.
- 落合良行・伊藤裕子・齋藤城一(2002). 青年の心理學, 東京: 有斐閣.
- 姜永培(2004). 韓國における青少年の職業意識構造に関する研究, 東北大
學院博士論文.
- 小杉礼子(2001). 高卒就職現象と学校における進路指導の問題点, 青少年問
題, 45(6): 10-15.
- 下山晴彦編(2000). 教育心理学II: 発達と臨床援助の心理学, 東京: 東京大
学出版会.
- 柳井修(2001). キャリア発達論: 青年期のキャリア形成と進路指導の展開, 京
都: ナカニシヤ出版.
- 宗方比佐子・渡辺直登 編著(2003). キャリア発達の心理学, 東京: 川島書房.
- 村上龍(2003). 13歳のハローワーク, 東京: 幻冬舎.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 연구

유성렬 (천안대학교 청소년학전공)

I. 서론

최근 들어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금을 받기 위해 학기 중 혹은 방학 중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일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거나 대학생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이제는 적지 않은 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과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많은 경우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문성호, 2003).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 진학이라는 최대 과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학교가 아닌 학교 외부의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의식구조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문성호, 2003; 한경혜, 2000).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된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경험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과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와 실제 참여하는 직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때에는 이러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이제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고 참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노동시장에의 참여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 성적 뿐 아니라 비행을 포함한 행동적인 측면, 심리·사회적인 적응 등 청소년 발달의 제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성인과는 매우 다른 입장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주는 영향을 성인의 경우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기가 갖는 독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의 직업경험에 대한 연구는 Greenberger와 Steinberg(1986)의 연구를 필두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시간제 근로(part-time employment)가 청소년에 주는 영향을 다양한 영역에 걸쳐 고찰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University of Minnesota의 Mortimer와 그 동료들을 중심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Mortimer and Finch, 1996).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직업경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문성호, 200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변수를 찾아보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지니는 영향을 고찰하는 3가지 시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주는 영향을 체계적으

로 고찰하기 보다는 그러한 작업의 사전 단계로서 관련 변수들을 기술적인(descriptive)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충분한 이론적·경험적 고찰 없이 독립변수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의 제반 발달 영역의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가정하고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이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성격을 지닌 청소년들이 직업경험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특정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중에 시간제 직업을 가짐과 동시에 그러한 성향이 일부 종속 변수와도 관계를 갖게 된다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허위적인(spurious) 관계에 불과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횡단자료에 기초한 연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longitudinal data)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종단 자료에 기초한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변수들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크게 3가지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청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접근이다. 즉 노동시장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책임감을 획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timer, Finch, Shanahan,

and Ryu, 1992a). 즉 성인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일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따라서 어른이 되어 간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직업 경험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 뿐 아니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Mortimer and Finch, 1996). 이와 더불어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직장 및 교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경험은 다중 역할(multiple roles)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Elder and Caspi, 1990). 이러한 입장과 관련하여 Phillips와 Sandstrom(1990)은 직업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의 부모들도 직업 경험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입장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Greenberger와 Steinberg(1986)의 연구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Greenberger와 Steinberg는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갖게 되는 직업들은 대부분 별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직에 국한되어 있으며, 따라서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은 직업 경험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을 익히기 전에 직무수행과정에서 성인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지나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음으로 인하여 적절한 교우관계나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직업 경험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 및 시간을 증대시킴으로써 음주나 흡연과 같은 행위에 쉽게 노출시키며, 성인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방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경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근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 성적이 부진한 경향을 보이며(Greenberger and Steinberg, 1996), 더 자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einberg and Dornbusch, 1991). 또한 청소년의 근로 시간과 학교 성적간에도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rtimer and Finch, 1986).

그러나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 경험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가 부진한 학교 성적 혹은 문제 행동을 초래하는 원인인지 아니면 부진한 학교 성적이나 문제 행동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횡단 자료보다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단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와 관련된 세 번째의 입장은 청소년이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Mortimer와 그의 동료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의 근로 경험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지적이라는 것이다. Kohn과 Schooler(1983)가 수행한 작업의 성격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율성의 정도와 심리적 기능(psychological functioning)에 관한 연구에 기초하여, Mortimer와 그의 동료들은 청소년이 시간제 근로를 통하여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근로 경험이 주는 영향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Mortimer, Shanahan and Ryu, 1994; Mortimer and Finch, 1996).

예를 들면, 성인들의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율성의 정도가

많이 주어질수록 자아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의사 결정권이 주어지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ahan, Finch, Mortimer and Ryu, 1991). 이러한 입장은 청소년의 직업 경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주요 독립변수를 단순히 근로 경험의 유무나 작업 시간에 국한시켜온 기존이 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이 수행하는 직업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 경험이 청소년에게 주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을 지닐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 자료에 기초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시간제 근로 실태를 살펴보고, 시간제 근로 경험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시간제 근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에 1차년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3,449명으로 이 가운데 남학생은 1725명이고 여학생은 1727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로는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가정의 월평균 소득,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 학교 성적 변인(학급 및 전교 석차와 석차 백분율), 일주일에 학교 수업 및 과제, 그리고 사교육에 사용하는 시간, 음주와 흡연을 비롯한 비행 경험 변인, 그리고 자아존중감, 자기 비하 및 자기 효능감 등의 자아 개념 관련 변수들이다.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sion 10.1)을 활용하여 기술적 통계 분석, t-test, χ^2 검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1차년도 자료에 나타난 시간제 근로 경험의 실태와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규명을 위한 다변량분석은 시행하지 않았다.

IV. 연구 결과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참가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시간제 근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3,449명 가운데 14.8%에 해당되는 510명이 한 번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들 가운데에는

14.7%인 253명이, 여학생은 14.9%에 해당하는 257명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남녀 학생들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참조). 이러한 수치는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의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 실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23.5% 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는 학생 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리 낮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Mortimer, Finch, Shanahan and Ryu(1992a)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 세인트폴 지역에 거주하는 9학년 학생들 가운데 82.5%가 시간제 근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2%는 조사 당시에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참여 정도는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성별 \ 험여부	남	여	계
경험없음	1,472 (85.3)	1,467 (85.1)	2,939 (85.2)
경험있음	253 (14.7)	257 (14.9)	510 (14.8)
계	1,725	1,724	3,449

$\chi^2 = .04$ (df=1), $p = .842$

주) ()안은 백분율을 나타냄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아

르바이트 횟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1명은 지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횟수가 1회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 3회 이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5.8%에 이르고 있다.

<표 2>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횟수

아르바이트 횟수	빈도	백분율(%)
1회	251	50.3
2회	96	19.2
3회	56	11.2
4회	24	4.9
5회	29	5.8
6회 이상	43	8.6
계	499	100

<표 3>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직종을 보여 주고 있다. 흥미롭게도 79.2%에 해당하는 404명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약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카페나 식당 등에서 서빙을 하거나 카운터를 보거나 배달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판매 관련 일을 한 학생도 약 3%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경우 남학생들은 이웃집의 잔디 깎기나 눈 치우기, 여학생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아기 보기(babysitting) 등의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속하는 작업이 초기 단계의 아르바이트 직종인 것(Mortimer, et al., 1992a)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작 단계가 주로 전단지 돌리기라는 1회성 성격이 강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단지 돌리기는 지정된 장소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관리나 감독 없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행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시간제 근로의 성격을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표 3> 중2 학생들의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직종

직종	빈도	백분율(%)
전단지 돌리기	404	79.2
배달(우유, 신문 등)	15	2.9
판매	13	2.5
서빙/카운터/배달	49	9.6
건설현장·공장노동	8	1.6
주유소	4	.8
행사장 도우미	4	.8
아기·노인 돌보기	4	.8
기타	9	1.8
계	510	100

<표 4>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57.8%는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반면, 42.2%는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남학생 가운데에는 36%만이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48.2%가 학기 중에 시작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기 중에 하는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아르바이트와 학업과의 관계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중2 학생들의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시작 시기

성별 시작 시기	남	여	계
방학 중	162 (64.0)	133 (51.8)	295 (57.8)
학기 중	91 (36.0)	124 (48.2)	215 (42.2)
계	253	257	510
$\chi^2 = 7.89$ (df=1), $p = .005$			

주) ()안은 백분율을 나타냄

<표 5>는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71.5%에 해당하는 364명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기간은 1주일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졌던 아르바이트 직종이 전단지 돌리기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중2 학생들의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기간

기간	빈도	백분율(%)
1 ~ 7일	364	71.5
8 ~ 14일	31	6.1
15 ~ 21일	31	6.1
22 ~ 30일	60	11.8
31일 이상	23	4.5
계	509	100

<표 6>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절반 가량이 하루에 2~3 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56%가 하루에 2~3시간 정도 일을 하였고 응답한 반면, 일일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도 32.6%에 달하고 있다. 이 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여야 할 점은 여기 나타난 수치들은 학생들의 평일과 주말 근무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6시간 이상 근무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것이 평일의 6시간인지 아니면 주말의 6시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평일의 장시간 근무가 학교 수업 및 활동 참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일 근무 시간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다.

<표 6>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 시간

시간	빈도	백분율(%)
1	58	11.4
2	144	28.2
3	142	27.8
4	64	12.6
5	46	9.0
6시간 이상	56	11.0
계	510	100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학생들이 받은 보수는 시간당 1,0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54.7%는 시간당 1,000원에

서 3,000원 사이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학생도 28.3%에 달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받는 시간당 보수는 그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시간당 1,000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11.6%에 달하고 있고 2,000원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들은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7>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당 보수

금액	빈도	백분율(%)
~ 1,000원	51	11.6
1,000초과 ~ 2,000이하	130	29.6
2,000초과 ~ 3,000이하	110	25.1
3,000초과 ~ 4,000이하	38	8.7
4,000초과 ~ 5,000이하	86	19.6
5,000초과 ~	24	5.4
계	439	100

<표 8> 중2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이유	빈도	백분율(%)
생활비를 벌기 위해	13	2.5
학비를 벌기 위해	3	.6
용돈이 부족해서	249	48.8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19	3.7
여가 시간을 활용하려고	129	25.3
주위의 권유로	74	14.5
친구를 돕기 위해	11	2.2
운동 삼아서	2	.4
호기심에	7	1.4
부모님 가게를 돕기 위해	3	.6
계	510	100

<표 8>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주된 이유는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철위·박창남·정혜영(2000)의 연구와 문성호(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동기는 생계형 성격을 지닌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9>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성별 비교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횟수	남	245	2.89	3.30	1.827 ^a
	여	254	2.39	2.83	
기간	남	253	12.96	29.17	1.217
	여	256	10.21	21.24	
일일근무시간	남	253	3.32	2.34	-.671
	여	257	3.46	2.07	
시간당 보수	남	217	3,024.19	1,579.46	-.19
	여	222	3,052.70	1,642.36	

a : $p < .10$

<표 9>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행한 t-tes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횟수나 지속기간, 일일 근무시간, 시간당 보수에 있어서 남학생이나 여학생 사이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제반 경험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한번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 성적, 일주일 동안 학업 관련 활동에 활용하는 시간, 비행 경험, 자아 관련 개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t-test와 χ^2 검정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표 10>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비교

변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있음	483	274.06	226.37	-2.162*
	없음	2,822	297.32	217.25	
아버지의 교육정도	있음	498	4.47	1.36	-4.881*
	없음	2,893	4.78	1.30	**
어머니의 교육정도	있음	494	4.00	1.05	-5.510*
	없음	2,883	4.28	1.16	**

* : $p < .05$, *** : $p < .001$

먼저 <표 10>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의 가정의 소득보다 약20여 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정도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부모의 교육정도보다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이유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수록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의 양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정도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만 실제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11>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라 학교

성적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반 석차 평균은 약 20.2등인 것에 비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15.9등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등수 비율 뿐 아니라 전교 석차 및 전교 석차 비율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학급 혹은 전교 석차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결과가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이 낮아서 학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업 등 공부 이외의 영역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경험과 학업성적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두 변수간의 관계를 매우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학교 성적 비교

변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반등수	있다	479	20.2	9.85	8.535***
	없다	2,790	15.9	10.24	
반등수 비율	있다	478	54.84	26.49	8.510***
	없다	2,748	43.27	27.57	
전교등수	있다	446	174.69	112.45	5.214***
	없다	2,557	143.63	116.68	
전교등수 비율	있다	449	50.5	25.63	7.753***
	없다	2,547	40.23	27.14	

*** : $p < .001$

중2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과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는 학교 성적과 아르바이트 경험과의 관계와 매우 유사

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학업 및 개인 학습과 과외 교습 등 사교육을 받는데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학교 수업 및 개인 학습에서의 차이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사교육과 관련된 시간에서는 2.25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2>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학업에 쓰는 시간 비교

변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학교 수업 및 개인 학습	있다	509	40.21	11.36	-3.238**
	없다	2,925	41.92	10.95	
사교육	있다	509	13.79	12.84	-3.832***
	없다	2,925	16.04	12.12	

*** : p < .001

<표 13>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비행 경험 비교
(N=3,449)

비행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			χ^2 (df=1)
흡연		없다	있다	계	90.44***
	없다	2,616 (89.0)	375 (73.5)	2,991	
	있다	323 (11.0)	135 (26.5)	458	
음주		없다	있다	계	105.47***
	없다	2,137 (72.7)	255 (50.0)	2,392	
	있다	802 (27.3)	255 (50.0)	1,057	
무단결석		없다	있다	계	34.56***
	없다	2,823 (96.1)	459 (90.0)	3,282	
	있다	116 (3.9)	51 (10.0)	167	
가출		없다	있다	계	32.71***
	없다	2,844 (96.8)	466 (91.4)	3,310	
	있다	95 (3.2)	44 (8.6)	139	
성관계 경험		없다	있다	계	6.12*
	없다	2,912 (99.1)	499 (97.8)	3,411	
	있다	27 (.9)	11 (2.2)	38	
폭행		없다	있다	계	34.78***
	없다	2,710 (92.2)	429 (84.1)	3,139	
	있다	229 (7.8)	81 (15.9)	310	
패싸움		없다	있다	계	31.15***
	없다	2,806 (95.5)	456 (89.4)	3,262	
	있다	133 (4.5)	54 (10.6)	187	

<표 13> 중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비행 경험 비교 (계속)

비행 종류		아르바이트 경험			χ^2 (df=1)
금품갈취 (뺑 뜯기)		없다	있다	계	67.75***
	없다	2,817 (95.8)	443 (86.9)	3,260	
	있다	122 (4.2)	67 (13.1)	189	
절도		없다	있다	계	31.39***
	없다	2,765 (94.1)	445 (87.3)	3,210	
	있다	174 (5.9)	65 (12.7)	239	
남 놀리거나 조롱하기		없다	있다	계	18.98***
	없다	2,535 (86.3)	402 (78.8)	2,937	
	있다	404 (13.7)	108 (21.2)	512	
협박		없다	있다	계	9.64**
	없다	2,826 (96.2)	475 (93.1)	3,301	
	있다	113 (3.8)	35 (6.9)	148	
왕따시키기		없다	있다	계	9.74**
	없다	2,545 (86.6)	415 (81.4)	2,960	
	있다	394 (13.4)	95 (18.6)	489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3>은 아르바이트 경험과 비행경험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표 13>에 제시된 모든 비행 목록에서 비행에 참여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흡연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26.5%가 흡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들 가운데 11%만이 흡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의 경우에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50%, 무경험자의 27.3%가 음주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경험, 폭력,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남 놀리거나 조롱하기, 협박 및 왕따 시키기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는 무경험자보다 비행에 참여한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비행 혹은 문제 행동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4> 중2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자아개념 비교

변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자아존중감	있음	510	8.99	2.42	-3.695**
	없음	2,938	9.39	2.19	*
자기비하	있음	510	8.80	2.64	4.266***
	없음	2,935	8.29	2.46	
자기효능감	있음	510	10.06	2.36	-3.717**
	없음	2,938	10.45	2.17	*

*** : $p < .001$

<표 14>는 아르바이트 경험과 자아 관련 개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

는 반면, 자기를 비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아 관련 개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서는 2가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학업보다는 노동시장에의 참여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누가 아르바이트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자아 관련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이 경우 단순히 아르바이트 경험의 유무가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서 아르바이트 경험의 어떠한 측면이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Mortimer, et al., 1992a).

V.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실태 및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14.8%인 510명이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은 한번의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거의 80%에 달하는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들은 전단지 돌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유경험자의 약 42%는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응답했으며,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은 71.5%의 학생들의 경우 7일 이하였고, 일일 근무 시간은 절반 이상이 2~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들이 받은 시간당 보수는 1,000원에서 3,000원을 받는 학생이 약 55%에 달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주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 성적,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 비행경험, 자아 개념 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아르바이트 경험의 청소년들에게 주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외국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입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단지 경험의 유무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경험의 유무는 물론이고 작업 시간, 보수, 작업의 종류, 작업의 내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다양한 측면이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종단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아르바이트 경험이 비행을 초래한다거나 학업 성적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위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에 관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추구한다면 아르바이트의 학교 성적에 대한 영향은 허위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횡단 자료로는 이러한 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성호(2003). “학생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 10권 제 3호 pp. 83-103
- 한경혜(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11권 제 2호 pp. 153-180
- Elder, G. H., Jr. and Caspi, A.(1990). "Studying lives in a changing society: Sociological and personological explorations." In A. I. Rabin , R. A. Zucker, R. Emmons, & S. Franks(Eds.) Studying persons' lives (pp.201-247) New York: Springer
- Greenberger, E. & Steinberg, L. D.(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employment. New York: Basic Books
- Kohn, M. L., and Schooler, C.(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 Mortimer, J. T. and Finch, M. D.(1986).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self-concept and achievement." In K.Borman & J.Reisman(Eds.) Becoming a worker (pp.66-89). Norwood, NJ: Ablex
- Mortimer, J. T. and Finch, M. D.(1996). Adolescent, work, and family: An ergener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ortimer, J. T., Finch, M. D., Shanahan, M. J. & Ryu, S.(1992a). "Work experience, mental health, and behavioral adjustments in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 No. 1, pp. 25-58.

- Mortimer, J. T., Finch, M. D., Shanahan, M. J. & Ryu, S.(1992b).
"Adolescent work history and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Vol. 2 No. 1, pp. 25-58.
- Mortimer, J. T., Shanahan, M. J. & Ryu, S.(1993). "The effects of
adolescent employment on school-related orientation and
behavior." In R. K. Silvereisen & E. Todt (Eds.)
Adolescence in context: The interplay of family, school,
peers, and work in adjustment. (pp.304-326). New York:
Springer-Verlag
- Phillips, S. and Sandstrom, K.(1990). "Parental attitudes toward
youthwork." Youth and Society Vol. 22 pp. 160-183.
- Shanahan, M. J., Mortimer, J. T., Finch, M. D., & Ryu, S.(1991.)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depressive affe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4, pp. 299-317.
- Steinberg, L. D., and Dornbusch, S. M.(1991). "Negative correlates
of part-time work on adolescence: Replication and
elab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7, pp.
304-313.

IV. 심리 · 자아관

1. 청소년기 긍정적인 자아관 발달을 위한
생태학적 맥락변인 분석
2. 차별접촉, 긍정적 자아개념 그리고
청소년비행

청소년 초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를 중심으로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청소년학과)

I. 문제제기

현대사회에서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context)으로는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을 꼽을 수 있다(Steinberg, 1993). 생태학적 관점의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타고난 발달적 특성과 그 개인이 처해있는 다양한 맥락들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응과 부적응을 설명하고 있는데(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분석에 의해 제시된 정보는 청소년기 적응을 촉진하고 부적응을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효과적이다.

인간 발달을 설명하는 생태학적 맥락의 종류는 개인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미시체계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외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Bronfenbrenner, 1979),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을 포함하는 청소년기 주요 미시체계적 맥락 변인들과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으로서 자기가치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을 위해 기초가 되며 필수적인 심리 특성이다(Harter, 1993; Rosenberg, 1972).

자기를 유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즉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청소년은 건강한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김애경, 2001),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도덕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고 창의적이다(김희화·김경연, 2000; 현희순·김양순, 1999). 주위의 유혹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한다(김희화, 2002; 심응철, 1992; 심희옥, 1998; 이경남, 2002). 성취동기 수준이 높으며(홍성흔·도현심, 2002) 자신감이 있다(강기정, 정은미, 2003).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우울증, 학교생활 부적응, 집단 괴롭힘, 비행, 폭력, 약물남용 등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심희옥, 1997; 양중국·김충기, 2002; 유성경 외, 2000; 최은영·최인령, 2002).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서 심리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남으로 인해 자의식이 강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다(송명자, 1995; 정옥분, 1998).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주요한 토대가 되므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하는 심리적 성향을 발달시키는 것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적 과제이다(Erickson, 1968).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으로 인해 학업과 관련 되지 않은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학교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을 경우와 같은 실패를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맥락에 처해있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우며 대신에 자신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과 청소년기에 발

생활 가능성이 있는 심리, 사회적 부적응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족과 친구 맥락의 영향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가족 맥락의 기능적인 변인으로는 부모변인과 형제변인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 가족갈등, 가족기능 등 가족과정변인이 주로 분석되고 있고 구조적 변인으로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분석되고 있다. 부모변인으로는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의 감독 변인이 분석되었는데 주로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을 하고 자녀와 친밀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김경연, 1993; 손화희·윤종희, 1990; Farrel & Barnes, 1993).

부모의 감독(monitoring)은 양육 방법 및 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자녀의 활동과 적응, 그들이 가는 곳에 대해 알고 추적하는 일련의 부모 행동으로 자녀의 학업이나 행동문제와 관련성이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나(박진경·도현심, 2001; 천희영·김미혜·옥경희, 2002; Crouter, MacDermid, & Perry-Jenkins, 1990)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일관성이 없다(김경연, 1993; 박선영·도현심, 1998; 박영애·정옥분, 1996; 이숙·최정미, 2003; 천희영·옥경희·김미혜, 2001). 형제관계 특성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적으로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계를 보이는데 부모의 양육 행동이 온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형제간 갈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심화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박영애·정옥분, 1996).

가족의 구조적인 특성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즉 부모의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그리고 가구의 경제적 소득이 많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

중감이 높다(손원숙, 1994; 어주경, 1998; 조성연, 1997; 현희순·김양순, 1999). 이러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 간의 관계는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 일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된 결과도 있다(현희순·김양순, 1999). 한편, 청소년기 친구관계 맥락의 특성과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친구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거나 거부를 당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낮았다(김희화·김경연, 1998; 이숙·최정미, 2003; 한종혜, 1996).

가족, 친구와 함께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의 주요 맥락은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 맥락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 학업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된 시험불안 증세가 자존감 발달과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성중호, 이영식, 이길홍, 1999)와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생활 중 수업참여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결과들을(도현심, 신정남, 1999) 고려해 볼 때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은 자아존중감 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것으로 가정된다.

여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고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아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이다(Iso-Ahola & Crowley, 1991).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중 스포츠 활동과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자아성취감 발달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안경일·김재현, 2002; 윤만수·강진홍, 2001; 이강우, 2001; 이진갑, 2002; 조연철·최창석, 2001; 허정식, 199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볼 때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여가활동 맥락 변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일 것으로 가정된다.

직업의 선택은 자아개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Super, Savickas, & Super, 1996) 청소년기 직업 관련 변인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일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진로성숙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발달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다(김충기·김현옥, 1989). 오늘날 학교교육이 일과 직업세계에 관련된 자아인식의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지식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로지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충기, 1989).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주요 맥락은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이며 이들 맥락은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Bronfenbrenner, 1979; Steinberg, 1993).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된 맥락 변인으로서 주로 가족과 친구 변인들에 중점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오거나 한, 두 가지 맥락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문에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여가나 직업 맥락이 자아존중감 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있는 편이며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갖는 상대적인 관련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을 모두 포함하여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 맥락 변인들이 자아존중감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상대적인 관련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주로 긍정적인 발달 보다는 부적응 발달 현상에 관심을 집중해왔고 이 때문에 긍정적인 발달이 부적응의 문제가 없는 상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 소홀해 왔다(이미리, 2003; Aspinwall & Staudinger, 2003; Stokols, 2003). 기존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과 부정적인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일차원의 양극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중에서 “1.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고 “9.나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낀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와 같이 각 문항을 통해 측정된 긍정적인 자아 평가 수준이 높고 부정적인 자아 평가 수준이 낮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수준이 낮은 것과 긍정적인 평가 높을 것을 한 차원의 다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독립된 두 영역으로 측정하여 위에서 제시한 맥락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 두 영역이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일 차원의 다른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과 가족, 친구, 학교, 여가, 그리고 직업 맥락 변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청소년기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과 가족, 친구, 학교, 여가, 그리고 직업 맥락 변인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개발원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하는 종단적 연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생 3509명이다(남학생 1755명, 여학생 1754명).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전체의 94%가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계시고 90%가 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반정도의 학생들이 한명 혹은 그 이상의 형제가 있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46%, 여학생은 62%가 동생이 있다. 조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의 5%가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했으며 13%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직업 특징을 살펴보면 36% 학생의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39%가 사무직에서 전문직에 이르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영업에 포함하여 기술직, 서비스직, 그리고 일일근로직에 종사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경우 전체의 69%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24%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아버지는 51%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44%가 전문대졸 이상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939,200원으로 2004년 2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2,970,948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자녀에게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60,700원이었다. 이상의 인구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통계치들은 독립변인들의 기술적 결과를 제시한 <표5>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2. 연구도구

1) 종속변인: 긍정적 자아평가, 부정적 자아평가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평정치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의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모델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하위 요인들간 상관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각회전(oblimin rotation)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Scree검사를 통해 Eigen값이 1 이상인 요인으로 결정하였다. 요인분석과 Scree검사 결과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두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는 문항의 내용과 함께 <표1>에 제시하였다.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Alpha로 산출한 신뢰도는 전체 .734, 긍정적 자아 평가 요인 .799, 부정적 자아 평가 요인 .753 이었다.

<표1> 자아존중감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문항	I. 긍정적 자아평가	II. 부정적 자아평가	h^2
2.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51	.215	.726
3.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18	.271	.669
1.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04	.213	.366
4.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29	.747	.559
5.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49	.694	.486
6.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303	.692	.488
Eigen 값	2.601	1.561	
변량원	.362	.187	

2) 독립변인: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 변인

본 연구에서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과 각 맥락과 관련한 스트레스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독립변인들의 수가 많고 측정수준도 다양하여 스트레스를 제외한 독립변인들을 맥락별로 정리하여 <표2>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이나 척도(Scale)를 사용하였는데 문항으로 측정된 변인(variable)에 대해서는 변수값(values)을 표에 제시하였고, 척도로 측정된 변인에 대해서는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본문에 기술하였다.

<표2>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 변인의 내용

맥락변인		변수값
가 족	1.친부모 가족 여부	1)친부모님이 계심 2)한쪽 친부모가 계시거나 두분 모두 안계심
	2.양친과의 동거 여부	1)양친부모와 함께 삼 2)한쪽 친부모와 살거나 부모와 떨어져 삼
	3.형유무	1)형이 있음 2)형이 없음
	4.동생유무	1)동생이 있음 2)동생이 없음
	5.조부 동거 여부	1)조부와 함께 삼 2)조부와 함께 살지 않음
	6.조모 동거 여부	1)조모와 함께 삼 2)조모와 함께 살지 않음
	7.모 취업 여부	1)취업 2)미취업
	8.부 직업 수준	1)사무직 혹은 전문직 2)자영업, 기술직, 일일근로직
	9.부학력	1)초졸이하 2)중~고졸이하 3)전문대~4년제대졸 이하 4)대학원 이상
	10.모학력	동일함
	11.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원)
	12.가구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원)
	13.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사용
	14.부모의 감독	척도 사용
	15.부모의 폭력	척도 사용
	16.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정도	1)전혀하지않는다 2)별로하지않는다 3)보통 4)많이하는편이다 5)매우많이한다
친 구	1.친한 친구 수	단위(명)
	2.친한 친구를 만나는 빈도	1)거의매일 2)2~3일에한번 3)일주일에한번 4)2~3주에한번 5)한달에한번 6)몇달에 한번
	3.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	척도사용

학 업	1.학교에서 전교등수 2.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3.학교 수업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4.일주일 평균 사교육 활동 시간 5.사교육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6.일주일 평균 혼자 공부 시간 7.혼자 공부를 통한 성적 향상 효과	단위(% , 100명중 10등일 경우 10%로 산출함) 1)전혀 열심히 하지 않는다 2)열심히 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열심히 한 편이다 5)매우 열심히 한편이다 1)전혀 효과가 없었다 2)별로 효과가 없었다 3)보통이다 4)다소 효과가 있었다 5)매우 효과가 있었다 단위(시간) 1)전혀 효과가 없었다 2)별로 효과가 없었다 3)보통이다 4)다소 효과가 있었다 5)매우 효과가 있었다 단위(시간) 1)전혀 효과가 없었다 2)별로 효과가 없었다 3)보통이다 4)다소 효과가 있었다 5)매우 효과가 있었다
여 가	1.학기 중 평일하루, 토, 일요일 합산 여가시간 2.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 3.여가만족도	단위(시간) 단위(분) 1)전혀 만족 못한다 2)만족 하지 못 하는 편이다 3)보통이다 4)만족 하는 편이다 5)매우 만족 한다
직 업	1.지난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학기 중 학기 중 평일 하루, 토, 일요일 합산 직업 관련 활동 시간 3.장래희망 직업 결정 여부 4.장래희망직업	1)한번 이상 있다 2)없다 단위(시간) 1)구체적으로 확정 2)대강 생각 3)미정 단위(세)

선택시기	5.직업성숙도	척도사용
6.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7.부와 명예 추구		척도사용
8.창의성 추구		척도사용
9.안정된 근무환경 추구		척도사용

(1)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를 재는 문항은 총 6문항으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정도, 부모님이 사랑을 보이는 정도, 대화를 자주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며 5점 평정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척도치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9로 산출되었다.

(2) 부모의 감독 척도

부모의 감독(monitoring)은 자녀의 활동과 적응, 그들이 가는 곳에 대해 알고 추적하는 일련의 부모 행동으로(박진경, 도현심, 2001; 천희영, 김미해, 옥경희, 2002) 본 연구에서는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며 언제 돌아올지 아는 정도로 부모의 감독 수준을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평정척도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치의 내용은 위에서 제시한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와 동일하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0으로 산출되었다.

(3) 부모의 폭력 척도

부모의 폭력 척도는 부모님이 서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거나 자녀

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정도가 어떠한지를 묻는 4개의 Likert식 5점평정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치는 위와 동일하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83$ 으로 산출되었다.

(4) 친구에 대한 애착 척도

친구에 대한 애착 척도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정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정도, 친구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정도, 그리고 고민을 솔직하게 말하는 정도를 묻는 4개의 Likert식 5점 평정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치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762$ 로 산출되었다.

(5) 직업성숙도 척도

직업성숙도는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개인의 발달 정도 즉 준비도를 재는 척도로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아는 정도,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아는 정도, 장래 직업을 선택한 정도, 직업 선택에 있어서 부모와 자신의 의견을 절충하는 정도를 묻는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되어있으며 척도치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577$ 로 산출되었다.

(6) 직업가치관 척도

직업가치관이란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다(박보경, 이종승, 2002). 직업가치관 척도는 어떤 직업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장래 희망 직업으로 정해놓은 직업이 어떤 특성을 갖

고 있는지를 묻는 총 15개의 Likert식 5점 평정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치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해 주축분해법(principle axis factoring)의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 모델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은 1)부와 명예를 추구, 2)안정된 근무환경 추구, 3)창의성 추구, 4)사회성 추구로 분류되었다. 이들 네 요인은 직업가치관 전체 변량의 36.71%를 설명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하위요인의 순서대로 Cronbach α 값이 각각 .777, .625, .625, .476으로 산출되었다. 이들 네 하위요인 중 네 번째인 사회성 추구 요인은 두 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으로 신뢰도가 낮아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독립변인에서는 제외하였다.

(7)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는 청소년기에 가족, 친구, 학업, 여가 맥락과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청소년기 주요 발달 맥락과 관련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장을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척도치는 1. 그런 적 없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구인타당도 분석 결과 부모, 외모 및 여가, 친구, 학업 관련 여가의 네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네 요인은 스트레스 척도 점수 전체 변량의 64.51%를 설명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산출한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 α 는 .880이다.

3. 자료의 분석 절차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들을 사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남, 여학생 따로 실행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성차가 있음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는데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양원경, 1999; 이숙, 최정미, 2003; Nottleman, 1987; Kling, Hyde, Shower, & Buswell, 1999). 뿐만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의 내용이 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학동기 딸의 자아개념 발달과는 상관이 있으나 아들의 자아개념과는 의미있는 상관이 없음이 보고되거나(문현선, 1984), 청소년기 딸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지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고 아들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자율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Gecas & Schwalbe,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성차를 통제하기 위해 남, 여 따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적 결과

1) 종속변인: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

남,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기술적 결과를 <표3>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은 남, 여학

생 모두 ‘보통이다’와 ‘그런 편이다’ 사이의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의미 있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보통이다’ 사이의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표3>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자아존중감	남학생(n=1755)		여학생(n=1754)		t
	M	SD	M	SD	
긍정적 자아 평가	3.121	.752	3.100	.734	.836
부정적 자아 평가	2.723	.844	2.855	.813	4.665***

*** P<.001

2) 독립변인: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 변인

독립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측정 수준이 명목척도인 경우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등간이나 비율척도인 경우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맥락 변인들의 기술적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유무, 부모의 직업과 학력 등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의 경우는 앞에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기술할 때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해석을 생략하였다.

가족의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인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부모의 감독수준, 가정에서의 부모의 폭력수준,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정도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과 부모의 감독 수준은 평균치를 볼 때 남, 여학생 모두 3 ‘보통이다’와 4 ‘그런 편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수준은 남, 여학생 모두 1 ‘전혀 그렇지 않

다’와 2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정도는 남, 여학생 모두 3 ‘보통이다’와 4 ‘많이 하는 편이다’의 사이에 위치해있다.

친구맥락 변인은 친한 친구 수, 친한 친구를 만나는 빈도,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 이다. 남학생의 친한 친구 수는 평균 10.91명이고 여학생은 6.98명이다. 친한 친구를 만나는 빈도는 남 여학생 모두 평정치를 고려해 볼 때 1 ‘거의 매일 만난다’와 2 ‘2-3일에 한번 정도 만난다’의 중간에 위치하는 정도로 평가하였다. 친한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은 남학생의 경우 3 ‘보통이다’와 4 ‘그런 편이다’의 사이에서 4에 가깝게, 여학생은 4 ‘그런 편이다’와 5 ‘매우 그렇다’의 사이에서 4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학업맥락 변인은 성적,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정도, 공부 시간, 성적 향상 효과를 포함한다. 남학생의 전교 등수 백분율은 43%이고 여학생은 40%로 전교학생을 100명이라 볼 때 남학생의 평균 전교 등수는 43등이고 여학생은 평균 40등이다.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는 정도는 남여학생 모두 3 ‘보통이다’와 4 ‘열심히 한 편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일주일간 학원, 과외, 학습지 과외 등 사교육 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남학생의 경우 15시간이 조금 넘고 여학생은 14시간이 조금 넘었다. 이러한 사교육활동을 통한 성적향상 정도는 남, 여학생 모두 2 ‘별로 효과가 없다’는 값에 가깝게 평정하였다. 학교 수업과 사교육 활동시간 외에 일주일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남여학생 모두 10시간이 조금 넘었다. 혼자 공부를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정도는 남 여 학생 모두 2 ‘별로 효과가 없다’ 와 3 ‘보통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여가맥락 변인은 학기 중 여가시간,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 그리고 여가만족도이었다. 학기 중 여가시간은 평일하루와 토, 일요일의 3일간 여가시간이 남학생은 24시간이 조금 넘고 여학생은 23시간

이 조금 넘었다. 하루평균 컴퓨터 이용시간은 남학생은 163분, 여학생은 152분으로 남, 여학생 모두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을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보내고 있다. 여가만족도는 남, 여학생 모두 3 ‘보통이다’와 4 ‘만족하는 편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직업맥락 변인에 대한 기술적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남, 여학생 모두 15% 정도였다. 아르바이트나 취업 준비 등 직업관련 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평일 중 하루와 토, 일요일 합해서 남학생은 .35시간으로 약 21분, 여학생은 .33시간으로 약 20분이라고 응답하였다. 장래 희망 직업 결정 여부는 남, 여학생의 22%가 구체적으로 확정해놓았다고 응답하였다. 장래 희망직업을 선택한 시기는 평균 만13세로 중학교 1학년 때라고 볼 수 있다. 직업성숙도와 장래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의 정도는 모두 3 ‘보통이다’와 4 ‘그런 편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로 평정하였다.

직업가치관의 하위요인인 부와 명예 추구, 창의성 추구, 안정된 근무환경 추구 요인의 점수를 살펴보면 남, 여학생 모두 장래희망 직업의 특성이 안정된 근무환경, 부와 명예, 그리고 창의성의 순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스트레스 수준은 남, 여학생 모두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표4>독립변인의 기술적 결과

변인			남자		여자	
			M(f)		M(f) SD(%)	
가 족	양친 부모 가족 여부	양친부모계심	1620	93.9	1602	92.9
		한부모나 안계심	105	6.1	122	7.1
	양친과 동거 여부	양친과 함께 삼	1560	90.4	1560	90.5
		한부모나 떨어져삼	165	9.6	164	9.5
	형유무	유	814	47.2	752	43.6
		무	901	52.2	959	55.6
	동생유무	유	793	46.0	1073	62.2
		무	924	53.6	641	37.2
	할아버지 동거 여부	예	93	5.4	77	4.5
		아니오	1621	94.0	1625	94.3
	할머니 동거 여부	예	243	14.1	219	12.7
		아니오	1470	85.2	1489	86.4
	어머니 취업 여부	취업	629	36.5	625	36.3
		미취업	1050	60.9	1053	61.1
	아버지 직업 수준	사무직, 전문직	664	38.5	670	38.9
		자영업, 기술직, 일일근로직	1004	58.2	993	57.6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79	4.6	77	4.4
		중학교~고졸이하	1178	68.3	1206	69.9
		전문대~4년제대졸이하	402	23.3	377	21.9
		석사 이상	30	1.7	28	1.6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0	3.5	71	4.1
		중학교~고졸이하	881	51.1	886	51.4
		전문대~4년제대졸이하	646	37.4	611	35.5
		석사 이상	115	6.7	121	7.0
	가구 월평균 소득		2,960,200	2,206,390	2,918,200	2,168,310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		263,900	244,920	257,500	290,870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3.276	.751	3.405	.801
	부모의 감독 수준		3.115	.851	3.328	.869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1.791	.773	1.791	.805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		3.13	1.022	3.31	.980
친 구	친한 친구 수		10.91	13.891	6.98	5.466
	친구를 만나는 빈도		1.54	1.065	1.51	1.101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3.982	.687	4.124	.621

변인			남자		여자	
			M(f)	SD(%)	M(f)	SD(%)
학 업	학교에서 전교등수		43.12	27.197	40.37	27.058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3.252	.678	3.256	.646
	학교 수업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정도		3.240	.655	3.205	.630
	일주일간 사교육에 보내는 시간		15.330	8.718	14.271	8.788
	사교육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정도		2.086	.825	1.906	.799
	일주일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10.426	9.666	10.175	8.752
	혼자 공부를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정도		2.449	1.037	2.361	1.040
여 가	학기 중 여가시간(평일하루, 토, 일 합해서)		24.129	7.658	23.270	7.379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분)		162.731	105.109	152.74	87.948
	여가만족도		3.40	.907	3.15	.911
직 업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	253	14.7	257	14.9
	유무	무	1472	85.3	1467	85.1
	학기 중 직업 관련 활동에 보내는 시간 (평일중 하루, 토, 일 합해서)		.346	1.704	.325	1.739
	장래희망직업 결정 여부	확정	374	21.7	385	22.3
		대략확정	1025	59.4	1136	65.9
		미정	326	18.9	203	11.8
	장래희망직업 선택 시기(만 나이)		12.55	1.802	12.57	1.808
	직업성숙도		3.417	.730	3.549	.678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3.22	1.170	3.22	1.111
	부와 명예 추구		2.881	.888	2.966	.860
	창의성 추구		2.799	.884	2.706	.834
	안정된 근무환경 추구		3.098	.868	3.196	.823
	스트레스		2.601	.655	2.730	.611

2. 긍정적 자아 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업, 직업, 여가 변인의 관계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하는 맥락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앞의 <표2>에 제시된 모든 독립변인들을 투입하여 단계적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모든 독립 변인 중에서 7개 변인이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단계적회귀분석 결과에 제시된 각 단계 중에서 최종 7단계에서 산출된 독립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와 공차를 <표5>에 제시하였다. <표5>에 제시된 각 독립변인들의 공차를 살펴보면 .720에서 .953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가정 중의 하나인 잔차의 독립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산출된 Durbin-Watson지수가 1.952로 2에 접근하여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표5>에 의하면 중학교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부와 명예 추구 직업 선호도,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부모의 감독 수준,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근무환경 추구 직업 선호도로 나타났다.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자신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인지할수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클수록,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 다시말해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가 잘 알고 있을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안정적인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7개 독립변인들은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변량의 20%를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다음은 여학생들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이다. 여학생의 경우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중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와 학교 수업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정도의 두 변인 간 상관이 높아($r=.65$) 두 변인을 모두 회귀분석에 투입하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학교 수업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정도를 독립변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종 단계에서 산출된 독립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와 공차를 제시하였다.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부와 명예 추구 직업 선호도,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스트레스, 직업성숙도, 친한 친구 수, 전교 등수, 창의성 추구 직업 선호도, 근무환경 추구 직업 선호도, 여가만족도의 11개 변인이었다. <표6>에 제시된 각 독립변인들의 공차를 살펴보면 .744에서 .989로 중다회귀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지수도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해 있다.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독립변인간의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자신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인지할수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클수록,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직업성숙도가 높을수록,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학교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자유롭고 창의적인 종류의 직업을 희망할수록,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그리고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이 높았다. 이상의 11개 독립변인들은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변량의 27%를 설명하였다.

<표5> 중학교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
(n=1755)

독립변인	β	공차
1)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199***	.854
2)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98***	.908
3)부와 명예 추구 직업 선호도	.104***	.920
4)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093**	.720
5)부모의 감독 수준	.071*	.739
6)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061*	.953
7)근무환경 추구 직업 선호도	.058*	.924
Total R2	.198***	
Durbin-Watson 지수	1.952	

* P<.05 ** P<.01 *** P<.001

<표6> 중학교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 (n=1754)

독립변인	β	공차
1)부모에 대한 애착수준	.177***	.744
2)부와 명예 추구 직업 선호도	.149***	.896
3)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116***	.747
4)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14**	.831
5)스트레스	-.101**	.799
6)직업성숙도	.085**	.882
7)친한 친구수	.075**	.989
8)학교에서 전교 등수	-.088**	.718
9)창의성 추구 직업 선호도	.067**	.943
10)근무환경 추구 직업 선호도	.059*	.879
11)여가만족도	.057	.862
Total R2	.265***	
Durbin-Watson 지수	2.019	

* P<.05 ** P<.01 *** P<.001

3. 부정적 자아 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업, 직업, 여가 변인의 관계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말하며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수준이 낮은 정도를 통해 평가해보고자 한 것이다.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맥락 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실시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를 <표7>에 제시하였다. 투입된 모든 독립변인들 중에서 8개 변인이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에 제시된 각 단계 중에서 최종 단계에서 산출된 독립변인들의 표준화회귀계수와 공차를 제시하였다. <표7>에 제시된 각 독립변인들의 공차를 살펴보면 .842에서 .967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지수도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스트레스,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여가만족도,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직업성숙도의 7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클수록,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이 적을수록,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수준이 적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 수업을 열심히 했다고 인지할수록, 직업성숙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적게 하였다. 이상의 7개 변인이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 평가 변량의 23%를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로 독립변인들 중에서 학교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와 학교 수업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정도의 두 변인 간 상관이 높아 학교 수업을 통한 성적 향상 효과 정도 변인을 제외하였으며 결과는 <표8>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의 공차는 .846에서 .982로 중다회귀분석에 있어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에 의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다고 판단되며 Durbin-Watson지수도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들은 스트레스, 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부모의 감독 수준, 부 직업 수준의 5개 변인이었다. 관계의 방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확신이 클수록,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수준이 적을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적게 하였다. 이상의 5개 변인이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 평가 변량의 24%를 의미있게 설명하였다.

<표7>남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n=1755)

독립변인	β	공차
1)스트레스	-.336***	.842
2)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26***	.868
3)친구에 대한 애착수준	-.101***	.963
4)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098**	.905
5)여가만족도	.074**	.931
6)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061*	.895
7)직업성숙도	.060*	.869
Total R2	.233***	
Durbin-Watson 지수	1.904	

* P<.05 ** P<.01 *** P<.001

<표8>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에 대한 단계적회귀분석 결과(n=1754)

독립변인	β	공차
1)스트레스	-.370***	.846
2)장래희망직업 성취에 대한 확신	.112***	.937
3)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097***	.847
4)부모의 감독 수준	.078**	.879
5)부 직업 수준	.065*	.982
Total R2	.235***	
Durbin-Watson 지수	1.943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인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 맥락 변인들이 자아존중감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자아평가 정도

와 부정적인 자아평가 정도의 두 관점에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자아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평가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가정하였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주로 가족과 친구 맥락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맥락 변인과 함께 학업, 여가, 직업 맥락의 영향을 동시에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가족과 친구 맥락 변인 못지않게 학업, 직업, 여가 맥락 변인의 영향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자아존중감 측정 요인이 긍정적 자아 평가인가 부정적 자아 평가인가에 따라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변인들의 종류나 그 관계의 정도가 달랐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 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교, 직업, 그리고 여가 변인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달랐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에 대한 맥락 변인들의 설명력이 컸다. 남학생의 경우는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맥락 변인들의 설명력이 20%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27%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과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 변인 중에서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변인 중에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그리고 직업 변인 중에서는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안정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보장되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과 친구 관련 변인과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데 특히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학업, 여가, 직업 등 다른 맥락 변인들의 상대적인 관련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족이나 친구 변인 보다 학업과 직업 관련 변인들이 더욱 의미있는 관계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여학생의 긍정적 자아평가 수준에 대한 맥락 변인들의 영향을 보면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 변인 중에서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학업 변인 중에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여가 변인 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가만족도가 클수록, 직업 변인 중에서는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안정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보장되는 직업을 희망할수록 직업 선택에 대한 준비도인 직업성숙도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수준이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도 긍정적 자아 평가에 영향을 주는 맥락들 중 직업 관련 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족과 친구 관련 변인 보다 큰 경향을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 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업, 여가, 그리고 직업 변인의 관계는 맥락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기능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들만 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족 변인의 경우 가족구성원, 부모의 직업, 학력 수준, 그리고 월평균 소득과 같은 변인이나 학업, 여가, 직업 맥락의 경우 관련 맥락 활동에 보내는 시간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들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청소년기 부정적 자아 평가에 대한 가족, 친구, 학교, 직업, 그리고 여가 변인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긍정적 자아 평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다른 점은 남, 여 학생 모두 부정적인 자아 평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스트레스라는 것과 여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 평가에 대해서는 학업과 직업 관련 변인의 영향이 큰 반면 부정적인 자아 평가에 대해서는 가족 관련 변인의 영향이

크다. 즉, 가족 맥락의 특징이 긍정적일 수록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이 낮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부정적 자아평가 수준은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의 폭력 행동 수준이 적을수록 친구 변인 중에서 친구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 변인 중에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지할수록, 여가 변인 중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여가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직업 변인 중에서는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직업성숙도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수준이 낮았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가장 의미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스트레스였는데 흥미롭게도 스트레스가 남학생의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과는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자아 평가 수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긍정적인 자아 평가 수준과는 독립적임을 시사한다.

여학생의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맥락 변인들의 영향을 보면 가족 변인 중에서 부모의 폭력 행동 수준이 적을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직업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변인 중에서는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할수록,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수준이 낮았다.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을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은 스트레스였는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보다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맥락 변인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맥락 변인들의 내용이 주로 직업 변인이었으나 부정적 자아 평가 수준에 대해서는 주로 가족 변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느냐 부정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수준이나 관련 변인의 내용이 달랐다. 이는 자

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자아존중감이라는 단일 차원의 양 극으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하며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가족 혹은 친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 맥락인 학업, 여가, 직업 관련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가족과 친구의 영향 못지않게 때로는 더 의미있게 학업을 비롯한 여가, 직업 관련 요인들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과 친구관계 뿐 아니라 여가나 직업 맥락적 관점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이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평가하는 중다회귀분석이므로 결과 해석에 있어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이라고 기술하였으나 자아존중감 변인에 대한 이들 맥락 변인들의 영향력은 본 연구 설계 특성상 상관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끝으로 자아존중감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는 맥락 변인들의 종류가 남, 여학생 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 주요 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고,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스트레스가 적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 수준이 적을수록 자신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 강기정·정은미(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제 11호, pp. 172-187.
- 김경연(1993).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6권 제 1호, pp. 37-50.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 22권 제 3호, pp. 271-285.
- 김충기(1989). 진로지도를 위한 적성검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생활연구, 제 7권 제 1호, pp. 69-93.
- 김충기·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직업교육연구, 제 8권 제 1호, pp. 143-150.
- 김희화(2002).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친구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0권 제 9호, pp. 47-61.
- 김희화·김경연(1998). 개인적요인 및 환경적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제 2호, pp. 47-60.
- 김희화·김경연(1999). 청소년 초기의 자아존중감과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37권 제 4호, pp. 59-69.
- 김희화·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제 5호, 15-24.
- 도현심·신정님(1999). 교사폭력과 남자중학생의 학교생활의 질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교사교육학연구, 제 3권 제 1호. .

- 박보경 · 이종승(2002). 직업성격유형과 적성 및 직업가치관의 관계. 교
육발전논집, 제 23권 제 2호, 59-83.
- 문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
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선영 ·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간
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 19권 제 1호, pp. 229-244.
- 박영애 ·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
계 연구. 아동학회지, 제 17권 제 1호, pp. 189-212.
- 박진경 ·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39권 제 12
호, pp. 129-140.
- 성종호 · 이영식 · 이길홍(1999). 청소년의 시험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신경정신의학. 제 38권 제 3호, pp.
571-582.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손원숙(1994). 주관적 연령지각과 자아개념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손화희 ·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
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 11권 제 1호, pp.
58-71.
- 심웅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스트레스, 자아존
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제6
호, pp. 133-144.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제 19권

- 제2호, pp. 35-48.
- 안경일·김재현(2002). 스포츠 여가 활동과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한국학교체육학회지, 제 12권 제 1호, pp. 61-73.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종국·김충기(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제 10권 제 2호, pp. 101-121.
- 유성경외(2000).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비행수준별 유형별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만수·강진홍(2001). 스포츠 활동 참가가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 14권 제 1호, pp. 173-183.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0권 제 8호, pp. 191-206.
- 이숙·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제 2권, pp. 31-42.
-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제 11호, pp. 151-169.
- 이진갑(2002). 청소년의 여가스포츠활동 참가 유형과 정도에 따른 자기표현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 41권 제 3호, pp. 115-128.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존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5권 제 3호, 45-58.

- 조현철 · 최창석(2001). 청소년의 여가 스포츠 참가와 자아효능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 15권, pp. 213-221.
- 천희영 · 옥경희 · 김미혜(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 능력지각. 대한가정학회지, 제 39권 제 10호, 153-168.
- 천희영 · 김미혜 · 옥경희(2002). 어머니의 자녀 감독지식과 근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 23권 제 3호, pp. 171-186.
- 최은영 · 최인령(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 15권 제 1호, 63-72.
-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식(1998). 청소년의 여가활동 참가 유형 및 관련변인들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 9권 제 1호, pp. 133-144.
- 홍성훈 · 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 40권 제 12호, 145-157.
- 현희순 · 김양순(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제 20권 제 1호, 249-262.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outer, A.C., MacDermid, S.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6 No 4, pp. 649-657.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Farrel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 No 1, pp. 119-132.
- Gecas, V. & Schwalbe, M. L.(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8, pp. 37-46.
- Harter, S.(1993).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F. Baumeister(Ed.), *Self-Esteem :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Y: Plenum Press.
- Iso-Ahola, S. E., & Crowley, E. D.(1991). Adolescent substance abuse and leisure boredo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23 No. 3, pp. 260-271.
- Kling, K. C., Hyde, J. S., Showers, C. J., & Buswell, B. N.(1999).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5 No 4, pp. 470-500.
- Nottelman, E. D.(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3, pp. 441-450.
- Rosenberg, M.(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Inc.
- Steinberg, L. (1993). *Adolescence*. NY: McGraw-Hill, Inc.
- Super, D.E., Savickas, M.L., & Super, C.M.(1996). The life 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pp.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차별접촉, 긍정적 자아개념 그리고 청소년 비행: Reckless의 봉쇄이론의 검증

박철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I. 서론

이 연구는 2003년 조사된 중학생 2학년들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행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자료가 비록 중학교 2학년에 한정된 사례연구이기는 하지만, 이 시기는 비행에 대한 첫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범죄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자료는 기존의 비행이론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범죄학자 레크리스(Reckless)는 통제이론의 입장에서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많은 유발요인과 통제요인들을 통합한 바 있다. 그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또는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은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도 그동안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긍정적 자아개념 또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긍정적 자아개념으로 하층계급 거주지역에 사는 청소년이라도 비행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근처에 여러 가지 유발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레크리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발전된 봉쇄이론에 대해 검증한다.

II. 이론 및 가설

비행에 대한 이론은 크게 실증주의 이론과 고전주의 이론으로 나뉘어 진다. 실증주의는 비행을 하게 만드는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중심으로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차별접촉이론, 하위문화이론, 긴장이론 등이 포함된다. 반면 고전주의 이론은 비행을 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에 주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여기에는 억제이론, 통제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실증주의 이론들은 하층계급의 자녀들이 높은 비행율을 나타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표적으로 코헨(Cohen, 1955)의 하위문화이론은 하층계급이 공립학교에 진학하여 경험하는 좌절에 대한 반발로서 비행을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하층계급 청소년들이 공립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중산계급 출신의 교사가 중산계급의 가치를 가르치고 이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하층계급의 자녀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낮아진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반항적 문화(counter-culture)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비행에 우호적인 하위문화를 갖게 되는 원인이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논리는 코헨 외에도 밀러에게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서덜랜드(Sutherland, 1947)는 이러한 하위문화가 어떻게 청소년들 사이에 공유되는지를 밝힌다. 그에 의하면, 비행에 우호적인 정의와 비우호적인 정의는 모두 친밀한 사적 집단 안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는데, 이미 비행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비행친구를 많이 사귀게 됨으로써 비행에 우호적인 정의를 많이 학습하게 되는 경우 비행 청소년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은 아직도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며, 많은 파생이론을

날기도 하였다.

반면 뒤르켐(Durkheim)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긴장에 주목하는 이론들은, 비행을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머튼(Merton, 1938)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성공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미국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용인된 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이것은 하층계급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지는 긴장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실증주의 이론들의 공통점은 하층계급 청소년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들이 그들을 범죄나 비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고전주의 이론은 이렇게 비행을 하게 만드는 요인보다는 비행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에 주목한다.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국가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처벌에 주목하는 반면, 일반적인 통제이론들은 이보다는 오히려 비공식적인 통제에 주목한다.

그 대표적인 것인 리스와 나이의 이론(Reiss, 1951; Nye, 1958)으로서, 이들은 비행이 개인적, 사회적 통제의 실패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에 의하면, 국가와 형사사법기관에서 담당하는 공식적인 처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통제, 그리고 규범의 내면화를 통한 통제라고 한다. 따라서 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레크리스와 디니츠 등(Reckless, 1967; 1961; Reckless et al., 1957; 1956)은 통제이론의 입장에서 실증주의 이론의 비행유발요인과 고전주의 이론의 비행통제요인을 함께 통합한다. 그들에 의하면, 누구나 비행을 하게 만드는 유발요인과 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요인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범

죄를 할 가능성은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기존에 주장되어왔던 여러 가지 유발요인들을 크게 압력요인(pressure), 유인요인(pull), 배출요인(push)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것이 강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기서 압력요인은 사람들을 불만족한 상태로 만드는 요인으로서, 열악한 생활조건, 가족갈등, 열등한 신분지위, 성공기회의 박탈 등 주로 하위문화이론이나 긴장이론에서 지적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인요인은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이탈하도록 유인하는 요소들로서 비행친구, 비행하위문화, 갱조직, 불건전한 대중매체 등의 차별 접촉이론이나 하위문화이론, 학습이론 등에서 지적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배출요인이란 불안감, 불안감, 내적 긴장, 증오심, 공격성, 즉흥성 등과 같은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적 요소들을 지칭한다(박상기 외, 2001: 166-168; 이윤희, 2002: 257-259 참조).

이 연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가설을 도출한다. 열악한 생활조건을 가진 하층계급의 청소년들, 비행친구와 잦은 접촉을 가진 청소년들은 비행을 많이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택한 가설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가설1]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행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2] 자신의 집이 자가소유가 아닌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많이 할 것이다.

[가설3]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비행을 많이 할 것이다.

반면 통제요인은 크게 내적 봉쇄요인과 외적 봉쇄요인으로 나뉘어 지는데, 외적 봉쇄요인(external containment)은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같이 외부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요인들로서 교육, 감독과 훈육, 소속감과 일체감 등을 말한다. 반면 내적 봉쇄요인(inner containment)

은 사회규범을 내면화함으로서 개인 내부에 형성된 통제력으로서 자기통제력, 인내심, 책임감, 목표지향성향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긍정적인 자아개념(self-concept)을 가지고 있을 때 적절히 형성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올바른’ 소년이라고 자신을 생각할 때,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주변에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내적 봉쇄요인을 잘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범죄나 비행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유혹들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박상기 외, 2001: 166-168; 이윤호, 2002: 257-259 참조).

그러나 이 긍정적인 자아개념, 즉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개념과 비행과의 관계를 지적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리스(Reiss, 1951)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몇몇 학자들에 의해 그 이후에도 지적되어 왔다. 반면 이러한 자아개념과 비행과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카플란(Kaplan, 1978)에 의하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들은 비행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하는 비행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선생님의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속이고 싸우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갱집단에 합류함으로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Siegel, 1992:232의 리뷰를 볼 것).

이 연구에서는 레크리스와 디니츠 등의 논의에 기초하여 또한 몇 가지 가설을 도출한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 목표지향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청소년, 부모의 통제가 강한 청소년, 주변사람들의 통제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적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 [가설4]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질수록 비행을 적게 할 것이다.
 [가설5] 목표지향적 성향을 가질수록 비행을 적게 할 것이다.
 [가설6]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을 적게 할 것이다.
 [가설7] 지각된 부모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을 적게 할 것이다.
 [가설8] 지각된 주변사람들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을 적게 할 것이다.

III. 자료

1. 표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3년 처음 시작된 패널조사 중에서 첫 해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 3,449명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한 면접조사 자료이다. 이 조사는 집락표집에 기초한 규모비례확률표집(PPS)에 의해 수집되었으며, 선정된 학교에서 무작위로 한 개 학급을 전수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면, 같은 방법으로 대체 학교를 뽑는 방식이 이용되었다.

조사는 2003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최초로 표집된 표본에 대한 조사 성공률이 66.3%로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학급에 방문하여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집단면접하는 방식이 이용되었으며, 가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질문하기 위하여 가구별로 전화를 걸어 부모와의 전화면접조사를 함께 병행하였다.

2. 변인의 조작화

이 연구의 설명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크게 네 가지, 즉 비행에 대한 외적 압력, 비행에 대한 외적 유인, 비행에 대한 내적 통제, 그리고 비행에 대한 외적 통제로 나뉘어 진다. 먼저 비행에 대한 외적 압력은 빈곤이나 실업 등의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살고 있는 주택의 자가소유여부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원자료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주택소유는 자가주택이 0, 그렇지 않은 여러 경우(전세, 월세, 무상, 사택, 임대, 복지시설)가 1의 값을 가지는 가변인으로 코딩되었다.

다음으로 비행에 대한 외적 유인은 비행친구나 유해환경 등의 비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요인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비행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의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이런 행동을 한 친구가 친한 친구들 중에 각각 몇 명이나 되는지를 질문하는 문항 6개를 합산하여 ‘비행친구’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790).

이러한 비행의 유발요인 외에 크게 두 가지의 통제요인들이 도입되었는데, 먼저 내적 통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긍정적 자아개념, 목표지향성향이 사용되었다. 긍정적 자아개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리커트식의 5점 척도로 측정한 다음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측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대

로 진술된 후자의 3문항은 거꾸로 배열한 다음 합산되었다(Cronbach's Alpha=.734).

다음으로 목표지향성향은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수적이다”, “상급학교 진학은 좋은 친구들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는다”의 5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측정하여 모두 합산하였다(Cronbach's Alpha=.783).

비행에 대한 외적 통제는 비공식적 통제를 말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 지각된 부모의 통제, 지각된 주변 사람들의 통제가 사용되었다. 먼저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의 6문항을 합산하여 측정되었다(Cronbach's Alpha=.857).

다음으로 지각된 부모의 통제는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의 네 문항으로 질문하고 이것을 모두 합산하였다(Cronbach's Alpha=.849). 마지막으로 지각된 주변사람들의 통제는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의 두 문항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였다(Cronbach's Alpha=.835).

그리고 종속변수로 사용된 자기보고된 청소년 비행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원조교제, 남을 심하게 노릴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왕따)시키기,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의 총 14가지 비행을 나열하고 여기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 비행 유형을 한 적이 없는 경우 0, 있는 경우 1로 리코드하여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자기보고된 청소년비행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이 장에서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비행에 대해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립변수들간의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영차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부모통제와 부모애착이 .511로 다소 높은 편이었고 대부분이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더욱이 상관계수가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이 우려될만한 수준에 미치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모든 변수들이 모델에 투입되었다.

<표 1>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영차상관행렬

	비자가 소유	비행 친구	긍정적 자아	복표 지향	부모 애착	부모 통제	주변 통제	여자
가구소득	-.038*	.040*	-.002	.004	.005	.010	-.011	.005
비자가소유		.030	-.069***	-.097***	-.040*	-.036*	-.028	.023
비행친구			-.064***	-.017	-.081***	-.091***	.014	.000
긍정적자아				.076***	.309***	.244***	-.104***	-.062***
목표지향					.085***	.097***	.113***	-.063***
부모애착						.511***	.013	.083***
부모통제							.051**	.122***
주변통제								.059***

* P<.05 ** P<.01 *** P<.001

다음의 표는 청소년비행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우선 모델1은 비행유발요인들이 청소년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회귀분석한 결과로서,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가소유가 아닌 집에 살고 있을수록, 그리고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이러한 유발요인에 더하여 외적 통제요인들을 투입하여 그 변화를 살펴 본 모델로서, 모델1과 마찬가지로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외적 통제요인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지각된 부모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지각된 주변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외적 통제요인들을 투입함으로써 유발요인들의 효과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모델3은 이러한 유발요인과 외적 통제요인에 더하여 내적

통제요인들을 투입한 것이다. 그 결과 다시 유발요인들과 외적 통제요인들의 효과는 조금 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내적 통제요인들 중 목표지향성향은 별다른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나, 긍정적 자아개념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비행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발요인이 있더라도 긍정적 자아개념이 이러한 유발요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델4는 모델3에 성별변수를 통제한 것으로, 그 결과 비행친구가 미치는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비자가소유, 긍정적 자아개념의 효과가 감소되었다. 반면 외적 통제요인들 중 부모에 대한 애착과 지각된 부모의 통제는 오히려 그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성별에 따라서 외적 통제가 매우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추정하게 하며, 남녀에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인과과정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표 3은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표 2> 청소년비행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OLS)

독립변수	β			
	모 델1	모 델2	모 델3	모 델4
가구소득	.019 ^{N.S.}	.021 ^{N.S.}	.021 ^{N.S.}	.021 ^{N.S.}
비자가소유(D)	.057 ^{***}	.050 ^{**}	.045 ^{**}	.044 ^{**}
비행친구	.510 ^{***}	.497 ^{***}	.493 ^{***}	.493 ^{***}
긍정적 자아	-	-	-.076 ^{***}	-.071 ^{***}
목표지향	-	-	-.006 ^{N.S.}	-.002 ^{N.S.}
부모애착	-	-.089 ^{***}	-.071 ^{***}	-.074 ^{***}
부모통제	-	-.069 ^{***}	-.060 ^{**}	-.066 ^{***}
주변통제	-	.049 ^{**}	.042 ^{**}	.040 [*]
여학생(D)	-	-	-	.049 ^{**}
모델 F검증	341.01 ^{***}	189.01 ^{***}	145.19 ^{***}	130.46 ^{***}
결정계수	.266	.287	.292	.295
사례수	2,820	2,820	2,820	2,820

N.S. not significant * P<.05 ** P<.01 *** P<.001

다음의 표 3은 성별에 따라서 표본을 나누어 다변량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이다. 이 표에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며, 또한 둘 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질수록 비행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지각된 주변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자청소년의 경우 지각된 부모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하는 수치심, 걱정 의 의미로 측정된 지각된 주변의 통제가 강할수록 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행을 많이하는 남자청소년들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하는 수치심이나 근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와 관심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남자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통제는 비행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남녀에 따른 부모통제의 차별적인 효과는 헤이건(Hagan, 1989)의 권력통제이론의 예측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 성별로 나누어 본 다변량 회귀분석(OLS)

독립변수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b	β	b	β
상수	1.676	—	1.748	—
가구소득	0.000	0.025 ^{N.S.}	0.000	0.003 ^{N.S.}
비자가소유(D)	0.030	0.011 ^{N.S.}	0.193	0.060 ^{N.S.}
비행친구	0.069	0.352 ^{***}	0.104	0.453 ^{***}
긍정적 자아	-0.030	-0.083 ^{**}	-0.031	-0.077 ^{**}
목표지향	-0.009	-0.028 ^{N.S.}	0.013	0.033 ^{N.S.}
부모애착	-0.014	-0.046 ^{N.S.}	-0.012	-0.038 ^{N.S.}
부모통제	-0.016	-0.041 ^{N.S.}	-0.041	-0.094 ^{***}
주변통제	0.036	0.060 [*]	0.018	0.024 ^{N.S.}
모델 F검증	30.25 ^{***}		57.26 ^{***}	
결정계수	.153		.253	
사례수	1,343		1,364	

N.S. not significant * P<.05 ** P<.01 *** P<.001

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레크리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주로 주장된 통합이론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통합이론은 여러 선행이론에서 주장된 여러 가지 유발요인과 내적, 외적 통제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지적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가소유가 아닌 불완전한 주거형태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비행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친한 친구들 중에 비행친구가 많은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매우 강한 비행의 압력을 받고 있다.

셋째, 외적, 내적 통제가 강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비행의 유발요인들의 유혹으로부터 비교적 다소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

넷째, 그 중에서도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부모의 직접적인 통제가 다양한 비행유발요인들의 영향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레크리스와 그의 동료들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또는 자아개념이론(self-concept theory)이 비교적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이들의 이론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간극은 헤이건의 권력통제이론과 같은 또 다른 다양한 설명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상기 · 손동권 · 이순래(2001). 『형사정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호(2002). 『범죄학개론』 . 박영사
- Cohen, Albert(1955). Delinquent Boys. New York: Free Press
- Merton, Robert(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3):672-682
- Nye, F. Ivan(1958).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Wiley
- Reckless, Walter, Simon Dinitz, and Ellen Murray(1956). "Self-Concept as an Insulator against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21):744-46
- Reckless, Walter, Simon Dinitz, and Ellen Murray(1957). "The Good Boy in a High Delinquency Area: Four Years Lat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23):555-58
- Reckless, Walter(1961). "A New Theory of Delinquency and Crime." Federal Probation(25):42-46
- Reckless, Walter(1967). The Crime Problem.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Reiss, Albert J.(1951).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16):196-207
- Siegel, Larry J.(1992). Criminology. Wadsworth
- Sutherland, Edwin H.(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V. 비행 I - 비행원인

1. 청소년비행 원인간의 연합효과에 대한 검증
2.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행의 중첩
3.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비행원인들의 연합효과에 대한 검증

노성호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I. 들어가는 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이나 범죄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사회적 관심을 받아 왔다. 요즘에는 밀양지역에서 수십명의 고교생들이 여중고생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의 사회면과 인터넷을 뜨겁게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탄식의 감정과 더불어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심각한 청소년범죄 사건이나 성인들에 의한 범죄사건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행이나 범죄를 가져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심각한 범죄의 발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를 토막살해한 이은석사건이나 연쇄적으로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정두영 사건 등을 보더라도 가정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개인적 성격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심각한 범죄로 이어졌으며, 이 중에서 한가지 요인만이라도 범죄의 억제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한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심각한 범죄나 비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저지르는데는 청소년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범죄나 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범죄나 청소년비행을 연구하는 논문들은 대부분 단일요인이 범죄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서 단일요인의 영향만을 고려했다는 것은 비행의 원인으로서는 하나의 요인만을 검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변인을 함께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요인들이 연결된 복합적인 영향을 살펴보지 못하고, 개별변인이 특정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행원인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회귀분석이 부가적인 모델(additive model)이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다변인분석을 시도하더라도 단일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비행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원인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여러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동시적이고 연합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비행유형에 대해서 두변인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연합효과의 강도와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살펴 보며, 이러한 효과는 독립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II. 이론적 논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들, 특히 사회적 환경에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여러 개의 독립변인들을 이용하여,

즉 다변인분석을 통하여 비행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냄으로써 개별적인 독립변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밝히는데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개별적인 변인과 비행의 관계에 대해서만 검증할 수 있을 뿐 여러 독립변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특정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다른 독립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독립변인의 범주에 따라서 비행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설명이고, 비행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비행연구에서 독립변인과 비행유형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한 통계방법으로서 상관관계분석과 다변인 회귀분석을 들 수 있다. 회귀분석으로 대표되는 많은 통계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즉 독립변인이 증가할수록 비행이 증가하거나(정적 관계), 감소하는(부적 관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통해서 독립변인의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자칫 변인간의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부가적인 모형(additive model)이다. 따라서 다변인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별 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들을 더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한다. 즉 독립변인들에 대한 병렬적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행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변인 회귀분석을 시도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각 독립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개별적 영향과 이를 모두 더한 모델의 영향력이다.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을 예로 들 때, 사회적 유대와 비행의 관계

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유대가 약해질수록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고 설명한다. 회귀분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4개의 사회적 유대, 즉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이 다른 유대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청소년이 애착이 높을수록, 관여가 높을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신념이 높을수록 비행을 덜 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적 유대요인의 수준에는 관계없이 유대의 변화가 비행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회적 요인의 증감과 비행의 상관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의 수준도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애착 등과 같은 사회유대의 변인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와 낮은 수준에 있을 때 일정부분의 감소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한가의 질문과 함께 다른 사회유대요인과 함께 고려했을 때 과연 하나의 사회유대가 낮아진다고 해서 비행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애착과 관여와 신념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참여가 낮아진다고 비행을 더 많이 하겠는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끈이 모두 끊어졌을 때, 즉 부정적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¹⁾ 범죄를 저지르게 됨을 볼 수 있다. 이를 사회유대이론에 적용시킨다면 사회유대 요인들이 모두 낮은 상태에 있는 소년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사회유대변인들이 일정부분 감소할 때마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보는 것을 넘어서 모든 사회유대변인들이 낮은 수준일 때, 즉 모든 사회적 유대가 약화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

1) 여기에서 부정적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의미는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이다. 이론적으로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변인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효과를 설명하여 줄 수 있는 것이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²⁾이다.

이와 같이 개별변인이 비행을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변인들의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현실에 가깝게 비행에 대한 예측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예외적으로 많은 비행을 저지르고,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들에 대한 설명에서 더욱 유용하다.

이와 같이 독립변인의 연합효과를 통해서 비행을 설명하는 부분은 기존에 이루어져왔던 비행원인에 대한 여러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가정과 비행의 관계에 있어서 초점이 되어 왔던 부분은 구조와 기능의 논쟁이라 볼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부모의 부재(결손가정),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초점을 두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 부부간의 관계, 훈육의 유형이나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측면 모두 비행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간주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의 구조적 측면보다는 질적인 요소인 가정의 기능적 측면에 비행과 더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의 연합효과를 도입한다면 비행에 대해서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의 개별적인 영향에 대한 설명보다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정

2) 상호작용효과란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독립변수와 복합되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김두식, 1994). 상호작용효과는 특정 독립변인의 범주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와 두 독립변인을 교차시킨 범주에서 특정 셀의 종속변인 수치가 급격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두 독립변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행의 분석에 있어서 상호작용효과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호작용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비행의 설명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상가정인 경우와 결손가정인 경우 기능적 요인과 비행이 같은 형태의 관계를 보이는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며, 결손가정의 경우 다른 형태의 비행분포를 보이는데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청소년으로서 기능적 요인이 낮은 청소년의 비행이 다른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합효과에 대한 논의는 범죄나 비행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의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중요한 생활영역인 가정과 학교와 친구영역에서 비행과 관련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들은 들라고 하면 가정영역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학교영역에서는 학교성적, 친구영역에서는 비행친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특성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과적 순서를 따지기 어려울만큼 동시에 청소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세 개념은 사실상 비행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이론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부모와의 관계 및 학업성적은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 학업성적은 긴장이론, 비행친구는 차별접촉이론에서 비행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통제이론적 관점에서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요인이다. 반면 학교성적은 긴장이론적 요소가 강해서 우리나라처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교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긴장요인으로 작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인습적인 사회에서 벗어나도록, 즉 비행을 저지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비행친구는 차별접촉이론의 측면에서 비행문화에 대한 접촉 또는 비행에 대한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 학업성적, 비행친구는 각각 비행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통제요인, 압력요인, 유인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간의 연합효과는 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지 통제요인이 약화되는 청소년, 압력요인이나 유인요인이 높아지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통제요인이 약화된 청소년들이 동시에 압력요인이나 유인요인이 높을 때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비행을 설명하는 몇가지의 측면에서 비행원인들의 연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며, 연합효과의 검증에 있어서 주로 독립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III. 연구방법

이 논문의 분석을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자료이다.

1. 비행변인

패널자료에서 측정한 청소년 비행 변인은 모두 14개이다. 본 논문에서는 14개의 변인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비행행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행유형 6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지위비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단결석과 가출을 사용하였고, 폭력범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폭행), 패싸움을 사용하였으며, 재산범죄 중에서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금품갈취)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절도)의 변인을 선정하였다. 각 비행유형의 빈도분포를 <표 1>과 같다³⁾.

3) 패널조사에서는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해본 비행의 빈도를 제한없이 기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빈도를 기본적으로 10회 이상

<표 1> 주요 비행유형의 빈도분포

빈도	무단결석	가출	폭행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0	3282 (95.3)	3310 (96.0)	3139 (91.1)	3262 (94.6)	3260 (94.6)	3210 (93.2)
1	77 (2.2)	76 (2.2)	160 (4.6)	111 (3.2)	58 (1.7)	88 (2.6)
2	33 (1.0)	32 (.9)	60 (1.7)	43 (1.2)	43 (1.2)	59 (1.7)
3	19 (.6)	17 (.5)	38 (1.1)	13 (.4)	37 (1.1)	39 (1.1)
4	3 (.1)	3 (.1)	9 (.3)	5 (.1)	3 (.1)	8 (.2)
5	8 (.2)	9 (.3)	15 (.4)	15 (.4)	18 (.5)	14 (.4)
6	1 (.0)				1 (.0)	5 (.1)
7	3 (.1)		1 (.0)		2 (.1)	2 (.1)
8	1 (.0)					
9						
10이상	17 (.5)		25 (.7)		25 (.7)	19 (.6)
계	3444 (100)	3447 (100)	3447 (100)	3449 (100)	3447 (100)	3444 (100)
평균	.133	.072	.221	.096	.182	.191

<표 1>를 볼 때, 무단결석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4.7%,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4%, 폭행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8.9%, 패싸움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5.4%, 금품갈취를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5.4%, 절도를 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은 6.8%로서, 다른 학생들을 때려본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2. 독립변인

패널조사자료에서 독립변인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생활영역인 가정, 학교, 친구의 영역에서 적합한 것을 선정하였다. 먼저 가정영역에

의 경우 10으로 재부호화하였으며, 가출과 패싸움은 5회 이상을 재부호화하였다.

서는 Hirschi(1969)의 애착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세변인⁴⁾으로서 정서적 친밀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이다. 또한 부모님간의 갈등⁵⁾과 부모님으로부터 체벌정도⁶⁾를 가정관련 변인에 포함시켰다. 학교관련 변인으로서는 교사에 대한 애착⁷⁾과 학교에서의 소외감⁸⁾, 그리고 학교성적⁹⁾을 선정하였다.

3.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사용할 때는 가변인을 도입하거나 승법적 모형(multiplicative model)을 사용함으로써 처리한다(김두식, 1994). 그렇지만 승법적 모형을 사

-
- 4)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는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의 3문항으로, 의사소통은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의 3문항으로, 부모의 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5) 부모님간의 갈등은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로 구성하였다.
 - 6) 부모님으로부터의 체벌정도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로 구성하였다.
 - 7) 교사에 대한 애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8) 학교에서의 소외는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 9) 학교성적은 학급에서의 성적을 사용하였는데, 학급석차를 학급인원수로 나눈 변인을 사용하였다.

용할 경우에는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포함시킴으로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승법적 모형을 통해서는 두변인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변인이 비행과 선형관계에 있어야 독립변인의 영향력에 제대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귀분석으로 상호작용효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보다는 ANOVA 분석방법을 통해서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살펴보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교차시킨 범주별로 비행유형의 평균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형태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IV. 분석결과

1. 회귀분석 결과

연합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가정, 학교, 친구, 사회경제적 지위 등 사회환경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6개의 비행유형과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2>에서는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베타값을 사용하였다.

<표 2> 비행원인들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인	무단결석	가출	폭행	패싸움	금품갈취	절도
애착	-.075 **	-.079 **	-.025	-.016	-.010	-.043
의사소통	.026	.023	-.016	-.017	.004	.025
감독	.038	-.054 **	-.043 *	-.040	-.033	-.025
부모갈등	.002	-.042 *	.001	.027	-.016	.020
체벌	.097 ***	.107 ***	.097 ***	.015	.121***	.061 **
교사애착	.015	.009	-.034	-.030	-.049 ***	-.054 **
학교소외	-.010	.007	-.037 *	-.020	-.023	-.023
비행친구	.075***	.174 ***	.174 ***	.105 ***	.176 ***	.089 ***
성적	-.110***	-.072 ***	-.006	-.043 *	-.063 ***	-.031
결손여부	.061***	-.004	-.015	-.002	-.001	-.030
부의 교육	-.002	.000	.012	.001	.048 *	.046 *
부의 직업	-.007	.015	-.036	-.005	-.054 *	-.024
수입	-.014	-.025	.015	.042 *	.030	-.004
R ²	.047 ***	.071 ***	.060 ***	.027 ***	.069 ***	.028 ***

* p < .05, ** p < .01, *** p < .001

전반적으로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가 6개의 비행유형에서 그다지 높게 나오지 않았다. 독립변인들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비행유형은 가출로서 독립변인들이 비행변량의 7.1%를 설명하였고, 다음이 금품갈취(6.9%), 폭행(6%)의 순서를 보였다. 패싸움과 절도의 경우 특히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무단결석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애착(정서적 친밀도), 부모로부터의 체벌, 비행친구, 학교성적, 결손가정여부이다. 개별 변인으로서 무단결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성적이며, 다음이 부모의 체벌, 부모의 애착, 비행친구여부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다. 무단결석이 학교에 관련된 행위라서 그런지 학교성적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교사의 애착이나 학교에서의 소외감은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애착이 낮을수록,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무단결석을 더 많이 하고, 부모에게 체벌을 많이 받을수록,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결손가정인 경우 무단결석을 더 많이 했다.

가출에는 6개의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출의 특성상 가정관련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애착, 부모의 감독, 부모간의 갈등, 체벌정도가 포함되며, 그밖에 비행친구와 학교성적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행친구로서 청소년의 가출여부에 비행친구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체벌여부, 부모의 애착의 순서를 보인다.

폭행에는 4개의 변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련 변인으로서 부모의 감독, 부모로부터의 체벌이 있으며, 그밖에 학교에서의 소외감과 비행친구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역시 비행친구가 가장 큰 관계를 보이며, 다음이 부모로부터의 체벌이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에서의 소외감이 예상과는 반대의 방향을 보이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다.

패싸움에는 비행친구, 학교성적, 수입 등 세 개의 변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설명력이 낮은데서 오는 결과로서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패싸움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품갈취에는 6개의 요인, 부모로부터의 체벌, 교사에 대한 애착, 비행친구, 학교성적,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의 직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도 비행친구의 여부와 부모로부터의 체벌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반대의 방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의 직업수준이 낮을수록 금품갈취를 더 많이 한다. 그런데 교육수준과 직업변인과 강도의 단순상관관계를 구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난다. 이 점은 세부적으로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절도에는 4개의 요인, 부모로부터

의 체벌, 교사에 대한 애착, 비행친구, 부모의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중에서는 비행친구여부와 부모부터의 체벌정도가 비행 유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학교성적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 사회유대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사회유대변인 중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차원으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여기서는 애착이라는 용어로 사용),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사회유대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애착과 감독 변인들의 범주를 교차시켰을 때 각 변인의 범주별로 다른 독립변인이 비행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그리고 두드러지게 높거나 낮은 비행정도를 보이는 셀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⁰⁾.

10) 세 개 이상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아지는 셀의 수로 인해서 의미 있는 분석결과가 나오기 어려우며,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해석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두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감독 변인의 비행에 대한 ANOVA분석결과

비행유형	효과	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무단결석	주효과	결합	22.674	6	3.779	5.220	.000
		애착	22.056	3	7.352	10.156	.000
		감독	.618	3	.206	.285	.837
	상호작용 모델	애착*감독	13.622	9	1.514	2.091	.027
			36.296	15	2.420	3.343	.000
가출	주효과	결합	14.989	6	2.498	14.395	.000
		애착	11.054	3	3.685	21.232	.000
		감독	3.935	3	1.312	7.558	.000
	상호작용 모델	애착*감독	3.092	9	.344	1.980	.038
			18.081	15	1.205	6.946	.000
폭행	주효과	결합	76.727	6	12.788	12.421	.000
		애착	63.466	3	21.155	20.549	.000
		감독	13.261	3	4.420	4.294	.005
	상호작용 모델	애착*감독	17.062	9	1.896	1.841	.056
			93.789	15	6.253	6.073	.000
패싸움	주효과	결합	9.990	6	1.665	7.043	.000
		애착	6.502	3	2.167	9.168	.000
		감독	3.488	3	1.163	4.918	.002
	상호작용 모델	애착*감독	1.886	9	.210	.887	.536
			11.876	15	.792	3.349	.000
금품갈취	주효과	결합	57.566	6	9.594	9.409	.000
		애착	32.061	3	10.687	10.480	.000
		감독	25.504	3	8.501	8.337	.000
	상호작용 모델	애착*감독	22.743	9	2.527	2.478	.008
			80.309	15	5.354	5.250	.000
절도	주효과	결합	32.130	6	5.355	5.803	.000
		애착	26.618	3	8.873	9.615	.000
		감독	5.512	3	1.837	1.991	.113
	상호작용 모델	애착*감독	12.027	9	1.336	1.448	.162
			44.157	15	2.944	3.190	.000

<표 3>을 보면 애착과 감독과 6개 비행에 대해서 ANOVA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애착은 6개 비행 모두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감독은 가출, 폭행, 패싸움, 금품갈취 등 4개의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애착과 감독의 상호작용효과는 무단결석, 가출, 금품갈취 세 변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비행유형의 애착, 감독별 비행평균의 분포가 <표 4>에서 부터 <표 6>까지 제시되어 있다.

<표 4>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감독별 무단결석의 평균분포

애착 감독	최하		하		중		상		계	
최하	.2841	88	.1571	191	.2771	83	.0926	54	.1995	416
하	.2933	75	.1462	465	.1082	379	.0833	228	.1308	1147
중	.7742	31	.2802	257	.0424	401	.0373	375	.1194	1064
상	.4091	22	.2414	116	.0905	221	.0879	455	.1192	814
계	.3704	216	.1924	1029	.0932	1084	.0701	1112	.1328	3441

<표 5> 애착과 감독별 가출의 평균분포 <표 6> 애착과 감독별 금품갈취의 평균분포

애착 감독	최하	하	중	상	계	애착 감독	최하	하	중	상	계
최하	.4091	.0942	.2410	.1667	.1995	최하	.8966	.4817	.0482	.3889	.4699
하	.1733	.0624	.0580	.0351	.0628	하	.2105	.1616	.1873	.1762	.1763
중	.2903	.0973	.0324	.0267	.0536	중	.2258	.1395	.0950	.1173	.1175
상	.1364	.0603	.0452	.0352	.0442	상	.6364	.0855	.1674	.0899	.1250
계	.2824	.0768	.0600	.0387	.0721	계	.5324	.2068	.1385	.1313	.1813

<표 4>를 보면 애착과 감독 각각의 변인에서 무단결석의 평균을 보면 애착 또는 감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무단결석의 평균이 낮아진다. 그렇지만 애착과 감독의 교차시켰을 때, 각 셀에 따라서 무단결석의 평균분포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애착의 범주에 따라서 감독과 무단결석의 관계를 보면 확실히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애착의 수준이 최하 또는 하인 경우 감독이 높아지면(중 또는 상) 무단결석의 평균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애착의 수준이 최하인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애착의 수준이 중이나 상인 경우에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감독이 낮은 경우와 높은 때 무단결석의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애착의 범주에 따라서 감

독과 무단결석의 관계형태가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애착이 최하 또는 하이고 감독이 중 또는 상인 경우 특히 무단결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런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왜 무단결석을 많이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에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일상활동에 대한 감독만 높을 경우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무단결석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5>를 보면 가출평균의 분포는 무단결석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애착이 최하인 범주와 감독이 최하인 범주가 하 이상인 범주보다 가출의 평균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애착과 감독 모두 최하인 범주의 중학생들의 가출은 다른 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가출이 부모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 정서적으로 친밀하지도 않고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은 금품갈취의 평균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금품갈취는 애착과 감독의 범주에 따라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제각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애착의 범주에 따라서 감독과 금품갈취의 관계는 U자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부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하는 등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는 형태를 보인다. 단지 애착과 감독이 모두 최하인 경우, 그리고 애착은 최하이지만 감독은 상인 셀에서 월등히 높은 금품갈취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는 무단결석과 가출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던 집단이 금품갈취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독립변인의 교차범주에 따라서 나타나는 관계의 형태들이 비행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하나의 독립변인의 범주별로 다른 독립변인과 비행의 관계형태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일반적으로 가정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정의 구조적 요인이 더 적합한가 아니면 기능적 요인이 더 적합한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구조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함이다. 가정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부모님이 모두 계신가를 살펴보는 결손가정여부를 보았으며, 기능적 요인으로는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이 포함되며, 여기에서 상호작용효과는 가정의 결손여부에 따라서 애착이나 감독과 비행유형의 관계형태가 달라지는가 또는 결손가정이면서 애착이나 감독이 최하인 청소년들의 비행이 다른 셀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표 7>에서 결손가정 여부는 무단결석, 가출, 패싸움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만, 폭행, 금품갈취, 절도와는 그렇지 못하다. 반면 애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개 비행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 결손가정 여부와 애착의 상호작용효과는 3개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무단결석, 패싸움, 금품갈취이다.

<표 7> 결손가정 여부와 애착의 비행에 대한 ANOVA분석결과

비행유형	효과	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무단결석	주효과	결합	51.502	4	12.875	17.985	.000
		가족구조	34.137	1	34.137	47.683	.000
		애착	17.365	3	5.788	8.085	.000
	상호작용 모델	구조*애착	5.770	3	1.923	2.687	.045
			57.272	7	8.182	11.428	.000
가출	주효과	결합	11.906	4	2.977	17.030	.000
		가족구조	1.540	1	1.540	8.813	.003
		애착	10.366	3	3.455	19.769	.000
	상호작용 모델	구조*애착	.346	3	.115	.660	.577
			12.253	7	1.750	10.014	.000
폭행	주효과	결합	63.888	4	15.972	15.446	.000
		가족구조	.005	1	.005	.005	.946
		애착	63.884	3	21.295	20.593	.000
	상호작용 모델	구조*애착	5.051	3	1.684	1.628	.181
			68.939	7	9.848	9.524	.000
패싸움	주효과	결합	7.139	4	1.785	7.546	.000
		가족구조	1.104	1	1.104	4.670	.031
		애착	6.034	3	2.011	8.505	.000
	상호작용 모델	구조*애착	2.279	3	.760	3.212	.022
			9.418	7	1.345	5.689	.000
금품갈취	주효과	결합	34.091	4	8.523	8.290	.000
		가족구조	3.925	1	3.925	3.818	.051
		애착	30.166	3	10.055	9.781	.000
	상호작용 모델	구조*애착	8.343	3	2.781	2.705	.044
			42.434	7	6.062	5.896	.000
절도	주효과	결합	29.718	4	7.429	8.035	.000
		가족구조	1.607	1	1.607	1.738	.187
		애착	28.110	3	9.370	10.134	.000
	상호작용 모델	구조*애착	.007	3	.002	.003	1.000
			29.725	7	4.246	4.593	.000

<표 8> 가족구조와 애착별 무단결석의 평균분포

가족구조 애착	정상가정		결손가정		계	
최하	.3552	183	.4688	32	.3721	215
하	.1499	954	.7333	75	.1924	1029
중	.0776	1018	.3333	66	.0932	1084
상	.0527	1062	.4400	50	.0701	1112
계	.1066	3217	.5112	223	.1328	3440

<표 8>을 보면 가족구조와 애착에 따른 무단결석의 평균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정상적인 가정인 경우 애착과 무단결석은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즉 애착이 높아질수록 무단결석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렇지만 결손가정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착이 최하이거나 하인 경우 아주 높은 점수를 보이고, 애착이 상인 경우에도 높은 점수를 보인다¹¹⁾.

<표 9> 가족구조와 애착 별 패싸움의 평균분포 <표 10> 가족구조와 애착 별 금품갈취의 평균분포

가족구조 애착	정상 가정	결손 가정	계	가족구조 애착	정상 가정	결손 가정	계
최하	.2842	.0909	.2546	최하	.5355	.5152	.5324
하	.0964	.1818	.1028	하	.2128	.1299	.2066
중	.0826	.1364	.0859	중	.1327	.2273	.1385
상	.0603	.2157	.0674	상	.1112	.5490	.1313
계	.0908	.1630	.0956	계	.1723	.3084	.1813

<표 9>에서 패싸움 역시 무단결석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정상 가정의 경우 애착이 최하인 경우만 패싸움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그

11) 이 관계의 분석에 있어서는 결손가정의 청소년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인 경우 현저하게 감소한다. 결손가정 청소년의 경우 애착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패싸움의 점수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에서 금품갈취의 경우에는 가족구조와 관계없이 애착이 최하인 두 집단에서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결손가정의 청소년중에서 애착이 상인 집단의 금품갈취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구조와 애착의 연합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은 경우에는 정상가정이나 결손가정 관계없이 높은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결손가정 청소년 중에서 애착이 아주 높은 청소년 역시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의 설명을 위해서는 이 집단 청소년들이 가지는 사회적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통제요인과 유인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여기에서는 통제요인으로서 부모에 대한 애착(정서적 친밀도)을 사용하였으며, 유인요인으로서 비행친구여부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과 비행친구 여부는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예측해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으면서 비행친구도 있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애착과 비행친구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점들을 검증하기로 하겠다.

<표 11>에서 애착과 비행친구여부와 6개 비행의 ANOVA분석을 보면, 비행친구와 애착 변인은 6개 비행 모두 $p = .000$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독립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무단결석, 가출, 폭행, 절도 등 4개의 비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애착과 비행친구의 비행에 대한 ANOVA분석결과

비행유형	효과	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무단결석	주효과	결합	56.027	4	14.007	19.642	.000
		비행친구	38.643	1	38.643	54.190	.000
		애착	17.384	3	5.795	8.126	.000
	상호작용 모델	친구*애착	14.539	3	4.846	6.796	.000
			70.566	7	10.081	14.137	.000
가출	주효과	결합	30.003	4	7.501	45.491	.000
		비행친구	21.191	1	21.191	128.521	.000
		애착	8.812	3	2.937	17.815	.000
	상호작용 모델	친구*애착	3.522	3	1.174	7.120	.000
			33.526	7	4.789	29.047	.000
폭행	주효과	결합	144.510	4	36.128	36.710	.000
		비행친구	91.301	1	91.301	92.771	.000
		애착	53.210	3	17.737	18.022	.000
	상호작용 모델	친구*애착	14.918	3	4.973	5.053	.002
			159.428	7	22.775	23.142	.000
패싸움	주효과	결합	19.527	4	4.882	20.905	.000
		비행친구	14.560	1	14.560	62.349	.000
		애착	4.967	3	1.656	7.090	.000
	상호작용 모델	친구*애착	.313	3	.104	.447	.719
			19.840	7	2.834	12.137	.000
금품갈취	주효과	결합	160.993	4	40.248	40.483	.000
		비행친구	139.242	1	139.242	140.053	.000
		애착	21.751	3	7.250	7.293	.000
	상호작용 모델	친구*애착	2.275	3	.758	.763	.515
			163.268	7	23.324	23.460	.000
절도	주효과	결합	50.458	4	12.614	14.249	.000
		비행친구	28.930	1	28.930	32.678	.000
		애착	21.528	3	7.176	8.106	.000
	상호작용 모델	친구*애착	18.004	3	6.001	6.779	.000
			68.462	7	9.780	11.047	.000

<표 12> 애착과 비행친구 별 무단결석의 평균분포

비행친구 애착	없음		있음		계	
최하	.1977	172	1.0952	42	.3738	214
하	.1734	894	.3282	131	.1932	1025
중	.0628	972	.3524	105	.0910	1077
상	.0414	1015	.3913	92	.0705	1107
계	.0956	3053	.4378	370	.1326	3423

<표 12>에서 무단결석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앞에서 논리적으로 예상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애착과 비행친구 변인의 각각의 무단결석 평균분포는 애착이 증가할수록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 무단결석을 더 많이 한다. 그런데 애착이 최하이면서 비행친구가 있는 학생들, 즉 부모와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못하면서 비행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은 무단결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행친구가 있는 학생들의 무단결석 정도는 애착이 최하인 경우는 제외하고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행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애착이 높아짐에 따라서 무단결석의 정도가 낮아진다. 그렇지만 애착이 최하 또는 하인 경우와 중 또는 상인 경우에 뚜렷한 평균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13> 애착과 비행친구 별 가출의 평균분포 <표 14> 애착과 비행친구 별 폭행의 평균분포

비행친구 애착	없음		계	비행친구 애착	없음		계
최하	.1860	.6905	.2850	최하	.4767	1.5714	.6916
하	.0570	.2137	.0771	하	.2159	.7176	.2800
중	.0288	.3143	.0566	중	.0864	.4476	.1216
상	.0227	.2174	.0388	상	.1291	.5109	.1608
계	.0439	.2973	.0713	계	.1605	.6865	.2174

<표 15> 애착과 비행친구 별 절도의 평균분포

비행친구 애착	없음	있음	계
최하	.3256	1.0930	.4791
하	.1902	.5338	.2347
중	.1307	.0962	.1273
상	.1222	.4348	.1481
계	.1562	.4516	.1883

<표 13>에서는 가출의 분포를, <표 14>에서는 폭행의 분포를, <표 15>에서는 절도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애착과 비행친구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행유형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출, 폭행, 절도 모두 비행친구가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며, 특히 비행친구가 있으면서 부모와의 애착이 최하인 학생들의 비행평균이 다른 셀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런 특성을 가진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비행을 많이 저지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행친구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애착이 최하인 때 가출, 폭행, 절도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독특한 점은 폭행과 절도에 있어서 비행친구가 있으면서 애착이 상인 집단에서 비행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비행친구들도 있는 학생들의 경우 특히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환경적 원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연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상호작용효과가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행에 대한 설명이 단지 단일변인과 비행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독립변인들간의 연관된 효과나 영향력을 분석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유대변인들인 애착과 감독의 연합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애착과 감독이 최하 수준인 청소년들의 비행(무단결석, 가출, 금품갈취)이 다른 셀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애착과 감독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애착이 낮은 청소년들이 감독이 높을 때 비행의 수준이 높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가족구조와 애착의 연합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지만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애착이 중간 정도 일 때보다는 높거나 낮을 때 비행의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상적인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애착과 비행의 관계는 일반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부적인 관계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통제요인과 유인요인, 즉 애착과 비행친구의 연합효과를 보면 4개의 비행유형, 무단결석, 가출, 폭행, 절도에 있어서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두 독립변인의 연합효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최

하이며, 비행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수준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이 두 가지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되는 경우 개별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비행에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연합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개별변인들과 비행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설명하는 분석방법보다는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더 큰 설명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도 아직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호작용효과 등을 분석하는 통계방법이 많이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 등이 나타났을 때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에 있어서 독립변인들의 범주별로 비행유형의 분포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각 셀별로 비행의 분포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독립변인들이 분포까지 함께 고려해서 살펴본다면 보다 충실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중첩

박순진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I. 문제제기

범죄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특히 폭력성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를 넘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상호작용을 해온 경우도 있으며, 가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사건 당사자 사이의 상당 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의 연장선에서 유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대략 생각해보더라도 폭행, 상해, 사기, 살인 등의 범죄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은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의 발생과 진행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이 발견된다. 학교폭력 또는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국내의 조사연구 결과들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제법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준호 등, 1991; 노성호 등 1999).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과 더불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조사결과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 연령 등에서 서로 겹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겹으로 보기에 유사한 집단이라는 것은 범죄피

해조사가 활성화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실이다. 일상활동이론이나 생활양식이론 등에 따르면 범죄 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정한 의미에 있어 상호의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특성의 생활양식이라든가, 가해자와 조우할 가능성이 높은 생활양식이라든가 등. 동기화된 범죄자와 마땅한 피해자가 조우할 가능성은 생활양식과 관련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게 되는 것은 생활양식의 유사성 또는 근접성과 관련 있으며, 이는 다시 이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의 유사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에서 관찰되는 유사성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접성이라든가 생활양식 상의 특징으로 인한 시간적, 공간적 수렴 가능성 등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이라는 가설로 설명하려는 주장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Singer, 1981; McDermott, 1983; Lauritsen 외, 1991).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 특성상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이 두 집단이 실제로는 같은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련의 연구들을 보면 비행을 일삼거나 갱 집단 멤버인 청소년들이 오히려 피해 가능성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서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연구에서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다. 과연 청소년 비행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 두 집단이 형태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특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즉, 두 집단은 단순히 형태적으로만 유사한가, 아니면 동일집단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같은 집단인가. 만약 동일집단이라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 비행, 특히 피해자가 있고 폭력성이 개입된 비행의 가해 경험과,

같은 유형의 비행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가해와 피해가 서로 중첩되는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설명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해 경험은 질문 문항 37번을 통해, 피해 경험은 39번을 통해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가해의 유형은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을 협박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빼앗기)’ 등 5가지이고, 피해의 유형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협박 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등 5가지이다. 이들은 가해와 피해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질문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된 항목이며, 비행의 특성에 있어 폭력성이 개입되어 있다. 다만,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이 각각 조사되었으나 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별로 차별성이 강한 것으로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I. 가해와 피해의 실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이 자료는 조사 대상자가 모두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유사성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유사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실제로 서로 중첩되는 집단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먼저 조사 대상인 중학교 2학년의 경우 가해의 경험과 피해의 경험이 어느 정도 관찰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1>은 가해 경험을 가해 유형 5가지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 5가지 유형 모두를 합해 어느 하나라도 가해해본 경험이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조사 결과 분석에 포함된 가해 행동 가운데 하나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모두 29.3%로 집계되어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해 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자세한 읽기 생략, 표를 볼 것!).

<표 1> 가해유형별 지난 1년간 가해경험 유무 단위 : 빈도 (%)

구 분	가해경험	빈도 (%)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있다	512 (14.8)
	전혀 없다	2,937 (85.2)
남을 헐박하기	있다	148 (4.3)
	전혀 없다	3,301 (95.7)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있다	489 (14.2)
	전혀 없다	2,960 (85.8)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있다	310 (9.0)
	전혀 없다	3,139 (91.0)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뺑뺏기)	있다	189 (5.5)
	전혀 없다	3,260 (94.5)
가해경험(5가지 전체) 유무	있다	1,011 (29.3)
	전혀 없다	2,438 (70.7)
전체 사례수		3,449(100.0)

<표 2> 피해유형별 지난 1년간 피해경험 유무 단위 : 빈도 (%)

구 분	피해경험	빈도 (%)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있다	340 (9.9)
	전혀 없다	3,109 (90.1)
협박당하기	있다	161 (4.7)
	전혀 없다	3,288 (95.3)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있다	163 (4.7)
	전혀 없다	3,286 (95.3)
심하게 맞기(폭행)	있다	145 (4.2)
	전혀 없다	3,304 (95.8)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있다	344 (10.0)
	전혀 없다	3,105 (90.0)
피해경험(5가지 전체) 유무	있다	761 (22.1)
	전혀 없다	2,688 (77.9)
전체 사례수		3,449(100.0)

<표 2>는 피해 경험을 피해 유형 5가지 각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 5가지 유형 모두를 합해 어느 하나라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조사 결과 분석에 포함된 피해 유형 가운데 하나라도 당해본 학생은 모두 22.1%로 집계되었다. 피해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표를 볼 것!).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해 경험을 보고한 학생에 비해 피해 경험을 보고한 학생의 수가 적다는 사실이다.

이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비행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들 청소년의 비행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빈도가 드물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가해와 피해 경험이 서로 관련을 가지는가, 서로 겹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표 3> 피해경험 유무(개별 유형별)에 따른 가해경험 유무 단위 : % (빈도)

구 분	가해경험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χ^2 통계치
놀림/조롱	있다	38.5 (131)	12.3 (381)	167.4 (p<0.001)
	전혀 없다	61.5 (209)	87.7 (2,728)	
	전 체	100.0 (340)	100.0 (3,109)	
협박	있다	19.3 (31)	3.6 (117)	92.1 (p<0.001)
	전혀 없다	80.7 (130)	96.4 (3,171)	
	전 체	100.0 (161)	100.0 (3,288)	
집단따돌림	있다	46.0 (75)	12.6 (414)	142.5 (p<0.001)
	전혀 없다	54.0 (88)	87.4 (2,872)	
	전 체	100.0 (163)	100.0 (3,286)	
폭행	있다	27.6 (40)	8.2 (270)	64.0 (p<0.001)
	전혀 없다	72.4 (105)	91.8 (3,034)	
	전 체	100.0 (145)	100.0 (3,304)	
뺨찌기	있다	13.7 (47)	4.6 (142)	49.4 (p<0.001)
	전혀 없다	86.3 (297)	95.4 (2,963)	
	전 체	100.0 (344)	100.0 (3,105)	

<표 3>은 개별 행위 유형별로 피해 경험의 유무에 따라 가해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¹⁾ 먼저 ‘놀림/조롱’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

1) 여기서는 피해 경험에 따른 가해 경험을 살펴보는 분석전략을 선택하였다. 이는 Lauritsen 등(1991)이 가해 경험에 따라 피해 경험을 분석한 것과 대비된다. 이렇게 분석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자료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고, 장차 패널 조사가 지속될 경우 분석 전략상 이런 식의 변수 배열이 보다 논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가해의 경험에 따라 피해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피해의 경험에 따라 가해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자체가 하나의 논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차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경우 가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5%인데 비하여 피해 경험이 없는 경우 가해 경험이 있는 비율은 12.3%로 집계되는데, 이러한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해당된다. 즉,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대략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협박, 집단따돌림, 폭행, 뺑뺏기에 대한 표를 하나씩 읽어보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가해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가해 경험의 유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피해 경험과 가해 행위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 피해경험 유무(5가지 전체)에 따른 가해경험 유무 단위 : % (빈도)

구 분	가해경험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χ^2 통계치
놀림/조롱	있다	28.5 (217)	11.0 (295)	144.3 (p<0.001)
	전혀 없다	71.5 (544)	89.0 (2,393)	
협박	있다	9.2 (70)	2.9 (78)	57.3 (p<0.001)
	전혀 없다	90.8 (691)	97.1 (2,610)	
집단따돌림	있다	23.7 (180)	11.5 (309)	72.0 (p<0.001)
	전혀 없다	76.3 (581)	88.5 (2,379)	
폭행	있다	15.4 (117)	7.2 (193)	48.7 (p<0.001)
	전혀 없다	84.6 (644)	92.8 (2,495)	
뺨찌기	있다	10.1 (77)	4.2 (112)	40.6 (p<0.001)
	전혀 없다	89.9 (684)	95.8 (2,576)	
가해경험(전체)	있다	49.1 (374)	23.7 (637)	185.4 (p<0.001)
	전혀 없다	50.9 (387)	76.3 (2,051)	
전 체		100.0 (761)	100.0 (2,688)	

<표 4>는 피해 유형 5가지 모두를 통틀어 어느 하나라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가해 경험이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개별 가해 유형별로 표를 읽어보자. 위의 <표 3>에서 관찰되는 관계의 패턴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가해 경험 유무의 차이가 개별 유형별로 살펴볼 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약해진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모두 합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표 3>의 제일 하단).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집단은 49.1%가 가해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데 비해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 집단은 23.7%가 가해

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 집단이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2배 정도 높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단순히 관련 있는 정도를 넘어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학생 집단 전체를 놓고 보면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이 다수이고 마찬가지로 가해 경험이 없는 학생 역시 다수를 이루고 있다. 즉, 피해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 가해 행위를 하는 학생도 있고 피해 경험이 있지만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가해 행위를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로 높다. 즉, 일부 학생에 있어 가해 행위와 피해 경험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 두 경험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Ⅲ. 회귀모형의 구성과 평가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보자. 가해 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 피해 경험이 중요한 하나의 설명 요인이 되는가(혹은 반대로 피해 경험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해 경험이 중요한 하나의 설명 요인이 되는가), 아니면 가해-피해의 중첩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나타난 허위적 상관관계인가? 이 연구에서는 변수의 가용성 등을 감안하여 가해 경험을 종속변수로 하였다(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조사가 지속되면 피해 경험이 종속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을

2) 이는 앞의 주1)에서 언급한 것처럼 패널 자료가 축적되면 본격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주제이다. 두 요인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되는 일련의 조사를 통해 가해 경험, 피해 경험이 변화하는 양상을

포함하여 모형(1)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일상활동·생활양식이론과 관련하여 비행적 생활양식을 추가로 포함하여 모형(2)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이 이론은 가해 행위보다는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포함한 모형을 평가한 이유는 이 글의 서두에 간략히 밝힌 바와 같이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의 유사성을 동일성이 아닌 근접성이라고 주장하는 대안적인 가설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피해 경험을 추가하여 모형(3)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분석 모형에 포함된 이론은 대략 유대이론, 일반이론, 학습이론, 생활양식이론으로 볼 수 있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와의 유대’=33번 3)부터 10)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된 8개 문항을 합산하여 계산. 최소값 8, 최대값 40, 평균 26.0, 표준편차 5.96; ② ‘자기통제력’=34번 1)부터 3), 5) 등 5점 척도로 측정된 4개 문항을 합산하여 계산. 최소값 4, 최대값 20, 평균 10.8, 표준편차 2.93; ③ ‘비행 친구’=36-4번 문항, 36-5번 문항, 36-6번 4)와 5) 문항 등을 종합하여 비행 친구가 있는지 유무(dummy 변수, 있는 경우=1)로 파악. 비행 친구가 있는 비율은 20.9%로 집계됨; ④ ‘비행적 생활양식’=37번 1)과 2) 문항.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경우 비행적 생활양식으로 보았는데, 33.5%의 학생이 비행적 생활양식(=1, dummy 변수)으로 집계됨.

주의 깊게 분석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표 5>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가해경험 유무(전체)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B (β)	B (β)	B (β)
성별	0.051*** (0.057)	0.076*** (0.084)	0.059*** (0.066)
부모와의 유대	-0.001 (-0.017)	0.000 (0.000)	0.000 (0.006)
자기통제력	0.022*** (0.141)	0.018*** (0.114)	0.017*** (0.106)
비행친구	0.313*** (0.281)	0.273*** (0.245)	0.261*** (0.235)
비행적 생활양식		0.145*** (0.151)	0.133*** (0.138)
피해경험(전체)			0.183*** (0.167)
(상수)	-0.009	-0.046	-0.072
R ²	0.120***	0.139***	0.166***

*** p<0.001, ** p<0.01, * p<0.05

회귀모형을 평가한 결과는 <표 5>로 나타내었다. 모형(1)을 보면 가해 경험은 자기통제력이나 비행친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다만, 부모와의 유대는 가해 경험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형(2)를 보면 비행적 생활양식 역시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을 보면 다른 변수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경험이 가해경험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 피해와 가해가 중첩될 뿐만 아니라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해 경험이 있는 집단이 동일 집단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맺는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중학교 2학년 인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 가해-피해는 부분적으로 서로 중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 폭력에 대한 기존의 조사 연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유사한 생활양식이나 근접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관련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집단이기도 하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들 집단은 부분적으로는 실제 동일 집단이기도 한 것이다. 분석결과 피해 경험은 가해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그 자체로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분명하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 가해 행위와 피해 행위는 각각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연계 또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해와 피해라는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현상을 실제로는 상당부분 함께 가는 현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폭력적 비행의 피해자는 동시에 폭력적 비행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의 연구로서 이 둘의 연계가 어떤 방향으로 인과성을 가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패널 조사가 연차를 거듭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전이되거나 반대로 가해 경험이 피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한 차례의 조사만 이루어진 현재의 수준에서 확인된 청소년 비행에서의 가해-피해의 중첩은 향후 진행될 조사를 통해 다시 분석되어

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해와 피해의 변화 양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자란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연령별 범죄 또는 비행의 일반적 추세에 비추어 판단할 때 현재 조사된 정도에 비해 더 많은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조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다음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면서 동시에 이번 분석에서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쟁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참고문헌

- Cohen, Lawrence & Marcus Felson(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pp. 588-608.
- Garofalo, James(1987). Reassessing the lifestyle model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Positive Criminology*. edited by Michael Gottfredson & Travis Hirschi. Sage Publications. pp. 23-42.
- Jensen, Gary & David Brownfield(1986). Gender, lifestyles, and victimization: beyond routine activity theory. *Violence and Victims*, Vol. 1 pp. 85-99.
- Lauritsen, Janet L., Robert J. Sampson & John H. Laub(1991). The link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riminology*, Vol. 29, pp. 265-292.
- McDermott, Joan(1983). Crime in the school and in the community: offenders, victims and fearful youth. *Crime and Delinquency*, Vol.29, pp. 270-283.
- Miethe, Terance & David McDowall(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Vol. 71 pp. 741-759.
- Sampson, J. Robert & Janet L. Lauritsen(1990). Deviant lifestyles, proximity to crime, and the offender-victim link in perso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27, pp. 110-139.
- Singer, Simon J. (1981). Homogeneous victim-offender populations: a review and some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72, pp. 779-788.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에 관한 연구

이순래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에서 주목되는 현상중의 하나는 여자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발표하는 공식통계는 암수범죄와 여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기사도정신(chivalryhool)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는 범죄 규모가 축소보고되는 경향이 있다(Siegel, 2000: 7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자청소년 범죄자의 수는 과거 10년전에는 4,915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현재는 12,882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청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여자청소년의 점유율도 10년전에는 4.9%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02년에는 16.6%를 차지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3).

최근 심화되는 여자청소년의 비행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이의 실태를 파악하고 여자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드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는 남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자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도(김준호/김은경, 1995: 이진, 1997: 정혜원, 1999, 이성식/전신현, 2001) 서울지역이나 시설수용자들을 표본대상으로 함으로써 비행실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자청소년이 비행에 빠져드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 치중함으로써 여자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상황적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전국표본설계에 의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자청소년이나 청소년비행 일반을 설명하는데 논의되었던 성역할사회화가설, 자아통제가설, 긴장가설, 사회유대가설, 사회학습가설을 검토함으로써 여자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드는 과정에 관한 종합적 설명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LaGrange & Siverman, 1999: 41-72).

2. 이론적 배경

여자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져드는 과정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채 성역할사회화 가설, 자아통제가설, 긴장가설, 사회유대가설, 사회학습가설 등의 가설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먼저 성역할사회화 가설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비행을 적게 저지르는 이유가 성역할태도의 차이에 있다고 진단하고, 최근에 여성비행이 증가하는 원인은 이러한 성역할태도의 변화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Hagen(1989)은 그의 권력통제이론(power control theory)은 남편과 아내의 직업적 위세에 따라 가정내에서의 성역할사회화 방식이 달라진다고 지적하여 성역할태도의 변화를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Hagen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는 여성의 수동성과 복종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성역할사회화가 이루어지며, 반면에 남편과 아내의 사회

적 권력이 유사한 가정에서는 민주적 성역할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Gottfredson과 Hirshi(1990)의 자아통제가설 역시 어렸을 때의 사회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Gottfredson과 Hirshi는 성역할사회화론과 달리 비행원인의 설명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사회화과정에서 습득하는 성역할태도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형성하는 자아통제력이라고 보았다. 자아통제력에 관하여 Gottfredson과 Hirshi는 대개 10-12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형성되며 자아통제력이 적절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을 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이를 인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이를 징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였다. 즉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은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력을 형성하며 만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통제력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며 낮은 자아통제력(low self-control)으로 말미암아 쉽게 일탈적 행위습관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긴장가설(strain hypothesis), 사회유대가설(social bonding hypothesis), 사회학습가설(social learning hypothesis)은 여자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접하는 상황적 조건을 중심으로 이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논의들이다. 긴장가설에(Agnew,1997) 의하면 긴장(strain)이란 1)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타인들이 방해할 때 2) 의미있는 가치의 대상이 빼앗길 때 3) 본인에게 해악적인 가치의 대상이 가해질 때에 생겨나며 이같은 긴장요인들은 개인에 부정적 감정상태를 조장하며 또한 부정적 감정상태는 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하여 교정행위(corrective action)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즉 긴장가설은 여자청소년들이 생활환경에서 많은 긴장을 느끼게 되면 부정적 감정상태에 빠져들고 이러한 감정상태를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시사한다. 사회유대가설은 행위에 대한 사회

유대의 억제효과에 중점을 둔다. 이에 의하면 개인들은 누구든지 쉽게 일탈적 행위를 저지를 수 있지만 본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유대의 작용에 의해 비행성향이 통제된다는 것이다. 사회유대의 요소에 관하여 Hirschi(1969)는 애착, 헌신, 관여, 신념 등의 4가지 요소를 지적했지만 그간 가장 중요시되었던 요소는 사회적 유대의 애정적 요소 즉 애착이었다. 즉 관습적인 타자(부모, 선생님)와의 사이에 형성된 감정적 유대가 강하면 개인의 비행성향이 통제되지만 감정적 유대가 약화되면 그만큼 쉽게 비행행위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사회학습가설(Akers et al., 1979)은 비행행위도 정상적인 행위습관과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학습함으로써 유발된다는 견해이다. 특히 청소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대상은 친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학습가설은 여자청소년도 비행을 주위친구로부터 배움으로써 저지르게 되며, 특히 비행친구들 둔 경우에 이들로부터 비행을 저지르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비행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합리화기제를 배움으로써 비행에 빠져들게 된다고 예견한다.

이와 같이 성역할사회화 가설은 성역할태도의 수용여부를, 자아통제가설은 내면화한 자아통제력의 수준을, 긴장가설은 생활중에 겪게 되는 긴장의 정도를, 사회유대가설은 부모와 선생과의 감정적 연대의 크기를, 사회학습이론은 친구로부터 비행학습을 주요한 인과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자청소년이 비행에 빠져드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들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gnew가 지적했듯이, 객관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긴장요인이지만 어떤 여자청소년에게는 심각하게 인지되어 부정적 감정상태를 강력히 유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성역할태도는 개인의 이 같은 차별적 긴장인지에 중요한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비행

친구로부터 비행기술이나 합리화기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와 선생과의 감정적 유대관계가 강한 사람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비행학습의 강도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자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설들의 상호작용관계까지를 검토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전단계로 가설들의 독립적 영향만을 다루고자 한다¹⁾.

3. 연구방법론

1) 종속변수의 측정

청소년비행의 개념규정과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개념을 법률적 측면보다는 사실적 측면에 기초하여 사회성원들이 청소년에 바라는 기대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비행이란 사회성원들이 청소년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규범들을 위반하는 행위

- 1) 이와 함께 비행을 저지르는 여자청소년들을 동일적 집단(homogenous group)으로 가정할 수 없다. 최근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일반화된 사실 중의 하나는 청소년비행집단은 크게 청소년기 한정비행자와 생애지속비행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Moffitt, 1993; 이순래, 2000). 청소년기 한정비행자란 청소년기에 들어서야 비행을 처음 경험하고 청소년기가 지나면 그만두는 집단이며, 반면에 생애지속비행자란 어렸을 때부터 문제행동을 노출하며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온갖 종류의 사회부적응행위와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도 청소년기에 한정하여 비행을 시연하는 집단과 만성적으로 비행을 습관화한 집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청소년기 한정비행자가 비행에 빠져드는 과정과 생애지속비행자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을 분리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를 일컫는 것이며 구체적 유형으로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물비행, 왕따 등을 포함한다. 지위비행이란 성인이 했을 때에는 문제되지 않지만 사회적 지위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유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등으로 측정하였다. 폭력비행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사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유형을 일컫는 것으로,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협박하기’ 등으로 측정하였다. 재물비행이란 도구적 의도(instrumental purpose)를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는 유형을 일컫는 것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등으로 측정하였다. 왕따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왕따시키기’라는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점, ‘경험이 있는’ 경우는 ‘1’점이 부여되었다.

2) 독립변수의 측정

성역할태도는 성역할사회화 가설의 주요개념이다. 성역할태도는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의 2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 성역할태도 변수는 항목들의 합산점수(summated score)로 구성하였다.

자아통제가설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자아통제력의 부족 즉 낮은 자아통제력(low self-control)을 지칭하는 자아통제미흡이다. 자아통제미흡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의 6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5점 Likert scale을 사용하였으며, 자아통제미흡 변수는 항목들의 합산점수로 구성하였다.

긴장가설과 관련하여, 여자청소년들을 부정적 감정상태에 들게 하는 긴장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긴장관계를 부모긴장, 학교긴장, 친구긴장, 생활긴장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다양한 긴장요인을 고려하였다. 부모긴장은 부모로부터 얻는 긴장관계로,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3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학교긴장은 학교로부터 받는 긴장을 뜻하는 것으로,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5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친구긴장은 친구로부터 겪는 긴장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3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생활긴장이란 생활과정에서 받는 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6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긴장관련 변수들의 측정은 모두 5점 Likert scale을 사용하였다. 부모긴장, 학교긴장, 친구긴장, 생활긴장 변수들은 해당 항목들의 합산점수로 구성하였다.

사회유대가설은 부모나 선생과 맺는 정서적 유대감에 따라 여자청소년이 비행에 가담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예견한다. 사회유대가설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부모애착 변수와 선생애착 변수를 구성하였다. 부모애착 변수는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인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 5점 척도의 6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항목들의 합산점수로 구성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선생애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등 5점 척도의 3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항목들의 합산점수로 구성하였다.

사회학습가설에서 강조하는 비행친구로부터의 학습을 대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학교처벌친구, 경찰체포친구, 음주친구, 흡연친구, 무단결석친구, 폭행친구, 뺑뺑기친구, 훔치기친구 등 8 항목을 고려하였다. 각 항목은 친구들 중에 그러한 친구들이 있으면 ‘1’로 부호화하였으며 없는 경우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3) 통제변수의 측정

여자청소년이 성장하는 가정환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가설들의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설의 독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의 구조적 형태, 가족의 경제적 수준, 가족의 분위기를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결손가정은 가족의 구조적 형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결손가정인 경우에는 ‘1’로 부호화하였으며 양부모가

정인 경우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부의 교육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는 것으로 '1'의 무학에서 '8'의 대학원 박사로 측정하였다. 갈등가정은 가족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는 적이 많이 있다'의 5점 Likert scale 4항목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1) 여자청소년 비행의 실태

<표 1> 비행종류별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

비행종류	전체	남자	여자	비고
담배피우기	13.3%	12.9%	13.7%	$\chi^2=.5$, NS
술 마시기	30.6%	22.1%	39.2%	$\chi^2=117.3$, $P<.01$
무단결석	4.8%	4.1%	5.6%	$\chi^2=4.6$, $P<.05$
가출	4.0%	4.1%	4.0%	$\chi^2=.007$, NS
심하게 때리기	9.0%	12.4%	5.6%	$\chi^2=49.3$, $P<.01$
패싸움	5.4%	6.2%	4.6%	$\chi^2=4.1$, $P<.05$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4.8%	20.2%	9.5%	$\chi^2=77.5$, $P<.01$
협박하기	4.3%	5.4%	3.1%	$\chi^2=11.3$, $P<.01$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5.5%	4.8%	6.1%	$\chi^2=3.0$, NS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6.9%	6.4%	7.5%	$\chi^2=1.6$, NS
왕따시키기	14.2%	10.4%	17.9%	$\chi^2=39.7$, $P<.01$

표 1은 여학생 1,724명과 남학생 1,7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이들이 저지른 비행종류를 살펴본 것이다. 여학생의 경우에 가장 많이 저지른 비행은 술마시기로 조사대상 여학생의 39.2%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술마시기 다음으로 빈번한 비행은 왕따시키기(17.9%), 담배피우기(13.7%),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9.5%)의 순이다. 이에 반하여 여학생들이 흔히 저지르지 않은 비행은 협박하기(3.1%), 가출(4.0%), 패싸움(4.6%) 등으로 이러한 종류의 비행을 경험한 여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5% 미만이다.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에 그 결과는 매우 놀랍다. 상식적으로 사회적 기대규범에 반하는 행위는 남자들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표 1은 이러한 상식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술마시기에서 남학생들이 경험한 비율은 22.1%에 불과하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39.2%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17% 가량 더 많다. 무단결석의 경우도 남학생의 경우는 4.1%에 불과하지만 여학생은 5.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 왕따시키기에서도 남학생의 경우는 10.4%이지만 여학생은 1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 물론 술마시기, 무단결석, 왕따시키기는 비행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금지된 행위에 이처럼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참여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폭력성 비행이라 할 수 있는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협박하기 등에서는 남학생들의 경험비율이 여학생들보다 높다.

<표 2> 비행유형별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

비행종류	전체	남자	여자	비고
지위비행	35.8%	29.9%	41.6%	$\chi^2=51.7$, $P<.01$
폭력비행	22.2%	29.5%	15.0%	$\chi^2=105.4$, $P<.01$
재산비행	10.3%	9.6%	11.0%	$\chi^2=1.8$, NS
왕따	14.2%	10.4%	17.9%	$\chi^2=39.7$, $P<.01$
전체	50.7%	49.6%	51.7%	$\chi^2=1.5$, NS

표 2는 비행유형별로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앞에서 시사하듯이, 여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빠져드는 비행유형은 지위비행이다. 지위비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여학생의 비율은 41.6%이다. 다음으로 여학생이 빈번하게 빠져든 비행유형은 왕따이다. 여학생들의 17.9%가 왕따를 해본 적이 있었으며, 폭력비행을 한 번이라도 해본 여학생들의 비율은 15.0%로 그 다음이다. 반면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비행을 저지른 여학생은 11.0%로 가장 낮은 비율이다.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에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비행유형은 지위비행, 왕따 등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재산비행의 경우도 남학생의 경우는 9.6%이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11.0%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학생들에게 승인되지 않은 11가지 행위 중에서 1가지라도 경험해 본 여학생의 비율은 51.7%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었다.

2) 여자청소년 지위비행의 인과모형

표 3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가설들을 중심으로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지위비행을 저지르는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요인들이 여학생들의 지위비

행 과정에 관계되어 있다. 즉 부모로부터 긴장을 많이 겪을수록(부모 긴장, 0.940), 친구로부터의 긴장이 적을수록(친구긴장, -.0686), 생활과정에서 긴장을 많이 겪을수록(생활긴장, .0575)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다. 또한 친구 중에서 학교에서 처벌받은 친구가 있거나(학교 처벌친구, .5368) 음주를 하는 친구와 같이(음주친구, 2.0872)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으면 역시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자아통제력이 낮으면 낮을수록(자아통제미흡, 0.918) 역시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면에서 여학생들이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과정은 긴장가설, 사회학습가설, 자아통제가설에 기초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남학생은 경찰 체포친구, 음주친구, 자아통제미흡, 갈등가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과는 대조적이다. 여학생의 경우는 특히 자기 주위의 가까이로부터 겪게 되는 긴장관계와 긴장에 의한 부정적 감정 상태로 인하여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위비행에 빠져드는 경향이 강하다.

<표 3> 지위비행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결과

변수	여자		남자	
성역할태도	-.0669		-.0393	
부모긴장	.0940	**	.0250	
학교긴장	-.0260		.0205	
친구긴장	-.0686	*	-.0335	
생활긴장	.0575	**	.0293	
부모애착	-.0110		-.0303	
선생애착	-.0365		-.0560	
학교차별친구	.5368	*	-.3940	
경찰체포친구	-.0605		.6223	*
음주친구	2.0872	**	1.8669	**
흡연친구	.3578		.3541	
무단결석친구	-.1672		.1164	
폭행친구	-.3233		.1163	
뺑뜨기친구	.0775		-.2030	
훔치기친구	.2874		-.1163	
자아통제미흡	.0918	**	.0985	**
결손가정	-.3435		-.3627	
부의 교육	-.0135		-.0315	
갈등가정	.0263		.0561	*
-2LL wz intercept only	2062.2		1820.6	
-2LL wz model	1492.7		1445.9	
Model Chi-square	569.5**		374.7**	
D.F.	19		19	

3) 여자청소년 폭력비행의 인과모형

표 4는 여자청소년의 폭력비행을 분석한 결과이다. 여학생들이 폭력비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성역할태도, 음주친구, 폭행친구, 뺑뺏기친구, 자아통제미흡, 갈등가정 등이다. 성역할태도의 경우에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내면화한 학생일수록 폭력적인 비행을 자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써 성역할사회화 가설은 폭력비행을 설명하는 데에는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친구, 폭행친구, 뺑뺏기친구가 있는 경우에 폭력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학습가설 역시 설명력이 있으며 특히 폭력비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폭력비행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통제가 미흡하면 할수록 그만큼 폭력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가정분위기가 갈등적일수록 역시 폭력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폭력비행은 비행의 위험성이 앞서의 지위비행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는 중비행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학생들이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데에는 생활과정에서 겪는 긴장요인들보다는 성역할태도, 자아통제력, 가정분위기와 같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비교했을 때에 이들에서도 뺑뺏기친구, 자아통제미흡, 갈등가정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판별되어 폭력비행과 같은 중비행의 경우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비슷한 인과과정에 의해 비행에 빠져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폭력비행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결과

변수	여자		남자	
성역할태도	-.1269	*	.0004	
부모긴장	.0189		-.0183	
학교긴장	.0205		.0518	**
친구긴장	.0642		.0432	
생활긴장	-.0165		-.0073	
부모애착	.0308		-.0026	
선생애착	.0194		.0052	
학교처벌친구	.1467		.2305	
경찰체포친구	-.1004		.2450	
음주친구	.6061	**	.1972	
흡연친구	.3055		.0097	
무단결석친구	.2907		-.1385	
폭행친구	.9103	**	1.2293	**
뺑뜨기친구	1.2103	**	.3846	
훔치기친구	-.2046		.3844	
자아통제미흡	.1827	**	.1110	**
결손가정	-.5862		-.1925	
부의 교육	-.0624		.0029	
갈등가정	.1250	**	.0532	*
-2LL wz intercept only	1236.6		1803.5	
-2LL wz model	929.7		1562.6	
Model Chi-square	306.9**		240.9**	
D.F.	19		19	

5. 논의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잠정적인 논의이며, 앞으로 검증작업을 통해 확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여자청소년의 비행문제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었다. 우선 전체 조사대상 여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지난 1년간 1가지 이상의 비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비행문제란 일부의 극소수 불량학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행이 보편적이라고 할 정도로 여학생들에 만연된 현상이었다. 또한 폭력비행의 경우는 남학생들이 저지르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지위비행, 재물비행, 왕따 모든 부분에서 여학생의 경험비율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높게 조사되었다.

여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른 원인을 분석했을 때에 비행유형별로 인과요인은 서로 달랐다. 경미한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위비행의 경우는 자아통제력, 비행친구의 영향 등과 함께 학생들이 주위로부터 겪는 다양한 긴장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비행의 경우는 비행친구의 영향과 함께 성역할태도, 가정분위기, 자아통제력 등과 같이 형성하는데 비교적 장시간이고 지속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VI. 비행 II - 성별 · 심리

1.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피해경험
2.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자아개념의
제 차원과 비행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3.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 및 피해경험

민수홍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I. 서 론

1. 문제제기

아리스토텔레스¹⁾는 “어려서의 교육으로 우리 안에 어떤 습관이 굳어지는가 하는 것은 진정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범죄학자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하게 된다. 인간이 저지르는 비행과 범죄의 차이도 어려서의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비행과 범죄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습관은 무엇이고 이것은 범죄피해 경험의 차이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1990)는 이상의 질문에 대해 어려서의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형성되고, 이 차이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비행과 범죄의 차이가 생겨나며, 범죄피해 경험마저도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자기통제이론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있어왔고, 연구결과는 대체로 자기통제력이 범죄행위와 유사행위의 주요

1) The Ethics of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by J. A. K. Thomson. 1958. Hammondsworth,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한 예측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범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다양한 대상들로부터 또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해서 자기통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Piquero et al., 2004).

프렛과 쿨튼(Pratt and Cullen, 2000)은 21개의 종단적 및 횡단적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낮은 자기통제력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직접 검증하였다. 그들이 분석한 자료 가운데 일부는 자기통제력의 태도적 측정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행위적 측정을 사용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예측된 방향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서 자기통제력은 평균적으로 비행과 범죄가 갖는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은 범죄행위의 주요 예측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이론에 대해 상당히 인상적인 지지를 나타낸다”고 결론지었다(Pratt and Cullen, 2000:951). 에이커스와 셀러스(Akers and Sellers, 2004)도 자기통제이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간결하며, 범위가 넓다고 평가하였다.

국내에서도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검증이 꾸준히 되어오고 있다. 연구대상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민수홍, 1996), 중·고등학교 학생(민수홍, 1998),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청소년(김두섭·민수홍, 1996), 여자 청소년(민수홍, 2002)을 상대로 검증되어 왔고, 성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제한된 자료만을 가지고 검증되어 왔다. 일반이론임을 주장하는 자기통제이론은 지역적으로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수집된 전국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통제이론의 주요한 주장들을 검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첫째, 자기통제력을 태도적인 측면과 행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이 둘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자기통제력을 측정한다.

둘째, 자기통제력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경험한 지위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지 분석한다. 여기서는 자기통제력이 다양한 비행과 범죄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주장을 검증한다. 특히 PC와 인터넷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일탈도 자기통제력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자기통제력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겪은 범죄피해경험을 설명하는지 분석한다. 자기통제이론은 일차적으로 비행과 범죄를 설명하지만, 자기통제력에 따라 위험한 시간과 장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르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2. 연구의의

자기통제이론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이론 가운데 비교적 최근이론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 경험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있고, 동시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론이다. 본 논문은 청소년개발원이 체계적으로 수집한 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최초로 전국적인 청소년 자료를 가지고 자기통제이론을 검증해 보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일반이론임을 주장하는 자기통제이론은 통상적인 범죄와 비행에만 국한 되지 않고 신종 비행으로 불리는 컴퓨터 관련 일탈행위와 범죄피해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자기통제력이 청소년들의 삶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이 그들 삶의 여러 영역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매우 간결한 이론적 틀로부터 조망해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자기통제이론

자기통제이론은 고전주의적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어서 인간을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범죄의 속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손쉽게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주거나 인간이 갖게 된 분노나 좌절감을 그 자리에서 손쉽게 해소시켜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에게 범죄는 매우 매력적인 일이 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사회통제나 개인차원의 자기통제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력의 핵심을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보고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시점과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손쉬운 욕구충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손실을 무시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결국,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here and now)” 욕구충족을 지향하는 근시안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통제이론은 범죄행위 이외에도 생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사행위(analogous behaviors)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무신경하고, 육체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고, 근시안적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경향(Gottfredson and Hirschi, 1990: 90)”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동일인에게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한 평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들의 범죄나 유사행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2. 자기통제력과 성차

매춘이나 상점절도 등의 일부범죄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최근에 여성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범죄는 남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범죄의 심각성이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분명해진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범죄에서의 성차를 남녀간의 자기통제력의 차이와 기회의 차이로 설명한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더 많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이 기회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범죄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범죄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남자의 자기통제력이 여자보다 낮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자기통제력의 차이

자기통제력의 측정은 크게 태도 및 인지적 측정과 행위적 측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레스믹 등(Grasmick et al., 1993)은 자기통제력을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태도/인지적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반면에 킨 등(Keane et al., 1993)은 행위적 지표를 이용하여 자기통제력을 측정하였다. 허쉬와 갓프레드슨(Hirschi and Gottfredson, 1993)은 행위적 측정이 더 간결하고 설명력이 높아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행위적 측정의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에 자기통제력의 하위영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구성에 포함된 하위영역을 구분해 내기 어렵고, 순환적 설명(tautology)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들을 대표할 수 있는 문항들을 하나씩 고르고 여기에 응답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행위적 지표를 추가하여 자기통제력을 측정하였다.

4. 연구가설

위에서 제시된 자기통제이론의 주요 주장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을 도출해내었다.

(1) 남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여자청소년보다 낮을 것이다.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비행과 범죄를 더 저지르기 쉬울 것이다. 자기통제이론의 일반이론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행과 범죄를 지위비행, 범죄, 남 괴롭히기, 컴퓨터 관련 일탈로 세분한 뒤 이론의 주장대로 자기통제력이 예상한 방향에서 각각의 비행과 범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3)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손쉽게 즉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위험한 시간과 장소에 있기 쉽고, 위험한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로 자기통제력은 범죄나 비행뿐만 아니라 범죄피해경험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피해경험도 당하기 쉬울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가운데 3449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중2 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2003년 4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뽑은 3697명의 청소년들 및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모의 경우에는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3697명 가운데 93.3%인 3449명의 경우에는 학생조사와 학부모 조사 모두를 성공하였고, 이 자료를 통계 분석과정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sion 12.0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술적 성격을 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먼저 살펴보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t-검증과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자기통제력과 비행, 범죄 및 범죄피해경험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1) 자기통제력

그레스믹 등은 자기통제력을 ①충동성(impulsivity), ②단순한 일의 선호(preference for simple tasks), ③위험한 일의 선호(preference for risk seeking), ④신체적인 활동의 선호(preference for physical activity) 혹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 ⑤자기중심성(self-centered), ⑥급한 성미(temper)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레스믹의 측정은 자기통제이론을 검증하는 연구자들에게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Piquero et al., 2004; Morselli and Tremblay, 2004).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 “인지적 혹은 학업과 관련된 기술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p. 89)”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가 10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징은 학생에게 특히 적절한 측면이라고 판단되어 이상의 6가지 하위영역에 인지적 기술과 계획의 부족을 추가하여 7개의 하위영역으로 자기통제력을 구성하였다.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과 각 문항과 연결된 하위차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는 충동성을 주로 측정한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는 단순한 일의 선호를 나타낸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는 위험한 일의 선호를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는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을 각각 측정한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는 인지적 혹은 학업적 기술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타나낸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는 자기중심성을,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는 급한 성미를 측정한다.

이상의 7가지 문항에다가 행위적 측정문항으로 “학생이 하루 평균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의 문항을 추가하여 자기통제력을 최종적으로 측정하였다. 컴퓨터의 사용시간은 자기통제력의 여러 가지 하위영역을 복합적으로 나타낸다. 중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문항들을 개관해 본 결과, 주로 채팅과 컴퓨터 게임용으로 사용하고 공부나 학습과 관련해서 정보검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컴퓨터의 사용시간이 길수록 공부보다는 게임의 재미에 별다른 수고 없이 빠져들고, 현실에서 채우기 어려운 위험한 행동이나 신체적인 폭력 등을 결과에 대한 염려 없이 즉석에서 즐기는 성격이 있다고 본다면, 컴퓨터 사용시간의 정도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특성을 대부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은 사용시간과 분을 합하여 분단위로 총 사용시간을 계산한 다음 하루 사용시간이 5시간 이상, 4시간 이상 5시간미만, 3시간 이상 4시간미만, 2시간 이상 3시간미만, 1시간 이하로 코딩하였다. 자기통제력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의 alpha값은 .66으로 나타났다.

2) 우선 대부분의 중학교 2학년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3449명 가운데 33명만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 1%가 채 되지 못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가운데 채팅을 “자주 한다”와 “매우 자주 한다”고 밝힌 경우가 60.2%였고, 컴퓨터 게임을 같은 정도로 한다고 밝힌 중학생은 52.6%로 매우 높게 나온 반면, 공부 및 학습관련 정보검색이나 열람을 “자주 한다”와 “매우 자주 한다”로 밝힌 경우는 16.5%로 낮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중학교 2학년생들은 컴퓨터를 즉각적인 욕구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 비행, 범죄경험

본 연구는 자기통제이론이 다양한 종류의 비행과 범죄를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모두 4가지의 비행과 범죄를 측정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보았습니까?”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다”와 “있다”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5개 문항의 응답을 단순합산하여 지위비행경험 척도를 구성함으로써 지위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0점, 5개 문항 모두에서 경험이 있으면 5점이 된다. 이들 5개 문항간의 alpha값은 .54 이었다.

둘째, 청소년들의 범죄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 문항의 경험여부를 사용하였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뺑뺏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남을 협박하기.” 지위비행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범죄측정의 신뢰도는 .61이었다.

셋째, 남을 괴롭힌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와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합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일탈경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6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인터넷게시판 등에 고의로 허위정보 유포하기,” “불법소프트웨어의 복제 혹은 사용,” “다른 사람의 인터넷ID/주민번호 무단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 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 이들 각각의

문항의 경험 여부를 합산하여 측정한 컴퓨터관련 일탈의 신뢰도는 .52로 나왔다.

3) 범죄피해경험

비행과 범죄경험 이외에 또 다른 주요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범죄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의 질문 뒤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협박당하기,”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심하게 맞기(폭행),”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이다. 이 문항들 사이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alpha값은 .57 이었다.

4) 가족관계 변인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자녀간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부관계는 부부가 서로 간에 욕설을 하거나 구타를 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인 청소년이 부모님의 난폭한 언행사용 정도를 보고한 2문항을 이용한다. 즉,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와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을 합산하였다.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신뢰도 값은 .74이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다시 셋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6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자녀간 애착을 측정하는 문항들 사이의 신뢰도값은 .86이었다.

다음으로, 부모의 자녀감독은 다음의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이 문항들은 애초에 허쉬(Hirschi, 1969)가 실질적 감독(virtual supervision)이라고 불렀던 문항들로 그는 이 문항들이 자녀의 내면에 형성된 부모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문항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외적인 감독보다 청소년이 의식하는 부모의 존재를 나타내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을 내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문항들의 신뢰도값은 .85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난폭한 언행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을 사용하였고, alpha값은 .76이었다.

5) 사회인구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인 청소년과 그가 속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별, 결혼가정 여부, 어머니의 취업여부, 아버지의 교육정도, 가정의 월평균 소득총액을 사용하였다.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모두 부모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이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처리하였으며, 결혼가정 여부는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0, 그렇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어머니의 직업을 “가정주부”로 밝힌 경우를 0, 그렇지 않은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아버지의 학력을 물어 보았다. 응답은 “무학”부터 “대학원-박사”까지 8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액은 가정에서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월평균금액을 만원 단위로 조사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설문조사는 청소년 응답자들로 하여금 부모의 직업, 학력, 가구수입 등을 쓰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모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구의 수입을 알지 못해서 측정의 오류가 많았었다.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에서는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학생들에게 묻지 않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화면접형식으로 직접 물어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빈도와 백분율이 <표 1>에서 <표 3>에 걸쳐서 제시되어 있다.

<표 1>에는 응답자인 중학교 2학년생의 성별과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시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50%씩 구성되어 있다.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96.1%였고, 3.9%만이 친부모 모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을 “가정주부”로 밝힌 경우가 50.6%로 나왔고, 나머지 49.4%는 어머니가 가사 이외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교육이 30%로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아버지는 전체 가운데 88%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액의 평균값은 300만원 정도였다(<표 4>).

비행과 범죄 등 가해경험은 모두 4가지로 구성되었다³⁾.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음주경험이 30.6%로 가장 높았고, 흡연경험은 13.3%로 나타났다.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경험, 성관계 경험의 순서로 비행의 심각성은 커지고 경험빈도는 낮게 나타나서 성경험의 빈도는 1.1%만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범죄를 구성하는 폭행, 절도, 뺑뜨기, 패싸움, 협박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폭행의 경우 9%가 경험이 있었고,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절도가 6.9%로 나왔으며, 협박경험이 가장 낮아서 4.3%로 나왔다.

남을 조롱하거나 집단으로 따돌린 경험은 14~15% 사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컴퓨터 관련 일탈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와 관련해서 가장 빈번한 일탈경험은 채팅이나 게시판 사용하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으로 전체 사용자의 42.1%로 높게 나타났다. 채팅할 때 성이나 나이를 속인 경험도 33.6%로 높았으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한 경우도 31.5%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수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컴퓨터와 관련된 일탈이 특정 소수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피해경험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0%정도는 각각 놀림이나 조롱을 당했거나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협박, 집단따돌림, 심한 구타를 당한 경험은 각기 4~5%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경험은 1996년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3)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는 이 밖에 원조교제와 성폭행/성희롱에 관한 측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의 빈도가 각기 5건과 11건으로 전체의 0.1%와 0.3%에 지나지 않아 변량이 극히 작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 이 2가지 항목은 제외시켰다.

피해경험과 그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민수홍, 1996). 이러한 차이는 서울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경험도 높게 발생한다는 점과, 이번 조사대상이 중학생으로 초등학생들보다 자신을 지킬 신체적인 능력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다.

가족관계의 변수, 자기통제력 그리고 주요한 종속변수인 비행, 범죄경험, 범죄피해경험이 갖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두 6문항을 단순합산하여 측정한 부모와 자녀간 애착의 평균값이 20.04로 3문항으로 측정한 부모의 자녀감독의 평균값 9.82의 2배가 조금 넘었다. 부부간에 난폭한 언행을 사용한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난폭한 언행을 사용한 정도는 평균값이 각각 3.70과 3.46으로 비슷하고, 그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응답자인 중학교 2학년생의 자기통제력 평균값은 26.52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쪽으로 약간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왜도값이 -.23이다).

4가지 비행과 범죄유형 가운데 컴퓨터관련 일탈경험의 평균값이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관련 일탈을 나타내는 6개 항목에 걸쳐 전혀 일탈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2%에 그치고 있어서 72.8%는 지난 1년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일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2문항으로 측정한 남을 괴롭히기의 평균값이 0.29로 5문항으로 측정된 지위비행의 평균값 0.5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의 평균값은 0.35로 범죄의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범죄피해를 구성한 6개 항목에 걸쳐서 응답자 가운데 26.7%가 지난 1년 사이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가족관계 요인, 자기통제력, 비행, 범죄 및 범죄피해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의 사이에서 더 강한 애착을 나타냈고($t=-4.89$, $p<.001$),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존재를 더 의식하고 있어서 이것이 청소년들의 행동을 내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t=-6.80$, $p<.001$). 자기통제력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기통제력이 더 높았고, 이 차이는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설정했던 자기통제력의 성차에 대한 가설은 경험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난폭한 언행사용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개인배경변수의 분포

변수	내용	빈도	백분율
성별	0. 여	1724	50.0
	1. 남	1725	50.0
결손가정	0. 온전가정	3120	96.1
	1. 결손가정	128	3.9
어머니의 취업	0. 전업주부	1697	50.6
	1. 취업주부	1660	49.4
부의 교육정도	1. 무학	9	0.3
	2. 초등학교	122	3.6
	3. 중학교	276	8.1
	4. 고등학교	1491	44.0
	5. 전문대	236	7.0
	6. 대학교	1021	30.1
	7. 대학원-석사	189	5.6
	8. 대학원-박사	47	1.4

비행과 범죄의 4가지 경험 가운데 남을 괴롭히기에서는 성별에 다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범죄, 컴퓨터 관련 일탈에서는 성별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범죄와 컴퓨터 관련 일탈을 각각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3.24$, $p<0.01$; $t=6.12$, $p<0.001$). 지위비행경험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의외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지위비행경험의 평균값은 0.63으로 남학생의 0.44보다 높았고, 이 차이는 0.001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듯 예상 밖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지위비행을 구성하는 5가지 항목별로 비행을 경험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빈도와 백분율을 조사해 보았다. 부록의 <표 8>을 보면, 가벼운 지위비행의 경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반면 비행의 성격이 심각할수록 남학생이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음주경험에서 큰 성차가 관찰되어 여학생의 39.2%가 지난 1년 사이에 음주를 경험한데 비해 남학생은 22.1%만이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이 시기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조숙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2> 지위비행, 범죄, 성범죄 및 남 괴롭히기 변수의 분포

변수		내용	빈도	백분율
지위비행	흡연	0. 전혀 없다 1. 있다	2991 458	86.7 13.3
	음주	0. 전혀 없다 1. 있다	2392 1057	69.4 30.6
	무단결석	0. 전혀 없다 1. 있다	3282 167	95.2 4.8
	가출경험	0. 전혀 없다 1. 있다	3310 139	96.0 4.0
	성관계경험	0. 전혀 없다 1. 있다	3411 38	98.9 1.1
범죄	폭행	0. 전혀 없다 1. 있다	3139 310	91.0 9.0
	패싸움	0. 전혀 없다 1. 있다	3262 187	94.6 5.4
	뺑뚡기	0. 전혀 없다 1. 있다	3260 189	94.5 5.5
	절도	0. 전혀 없다 1. 있다	3210 239	93.1 6.9
	협박	0. 전혀 없다 1. 있다	3301 148	95.7 4.3
남 괴롭히기	조롱하기	0. 전혀 없다 1. 있다	2937 512	85.2 14.8
	집단 따돌림	0. 전혀 없다 1. 있다	2960 489	85.8 14.2

범죄피해경험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범죄피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범죄피해경험의 평균값은 0.42인 반면, 여학생은 그 보다 상당히 낮은 0.27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t=5.61$, $p<0.001$).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신연희, 2001; 민수홍, 유성렬, 2003), 남학생의 범죄피해경험이 여학생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노약자가 범죄피해를 당하기 쉽다는 주장과 달리 위험한 시간과 장소에 노출되고 위험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기회이론(Felson, 1998)과 더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이 더 많고 위험한 시간과 장소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범죄피해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표 3> 컴퓨터 일탈 및 범죄피해경험 변수의 분포

변수		내용	빈도	백분율
컴퓨터 일탈	허위정보 유포	0. 전혀 없다 1. 있다	3323 126	96.3 3.7
	소프트웨어 복제, 사용	0. 전혀 없다 1. 있다	2361 1088	68.5 31.5
	인터넷 ID 무단사용	0. 전혀 없다 1. 있다	2627 822	76.2 23.8
	채팅시 성, 나이 속이기	0. 전혀 없다 1. 있다	2291 1158	66.4 33.6
	해킹	0. 전혀 없다 1. 있다	3230 219	93.7 6.3
	채팅/게시판에서 욕설/ 폭언	0. 전혀 없다 1. 있다	1996 1053	57.9 42.1
범죄피해 경험	놀림 조롱당하기	0. 전혀 없다 1. 있다	3109 340	90.1 9.9
	협박당하기	0. 전혀 없다 1. 있다	3288 161	95.3 4.7
	집단따돌림 당하기	0. 전혀 없다 1. 있다	3286 163	95.3 4.7
	심하게 맞기	0. 전혀 없다 1. 있다	3304 145	95.8 4.2
	성폭행/성희롱 당하기	0. 전혀 없다 1. 있다	3407 42	98.8 1.2
	돈/물건 빼앗기기	0. 전혀 없다 1. 있다	3105 344	90.0 10.0

<표 4> 가족관계 변수, 자기통제력, 비행, 범죄 및 범죄피해경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범위
가정의 월평균 수입액	299.73	216.90	3241	5 ~ 3500
부모-자녀간 애착	20.04	4.67	3445	6 ~ 30
부모의 자녀 감독	9.82	2.76	3448	3 ~ 15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	3.70	1.85	3444	2 ~ 10
자녀에 대한 난폭한 언행	3.46	1.78	3448	2 ~ 10
자기통제력	26.52	4.86	3413	10 ~ 40
지위비행	0.54	0.86	3449	0 ~ 5
범죄	0.31	0.75	3449	0 ~ 5
남 괴롭히기	0.29	0.55	3449	0 ~ 2
컴퓨터관련 일탈	1.41	1.30	3449	0 ~ 6
범죄피해경험	0.35	0.78	3449	0 ~ 6

※ 위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 변수의 지표들의 단순합산을 기초로 산출됨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기 쉽고 범죄피해의 경험도 당하기 쉬울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 상관관계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변수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자기통제력, 비행과 범죄경험, 범죄피해경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지위비행이 적게 나타났다($r=-.09$). 그러나 컴퓨터 관련 일탈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r=.05$).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액은 비행이나 범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고, 범죄피해와도 상관이 없었다.

<표 5> 가족관계 변수, 자기통제력, 비행, 범죄 및 범죄피해경험의 성별에 따른 차이 (N=3449)

변수		남학생	여학생	t	p
부모자녀간 애착	평균	19.6	20.43	-4.89***	.000
	표준편차	4.51	4.81		
부모의 자녀감독	평균	9.50	10.13	-6.80***	.000
	표준편차	2.72	2.77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	평균	3.65	3.76	-1.78	.076
	표준편차	1.77	1.92		
자녀에 대한 난폭한 언행	평균	3.51	3.41	1.77	.076
	표준편차	1.78	1.78		
자기통제력	평균	26.35	26.70	-2.01*	.038
	표준편차	4.67	5.04		
지위비행	평균	0.44	0.63	-6.52***	.000
	표준편차	0.79	0.92		
범죄	평균	0.35	0.27	3.24**	.001
	표준편차	0.76	0.74		
남 괴롭히기	평균	0.31	0.27	1.70	.089
	표준편차	0.55	0.55		
컴퓨터관련 일탈	평균	1.55	1.28	6.12***	.000
	표준편차	1.37	1.22		
범죄피해경험	평균	0.42	0.27	5.61***	.000
	표준편차	0.86	0.69		

*: $p<0.05$, **: $p<0.01$, ***: $p<0.001$

가족관계 요인의 경우,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은 각각 비행, 범죄, 범죄피해경험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애착이나 감독이 강할수록 비행 및 범죄경험이 낮고, 범죄피해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사이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는 정도는 각각 비행, 범죄, 범죄피해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여서 부부사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욕설이나 폭력을 사용할수록 비행 및 범죄경험이 높고, 범죄피해

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결혼가정, 어머니 취업을 제외한 변수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N=3449)

	(1)	(2)	(3)	(4)	(5)	(6)	(7)	(8)	(9)	(10)	(11)
(1) 부의 교육정도											
(2) 가정의 월평균수입	.35***										
(3) 부모자녀 간 애착	.13***	.08***									
(4) 부모의 자녀감독	.11***	.08***	.50***								
(5) 부부간의 난폭한언행	-.11***	-.06**	-.21***	-.14***							
(6) 자녀에의 난폭한언행	-.04*	.01	-.31***	-.20***	.52***						
(7) 자기통제 력	.14***	.07***	.22***	.21***	-.20***	-.24***					
(8) 지위비행	-.09***	-.03	-.18***	-.16***	.15***	.21***	-.35** *				
(9) 범죄	-.02	.01	-.13***	-.14***	.14***	.21***	-.33** *	.44***			
(10) 남 괴롭히기	.02	.02	-.05**	-.06***	.15***	.17***	-.27** *	.26***	.42***		
(11) 컴퓨터 관련 일탈	.05**	.01	-.08***	-.09***	.12***	.15***	-.29** *	.22***	.25***	.29***	
(12) 범죄 피해경험	-.02	-.02	-.07***	-.10***	.10***	.15***	-.13** *	.18***	.24***	.25***	.20** *

*: $p < 0.05$, **: $p < 0.01$, ***: $p < 0.001$

자기통제력은 모든 종류의 비행 및 범죄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자기통제력이 약할수록 지위비행, 범죄, 남 괴롭히기, 컴퓨터 관련 일탈을 저지르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독립변수들 가운데 자기통제력은 비행 및 범죄와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 독립변수별로 4개의 비행 및 범죄와의 관계에서 보인 r 의 절댓값 평균을 보면, 애착과 감독이 각각 .11이었고,

부부사이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난폭한 언행은 각각 .14와 .19인데 비하여 자기통제력은 .31로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 자기통제력은 범죄피해경험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13$)를 보여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자기통제력이 다양한 종류의 비행 및 범죄와 예상했던 부적 방향에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서 허쉬의 일반이론주장이 경험적 지지를 받았다. 더욱이 자기통제력은 범죄피해의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어서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에서는 주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아래에서는 이들 독립변수들을 함께 사용하여 이들이 비행 및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이 범죄와 컴퓨터 관련 일탈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행에서는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여자 청소년이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대로 음주, 흡연, 무단결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위비행 중에서도 심각한 가출과 성경험은 남학생이 약간 더 많았다. 그렇다면 성별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행위의 심각성과 남녀간의 발달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을 놀리거나 따돌리는 행위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로 남녀간의 차이가 작고, 음주와 흡연과 같은 가벼운 지위비행은 남자청소년보다 조숙하는 경향이 있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먼저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시간이 지나면 음주와 흡연에서도 남학생의 경험의 많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통제력은 모든 지위비행과 범죄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지위비행과 범죄를 더 저지르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 괴롭히기와 컴퓨터 관련 일탈도 더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가운데 자기통제력이 갖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이 모든 유형의 비행과 범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설명하는 데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자기통제력은 일반적인 비행과 범죄뿐만 아니라 신종비행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일탈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서 자기통제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졌고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 주장이 한 번 더 경험적으로 지지되었다.

자기통제력 다음으로 비행과 범죄에 강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구타를 한 정도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릴수록 자녀는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습이론(Sutherland and Cressey, 1978) 혹은 하위문화이론(Cohen, 1955; Wolfgang and Ferracuti, 1982)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정폭력을 당한 자녀가 폭력을 바람직한 행위 혹은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학습하여 밖에 나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녀의 문제행위에 대해 부모가 반응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자녀가 문제행동을 하고 이에 화가 난 부모가 욕설을 하거나 때리기 쉽다는 것이다.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더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자녀가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을 더 불러일으킨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밖의 독립변인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교육정도가 지위비행, 남 괴롭히기, 컴퓨터 관련 일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지위비행은 적게 나타났고, 남 괴롭히기와 컴퓨터 관련 일탈은 더 높게 나타나서 비행과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정의 월평균 총수입액은 자녀의 범죄에만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서 수입이 많을수록 자녀의 범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이 클수록 자녀의 지위비행은 적게 나타나고 남 괴롭히기는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감독 정도는 자녀의 지위비행과 범죄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감독이 강할수록 자녀의 지위비행과 범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감독은 남 괴롭히기와 컴퓨터 관련 일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에 욕설이나 구타를 하는 정도는 자녀의 남 괴롭히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부간에 욕설과 구타가 있을수록 자녀의 남 괴롭히기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한 독립변수들이 각각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지위비행에서의 결정계수가 .1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범죄($R^2=.14$), 컴퓨터 관련 일탈($R^2=.11$), 남 괴롭히기($R^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들이 청소년의 범죄피해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성별은 범죄피해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서 남자 청소년의 피해가 더 많았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클수록 자녀의 피해는 적은 것으로 나왔고,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구타를 할수록 자녀의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는지를 부모가 알수록 자녀의 범죄피해경험이 낮게 나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맞는 청소년이 밖에서 범죄피해를 더 당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2가지 서로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 생애이론(Life course theory; Yader et al., 1998)에 따르면 사람은 새로운 환경을 선택할 때 과거 자기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환경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의 행동성향을 강화시키고 증폭시킨다고 한다. 예컨대,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다가 가출한 청소년은 가출 이후에도 더 깊은 학대의

위험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자기통제이론의 설명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쉬워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구타를 당하기 쉽고, 이들은 동시에 손쉽게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찾아 위험한 장소와 시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범죄피해를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즉 자기통제이론의 시각에서는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과 범죄피해는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에 해당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난폭한 언행사용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범죄피해경험 말고도 다양한 비행과 범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이 비행, 범죄, 범죄피해 경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난폭한 언행사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해와 피해로 나누어 각기 다른 이론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가해와 피해경험 모두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통제이론을 선택할 때의 장점이라면 하나의 이론으로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간결성과 범위에 있다고 하겠다. 이후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느 이론이 더 타당한지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범죄피해경험에서도 자기통제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피해경험을 당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가해경험에서 보다 작았지만 통계적으로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자기통제력은 비행, 범죄 이외에 범죄피해경험도 설명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일반이론이라는 주장이 경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VI.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증해 보았다. 분석을 통해서 이론이 주장한대로 여자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지위비행, 범죄, 남 괴롭히기를 설명하였고 신중 비행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일탈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통제이론의 설명은 가해의 범위를 벗어나 범죄피해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자기통제이론의 주요한 주장들은 국내 전국규모의 청소년 자료를 통해서도 경험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성별이 가벼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가벼운 비행에는 성별의 차이가 적용되지 않거나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고, 여자 청소년의 조숙이 가벼운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쳐서 지위비행발생 초기에 여자 청소년의 경험이 남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 검정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은 패널조사의 차수가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검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1) 조사 대상의 청소년들이 표본에서 떨어져 나가는 마손율이 자기통제력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자기통제이론의 근본적인 출발점이었고, 범죄학분야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연령과 범죄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나쁜 친구(비행경력이 있는 친구)가 비행의 원인인지 아니면 유유상종의 맥락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이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결과인지를 검증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두섭·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에측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2002).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제 13권 제 1호, pp. 35-66.
- 민수홍·유성렬(200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형사정책 제 15권 제 2호 pp.159-188.
- 신연희(2001). “자아존중감, 청소년 비행,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제 13권 제 1호 pp.107-132.
- Cohen, Albert K.(1955). Delinquent Boys. Glencoe, IL: Free Press.
- Felson, Marcus. 1998. Crime and Everyday Life. 2nd Ed. Thousand Oaks, CA: Pine Forge Press.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arold, G., Charles R. Tittle, Robert J. Bursick, Jr., and Bruce J. Arneklev(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 15-29.
- Hirschi, Travis(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ravis and Michael Gottfredson(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 47-54.
- Keane, Carl, Paul S. Maxim, and James J. Teevan(1993).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0, pp. 30-46.
- Morselli, Carlo and Pierre Tremblay. 2004. "Criminal Achievement, Offender Networks and the Benefits of Low Self-Control." Criminology. Vol. 42 No. 3, pp.773-804.
- Piquero, Alex R., Zenta Gomez-Smith, and Lynn Langton(2004). "Discerning Unfairness Where Others May Not: Low Self-Control and Unfair Sanction Perceptions." Criminology. Vol. 42 No. 3, pp. 699-733.
- Pratt, Travis C. and Francis T. Cullen(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Vol. 38, pp.931-964..
- Sutherland, Edwin H. and Donald R. Cressey(1978). Criminology. 10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Wolfgang, Marvin E. and Franco Ferracuti. 1982. The Subculture of Violence. Beverly Hills, CA: Sage.
- Yoder, K. A., Hoyt, D. R., & L. B. Whitebeck(1998). "Succidal behavior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7 No 6, pp.753-771.

<부 록>

<표 7>남녀별 지위비행 경험 빈도(백분율)

	남자	여자
총학생수	1725	1724
흡연	222(12.9)	236(13.7)
음주	382(22.1)	675(39.2)
무단결석	70(4.1)	97(5.6)
가출	70(4.1)	69(4.0)
성경험	22(1.3)	16(0.9)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 자아개념의 제 차원과 비행유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동원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I. 머리말

일찍이 Reckless(1956, 1957)가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주요한 요인으로 자아개념을 강조한 이래로 청소년비행연구에서 자아개념은 많은 관심을 끄는 변인이 되었다. 자아개념은 Wells(1978)가 지적하였듯이 일탈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학적 접근이나 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접근방식의 중간수준에 위치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면, 따라서 지나치게 개인의 정신병리적 측면에 치우치는 설명이나 청소년의 행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구조적 환경에 대한 설명의 중간수준에서 양자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Kaplan(1975), Braithwaite(1989), Gottfredson & Hirschi(1990) 등은 자아개념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학자들의 관심 영역에서 특히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의 관심영역에서는 비교적 고전적인 주제가 되어버렸다. 이는 단순히 구조적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청소년비행분야의 학문적 흐름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즉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간 관계의 모호성, 연

구물에 나타난 자아개념의 불명확성 또는 연구방법상의 결함,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의 복잡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여러 이론적 입장과 연구결과들을 고찰한 후,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자아개념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를 자아개념의 세 차원과 비행의 유형간의 관계로 구체화하여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해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기존 연구

1. 이론적 논의

기존의 청소년비행이론에 나타난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입장은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지적한 Reckless(1956, 1957)의 이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통제론적 논의가 이에 해당된다. Reckless의 봉쇄이론은 초기 통제이론의 변형된 형태로서 일탈행위에 대한 외적인 봉쇄요소에 대한 기존의 설명에 내적인 봉쇄의 핵심메커니즘으로 자아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봉쇄이론에서는 심리적인 발달에 보다 관심을 가지며, 또한 억제와 자기규제 습득에 필수적인 사회화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행동의 동기화 보다는 행동의 억제의 측면에 분석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Hirschi(1969)는 자신의 통제이론에서 Reckless(1956, 1957,

1967)의 연구결과를 더욱 발전시켜서, 범죄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유혹을 거부할만큼 통제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특히 비행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사회유대 특히 학교와 가정에 대한 애착이라고 주장하였다(Wiatrowski et al., 1981; Matsueda, 1982).

Hirschi가 자신의 사회통제이론을 보다 발전시켜 일탈행위에 대한 일반이론을 목표로 Gottfredson과 함께 제시한 자아통제이론(1990)에서는 낮은 자아통제력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아통제력의 형성은 조기사회화 즉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양육과 사회화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통제론적 논의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발생에 있어서 개인의 발달론적 측면 특히 자아통제력의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좋은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한 개인의 발달’을 강조하게 되었다. 통제론적 논의는 발달론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주된 관심은 일탈의 압력을 차단해내는 저항력의 발달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raithwaite(1989)는 통제이론, 낙인이론, 학습이론을 포함하는 여러 범죄학이론으로부터 ‘재통합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을 끌어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비행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자아개념의 효과를 강조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Braithwaite의 주장은 다른 통제론적 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낄 경우에 비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결국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

다.

두 번째 입장, 즉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유발한다고 하는 입장의 시초로 볼 수 있는 것은 Cohen(1955)의 이론이다. 그는 자신의 비행하위문화이론에서 청소년에게 있어서 비행은 집단적 현상으로서 실추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적 시도로 보았다. 학교라는 장에서 지위획득에 실패한 소년들은 지위좌절을 경험하면서 실추된 지위와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비행행위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지위문제와 정체성 유지의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행을 파악하였으며, 사회적 좌절에서 기인하는 지위좌절에 대한 체계적인 반응으로서의 개인의 비행과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을 통해서 자아정체성을 향상시키고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동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자아개념이라는 변인이 사회적 사건(학교의 불평등한 현실)과 개인적 사건(비행)을 연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aplan(1975, 1977, 1978, 1980)은 자아 존중감의 고양을 강조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비행은 자아개념의 결함에 상응하는 반응이라고 한다. 즉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회피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동기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반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응이라고 보았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유발한다고 보는 또 다른 시각은 낙인론적 접근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낙인론적 접근방식의 시초라 할 수 있는 Lemert(1951)는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에 출두하고 시설에 수용되고 난 이후의 결과에 주목하였다. 그는 그러한 조치로 인하여 개인은 낙인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낙인은 자신이 비행자라는 사실을 수용하게 만들어서 자아개념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론화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소년사법체계와의 접촉은 청소년의 사고방식에 비행적인 자

아개념을 정착시키게 된다고 믿었다(Levy, 1997a, p.671).

Lemert(1951)의 주장은 일탈의 원인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 대신에 일탈행동과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낙인찍고 통제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반응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회적 제재의 과정이 일탈자의 사회적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라 그는 이차적 일탈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분석의 초점을 최초일탈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서 일탈의 체계화(조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따라서 자아개념이 일탈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탈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되어갔다. 이후 낙인이론은 낙인의 결과로서의 자아개념의 변화 측면을 강조한 Lemert의 의도와는 차이를 보이면서 Becker(1963), Kitsuse(1962) 그리고 Scheff(1966)에 의해서 확장되어 발전한다.

Lemert(1951)의 낙인이론의 대부분은 낙인이 직접적으로 자아개념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낙인명제’에 집중하고 있다. Lemert의 2차적 일탈의 개념에서 도출된 그와 같은 명제는 사회통제가 낙인당한 사람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정체성을 변화시킴으로써(오명부여를 통해서) 일탈을 체계화하고 연장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자아개념은 일탈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다. 즉 자아개념은 사회적 통제에 의해서 최초 일탈의 결과로서 변화가 일어나며, 그러한 자아개념의 변화는 이차적 일탈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낙인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아개념과 일탈간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명쾌하고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대신 주로 낙인과 일탈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낙인이론에 있어서 자아개념은 경험적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측정된 변수로서 기능했다기 보다는 직관적으로 명백한 매개과정으로 기능한 것이다. 경험적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당연한 연계과정으로 취급했다는

점은 자아개념을 비행하위문화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경향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자아개념은 청소년비행의 통제기능과 동기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즉 통제론적 논의는 긍정적 자아개념의 통제기능을 강조하며, 비행하위문화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차적 일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자아개념을 강조하는 낙인론적 관점 역시 동기화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²⁾ 그러나 자아의 동기화 기능과 통제 기능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상호 밀접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아개념의 복잡성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의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아개념이 비행에 작용하는 동기화 기능과 통제기능이라는 분석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외에도 각각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아개념의 의미나 요소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론적 논의 즉 봉쇄이론, 사회유대이론, 일반이론에서 강조하는 자아의 측면은 ‘합리적 판단력을 가진 유능한 개인으로의 성향’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면, ‘재통합적 수치심’에서 강조하는 자아의 측면은 주변을 의식하

- 1) 자아개념이 일탈의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다만 자아개념과 일탈간 관계에서 일탈의 원인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탈의 결과라는 측면을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 참고로 Resenberg & Rosenberg(1978)는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비행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다고 했으며, Leung & Lau(1989)는 비행의 결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Wells & Rankin(1983)도 비행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2)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확인하고 실현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전에 확인된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위노선을 정하게 되고 그 결과 정체성의 확인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실현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한 과정은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의 개념에 함축되어 있으며, 낙인의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종종 이용되는 것이다(Wells, 1978, p.199). 이런 점에서 낙인론적 접근방식에서 상정하는 자아개념과 일탈과의 관계도 자아개념의 동기화 기능을 강조한 것으로 포괄 할 수 있다.

여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즉 주위사람에 비친 나의 자아(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 한편 비행하위문화론에서는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실패하거나 낙오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실패자 낙오자라는 느낌과 생각을 강조하는 측면이 엿보인다면, 낙인이론에서는 자신을 범죄자나 비행소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자아개념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총체적인 단일개념으로서의 자아개념보다는 여러 차원의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기존연구

기존의 경험적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비행소년들의 자아개념 정도가 일반소년들 보다 낮은가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한 부류는 자아개념이 비행의 원인인가 하는 연구이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보면 비행소년들의 자아개념 수준이 일반소년들의 자아개념보다 낮다는 연구결과(Evans, Levy, Sllenger & Vyas, 1991; Lau & Leung, 1992; Levy, 1997a, 1997b; Rose, Glaser & Roth, 1998; 김영길, 1967; 심응철, 최광현, 1986, 윤진, 장근영, 박윤창, 김도환, 1997)가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일반청소년의 자아개념 수준보다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Stanger, Chassin & Young, 1983; Wells & Rankin, 1983)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아개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가 모두 횡단적 연구라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비행을 저지른 소년과 아직 저지르지 않은 소년들을 비교한 연구라는 점에서 비행행위 참여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비행행위여부와 자아개념정

도가 제3의 공동원인의 결과로서 둘 간의 관계가 허위관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류의 연구 즉 자아개념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결과는 앞서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서의 자아개념의 중요성과 그 이론적 타당성이나 명백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낮은 자아개념이 비행에 개입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Kaplan, 1975, 1980, 1982; Kaplan, Johnson & Bailey, 1986; Leung & Drasgow, 1986; Rosenberg & Rosenberg, 1978; 윤진 등, 1997)도 있지만, 자아개념과 비행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Bynner, O'Malley & Bachman, 1981; McCarthy & Hoge, 1984; Stanger, Chassin & Young, 1983; Wells & Rankin, 1983)도 있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는 자아개념과 청소년비행간의 관계가 자아개념의 차원에 따라 다르거나 심지어는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연구결과(김하연 등, 1991; 이은주, 2000)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의 불일치성과 모호성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횡단적 연구방법, 자아개념의 다차원성(복잡성), 비행의 다양성이 그것이다.

먼저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아개념이 비행의 원인일수도 있지만 결과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횡단적 연구방법은 비행의 원인으로서의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일정한 한계점을 지닌다. 즉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가 가지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 때문에 변인간의 시간적 순서를 밝힐 수 없는 횡단적 연구의 한계점은 더욱더 커지게 마련이다. 또한 아울러 둘 사이의 관계가 의사관계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수행된 경험적 연구의 상당수가 자아개념이 가지는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아개념을 일차원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Wells(1978)는 일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필수적인 설명요소로서 자아개념에 의존하였지만, 실제로 자아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스스로없이 일정한 틀을 갖추지 않고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Wells, 1978. p.189). 즉 비행연구에 있어서 자아개념은 구체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자아개념을 분리가능하고 구분가능한 것의 역동적인 조합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단일차원의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자아개념은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것이다(Lau & Leung, 1992; Leung & Lau, 1989; Levy, 1997a, 1997b; Rose, Glaser & Roth, 1998; Rosenberg & Rosenberg, 1978; 김영길, 1967; 김하연 등, 1991; 이은주, 2000). 따라서 비행연구에 있어서는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보다는 Stryker(1968)가 주장했듯이 자아개념의 어떤 종류(차원)의 변화가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가에 관한 문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차원적인 자아개념을 이용하여 비행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자아개념의 차원에 따라서 비행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³⁾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경험연구결과의 모호성을 밝힐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비행의 다양성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비행이든 범죄든 그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경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구분이 필요하다. 사실 비행이나 범죄는 단일한 현상이

3) 일부 자아개념의 차원에 따라서 비행과의 관계가 이론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나타난 연구결과로는 Leung & Lau(1989), Rosenberg & Rosenberg(1978), 김하연 등(1991), 이은주(2000) 등이 있다.

아니며 모든 유형의 비행에 대해서 원인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Reiss(1952)의 주장은 말할 것도 없고, Lindesmith & Strauss(1968)가 주장했듯이 자아개념은 모든 행동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개념을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듯이 비행의 개념도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은 그 성격에 있어서 판이한 행위들이 단지 법률위반 행위 또는 규범 위반 행위라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비행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종속변인으로 분석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관계의 일반화나 설명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흐리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자아개념과 비행의 관계 역시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될 자료가 횡단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기존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아개념의 다차원성과 비행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자아개념의 세 차원과 청소년 비행의 각 유형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자아의 다차원성을 수용하고 비행과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본 연구가 최초의 연구는 아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몇 개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의 척도는 Fitt(1969)의 척도나 Marsh(1983)의 척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척도는 기존의 청소년비행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개념의 지표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환경과 행동을 연결하는 중간수준의 변인으로서의 자아개념의 의미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고양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차단이라고 하는 대책마련에 있어서 그 구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비행에서 주장하는 자아개념의 의미와 부합하는 척도를 중심으로 자아개념의 척도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변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자료를 이용하게 적절하게 변인을 구성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변인은 자아개념변인, 비행변인, 기타변인으로 이루어진다. 변인의 구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개념변인의 경우 패널조사에 포함된 자아관에 관련된 설문 중 15개 문항을 추출하여 이들 항목이 각각 어떤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개 자아관련 측정항목은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요인에 포함된 항목은 본인 스스로든 주위사람들이든 자신을 문제아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일탈적 자아’로 명명하였으며, 제2요인에 포함된 항목은 자신에 대한 신뢰나 자신감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확신 자아’로 명명하였으며, 제3요인에 포함된 항목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거나 쓸모없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서 ‘도덕적 사회적 자아’로 명명하였고, 제4요인에 포함된 항목은 자신이 유능하고 성격이 좋고 가치있는 존재라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자질·능력관련 자아’로 명명하였으며, 제5요인에 포함된 항목은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창피함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주위로부터의 나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들로서 ‘주위평가관련 자아’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다섯 개 차원의 척도가 과연 신뢰할만치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순서대로 Cronhach's Alpha 값을 보면 .802, .753, .882, .838, .825로서 척도로서 충분히 신뢰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개념의 차원 구분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보여준 자아개념에 대한 각 이론의 입장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일탈적 자아’는 낙인론, ‘도덕적 사회적 자아’는 비행하위문화이론, ‘자기확신 자아’와 ‘자질·능력관련 자아’는 통제론, ‘주위평가관련 자아’는 재통합적 수치심 등과 강하게 또는 약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자아개념에 대한 요인분석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commu nality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906	.037	.057	.055	-.058	.832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889	.062	.105	.058	-.056	.812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867	.032	.184	.071	-.010	.791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671	.086	.449	.096	.009	.668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058	.863	.045	.160	-.005	.775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037	.842	.051	.179	-.004	.746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062	.802	.068	.186	.055	.690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56	.078	.824	.089	-.072	.702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86	-.051	.781	.049	-.102	.661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41	.148	.748	.136	-.041	.660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59	.261	.072	.830	.014	.766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57	.057	.089	.807	.005	.666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0	.286	.126	.794	.033	.741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할 것이다.	-.120	.020	-.064	.016	.921	.867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023	.021	-.123	.027	.920	.864
eigen value	4.344	2.627	1.725	1.362	1.183	

다음은 비행변인으로 본 조사에서는 총 14종의 비행에 대하여 그 경험여부와 횟수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9개 비행을 선정하여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지위비행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경험 등을 포함하였으며, 폭력비행에는 폭행(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패싸움, 협박 등을 포함하였으며, 재산비행에는 뺑뜨기(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 절도(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등을 포함하였다. 비행정도는 횟수보다는 경험여부를 측정한 항목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경험이 없으면 1점, 한 가지 경험이 있으면 2점, 두 가지 경험이 있으면 3점하는 식으로 부여하였다. 비행의 횟수도 의미가 있지만, 조사대상자가 중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횟수보다는 경험여부가 비행정도를 측정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기타변인으로서는 성별, 월소득, 학교성적, 비행친구 등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함시켰는데, 학교성적은 (반등수/반인원)×100으로 하였으며, 비행친구는 친한 친구중 학교에서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와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는 친구의 수를 합하였다.

IV. 분석결과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자들의 자아개념 정도와 비행정도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2>, <표 3>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자아개념에 대한 기술적 분석

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범위
자질· 능력 관련 자아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0 (.85)	3.11 (.74)	1-5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4 (.88)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29 (.91)		
도덕적 사회적 자아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16 (1.03)	3.21 (.83)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04 (1.01)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43 (1.01)		
일탈적 자아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3.88 (.96)	4.20 (.75)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4.31 (.81)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4.23 (.89)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4.38 (.80)		
주위평가 관련 자아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할 것이다.	2.92 (1.15)	3.04 (1.05)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	3.17 (1.11)		
자기확신 자아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3.43 (.85)	3.46 (.74)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3.51 (.85)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3.45 (.86)		

주 :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차원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인임.

소년들의 자아개념 점수는 5점 만점에서 5가지 차원 모두 평균값

이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탈적 자아점수가 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주위평가관련 자아점수가 3.04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행정도(<표 3>)를 살펴보면, 개별비행을 보면 음주의 경험정도가 30.6%로 가장 높고, 가출의 경험이 4.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네 가지 비행 중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5.8%였고, 폭력비행의 경우에는 13.9%, 재산비행의 경우에는 10.3%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비행정도

비행별 경험여부			비행유형별 경험정도	
구분		인원(비율)	구분	인원(비율)
흡연	없다	2991 (86.7)	지위비행	2215 (64.2)
	있다	458 (13.3)		
음주	없다	2392 (69.4)		
	있다	1057 (30.6)		
무단결석	없다	3282 (95.2)		
	있다	167(4.8)		
가출	없다	3310 (96.0)		
	있다	139 (4.0)		
폭행	없다	3138 (91.0)	폭력비행	2971 (86.1)
	있다	311 (9.0)		
패싸움	없다	3262 (94.6)		
	있다	187 (5.4)		
협박	없다	3301 (95.7)		
	있다	148 (4.3)		
뺑뜯기	없다	3260 (94.5)	재산비행	3093 (89.7)
	있다	189 (5.5)		
절도	없다	3210 (93.1)		
	있다	239 (6.9)		

자아개념의 각 차원별로 자아개념의 정도에 따른 비행정도를 살펴 보면 <표 4>와 같다. 먼저 ‘자질·능력관련 자아’의 정도에 따라서 비행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자아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비행의 정도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자아정도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되지는 않거나 (지위비행, 재산비행),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과(폭력비행)를 보이기도 한다.

‘도덕적 사회적 자아’와 ‘일탈적 자아’의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의 비행정도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후검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앞서 살핀 ‘자질·능력관련 자아’와는 다른 점이다.

‘주위평가관련 자아’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재산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이론적 기대와는 오히려 반대방향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자기확신 자아’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지위비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폭력비행의 정도에서는 반대방향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재산비행에서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4> 자아개념의 정도에 따른 비행정도의 차이

자아개념의 정도		유형별 비행정도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자질 · 능력 관련 자아	상(3)	1.48	1.20	1.12
	중(2)	1.50	1.17	1.11
	하(1)	1.67	1.24	1.16
	F값	11.436***	4.768**	3.285*
	사후검증	32, 1	32, 31	32, 1
도덕적 사회적 자아	상	1.32	1.10	1.06
	중	1.50	1.17	1.12
	하	1.77	1.29	1.18
	F값	43.002***	20.834***	12.682***
	사후검증	3, 2, 1	3, 2, 1	3, 2, 1
일탈적 자아	상	1.29	1.08	1.06
	중	1.49	1.16	1.10
	하	2.16	1.53	1.35
	F값	187.732***	134.109***	102.909***
	사후검증	3, 2, 1	3, 2, 1	3, 2, 1
주위평가 관련 자아	상	1.49	1.28	1.14
	중	1.56	1.18	1.13
	하	1.46	1.18	1.11
	F값	5.289**	6.751**	1.410
	사후검증	31, 23	3, 2, 1	
자기확신 자아	상	1.51	1.26	1.13
	중	1.52	1.18	1.11
	하	1.59	1.17	1.19
	F값	1.502	4.485*	9.043***
	사후검증		3, 12	32, 1

* P<.05, ** P<.01, *** P<.001

요약하면, ‘도덕적 사회적 자아’와 ‘일탈적 자아’는 모든 비행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서 자아정도에 따른 비행정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자질 · 능력관련 자아’는 모든 비행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 방향이 반드시 이론적 기대에 맞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주위평가관련 자아’와 ‘자기확신 자아’의 경우

에는 일부 유형의 비행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방향 또한 이론적 기대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의 다차원성과 비행 유형을 고려하는 연구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의 각 차원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표 5>는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몇 가지 통제변인을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5>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별	.145 ***	-.086 ***	.045 *
월소득	.006	.021	.026
학교성적	.136 ***	.044 *	.069 ***
비행친구	.246 ***	.221 ***	.155 ***
자질 · 능력관련 자아	.004	.011	.030
도덕적 사회적 자아	-.044 *	-.027	.000
일탈적 자아	-.245 ***	-.195 ***	-.196 ***
주위평가관련 자아	-.007	.021	-.003
자기확신 자아	.053 **	.036	-.033
R-square	.214 ***	.132 ***	.092 ***

* P<.05, ** P<.01, *** P<.001

먼저 지위비행에 대한 자아개념의 영향을 살펴보면, ‘도덕적 사회적 자아’와 ‘일탈적 자아’, ‘자기확신 자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나머지 두 가지 차원의 자아는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탈적 자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스로의 낙인이든 주변의 낙인이든 자신을 비행소년 또는 문제아라고 인식하게 될 경우에 지위비행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지위비행의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덕적 사회적 자아’의 경우에도 일탈적 자아만큼의 영향력은 안되지만, 자신을 실패자 낙오자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지위비행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기확신 자아’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즉 자기 확신 자기 신뢰의 정도가 강할수록 오히려 지위비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비행을 차단할 것이라는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오히려 비행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의 경우에는 5가지 차원 자아 중에서 ‘일탈적 자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가지 차원의 자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세 가지 차원의 자아개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폭력비행과 재산비행의 경우에는 ‘일탈적 자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의 차원과 비행 유형에 따라서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는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유의미한 경우에도 관계의 방향이 이론적 기대와는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아개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지위비행에서는 높고, 폭력비행이나 재산비행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긍정적 자아개념이 비행을 차단한다는 입장보다는 부정적 자아개념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입장 특히 그

중에서도 학교 등에서의 실패 등으로 형성된 부정적 자아개념보다도, 스스로든 주변사람들에 의한 것이든 낙인으로 인하여 형성될 수 있는 자신이 문제아 비행소년이라는 인식이 비행을 유발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행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자아의 고양보다는 부정적 자아의 최소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하여 자아개념의 다차원성과 비행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그를 통하여 자아개념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보다는 구체화된 설명이 필요하며, 그것이 타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자아개념을 통한 비행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자아개념의 고양보다는 부정적 자아개념의 최소화가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방차원의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대한 지적과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료의 한계점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가 가지는 특성상 횡단적 자료를 통한 분석이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종단적 자료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둘째, 자아개념은 그것이 가지는 다차원성과 아울러 그러한 차원의 역동적 조합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자아개념의 여러 차원들간의 상호작용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각각의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아개념을 통제한 상태

에서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자아개념과의 결합효과를 보여줌으로서 각각의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머리말에서도 지적했듯이 자아개념은 환경과 행동의 중간수준에 위치하면서 그 양자를 연결하는 의미있는 변인이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의미있고 포괄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을 포함하여, 환경, 자아개념, 비행이라는 과정을 종합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길(1967). '정상소년 집단과 비행소년 집단에 대한 자아개념의 비교연구.' 교육학연구, 제5권 제1호.
- 김하연·오경자·윤진(1991). '청소년의 자아개념·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및 비행간의 상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4권 제1호.
- 심응철·최광현(1986).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연구.' 행동과학연구, 제8권.
- 윤진·장근영·박윤창·김도환(1997). '비행개입수준에 따른 자아개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0권 1호.
- 이은주(2000).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 Braithwaite, J.(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ynner, j., O'Malley, P., & Bachman, J.(1981). Self-esteem and delinquency revisite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0, pp. 407-441.
- Cohen, A. (1955). Delinquent Boys. Glencoe, IL: The Free Press.
- Evans, R. C., Levy, L., Sllenverger, T., & Vyas, A.(1991).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The on-going debate.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 14, pp. 59-74.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plan, H.(1975). Increase in self rejection as an antecedent of

- deviant respon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4, pp. 281-292.
- Kaplan, H.(1977). Increase in self rejection and continuing discontinued deviant respons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6, pp. 77-88.
- Kaplan, H.(1978). Deviant behavior and self-enhance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7, pp. 253-277
- Kaplan, H.(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ce of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 Lau, S., & Leung, K.(1992). Relations with parents and school and Chinese adolescents' self concept, delinquency and academic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2 No.2, pp.193-202.
- Lemert, E.(1951). *Social Pathology*. New York: McGraw-Hill.
- Leung, K., & Drasgow, F.(1986).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linquent behavior in three ethnic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17, pp.151-167.
- Leung, K., & Lau, S.(1989).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n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8, pp. 345-359.
- Levy, K. St.(1997a). The contribution of self-concept in the etiology of adolescent delinquency, *Adolescence*, Vol. 32. pp. 671-686.
- Levy, K. St.(1997b). Multifactorial self-concept and delinquency in Australian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7, pp. 277-283.

- Lindesmith, A., & Strauss, A.(1968).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MaCarthy, J., & Hoge, D.(1984). The dynamic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pp. 393-410.
- Matsueda, R. L.(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 pp. 489-504.
- Reckless, W. G., Dinitz, S., & Murray, E.(1956). Self concept as an insulator against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744-746.
- Reckless, W. G., Dinitz, S., & Kay, B.(1957). The self concept in potential delinquency and potential non-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2, pp. 566-570.
- Reiss, A. J.(1952). Social correlates of psychological types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17, pp. 710-780
- Rose, C., Glaser, B., & Roth, E.(1998). Elevation and deflation in self-concept level among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 27, pp. 107-122.
- Rosenberg, R., & Rosenberg, M.(1978). Self 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7, pp. 279-291.
- Stanger, S., Chassin, L., & Young, R.(1983). Determinants of self-esteem among labeled adolescen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6, pp. 3-10.
- Stryker, S.(1968). Identity salience and role performance: the relevance of symbolic interaction theory for family research,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0, pp. 558-564.
- Wells, E.(1978). Theories of deviance and the self concept, Social Psychology, Vol. 41, pp. 189-204.
- Wells, E., & Rankin, J.(1983). Self concept as a mediating factor in delinquenc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6, pp. 11-22.
- Wiatroski, M. D., Grisward, D. B., & Robert, M. R.(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6, pp. 525-541.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정익중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문제제기

청소년비행 관련 공식자료인 대검찰청 청소년범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범죄의 대부분을 남자청소년이 차지해 실제 청소년비행은 남자 청소년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성별로 분리해 청소년범죄자의 점유율 증감을 분석해 보면 상이한 경향성을 알 수 있다. 청소년범죄자에서 남자청소년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되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범죄의 발생추이는 1997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자 청소년범죄자의 절대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1994년에 6.2%이던 여자 청소년범죄자비율이 2002년에 16.6%로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문화관광부, 2003). 이렇게 공식기관에 보고된 범죄가 아닌 사소한 비행을 포함한 적발되지 않은 암수(dark number)까지 포함한다면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심각하리라 예상된다. 여자청소년비행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비행은 더 이상 남자청소년만의 문제로만 간주하기 어렵다.

청소년비행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주로 남자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Chesney-Lind, 1989). 이러한 이론들의 여자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제까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들도 비행을 주로 일으키는 남자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이론과 연구에 기반하여 남자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요인 및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을 현재 증가하고 있는 여자 비행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유성경, 2002). 이제까지 비행에 대한 개입전략이 주로 남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이론 및 기법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자청소년 비행율의 급증 경향은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특성 및 이를 고려한 개입전략들이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자청소년 비행의 특수성을 포함한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연구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왜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사이의 비행 경험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보다 비행을 적게 일으키고 있는지 둘째, 청소년비행을 일으키는 요인에 있어 성별로 상이한지 유사한지에 대한 것이다. 첫째 질문은 비행의 성비(gender ratio) 문제이고 둘째 질문은 비행의 일반화 문제이다(Daly & Chesney-Lind, 1988). 이 두 가지 연구문제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후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첫째, 청소년패널의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사이의 비행 경험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둘째,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비행은 남자의 영역이라는 가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분석 방법처럼 남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비행연구를 하거나 여자청소년의 비행문제를 남자청소년 비행 속에 포함시켜 성별이라는 변수를 주된 독립변수로 간주하기보다는 통제변수의 일부로만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비행의 성별 차이 문제를 희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에서의 성별 차이를 검증하고 청소년복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를 추론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성별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비행에서의 성별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남자 비행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만이 비행 프로그램의 전부인양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자청소년에게 적합한 비행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특히 일반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도 남자청소년의 비행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은 남자청소년과 달리 독특할 것이라는 입장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도 남자청소년의 비행원인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입각하여 남자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비행이론들을 여자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그 원인을 발견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비행이론인 사회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자기통제이론 등에 근거하여 부모의 모니터링, 부모와의 애착, 학업성취, 비행또래집단과의 접촉, 공격성 등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면 권력통제이론 등에서는 기존의 남자 청소년비행을 설명하고자 했던 논의와 달리 성역할사회화와 같은 여자청소년의 비행만을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요인을 발견하고자 시도하였다. Hagan의 권력통

제이론은 비행의 성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페미니즘이론, 갈등이론, 통제이론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구성한 이론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행차이를 가족구조(가부장적, 평등주의적)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이론이다(이성식·전신현, 2001). 남자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교육받고, 여자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교육받게 되는데, 특히 평등주의적 가정보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가부장적 가정의 경우 남녀간의 비행의 차이가 크며, 평등주의적 가정일수록 그 차이가 적다.

권력통제이론은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차별적 감독과 통제 때문에 남녀의 비행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Hagan, Gillis, & Simpson, 1985; Hagan, Simpson, & Gillis, 1987). 즉 여자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철저한 감독과 통제를 받아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들보다는 비행의 가능성이 낮다. 또한 남자청소년들은 보다 강인하게 키워지고 용감성을 내면화하게 되지만, 부모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자라나는 여자청소년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키워진다. 이러한 여자청소년들은 처벌의 위협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도 상대적으로 비행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권력통제이론은 이렇게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으로 가정에서의 감독과 통제여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제이론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과 다른 요인에 의해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가출, 비행으로 이어지는 비행의 주요한 위험요인이다(Artz, 1998). 여자청소년들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Maccoby, 1986) 남자청소년보다 가족갈등, 훈육 등과 같은 가족 위험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Dornfeld & Kruttschnitt, 1992; Funk, 1999). 또한 남자청소년에게는 부모와의 애착이 비행과 관계가 없었지만 여자청소년은 부모와의 낮은 애착이 비행과 연결되었다(Fagot &

Kavanagh, 1990). 사회적인 관계가 붕괴되었을 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남자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서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유성경, 2002; 김성경, 2003; Brezina, 1998; Funk, 1999). 일반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는 청소년비행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여자청소년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Rankin, 1980). 자아존중감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을 유발하고 높은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한다(Jang & Thornberry, 1998). 반면 남자청소년에게 높은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을 높여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여 비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Heimer, 1995).

최근의 여성 범죄 및 비행율의 증가를 여성이 보다 남성적인 특성을 채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다(Hien & Hien, 1998).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에서 탈피하고 성역할태도에 변화를 가져와 남성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던 비행이나 범죄에 여성들이 가담하게 되었고,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사회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범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이에 여성범죄의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자청소년 비행의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변수인 성역할 태도를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예컨대 여성은 집안 살림과 자녀양육, 남성은 직장 등 사회진출이라는 전통적 성역할을 여자청소년들이 얼마나 수용하는가에 따라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인데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갖는 여자청소년은 비행 가능성이 낮지만 그렇지 않은 여자청소년은 비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Heimer, 1996). 하지만 남자는 지배해야 하고 여자는 순종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은 여자청소년의 이성관계에 영향을 주어 이성과의 학대적인 관계에 쉽게 노

출되도록 하여 비행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권력통제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여자청소년을 감독하고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한다고 보았지만, 부모의 지나친 감독과 간섭, 통제는 반대로 여자청소년에게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여자청소년들의 사소한 잘못은 심각한 행동으로 간주되거나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반항할 때 엄한 처벌을 부여한다(Block, 1984; Bursik, Merten, & Schwartz, 1985; Kavanagh & Hops, 1994). 이러한 여자청소년들은 가족에 불만을 갖게 되며, 집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정환경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심지어 가출을 하여 다양한 비행기회에 노출되게 됨으로써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Chesney-Lind & Sheldon, 1998). 대부분의 여자 비행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고 가정에서의 불만이나 부모와의 애정이 크게 약화되어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Chesney-Lind, 1997; Chesney-Lind & Sheldon, 1998; Gilfus, 1992).

성별에 따라 다른 위험요인이 작용하여 비행을 하게 된다는 연구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청소년은 비행을 남자다움이라고 간주하는 문화 속에서 사회화되고 여자청소년은 그 반대로 길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자라난 여자청소년은 내재화된 성별 규범을 가지게 되고 이 규범이 비행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성인들은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관대한데 반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둘째, 사회적 통제가 성별로 다르게 부여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귀가시간이 엄격하게 주어지고, 그들의 활동이 더 엄격하게 지도감독되는 경우가 많다(Belknap, 1996; Gilligan, Ward, Taylor, & Bardige, 1988; Hagan, Gillis, & Simpson, 1988). 셋째, 여자청소년은

주된 생활공간이 집이나 학교인 경우가 많은데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여자청소년들보다 생활환경의 반경이 더 넓기 때문에 비행의 기회에 있어 남자청소년이 더 많다. 또한 여자청소년은 부모와 친구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는데 반해 남자청소년은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길다 (Siegel & Senna, 1994; Montemayor, 1982). 이러한 기회측면에서의 차이가 비행의 성별 차이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한국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III. 주요 측정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관련 요인, 가족관련 요인,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변수에 포함된 문항들의 측정방식은 대부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변수별 산정방식은 변수에 포함된 최소 2개에서 최대 8개의 각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변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그 외에 학업성취 변수는 청소년들 자신이 보고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에서의 반 성적을 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객관적인 성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인지된 학업성취를 의미한다. 비행또래집단 변수는 매우 친한 친구들 중에 몇 명 정도가 8개의 비행과 관련되는지를 0(한명도 없음)과 1(모두 관련됨)사이의 점수로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여 도출하였다. 각 변수들의 문항수와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각 변수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표 1>에서 제시하였다. 전반적인 신뢰도 계수는 학교애착심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신뢰도는 크

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독립변수의 측정내용

구분		문항수	신뢰도
개인관련 요인	성역할고정관념	6	.71
	자아존중감	5	.72
	공격성	6	.77
가족관련 요인	부모 모니터링	4	.85
	부모와의 애착	6	.86
	부모의 학대	2	.76
	가족 갈등	2	.75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	학업성취	5	.79
	학교애착심	5	.61
	비행 또래집단	8	.82

종속변수는 비행척도 4가지를 사용하였다. 일반 비행 14가지와 인터넷 관련 비행 6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다양성 (variety measure) 척도와 빈도 (frequency measure)를 구성하였다. 다양성 척도는 20가지 비행을 모두 다 경험했으면 20점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0점을 갖도록 구성하였다. 빈도 척도는 각 비행의 경험빈도를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비행의 심각도를 반영하기 위해 폭행, 패싸움, 갈취, 절도, 원조교제, 협박, 성폭력 등 7개의 비행만으로 심각한 비행다양성 척도와 심각한 비행빈도 척도를 구성하였다.

IV. 연구결과

1. 비행경험의 성별 차이

여자청소년의 전체적인 비행경험을 살펴보면 <표 2>, 22.3%는 전

혀 비행경험이 없고 77.7%가 20가지의 비행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82.2%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들은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갈취, 절도, 원조교제, 집단따돌림, 성폭력, 채팅시 성·나이 속임 등 20가지 비행 중 9개에서 남자청소년보다 경험자수가 더 많았다. 그 중 음주, 무단결석, 원조교제, 집단따돌림, 채팅 시 성·나이 속임 등은 여자청소년의 경험자수가 더 많다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나 무단결석이 여자청소년에게 더 많다는 것은 차후 설명을 요하는 특이한 결과로 생각된다. 남자청소년들은 폭행, 패싸움, 조소·조롱, 협박, 인터넷 허위정보 유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ID 무단사용, 웹사이트 해킹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자청소년들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행경험 유무에 있어 성별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성별에 따른 비행경험 유무

	여자 경험자수 (%)	남자 경험자수 (%)	χ^2 value
흡연	236 (13.7)	222 (12.9)	.50
음주	675 (39.2)	382 (22.1)	117.36***
무단결석	97 (5.6)	70 (4.1)	4.60*
가출	69 (4.0)	70 (4.1)	.01
성경험	16 (0.9)	22 (1.3)	.95
폭행 +	96 (5.6)	214 (12.4)	49.28***
패싸움 +	80 (4.6)	107 (6.2)	4.11*
갈취 +	106 (6.1)	83 (4.8)	2.98
절도 +	129 (7.5)	110 (6.4)	1.64
원조교제 +	5 (0.3)	0 (0.0)	5.01*
조소·조롱	164 (9.5)	348 (20.2)	77.53***
협박 +	54 (3.1)	94 (5.4)	11.27***
집단따돌림	309 (17.9)	180 (10.4)	39.74***
성폭력 +	7 (0.4)	4 (0.2)	.82
인터넷 허위정보 유포	44 (2.6)	82 (4.8)	11.8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386 (22.4)	702 (40.7)	133.81***
ID 무단사용	379 (22.0)	443 (25.7)	6.49*
채팅시 성·나이 속임	606 (35.2)	552 (32.0)	3.84*
웹사이트 해킹	67 (3.9)	152 (8.8)	35.18***
채팅시 욕설·폭언	717 (41.6)	736 (42.7)	.41
적어도 한 개 비행 경험	1339 (77.7)	1418 (82.2)	11.06***

+ 심각도가 높은 비행

* $p<.05$, ** $p<.01$, *** $p<.001$

비행경험 빈도 면에서도 <표 3> 여자청소년들은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갈취, 절도, 원조교제, 집단따돌림 등 20가지 비행 중 8가지에서 남자청소년보다 더 빈번하게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중 음주, 절도, 원조교제 만이 여자청소년의 비행 빈도가 더 높다는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청소년들은 폭행, 조소·조롱, 협박,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ID 무단사용, 채팅시 성·나이 속임, 웹사이트 해킹, 채팅시 폭언·욕설 등 8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자청소년보다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관련 범죄를 제외하면 경험 빈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성별에 따른 비행경험 빈도 차이

	여자 평균 (표준편차)	남자 평균 (표준편차)	t value
흡연	1.02 (6.26)	.84 (5.65)	1.88
음주	1.80 (5.47)	.92 (3.41)	5.63***
무단결석	.33 (3.24)	.16 (2.06)	-1.83
가출	.08 (.51)	.07 (.45)	-.47
성경험	.03 (.30)	.03 (.35)	.73
폭행 +	.19 (2.53)	.51 (4.17)	2.73**
패싸움 +	.08 (.51)	.12 (.65)	1.85
갈취 +	.37 (3.43)	.25 (3.12)	-1.04
절도 +	.31 (2.28)	.18 (1.48)	-2.06*
원조교제 +	.01 (.16)	.00 (.00)	-1.99*
조소·조롱	.66 (5.70)	1.80 (10.16)	4.04***
협박 +	.12 (1.53)	.29 (3.17)	-1.98*
집단따돌림	.36 (1.55)	.35 (4.12)	-.04
성폭력 +	.01 (.22)	.01 (.14)	-.92
인터넷 허위정보 유포	.10 (1.25)	.22 (2.18)	1.9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1.13 (5.57)	5.26 (15.85)	10.14***
ID 무단사용	.68 (3.25)	1.52 (7.18)	4.42***
채팅시 성·나이 속임	1.42 (4.49)	2.11 (8.68)	2.91**
웹사이트 해킹	.13 (1.46)	.42 (2.64)	3.97***
채팅시 욕설·폭언	3.20 (11.64)	6.18 (18.08)	5.68***

+ 심각도가 높은 비행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각 비행행동을 요약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 먼저 얼마나 많은 비행 종류를 경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성 척도(variety measure)를 살펴보았는데 남자청소년이 2.65개의 비행종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은 2.46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둘의 차이는 .05의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7개의 심각도가 높은 비행은 얼마나

많은 종류를 경험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은 0.35개, 여자 청소년은 0.28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비행을 얼마나 많은 빈도로 저지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빈도 척도 (frequency measure)를 살펴보았는데 남자청소년은 평균적으로 20.95회를 저지르고 여자청소년은 12.00회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심각한 비행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남자청소년이 좀 더 많은 횟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별 차이는 심각한 비행영역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반해(Smith & McAra, 2004) 본 연구의 결과는 심각한 비행빈도 측면에서 성별 차이가 사라졌다.

<표 4> 성별에 따른 비행척도 차이

	여자 평균 (표준편차)	남자 평균 (표준편차)	t value
비행다양성정도	2.46 (2.48)	2.65 (2.38)	2.30*
심각한 비행다양성정도	.28 (.76)	.35 (.77)	3.00**
비행빈도	12.00 (28.05)	20.95 (41.20)	7.46***
심각한 비행빈도	1.09 (6.27)	1.35 (9.23)	.97

* $p < .05$, ** $p < .01$, *** $p < .001$

2. 비행 예측요인의 성별 차이

성별에 따라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각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성역할 고정관념, 자아존중감, 공격성), 가족관련 요인(부모 모니터링, 부모와의 애착, 부모의 학대, 가족갈등),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학업성취, 학교애착심, 비행또래집단)을 모두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5, 6>.

먼저 종속변수로 비행다양성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표 5> 성별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개인적 요인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공격성, 가족관련 요인인 부모의 학대,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인 학업성취, 학교애착심, 비행또래집단과의 교류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결과는 기존연구들과 일치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과 부모의 학대경험에 대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청소년에게는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남자청소년에게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이 여자청소년에게만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비행다양성 정도 예측요인의 차이⁺

	비행다양성정도		심각한 비행다양성정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성역할고정관념	.21**	.22*	.18*	.03
자아존중감	.02	.07***	-.03	.05*
공격성	.24***	.21***	.15***	.19***
부모 모니터링	-.05*	-.03	-.03	-.05
부모와의 애착	.02	-.01	.02	-.01
부모의 학대	.10***	.12***	.13***	.06*
가족 갈등	.04	.01	-.00	-.01
학업성취	-.17*	-.18*	-.13	-.03
학교애착심	-.11***	-.13***	-.03	.08***
비행 또래집단	.42***	.36***	.44***	.37***
Adjusted R square	.41	.30	.32	.24

* p<.05, ** p<.01, *** p<.001

+ 각 셀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

여자청소년의 비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족관련 요인인 부모 모니터링이 있었는데, 부모 모니터링이 있을 경우 여자청소년의

비행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자아존중감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라는 변수는 비행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 즉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Owens, 1994),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비행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각한 비행다양성 정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표 5> 비행다양성 정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지만 비행다양성 정도보다 변량이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수의 개수도 감소하였고 R square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공격성, 부모의 학대, 비행 또래집단은 성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남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자아존중감은 일관되게 남자청소년에게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비행빈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표 6> 개인적 요인 중 공격성, 가족관련 요인 중 부모의 학대,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 중 학교애착심과 비행또래집단이 성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었고, 남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개인적 요인 중 성역할 고정관념과 자아존중감, 학교 및 또래집단관련 요인 중 학업성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비행빈도 예측요인의 차이⁺

	비행빈도		심각한 비행빈도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성역할고정관념	.08	.22*	.14	.01
자아존중감	.03	.10***	-.01	.05
공격성	.18***	.12***	.10***	.14***
부모 모니터링	-.01	-.02	-.02	-.01
부모와의 애착	.03	-.02	.00	-.05
부모의 학대	.08**	.09***	.14***	.02
가족 갈등	-.00	-.03	-.04	.01
학업성취	-.03	-.20*	-.10	-.01
학교애착심	-.05*	-.12***	.01	-.04
비행 또래집단	.32***	.20***	.27***	.15***
Adjusted R square	.20	.11	.14	.06

* p<.05, ** p<.01, *** p<.001

+ 각 셀의 값은 표준화 회귀계수

마지막으로 심각한 비행빈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 <표 6> 비행빈도보다 변량이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수의 개수도, R square도 함께 감소하였다. 공격성과 비행또래집단은 비행빈도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영향을 주었고, 남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던 변수들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자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부모의 학대가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패널 내 중학교 2학년 여자청소년의 77.7%, 남자청소년의 82.2%가 20가지 종류의 비행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기보고식 비행경험에 있어서는 대검찰청의 청소년범죄 통계에서처럼 성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비행은 남자청소년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비행관련 프로그램에서 여자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비행관련 프로그램의 2.3%만이 여자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Chesney-Lind & Sheldon, 1998). 이는 남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여자 비행청소년에게도 성공적으로 잘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비행예측요인에 있어 공통요인이 많이 존재하여 여자청소년의 비행원인이 남자청소년의 비행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자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독특한 예측요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격성, 부모의 학대, 비행또래집단은 성별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공통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을 막기 위한 분노조절훈련(anger management training)이나 일시적 만족을 위한 충동적 행동을 자제시키는 자기통제훈련, 부모의 학대를 막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비행또래집단의 압력이나 동조의 영향을 막기 위한 거절기술훈련(social resistance skills training) 등이 성별과 관계없이 비행예방에 효과가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고 만약 외출을 하더라도 외부에서의 활동 중 많은 부분

이 부모에게 노출되어 모니터링될 경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성역할이 아닌 남녀평등 의식을 갖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과 같이 비행의 가능성이 높으며, 여자청소년의 행동을 통제하고 전통적 성역할을 고수하는 것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았던 기존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성식과 전신현(2001)의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을 통해 전통적 성역할이 강제되는 것이 여자청소년에게 불만과 긴장을 낳았고 이것이 비행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전통적 성역할은 불만과 긴장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들(Owens, 1994)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비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희화, 김정연, 2000; Mearthy & Hoge, 1984)로 미루어 볼 때 횡단적 자료를 가지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비행 간에 어떠한 모형의 인과관계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히 밝혀지도록 차후의 패널자료와 종단적 접근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각 성별에 적절한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횡단적 분석을 통해 쉽

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패널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본 연구의 횡단적 분석이 지닌 단점을 조금씩 보완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성경(2003).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청소년학 연구, 제 10권 제 4호, pp.487-510.
- 김희화·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제 5호, pp.15-24.
- 문화관광부(2003). 청소년백서.
- 유성경(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 16권 제 2호, pp. 201-217.
- 이성식, 전신현(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35권 제 5호, pp. 173-198.
- Artz, S.(1998). *Sex, power, and the violent school girl*. Toronto: Trifolium Books.
- Belknap, J.(1996).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lock, J.(1984). *Sex role identity and ego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rezina, T.(1998). Adolescent maltreatment and delinquency: The question of intervening proces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Vol. 35 No. 1, pp. 71-99.
- Bursik, R. J. Jr., Merten, D., Schwartz, G.(1985). Appropriate age-related behavior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dult perceptions. *Youth and Society*, Vol. 17 No. 2, pp. 115-130.
- Chesney-Lind, M.(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 of female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Vol. 35 Mo. 1, pp. 5-29.

- Chesney-Lind, M.(1997).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London: Sage.
- Chesney-Lind, M., & Sheldon, R. G.(1998). *Girls,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Belmont, CA: West/Wadsworth.
- Daly, K., & Chesney-Lind, M.(1988). Feminism and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Vol. 5 No. 4, pp. 497-538.
- Dornfeld, M., & Kruttschnitt, C.(1992). Do the stereotypes fit? Mapping gender-specific outcomes and risk factors. *Criminology*, Vol. 30 No. 3, pp. 397-419.
- Fagot, B. I., & Kavanagh, K.(1990). The prediction of antisocial behavior from avoid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Child Development*, Vol. 61, pp. 864-873.
- Funk, S.(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n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26 No. 1, pp. 44-68.
- Gilfus, M.(1992). From victims to survivors to offenders: Women's route of entry into street crime. *Women and Criminal Justice*, Vol. 4, pp. 63-89.
- Gilligan, C., Ward, J. V., Taylor, J. M. and Bardige, B.(1988). *Mapping the moral domain: A contribution of women's thinking to psychological theory and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gan, J., Gillis, A. R., & Simpson, J.(1985). The class structure of gender and delinquency: Toward a power-control theory of common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pp. 1151-1178.
- Hagan, J., Simpson, J. & Gillis, A. R.(1987). Class in household: A

-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2, pp. 788-816.
- Hagan, J., Simpson, J., Gillis, A. R.(1988). Feminist scholarship, relational and instrumental control, an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39 No. 3, pp. 301-336.
- Heimer, K.(1995). Gender, race, and pathways to delinquency. In J. Hagan & R. 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imer, K.(1996). Gender, interaction and delinquency: Testing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9 No. 3, pp. 9-61.
- Hien, D., & Hien, N. M.(1998). Women, violence with intimates, and substance abuse: Relevant theory, empirical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Vol. 24 No. 3, pp. 419-438.
- Jang, S. J., & Thornberry, T. R.(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3, pp.586-598.
- Kavanagh, K., & Hops, H.(1994). Good girls? Bad boys?: Gender and development as context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In T. H. Ollendick & R. J. Prinz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46-79) Vol 16. New York: Plenum.
- Maccoby, E. E.(1986). Social groupings in childhood: Their relationship to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ur in boys and girls. In Olweus, D., Block, J., & Radke-Yarrow (Eds).

-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ur: Research, theories, and issues*, (pp. 263-284) Orlando FA: Academic Press.
- Mecarthy, J. D. & Hoge, D. R.(1984). The dynamics of self-esteem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pp. 396-410.
- Montemayor, R.(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 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Vol. 53, pp. 1512 - 1519.
- Owens, T. J.(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9, pp. 391-407.
- Rankin, J. H. (1980). School factors and delinquency: Interaction by age and sex.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Vol. 64, pp. 42-434.
- Siegel, L. J., & Senna, J. J.(1994). *Juvenile delinquency: The theory, practice, and law*. (5th edition). St. Paul: West Publishing Company.
- Smith, D., & McAra, L.(2004). *Gender and youth offending*. Centre for Law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Edinburgh.